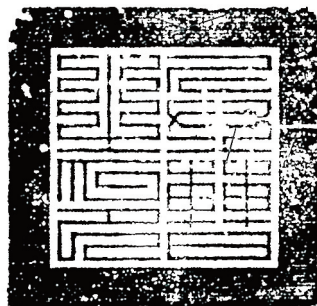


軍史

第 91 號
2014. 6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14. 6. 제91호

- | | | |
|-----|---|-----|
| 1 | 6·25전쟁 시 야전훈련사령부(FTC)의 창설과 역할 | 유성종 |
| 33 | 1952~1955년, 한국후방관구사령부 (KComZ)의 창설과 해체 | 이동원 |
| 63 | 북한의 도발사례 분석 | 이윤규 |
| 111 | 손원일 제독의 해군건설과 수군전통 계승활동
- 충무공 이순신 중심의 계승에 주목하여 - | 신성재 |
| 149 |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 전덕재 |
| 195 |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 김병희 |
| 229 | 고려 성종대 거란의 침략과 군사제도 개편 | 전경숙 |



軍史



- 261**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의 유형 전투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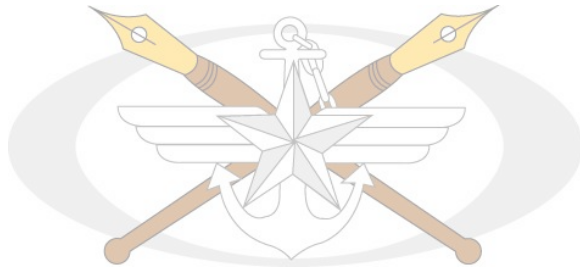
정완희·민승식
- 291** 1620년대 유럽의 국제정세와 북부 이탈리아
- 그리종(Grisons) 사태와 만토바 계승전쟁을 중심으로 -

임승휘
- 321** 자연법과 전쟁
- 후고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을 중심으로 -

김응중
- 347** 이라크 전쟁 중 미군의 군사혁신
-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타당성 검증을 중심으로 -

이병구

부 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소 동정 389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391 3. 『軍史』誌 투고안내 393 4. 연구윤리예규 396
------------	---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전쟁 시 야전훈련사령부(FTC)의 창설과 역할*

유성종**

1. 머리말
2. 전선의 소강과 한국군의 발전을 위한 고민
3. 야전훈련사령부의 창설과 운용
4.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 프로그램
5.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 결과
6. 결론 : 야전훈련사령부가 한국군에 미친 영향

1. 머리말

야전훈련사령부(Field Training Commands, 약칭 FTC)¹⁾는

* 이 논문은 저자의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석사학위 논문인 “6·25전쟁 시 미국의 전략과 야전훈련사령부에 대한 연구”중 야전훈련사령부에 관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제12보병사단 수색대대 중대장; 이메일 : heatice@army.mil(인트라넷), heatice@naver.com(인터넷); 논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심사를 해주신 네 명의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 야전훈련사령부의 영문 명칭은 Field Training Commands(약어 : FTC)이다. 한글 명은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과 저서를 참고하였다. 나중남 교수는 야전훈련사령부를

6·25전쟁 중 한국군 사단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51년 8월에 당시 미 8군사령관이었던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은 신속하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결정하고 전쟁에 참여하였다. 미국은 전쟁초기부터 소련과의 확전을 피한다는 전략적 목표에 기초하며 제한전을 수행하였다. 이 전쟁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대결이 아닌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열전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성공하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파죽지세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그해 10월에 중국군²⁾이 참전하면서 전황이 급반전되었고, 미국은 불가피하게 전략을 수정해야만 하였다. 결국 1951년 1월에 미국은 정전협정을 통한 전쟁의

자신의 논문에서 Field Training Center로 표현하였으며, 야외훈련소로 설명하였다. 이 두 가지 의견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필자가 이와 관련된 다수의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Field Training Command와 Field Training Center가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 8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에 발송된 보고서의 발송명이 각각 Field Training Command #1, Field Training Command #2, Field Training Command #3, Field Training Command #4로 사용되었음을 볼 때, 필자는 Field Training Command가 실제로 한국군의 훈련을 담당할 부서라고 생각되고 Field Training Center는 단순히 훈련장 수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952년 7월에 3개의 Field Training Command가 각 군단으로 지휘통제가 이관되고, Field Training Command #2가 Unit Training Center로 전환되면서 Field Training Command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에는 Field Training Center, Unit Training Center라는 명칭이 각종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밴플리트가 1951년 8월에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한 Field Training Command는 백선엽 장군의 호칭대로 야전훈련사령부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Field Training Command를 야전훈련사령부로 지칭할 것이며, 4개의 야전훈련사령부를 각각 제1, 2, 3, 4야전훈련사령부로 지칭할 것이다.; 백선엽, 『군과 나』(서울: 시대정신, 2009);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서울: 지문출, 1999);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군사』 제63호, 2007; RG 338, US National Archives; RG 554, US National Archives에 수록된 야전훈련사령부 관련 각종 보고서 등을 참조.

- 2) 이 논문에서는 6·25전쟁에 참여한 중공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국군을 사용할 것이다. 1950년 10월 19일 한반도에 투입된 병력은 중국군으로 지칭할 것이며, 이후에 전선에서 공세를 진행하는 중국과 북한의 연합군은 공산군으로 지칭할 것이다.

종결을 전쟁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군의 작전도 적과 대치한 전선에서 적에게 최대한 피해를 가하며 적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과 대치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전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한국군 사단은 공산군의 공세를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고 전선에서 이탈하였으며, 때때로 전선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³⁾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군부는 한국군을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였다. 이 중 한국군 사단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바로 야전훈련사령부의 설립이었다.⁴⁾

전쟁 중 한국군의 질적 혹은 양적인 발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한국군의 교육 훈련제도, 병력 충원, 개인 훈련, 화력 증강 등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켰던 야전 훈련사령부와 같은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진한 편이었다.⁵⁾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군의 발전에 관한 연구에서 발생하는

3)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서울 : 집문당, 2000), pp.922~925.

4) 야전훈련사령부 창설이전에 미국이 한국군의 증강을 결정하게된 전략적인 측면과 작전적 상황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 “6·25전쟁 시 미국의 전략과 야전훈련사령부에 대한 연구”(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의 제2장과 제3장을 참조할 것.

5) 전쟁 중 한국군의 발전 및 증강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것.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군사』 제63호; 온창일, “6·25전쟁과 한국군의 팽창”, 『한국과 6·25전쟁』 (현대한국학연구소, 2000); 박일송, “The Dragon From The Stream : The ROK Army transition and the Korean War, 1950-1953”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박일송, “한국전쟁시 육군의 교육 및 훈련체계: 1950. 6~1951. 8”, 『학예지』 제3집;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이병태, “국군의 장교충원과정”,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Bryan Robert Gibby, “Fighting in A Korean War : The American Advisory Missions From 1946-9153”(오하이오 주립대학 박사학위논문, 2004) 등을 참조.

간극을 채우기 위하여 야전훈련사령부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연구방법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1차 사료 및 2차 자료를 심층깊게 검토하는 문헌고찰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야전훈련사령부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주한미군사고문단과 관련된 사료와 각종 보고서들이 주로 활용되었다.⁶⁾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군사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6·25전쟁 중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켰던 야전훈련사령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 한국군의 발전에서 야전훈련사령부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6) 이 논문에서 분석된 사료들은 다음과 같다. RG 218 : Records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1941-1978, RG 554 :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57, RG 338 :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RG 319 :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6. 또한 R.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5; K. W. Myers,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Part IV - KMAG's Wartime Experiences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1951 등의 전사 류도 참조했다.

2. 전선의 소강과 한국군의 발전을 위한 고민

1951년 7월경 유엔군이 캔자스선과 와이오밍선을 강화하면서 전선은 안정되어 갔다. 밴플리트는 공산군의 차후 예상되는 공격 및 행동에 대한 대비를 전 지휘관들에게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각 부대의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부대 훈련을 강화하라고 예하 부대에 지시하였다. 이것은 1951년 7월 6일에 있었던 지휘관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이었다. 밴플리트는 정전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각 부대들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전선에서 진행되는 훈련이 최고의 훈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와 같이 비가 오는 시기에는 방어를 위한 훈련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대대, 중대, 소대, 분대와 같은 부대단위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음날 밴플리트는 이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각 부대에게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명시하였다: “전술적 효율성 증대, 물자 효율성 증대, 적의 공세에 반격할 수 있는 준비 완비, 부대와 개인의 사기양양”. 이 명령은 휴전협상기간 중 어떠한 훈련이 주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다.⁷⁾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밴플리트가 전선이 소강상태로 전환되자마자 차후에 있을 전장 상황에 대비한 각종 교육 훈련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 훈련을 통해 부대가 계속 활동적이어야 추가적인 전투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그는 대부분의 훈련이 전선 근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부대 단위 훈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다. 즉 밴플리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부대들이 훈련을 통하여 전장에서 즉시

7) “Command report, Section I : Narrative, July, 1951”, RG 338. HQ, EUSAK,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34407, Box 64, pp.48~50.

운용될 수 있도록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미군에 대한 조치를 마친 후 밴플리트는 1951년 7월 16일 오후에 대구에 위치한 한국군 육군본부 및 주한미군사고문단 본부를 방문하여 한국군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한국군의 조직 및 현재 보급 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한국군의 훈련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이때 주한미군사고문단이 광주지역에 한국군 사단 훈련을 위한 본부를 설립하고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3개의 훈련 센터를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밴플리트는 이 계획에 반대하였다. 그는 부대 지휘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 부대의 훈련을 매일 관찰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⁸⁾ 밴플리트와 한국 육군참모총장과의 대화에서 그가 한국군의 교육·훈련 강화와 증강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⁹⁾

이중찬 장군! 나는 여기에 온지 3개월 밖에 안 되었고 라이언 장군과 참페니는 겨우 3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일류의 군대(top-flight Army)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군의 발전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서울과 한국군의 훈련소가 완전히 파괴되고 난 이후 지난 12개월간 교육기관을 만들어내었으며 군대를 발전시켰고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당신과 나는 앞으로 12개월 동안에도 분명히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육군의 성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성공을 위하여 한국군을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8) *ibid.*, p.63.

9) *ibid.*, p.64.

회담 직후 밴플리트는 제주도로 이동하여 한국의 신병훈련소(Replacement Training Center)를 방문하였으며 세세하게 각 분야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떠나면서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라이언 장군에게 지시하였다.¹⁰⁾

앞서 살펴본 대로 1951년 7월 전선이 소강상태가 되자 유엔군은 지금까지 점령한 지역을 강화하는 노력과 차후 공산군의 공세에 대비하는 노력을 함께 추진하였다. 점령지를 강화하기 위해 캔자스선에 진지를 구축하였고 와이오밍선에는 급편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밴플리트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감독하였다. 밴플리트는 캔자스선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그는 공세적 정찰활동을 강화하여 적의 행동을 조기에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부대에 차후 공산군의 공세에 대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군과 관련된 증강과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군은 그동안 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밴플리트가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 목표는 더 이상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 군사작전의 목표는 정전 협정 체결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과 중국의 제한적인 공격에 대해 대비를 하고 약해진 부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훈련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부대의 상태를 재점검하였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었으며 밴플리트의 교육훈련 강화에 대한 구상은 이 새로운 전쟁을 감내하는데 있어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¹¹⁾

이 당시 전선에 배치된 유엔군 병력 절반 정도는 한국인이었다. 이는 한국군 사단이 공산군과 대치한 전선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10) *ibid.*, pp.64~65.

11) Bryan Robert Gibby, "Fighting in A Korean War : The American Advisory Missions From 1946-1953"(오하이오 주립대학 박사학위논문, 2004), p.186.

있음을 의미한다. 1951년 7월에 전선에는 총 13개의 유엔군 사단이 배치되었는데 이 중 한국군 사단은 제3사단, 제11사단, 수도사단, 제8사단, 제7사단, 제6사단, 제2사단, 제1사단으로 총 8개였다. 나머지는 미군 및 영연방군으로 13개의 전선 담당 부대 중 절반이 넘는 8개의 부대가 한국군이었다.¹²⁾ 유엔군의 전선 유지에 있어 한국군이 중요하다는 것은 전선 상에 한국군 부대가 많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1951년 초에 미국의 지휘관들이 전선의 경험을 통해 한국군의 전투효율성 및 문제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밴플리트를 포함한 한국과 미국의 군 관계자들은 한국군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한국군이 인력, 장비, 물자, 전투효율성 등과 같은 거의 모든 분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들은 1951년에 있었던 한국군 제6사단의 패배와 한국군 제3군단의 붕괴를 중요한 사례로 거론하였다. 먼저 4월 22일에 있었던 한국군 제6사단의 패배와 관련하여 무초 대사, 미 8군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이승만 대통령이 일련의 회담을 진행하였고 이들은 한국군에게 현재 필요한 것이 인력이나 장비가 아니라 지휘력(leadership)과 훈련(training)이라는 결론을 내렸다.¹³⁾

리지웨이는 한국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장교단의 리더십을 지적하였다. 이것이 물론 한국군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분명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많은 시간을 요하였다. 즉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달성되기는 어려웠다. 반면에 밴플리트는 리지웨이와 다른 방향에서 한국군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국군이 1951년에 있었던 몇 차례 전투를 경험하면서 자신감 및 사기가

12) "Command report, Section I : Narrative, August, 1951", RG 338. HQ, EUSAK,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34407, Box 64., pp.9~10.

13) R.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5, p.170.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 판단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작성한 한국군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었다. 밴플리트는 이러한 자신감과 사기를 먼저 회복시키고 강력한 교육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처방이라고 판단하였다.¹⁴⁾

리지웨이가 한국군의 간부단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면 밴플리트는 현재 전선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이 둘의 해결책은 모두 타당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발전은 간부단에 대한 교육과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상황을 평가한 각종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1951년 중반에 미군 지휘부가 인식한 한국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간부의 부족이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한국군의 군사훈련 및 교육체계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주한 미군의 도움으로 1950년 초에야 교육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우수한 간부를 배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였다.

둘째, 보충병들의 문제이다. 전쟁이 발발하고 1년 동안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수의 신병들이 모집되었고 이들은 매우 짧은 기간의 훈련을 거친 후에 각 부대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전투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초적인 교육은 전장에서 효율성을 발휘하기에 많이 부족하였다.

14)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1953”, 『군사』 제63호, pp.222~224.

마지막으로 한국군 사단의 문제이다. 전장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한국군 사단의 전투효율성은 전선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하였다. 전선의 취약한 부분이 돌파되는 것은 양측에 있는 부대의 측방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의 거의 모든 부대가 비슷한 수준의 전투효율성 및 전투력을 지녀야 하였다. 그러나 1951년 초 전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군 사단의 전투력 및 효율성은 유엔군 다른 사단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상황을 수차례 초래하였다. 전투효율성이 부족한 한국군 부대는 유엔군의 군단장 및 사단장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군 사단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¹⁵⁾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밴플리트는 한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주한미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의 교육 훈련을 향상시키는 것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 교육훈련 관련 분야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임무가 가중될 수도 있었지만 1951년 봄부터 미 8군이 한국군의 작전활동에 관한 많은 부분을 떠맡으면서 주한미군사고문단이 가지고 있던 작전 분야에 대한 임무가 축소되었고 대신에 교육훈련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¹⁶⁾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군 보충병에 대한 훈련 강화 및 교육훈련체계 재구성, 둘째, 한국군 교육 훈련 기관의 지휘통제 일원화, 셋째, 리더십 프로그램의 강화, 넷째, 미 병과학교에서 한국군 장교에 대한 교육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한국군 보병사단에 대한 부대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¹⁷⁾

15) Myers(1958), p.131.

16) *ibid.*, p.120.

17) *ibid.*, p.121.

이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 간부 및 보충병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여 자질있는 간부를 육성하고 보충병들이 기본적인 전기를 익힌 후 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사고문단은 간부 교육 기간을 16주에서 24주로 연장하였으며, 신병 훈련소를 확충하고 교육시간도 늘렸다.¹⁸⁾ 이는 한국군의 문제점 중 장교 및 보충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앞서 논의된 세 가지 문제점 중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와 함께 밴플리트는 한국군 사단의 전투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밴플리트는 1951년 7월에 있었던 한국군 참모총장,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등과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이 광주에 한국군 훈련을 위한 별도의 훈련소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밴플리트는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이 전선과 근거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⁹⁾ 그리고 그는 한국군 사단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상된 '9주짜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회복기(재보급 및 재무장, 1주)와 훈련기(개인훈련/부대훈련, 8주)로 구성되었다.²⁰⁾

밴플리트는 한국군의 현재 사단들이 가진 전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야전훈련사령부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다. 밴플리트는 미 9군단의 부군단장이었던 크로스 준장(Thomas J. Cross)을 야전훈련

18) 박일송, “전쟁 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41~46.

19) “Command report, Section I : Narrative, July, 1951”, RG 338. HQ, EUSAK,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34407, Box 64, pp.48~50.

20) K. W. Myers,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Part IV - K MAG's Wartime Experiences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1958, p.135.

사령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²¹⁾

3. 야전훈련사령부의 창설과 운용

밴플리트의 지시로 만들어진 야전훈련사령부는 전투효율성이 낮아진 한국군 사단을 위한 특별 훈련 기관이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약 1년 동안 많은 한국군 부대들이 소멸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군 부대들은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거의 모든 부대들이 적절한 훈련을 거치지 못한 상태였다. 지속되는 전투로 인하여 모든 한국군 사단들이 재보급 및 재훈련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어떤 한국군 대대는 그 구성원이 장교와 부사관 몇 명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병사 수십 명 수준으로 구성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한국군이 1년의 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열악한 수준으로 저하되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한국군 사단들은 전장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이들과 함께 작전을 하던 유엔군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²²⁾

1951년 7월이 되면서 유엔군이 38도선 일대의 전선을 점령하였고 밴플리트는 전선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산군의 공세도 잦아들었기 때문에 1951년 여름의 전선은 소강상태였다. 밴플리트는 이 시기를 활용하여 추후에 있을 공산군의 공세를 대비하도록 유엔군 휘하의 모든 부대에 지시하였다. 특히 그는 모든 부대들이 공산군과의 전투에서 경험을 토대로 향후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21) *ibid.*, p.133.

22) *ibid.*, p.131.

반격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는 한국군의 사단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 하라고 지시하였다. 밴플리트는 한국군의 모든 사단이 동일한 부대 훈련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전투효율성이 향상된 부대로 거듭나 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주도하여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기 위한 야전훈련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야전훈련사령부가 48시간 내에 한국군 사단이 전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선 근처에 창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대에 대한 관리가 향후 이들을 사용하게 될 부대의 지휘관에 의해 훈련이 밀접하게 감독되고 관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밴플리트는 전방 군단의 후방 지역 내에 야전훈련사령부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군 사단의 재보급 및 훈련 단계를 감독하기 위한 인원을 주한미군사고문단에서 파견하였다.²³⁾

밴플리트는 당시 미 9군단 부군단장이었던 크로스 장군을 야전훈련사령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매우 열정적인 인물로서 한국군 사단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는 야전훈련사령부의 요원들을 꾸준히 자극하고 격려했고 훈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였다. 그는 야전훈련사령부가 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 요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군을 위한 훈련/강의 계획, 교범 등의 번역서가 탄생하였다. 또한 미군 사단에서 파견된 특별 검열단이 훈련 준비 상태 및 진행 상태를 감독하고 전장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하였다.²⁴⁾

야전훈련사령부는 각 군단 내에 위치한 한국군 훈련을 위한 훈련

23) *ibid.*, p.132.

24) *ibid.*, pp.134~135.

시설(Field Training Center)에서 진행되는 훈련을 감독하고 총괄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이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받는 모든 한국군 사단과 보충병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²⁵⁾ 1951년 8월 1일에 야전훈련사령부의 창설에 대한 명령이 하달되었으며, 8월 4일에 이를 창설하기 위해 임시본부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8월 9일에 제1야전훈련사령부를 설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어 부평리에 창설되었고 창설식이 8월 13일에 진행되었다. 이어서 8월 18일부터 한국군 제9사단이 최초의 야전훈련사령부 훈련 대상이 되었다. 야전훈련사령부는 시작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정부 및 군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초기 방문자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과 밴플리트 장군을 비롯하여 다수의 미국 및 한국 장성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군 사단이 전장에서 부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²⁶⁾

밴플리트는 훈련과정을 지켜보면서 야전훈련사령부가 성공적으로 한국군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전훈련사령부를 확장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 미 제1군단, 한국군 제1군단의 후방지역에 각각 야전훈련사령부가 창설되어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추가적으로 3개의 야전훈련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야전훈련사령부의 본부가 제2야전훈련사령부로 이전하게 되었다.²⁷⁾

25) "Section I, Tab A, Mission and Background", RG 554 :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 8202nd Army Unit, AG section, Command Reports,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26) "General Orders No. 16 : Activation of Field Training Command. 1951. 08. 01",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6-53, BOX 37, AG No. 300.4, File : Operations Orders and Field Messages; "General Orders No. 18 : Annoucement of Opening Field Training Command. 1951. 08. 09",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6-53, BOX 37, AG No. 300.4, File : Operations Orders and Field Messages; Myers(1958), p.133.

27) Myers(1958), p.136.

〈표 1〉 야전훈련사령부 현황

명칭	FTC #1 (제1야전훈련사령부)	FTC #2 (제2야전훈련사령부)	FTC #3 (제3야전훈련사령부)	FTC #4 (제4야전훈련사령부)
지역	부평리	양양	양구	사창리
지역담당 군단	미 제1군단	한 제1군단	미 제10군단	미 제9군단

※ 출처 : 마이어스의 자료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

위의 표는 1951년 10월 4일부로 창설된 총 4개의 야전훈련사령부의 위치와 어느 군단 지역에 배치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훈련 중이던 한국군 사단이 유사 시에 48시간 내로 전선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밴플리트의 의도에 따라 야전훈련사령부는 전선 인근지역에 설치되었다.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군의 모든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가 제공하는 한국군 사단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은 한국군 사단들은 전선에 재투입되었으며 기존보다 향상된 능력을 발휘하였다. 백선엽 장군은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야전훈련사령부에서 받았던 훈련이 오늘날 육군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²⁸⁾

1952년 6월을 마지막으로 수도사단을 제외한 9개의 한국군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을 종료하였다. 밴플리트는 야전훈련사령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 임무를 중지하고 이들을 각 군단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야전훈련사령부, 제3야전훈련사령부, 제4야전훈련사령부의 지휘권이 각 군단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구(미 제10군단 지역)에 있던 제3야전훈련사령부가 사창리(미 제9군단 지역)의 제4야전훈련사령부와 통합되었으며 그 명칭이 제4야전훈련사령부에서 제5야전훈련사령부로 변경되었다. 당시 전체 야전훈련사령부의 통제 역할을

28)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서울 : 지구촌, 1999), p.209.

하던 제2야전훈련사령부만이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지휘계선 상에 잔류하였다. 제2야전훈련사령부는 부대훈련소(Unit Training Center, 이하 UTC)로 개칭되어 새로운 한국군 부대에 대한 훈련을 지속하였다. 특히 부대훈련소는 이후에도 한국군의 보충병 연대 혹은 새로 만들어지는 부대들에 대한 훈련을 계속하였으며, 1952년 말에는 추가적으로 창설될 한국군 2개 사단에 대한 부대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²⁹⁾

4.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 프로그램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 사단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소강된 전선이 한국군의 모든 사단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군 사단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한국군의 훈련지시-92(Training memorandum-92)³⁰⁾는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는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켰다.³¹⁾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은 총 9주 동안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주차에는 입소한 한국군 사단이 엄격한 검열을 거친 후 부족한

29) "Section I, Tab A, Mission and Background",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Myers(1958), p.142.

30) 최초로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초문서는 훈련지시-75였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 훈련지시-86이 하달되었으며, 향후 훈련지시-92가 최종적으로 하달되었다.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받은 한국군 사단들은 이 세 가지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단이 훈련지시-92를 기준으로 훈련하였기 때문에 이후 분석은 훈련지시-92를 기초로 한다.

31) Myers(1958), p.139.

병력, 물자, 장비 등에 대한 보충을 진행하여 병력을 회복하고 장비 및 물자의 보급을 완료하였다. 2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개인 및 부대를 대상으로 한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화기조작을 포함한 개인 훈련 및 분대~연대 수준의 부대 훈련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9주차에는 지금까지 진행한 훈련에 대해 검토한 후 연대 및 사단 참모들이 사단급 지휘소 훈련(Command Post Exercise, CPX)을 진행하였다.³²⁾

이 훈련과정은 열악한 상태의 한국군을 회복시킨 다음에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훈련이 가진 궁극적인 목표는 충분한 보충을 통해 부대를 정비하고 이어서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한국군의 개인 병력 및 부대에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었다. 보급과 훈련, 그리고 자신감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야전훈련사령부는 “Filler-Training-Confidence”라는 야전훈련사령부 설립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³³⁾

가. 회복기 : 1주차

한국군 사단이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1주 동안 회복(rehabilit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 사단의 전투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다.

한국군 사단이 도착하면 철저하고 세부적인 검열이 진행되었다. 이 검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한국군의 장비 및 물자, 보급품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여

32) *ibid.*, p.141; “Section I, Tab A, Mission and Background”,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33) Myers(1958), p.140.

어떠한 부분을 충당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토대로 입소한 한국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군 개개인에게 가장 최상의 상태로 장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주입시키고 장비 유지 상태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넷째, 검열의 과정에서 한국군 사단 소속의 기술병과 장병들에 대한 훈련도 부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³⁴⁾ 한국군 사단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려면 면밀한 검열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 사단에 대한 검열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 검열은 미군의 선발된 인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검열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미 8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충분히 자질을 검증받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검열단 요원으로 차출하였다. 그리고 특정한 기술 병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된 인원들만 검열단으로 선발하였다. 이들은 한국군 사단의 보급과 장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검열하였으며, 이 분야와 관련된 장교 및 부사관, 병사들의 임무 수행에 대한 검열도 실시하였다.³⁵⁾

먼저 검열단은 검열이 실시되기 24시간 전에 검열분야 및 품목, 대상에 대하여 한국군 사단 군수처에 통지하였다. 이어서 검열단과 검열대상부대 간에 일정이 조율되고 검열이 개시된다. 검열 분야는 공병, 의무, 병참, 병기, 통신 등과 같이 부대가 전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제 분야를 포함하였다. 검열에 대한 결과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사고문단 측이 각각 별도로 제작하였으며 한국군의 보고서는 한국군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되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보고서는 총 4장이 만들어져서 검열이 끝나고 3일 내로 각 기술병과의 고위 고문관들을 경유하여 주한미군사고문단장에게 발송되었다. 그리고

34) "Section III, Tab A, Inspection Plan",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35) *ibid.*

이 보고서에 미 8군사령부에서 파견된 장교들의 의견이 첨부되었으며 필요한 지휘관 및 참모들의 행동이 종결되면 관련 보고서들이 미 8군사령관에게 보고되었다.³⁶⁾

검열이 완료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졌다.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 통제 및 입소한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주한미군사고문단에 있었지만, 보급 및 군수분야에 대한 책임은 각 군단이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각 군단은 검열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한국군 사단에게 부족한 물자 및 장비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보충해 주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미 8군사령부에 직접 요청하여 충당하였다.³⁷⁾ 회복기 동안 한국군의 보충에 대한 기준은 1951년 1월에 만들어진 한국군 사단 편제표(TO&E, 5-1301)에 기준을 두었으며,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가 1951년 2월과 3월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었다.³⁸⁾

한국군의 모든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 훈련 프로그램의 1주차인 회복기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은 기존의 피해를 회복하고 편제된 능력을 거의 완전히 보충한 사단으로 변모하여 전장으로 복귀함을 의미하고 있었다. 따라서 야전훈련사령부의 첫 번째 주인 회복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36) *ibid.*

37) “Section III, Tab B, Inspection Reports : 1st Division, 20th Regt, and 36th Regt”,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38) 야전훈련사령부에서 최초로 사용된 편제표는 11,770명을 기준으로 한 편제표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이 편제표를 1952년 4월 25일에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군 사단의 병력은 11,770명에서 12,388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편제표를 통해 만들어진 한국군 사단이 향후 한국군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Section II, Tab A, Organization of ROK Division”,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Myers(1954), p.57.

나. 훈련기 : 2~9주차

회복기를 통해 물자와 장비를 보충받은 한국군 사단은 계획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야전훈련사령부의 한국군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개인과 부대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모두 제공하며 또한 사단에 편제된 모든 화기에 대한 조작 및 숙달훈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훈련은 8주 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³⁹⁾

2주차부터 진행되는 훈련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보병 소총수를 육성하고 이들이 보병 중대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보병 사단을 구성하는 각 병과의 모든 장병들이 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소부대와 팀들이 단위부대(Unit) 혹은 상급부대의 일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넷째, 분대·소대·중대·대대 전술을 구사하는데 있어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협조된 팀워크’를 구축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단의 전투근무 및 전투지원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 부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섯째, 모든 제대 지휘관들의 지휘 통솔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⁴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군에게는 다음과 같은 훈련시간이 제공되었다.

39) “Section V, Tab B, Training memorandum 92, Division training program, 24 Nov, 1951”,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40) *ibid.*

〈표 2〉 보병부대 훈련 계획(480시간)

과 제	주 차								계
	1	2	3	4	5	6	7	8	
군인정신과 규율		2	2						4
부대 정보와 교육	1	1	1	1	1	1	1	1	8
위생과 응급조치		3							3
총검술	2		2	2	2				8
개인전투기술		9	7	10					26
분대전술				47					47
소대전술					53				53
중대전술					4	59			63
대대전술							59		59
화기훈련 및 사격	57	45	48						150
지휘관 시간								4	4
FTC 훈련								55	55
계	60	60	60	60	60	60	60	60	480

※ 출처 : Training memorandum 92, Division training program, 24 Nov, 1951, Annex 1.

한국군 사단에게 주어진 훈련시간은 1주일 동안 최소 60시간이었으며, 1일 훈련시간은 10시간이었다. 야외훈련의 경우는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었다.⁴¹⁾ 10시간이라는 훈련시간은 밴플리트가 한국군 육군본부를 방문했을 때 한국군 교육훈련시간을 1일 1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⁴²⁾ 규정된 훈련시간 중 30%는 야간 훈련에 소요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 사단에게 총 할당된 훈련시간은 480시간(8주 × 60시간)이었다.⁴³⁾

훈련지시-92는 보병부대를 포함하여 모든 병종 및 제대에 대한 훈련 시간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훈련시간의 상당 부분이 부대 단위 훈련에 할당되었다. 훈련지시-92에 명기된 목적과 훈련시간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밴플리트가 부대 단위의

41) ibid.

42) “Command report, Section I : Narrative, July, 1951”, RG 338. HQ, EUSAK,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34407, Box 64, pp.48~50.

43) “Section V, Tab B, Training memorandum 92, Division training program, 24 Nov, 1951”,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훈련을 상당히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밴플리트는 장교 및 부사관 그리고 병사들을 육성하는 것뿐 아니라 전투 현장에서 각 부대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각 부대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대 훈련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것이 결국에는 전투효율성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각 부대들에게 부대 훈련을 강조한 것은 전투효율성을 강조했던 밴플리트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해볼 수 있다.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 사단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 외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다. 예를 들면 훈련에 참여하는 장병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인력을 순환식으로 운용하여 전체 훈련과정에서 장병들이 열외되는 상황을 최소화시켰다. 또한 한국군 사단이 훈련기간 중에는 경계병과 보조병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⁴⁴⁾

야전훈련사령부는 사단 예하의 보병부대, 포병대대, 공병대대, 의무대대, 헌병중대, 통신중대, 병참중대, 정비중대, 정보처에 대하여 각자 병과 특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할 훈련을 제공하였다.⁴⁵⁾ 한국군 사단의 참모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고문단은 훈련지시에 명시된 계획에 의거하여 각급부대의 주간 훈련계획을 준비하였다. 훈련 대상 부대의 지휘관 및 지휘자들(분대장 포함)은 계획된 훈련 하루 전에 훈련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야전훈련사령부는 훈련 계획이 작성되면 곧바로 훈련대상부대로 전파하였다.⁴⁶⁾

훈련지시-92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한국군 분대의 기동 및 공산군 사격진지에 대한 집중 공격과 관련된 훈련을 특별하게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군 사단이 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특히 취약했던 부분으로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의미한다.⁴⁷⁾ 따라서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은 한국군 사단의 전반적인 전투 효율성을

44) *ibid.*

45) "Section V, Tab B, Training memorandum 92, Division training program, 24 Nov, 1951, Annex 2-11",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46) "Section V, Tab B, Training memorandum 92, Division training program, 24 Nov, 1951",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47) *ibid.*

향상시키기 위한 것뿐 아니라 사소한 전술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5.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 결과

1951년 8월부터 1952년 6월까지 총 9개의 한국군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았다. 훈련기간도 2주에서 9주로 매우 다양하였기에 모든 사단이 9주의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각 사단들이 최소 2주간의 훈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주에 진행되는 검열과 재보급의 절차는 반드시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야전훈련소를 거친 한국군은 충분히 전투력이 보충되어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은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받은 한국군 사단의 현황이다.

<표 3> 야전훈련사령부를 통과한 한국군 사단(1951.8.~1952.6.)

FTC	부대	훈련시작	훈련종료	주	훈련지시	훈련전 소속부대	훈련후 소속부대
1	제9사단	510813	511006	8	75	미 제1군단	미 제1군단
	제8사단	520217	520315	4	92	TF-백	미 제10군단
	제1사단	520407	520419	2	92	미 제1군단	미 제1군단
2	제3사단	510924	511020	4	86	한 제1군단	미 제10군단
	제5사단	511101	520109	10	86&92	한 제1군단	한 제1군단
	제11사단	520125	520329	9	92	한 제1군단	한 제1군단
	36연(제3사단)	520407	520526	7	92	한 제1군단	
	20연(제5사단)	520407	520418	2	92	한 제1군단	2군수사
3	제7사단	511008	511118	6	86	미 제10군단	미 제10군단
	제3사단	511128	520108	6	86&92	미 제10군단	미 제9군단
	제6사단	520121	520315	8	92	미 제9군단	미 제9군단
4	제2사단	520421	520615	8	92	미 제9군단	

※ 출처 :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Section I, Tab D, Overall Chart를 보고 재구성⁴⁸⁾

48) 제4야전훈련사령부에서는 예비대를 위한 훈련도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군 정규 사단에 대한 훈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대에 대한 훈련 기록은 표에서 배제하였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군 사단이 야전훈련소에서 훈련한 기간은 부대별로 상이하였으며 그 기간도 2주에서 9주로 편차가 컸다. 하지만 한국군 사단들이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전투효율성 및 전투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은 각 사단의 훈련 종결 결과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훈련 종결 결과 보고는 훈련을 실시한 사단과 관련된 매우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인력과 장비, 훈련 진행 중 긍정적인 사항 / 부정적인 사항, 그리고 향후 발전사항 등이 기록되었다.⁴⁹⁾ 제1사단, 제6사단, 제11사단의 훈련 결과는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먼저 한국군 제1사단은 제1야전훈련사령부에서 1952년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2주간 훈련을 받았다. 제1사단은 이 기간 동안에 병력을 완벽하게 보충받았다. 개인 장구류를 포함한 물자와 장비도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정비가 완료되었다. 전투효율성 측면에서 제1사단은 훈련 전 65%에서 훈련 후 약 70%까지 상승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단의 간부단은 훈련기간 내내 야전훈련사령부의 요원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열정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을 위한 교범 및 훈련용 보조자료 등이 부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⁵⁰⁾

다음으로 한국군 제6사단은 제3야전훈련사령부에서 1952년 1월 21일에서 3월 15일까지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기간 중에 제6사단은 완벽한 인력 보충을 달성하였고 전투효율성은 60%에서 85%까지 향상시켰다. 또한 이들의 사기가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되었다. 제6사단은 특히 정비 분야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49) 현재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훈련 결과 보고는 제1사단, 제6사단, 제11사단 것이 유일하다.

50) “Final report on completion of training, 22 April, 1952”, RG 554 :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 8202nd Army Unit, Adjutant General’s Office, Classified General Administrative Decimal Files, 1951-1954, 353 General, 1952.

문제점으로 포병대대의 지휘관과 작전참모의 훈련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 외의 간부들은 충분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다. 제6사단은 8주 훈련기간 중에 진행된 각종 부대 훈련 평가를 완벽하게 통과하였으며, 특히 의무대대 및 공병대대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훈련 교범 및 훈련용 물자 등이 부족한 것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⁵¹⁾

마지막으로 한국군 제11사단은 제2야전훈련사령부에서 1952년 1월 25일에서 3월 29일까지 훈련하였다. 2주차에 병력의 90%가 충원되었으며, 8주차에 10%의 병력이 더 추가되어 훈련이 종료될 때 11사단의 병력은 100% 보충되었다. 장비 및 물자의 준비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훈련 중 정비 상태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소부대의 전투기술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향상하였는데 훈련 마지막 주차에 시연 단계에서 분대, 소대, 대대의 전투기술은 눈에 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공병대대와 통신중대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도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점이 남아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전장에서 경험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⁵²⁾

이 훈련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먼저 한국군 사단들은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서 완벽한 병력 충원을 이룰 수 있었다. 훈련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군 사단은 입소와

51) "Final report on completion of training, 2 April, 1952", RG 554 :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 8202nd Army Unit, Adjutant General's Office, Classified General Administrative Decimal Files, 1951-1954, 353 General, 1952.

52) "Final report on completion of training; 11th ROK Division, 15 April, 1952", RG 554 :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 8202nd Army Unit, Adjutant General's Office, Classified General Administrative Decimal Files, 1951-1954, 353 General, 1952.

동시에 병력 충원을 받았으며 편제표 대비 약 90% 이상의 병력 충원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부대에게 재정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1주)을 부여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성과였다.

다음으로 한국군 사단은 야전훈련사령부에서 제공하는 훈련에 매우 열성적으로 임하였으며 협조적이었다. 야전훈련사령부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주도하여 개발한 한국군 훈련기관으로서 훈련교관 및 훈련을 제공하는 요원들은 모두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요원들이었다. 따라서 언어의 장벽, 병력 통제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훈련 결과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군의 간부단은 자발적으로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에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병력들의 활동을 감독하였다. 이에 대해 훈련 결과에서는 한국군 장교와 야전훈련사령부의 장교들이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호 협조가 한국군의 훈련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이 한국군의 전반적인 전투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각 훈련 결과는 한국군 사단에 속한 개별 부대들의 능력이 발전되었으며 어떠한 부대들이 특히 발전된 모습을 보였는지를 설명하였고 동시에 전술적인 취약성까지 명시를 하였다. 이를 통해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이 단순한 허례허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국군의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분명하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각 야전훈련사령부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한국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범 및 교보재가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탄약도 부족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항시 거론되었다. 그리고 일부 훈련소에서는 훈련지역 내의 민간인이나 농부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⁵³⁾

이러한 소소한 문제점들을 제외하고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은 매우 잘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전투효율성이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국군의 9개 사단은 야전훈련사령부를 통과하여 전선에 순차적으로 복귀하였다. 이들은 1951년 9월부터 소모적인 고지전에 투입되었으며 유엔군의 일부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미 8군사령관 뱀플리트는 1952년 여름에 한국군 사단의 임무수행을 평가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육군의 놀라운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⁵⁴⁾



6. 결론 : 야전훈련사령부가 한국군에 미친 영향

1951년 8월에 한국군 제9사단이 최초로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훈련을 받았다. 이어서 모든 한국군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훈련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재보급 및 재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⁵⁵⁾ 앞서 뱀플리트의 평가대로 야전훈련사령부가 제공하는 훈련이 한국군 사단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은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서 기초적인 성과를 달성한 한국군을 미국 사단과 더욱 유사한 수준까지

53) Myers(1958), pp.142~143.

54) Bryan R, Gibby. *The will to Win : American Military Advisors in Korea, 1946~1953*(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12), pp.177~178.

55) 야전훈련사령부가 각 군단에게 지휘권이 이양된 후에도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을 지속하였다. 1953년에는 모든 한국군 사단이 9주의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Section I, Tab D, Overall Chart”,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Myers(1958), Figure 12, pp.142~143.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훈련(the Second Cycle Training)이 준비되었으며 실제로 진행되었다.⁵⁶⁾

제2차 훈련은 야전훈련사령부가 각 군단으로 소속이 전환된 이후에 시작되었다. 각 군단은 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 한국군 사단 및 연대에 대한 재훈련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고문단은 제2야전훈련사령부를 부대훈련소로 개칭하여 한국군 보충 부대 및 신설되는 사단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야전훈련사령부가 소속이 전환된 뒤에도 최초의 임무대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훈련지속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군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장에 복귀하는 와중에 유엔군은 전장에서 공산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1952년 8월과 9월에 공산군의 공세가 매우 격렬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0월에 이르러서는 그 강도가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사단들은 공산군의 강렬한 공세를 견뎌내고 이들을 격퇴하였다. 한국군 사단들은 전장에서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전투 가치(combat-worthy)를 증명하였다. 일각에서는 한국군 사단들이 ‘현대 기계화 전장(modern mechanized warfare)’을 점차적으로 이해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군 사단의 성과에 대하여 미국 언론사들의 호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양적인 증강에 대한 명분이 점점 더 구체화되었으며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한국군 증강 계획도 점차 현실화되어 갔다.⁵⁷⁾

미 육군부는 10월 10일에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사단의 능력과 안정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카투스(KATUSA) 인력을 확장하고 한국군 사단을 추가적으로 창설하여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점차적

56) “Section VII, Proposed Second Cycle Training”,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57) Myers(1958), pp.57~59.

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타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달하였다.⁵⁸⁾ 이는 미국 정부가 과거부터 고려했던 한국군을 증강시키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국군 사단들은 1952년 8월 이후에 전장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을 독자적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한국군 사단의 능력을 목격한 미국 정부 및 군부는 한국군에게 한반도를 맡길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만약 한국군 사단들이 전장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군 증강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결과적으로 한국군 사단의 전투효율성이 미국 정부가 한국군 증강 계획의 실행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바로 야전훈련사령부였다. 1951년 8월부터 1952년 7월까지 한국군 사단들은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전투력을 회복하고 전투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단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조합되어 한국군 사단은 전장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발전된 한국군 사단의 전투 역량이 궁극적으로 한국군 증강 계획의 실현을 결정짓는데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 사단의 전투효율성 향상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한국군 증강 계획의 실행을 결정하는데 기여하였다. 1951년 8월에 창설한 야전훈련사령부는 모든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9주의 훈련 과정은 회복기(1주)와 훈련기(8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952년 7월까지 진행된 훈련에서 9개 사단이

58) "Expansion of ROK Army, 1, Nov, 1952", RG 319 :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6, Top Secret Correspondence, compiled 1948-1952, Entry UD 2A, 091 Korea 1951-1952.

최소 2주에서 9주의 훈련기간을 거쳤다. 그 결과 한국군 사단들은 회복기를 통해 병력 및 장비를 거의 완전한 수준까지 보충받았으며, 훈련기를 통해 자신들의 전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단들이 전장에 복귀하였으며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을 통과한 한국군 사단들은 1952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공산군의 거센 공세를 극복하여 전장에서 자신들의 전투능력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미국 정부, 미 육군부, 유엔군 사령부, 미 8군사령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군 사단이 미국 사단을 대신하여 한반도를 지켜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결국 이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안에 대한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조형된 한국군 사단의 전투 능력이 한국군 증강을 현실화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의 발전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이 연구는 군사사적인 면에서 야전훈련사령부를 재발견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쟁 중 야전훈련사령부가 제공했던 회복기와 훈련기로 구성된 한국군 사단 훈련 프로그램은 한국군 사단의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분명히 기여하였다. 그리고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향상된 한국군 사단의 전투 능력은 한국군 증강 계획의 시행을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야전훈련사령부를 단순히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켰던 훈련기관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한국군 증강 계획의 실행을 결정하게 한 시발점으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 야전훈련사령부, 유엔군, 주한미군사고문단, 회복기, 훈련기, 밴플리트

<ABSTRACT>

The study on the FTC(Field Training Commands) during the Korean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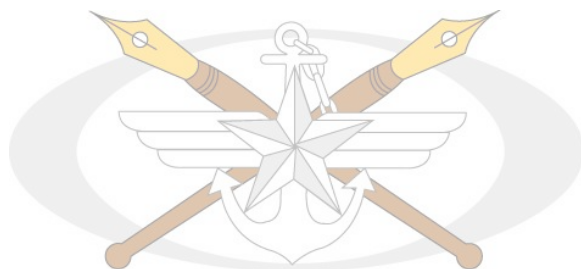
Yoo, seong-jong

This study deal with the Field Training Commands (FTC) which was charged with training the Korean Divisions during the Korean War. Just after breaking out the Korean War, U.S. took the lead in the military operation. As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intervened militarily in the Korean War in October 1950, U.S. had to change its war strategy from taking the victory to having negotiations.

Thus UN Forces tried to keeping the Line of Contact. For achieving this, the Korean Divisions were very important factors because they were charged with large parts of the Line of Contact. In August 1951, Van Fleet, the commander of EUSA (Eighth of United States Army) at that time,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FTC. It offered special training programs for the Korean divisions. Almost Korean divisions were trained in the FTC, and then their performances and combat skills were highly improved.

Until now, there has rarely been the study on the FTC. For researching the FTC in depth, the FTC was chosen the theme of thesis, and methods of the Study were the literature review about historical material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below. First, FTC's training programs were considerably effective for the Korean divisions. Second, the Improving Korean divisions' military performances was essential decision factors for the strengthening of Korean Army. Finally, this study has an important military significance for rethinking of the FTC.

Key Words : Field Training Commands, FTC, Korean Divisions, Van Fleet



1952~1955년, 한국후방관구사령부 (KComZ)의 창설과 해체

이 동 원*

1. 서론
2.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창설 배경
3.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편제와 임무
4.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활동과 해체
5. 결론

1. 서론

6·25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전(停戰)’으로 전투행위는 중지되었지만 정전협정 제4조의 건의처럼 “쌍방의 한층 더 고위의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¹⁾ 특히 최근의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의 고조, 이로 인한 ‘남남갈등’의 심화 양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 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1) 김정건, 『국제조약집』, 박영사, 1984, 354쪽.

60여 년 동안 위태롭게 지켜온 불안정한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전쟁의 기원에 대한 오랜 이데올로기전 양상의 논쟁에서 벗어나 당대의 한국인들이 전쟁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전쟁이 한반도에 남긴 결과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의 기억과 인식이라는 담론적 차원, 민간 원조 및 민간인 피해 등의 사회사적 차원, 구술 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이러한 연구의 다양성은 6·25전쟁 연구가 겪어온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6·25전쟁에 대한 객관적, 역사주의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기인 1952년 7월에 창설되어 1955년 6월에 해체된 한국후방관구사령부(Korean Communications Zone, KComZ)³⁾의 창설에서 해체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는 큰 틀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6·25전쟁의 주요

2)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역사문제연구소, 포츠담현대사연구센터 공동기획,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역사비평사, 2010;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서중석 외,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서중석 외, 『전쟁 속의 또다른 전쟁』, 선인, 2011;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선인, 2011;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이임하, 『적을 뼈라로 묻어라』, 철수와영희, 2012;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김태우, 『폭격』, 창비, 2013.

3) KComZ는 ‘한국병참관구사령부’, ‘한국후방기지사령부’, ‘한국후방관구사령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1976년 발행된 한 군사영어사전은 ‘Communications Zone(ComZ)’을 “병참지대(전투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전구의 후방지대)”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군사영어편찬위원회 편, 『군사영어사전』, 병학사, 1976, 175쪽). ComZ의 기본 역할이 병참 임무임을 감안하면 KComZ를 ‘한국병참관구사령부’로 부르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지만, 본고에서는 KComZ가 병참 임무뿐만 아니라 포로관리, 민사지원 등 후방의 다양한 문제들을 총괄했음을 감안하여 ‘한국후방관구사령부’라고 지칭하였다.

전투는 전쟁발발 후 1년 안에, 대부분이 전선(戰線)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6·25전쟁 연구는 전방에서 벌어진 일들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전선이 고착되면서 지루한 고지전이 계속되었고, 전방지역과 후방지역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후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후방에서는 더 많은 한국인들이 전쟁과 일상을 동시에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후방 지역에서는 피난민이 관리되었고 전쟁 구호가 진행되었으며 비록 피난 정부이기도 했지만 ‘정치’가 작동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후방이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포로수용소에서는 공산포로와 반공포로 간의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후방’지역에 대한 연구는 유엔군과 한국군, 중국군과 북한군의 전투를 중심으로 전개된 전쟁의 이면을 살펴봄으로써 6·25전쟁의 역사상을 구체적이고 폭넓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극동미육군(USAFFE) 산하의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6·25전쟁 ‘후방’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후방관구사령부는 1952년 7월, 주한미8군(EUSAK)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별개의 부대로 창설되어 한국의 후방지역을 관할 하며 포로 관리, 민간 원조, 전투부대의 병참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후방관구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주한미8군(EUSAK)은 전방에서의 전투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6·25전쟁기 활동 기간은 1년 정도에 그쳤지만 1955년 6월 해체될 때까지 3년간 한반도에 머물며 한국 육군 제2군사령부 창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에 대한 개별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창설 배경과 편제 및 임무, 활동과 해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1차적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후반기 유엔군·극동군(UNC·FEC)이 후방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고자 했는지, 미국이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의 군사력을 어떻게 재배치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병참 지원, 민사 활동, 포로 관리, 빨치산 토벌, 한국 정부와의 관계 등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다양한 활동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후방지역에서 전쟁을 겪은 한국인들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작업은 또 다른 차원의 연구사적 의의를 가질 것이므로 별도의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주요 활용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RG554,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관, 유엔군사령부 문서(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1-1957)와 RG550, 태평양 미 육군 문서(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1944-1972)에 속해 있는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월간, 분기별 지휘보고서와 역사보고서류들이다. 이 보고서들은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의 창설에서 해체까지의 편제, 역할, 활동 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미 국무부에서 간행한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와 이 시기 국내 신문들도 시대상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한국군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 등의 회고록도 참고하였다.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를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간된 6·25전쟁 병참(Logistics) 관련 저술들도 2차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2.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창설 배경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는 1952년 7월 10일, 미 극동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한 클라크 장군의 미 극동군사령부 일반명령 65호에 의해 창설되었다.⁴⁾ KComZ는 대략 북위 37도선 부근을 경계로 소위 ‘후방’을 담당하게 되었다. 백선엽은 이를 “남한 지역의 2/3에 해당하며, 서쪽의 평택에서 동해안의 삼척에 이르는 경계선 이남 지역”이라고 회고했다.⁵⁾

표면적으로 KComZ는 당시 미8군이 수행하던 병참지원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부대였다. 태평양 미 육군 군사실(軍史室)이 작성한 KComZ 부대약사(Unit History)에서는 KComZ의 창설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6·25전쟁의 첫 두 해 동안 유엔군 사령관은 전쟁의 수행뿐만 아니라 전투 작전에서 현대야전군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자 공급을 책임져야 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유엔군 사령관이 이 두 임무를 모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중략) 결국 한국 내 유엔군의 병참지원을 특별히 담당할 독립된 사령부가 창설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4) NARA, RG 550 Entry (A1)-2,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al Files, Box94, Hq Korean Communications Zone Command Report Part I Narrative Summary, August 1952(이하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5) Paik Sun Yup, *From Pusan to Panmunjom*(Washington D.C. : Potomac Books, 1992), p.205.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KComZ가 미 극동군사령부의 주요 예하부대이자 미8군의 측위부대로서 1952년 7월 10일에 설립되었다.”⁶⁾

위의 설명대로 전투와 병참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KComZ가 창설되었다는 것은 후대에도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 되었다.⁷⁾ 그러나 “전쟁이 확대”되었다거나 병참업무의 부담이 늘어나서 KComZ가 독립적인 부대로 창설되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6·25전쟁의 주요 전투는 전쟁 개시 1년 안에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1951년 6월에는 휴전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져 예비회담이 개최되기 시작했다. 이후의 전선은 38도선 이북으로 형성된 “캔자스-와이오밍”선에서 형성되었으며 진지전, 혹은 고지전의 형태를 띠었다.⁸⁾ 따라서 왜 하필 1952년 7월 10일에 KComZ가 창설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1952년 8월분 KComZ 지휘보고서에 나타난 다음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선 뒤의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다. 전쟁포로, 병참지원, 민사원조라는 3대 문제점의 조합이 점차 심각한 정도로 커졌던 것이다. 미 8군 사령관은 전선에서 전술적인 상황을 지휘하는 동시에 남한 전역에서 병참과 행정 작전을 관리하고자 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두 필의 말에 올라타고자 하는 것과 같았다.”⁹⁾

6) NARA, RG 550 Entry (A1)-1,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Files, Box 339, History of the Korean Communications Zone.(이하 RG 550, Entry (A1)-1, Box 339, KComZ History)

7) Terrence J. Gough,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A Research Approach*(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7); Donald W. Boose, Jr., *US Army Forces in the Korean War 1950-53(Battle Orders)* (Osperly Publishing, 2005)

8)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32~36쪽.

9)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이러한 설명은 KComZ 창설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 준다. 병참지원 문제뿐 아니라 전쟁포로와 민사원조 문제가 당시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후방의 문제들이 더 심각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쟁포로 문제는 KComZ 창설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포로문제는 휴전회담을 지연시킨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이 때문에 정전협정은 휴전회담이 시작된 지 2년이 넘는 1953년 7월 27일에야 체결될 수 있었다. 로즈메리 풋(Rosemary Foot)이 ‘승리의 대체물(A Substitute for Victory)’라고 규정한 이데올로기전, 심리전으로의 전환이 전쟁을 지루한 ‘진지전’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¹⁰⁾

1951년 가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13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과 약 2만 명의 중국군이 수용되어 있었다. 포로협상에 의해 송환희망포로를 선별하기 위한 포로조사 작업이 진행되면서 1952년 2월 18일, 소위 ‘2월 폭동’으로 217명의 포로와 39명의 군인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수용소 내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미 8군사령관이 돛드(Francis T. Dodd) 준장을 거제도 포로수용소장에 임명했지만 설상가상으로 그는 5월 7일 포로와의 면담과정에서 포로들에게 납치, 억류되고 말았다. 5월 10일 새로 수용소장에 부임한 콜슨(Charles Colson) 장군이 포로들에게 서약서를 써주고 돛드 장군이 석방될 수 있었지만 이는 휴전회담 과정에서 공산 측에 중요한 선전 수단이 되었다.¹¹⁾

당시 미군은 포로수용소 내 갈등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라면 “전쟁이 확대”되었다는 표현도 잘못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밴플리트 미 8군사령관은 1952년 6월, 포로사령부(Prisoner of War Command)의

10) Rosema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 the political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11)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252~259쪽; 김보영, 위의 책, 187~191쪽.

창설을 제안했다. 5월 12일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를 대신해 미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 취임한 클라크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클라크는 단순히 포로사령부만 창설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군수참모인 에버를(George L. Eberle)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야전군인 전술 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 8군의 병참 작전과 지역 작전(territorial operations)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어떤 편제가 최선인지 결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지역 작전이란 포로 관리와 빨치산 토벌 등 후방에서 수행하는 작전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

클라크는 그의 회고록에서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민사원조 및 한국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KComZ의 창설을 이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밴플리트 장군이 임무 수행에 있어서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후방 기지 사령부를 설치했다.”면서 “그로 하여금 포로 문제와 한국의 부흥을 위한 경제 문제까지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짐이었던 것이다. (중략) 이 보급 사령부는 포로수용소와 전방에의 보급품 수송 및 저장, 원호 그리고 재건 사업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후방 지원 사업을 모두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이렇듯 전쟁포로와 민사원조 문제는 병참 업무의 분리만큼 중요한 KComZ 창설의 배경이었다.¹³⁾

이에 따라 1952년 6월 9일, 극동군 군수참모, 미 8군, 주일병참사령부(Japan Logistical Command, JLC), 제2병참사령부 대표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안이 제기되었다.¹⁴⁾

12)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13) 마크 클라크, 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 240~242쪽.

14)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 ① 주일병참사령부 사령관 혹은 극동군사령관 휘하에 전방관구(Advance Section), 병참관구(Communications Zone) 설치
- ② 미8군사령관 휘하에 한국군수사령부(Korean Logistical Command) 설치
- ③ 한국에 상급 본부(superior headquarters)와 지상전술군사령관, 한국 병참사령관, 민사 부사령관 설치
- ④ 극동군사령관 휘하에 본부(headquarters)와 기지관구(Base Section), 전방관구(Advance Section)로 구성된 병참관구(Communications Zone) 설치; 병참관구사령관에게 적절한 참모 제공

이 중 마지막 방안이 추천되었고 클라크는 KComZ를 1952년 7월 10일까지 극동군사령부 산하의 주요 사령부로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¹⁵⁾

1952년 7월 14일에는 부산에 보트너(Hayden L. Boatner) 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포로사령부가 제2병참사령부 산하에 설치되었는데, 제2병참사령부는 곧 KComZ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포로사령부도 자연스럽게 KComZ의 산하 부대가 되었다. KComZ의 편제는 다음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KComZ의 창설과 함께 미 8군이 담당하던 포로 관리 업무와 민사 업무, 병참 업무가 모두 KComZ로 귀속되고 미 8군은 오로지 전방에서 전투 임무만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결국 KComZ의 창설로 유엔군의 군사작전상 6·25전쟁의 전방과 후방은 명확히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장의 분리’는 일반적인 통념처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방과 평화로운 후방을 구별하기

15) KcomZ 설치에 대해 백선엽은 “많은 사람들은 클라크 장군이 밴플리트 장군의 영향력을 줄이는 수단으로 KComZ를 설립했다고 믿었다.”고 회고했다.(Paik Sun Yup, *From Pusan to Panmunjom*(Washington D.C.: Potomac Books, 1992), p.205.) 위에서 살펴본 상황 전개는 이런 평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KComZ 창설로 인해 밴플리트의 부담은 분명 크게 경감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그의 권한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방에서의 전쟁이 ‘진지전’으로 고착되면서 후방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치열한 ‘전장’으로 변해갔고 후방의 문제들은 정전협정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3.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편제와 임무

KComZ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편제와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KComZ는 극동군사령부의 예하 부대이자 미 8군의 측위부대로서 편성되었다. KComZ는 미 8군과는 독립된 단위이며 유엔군 및 극동군사령부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된 것이다. 부대 창설과 함께 KComZ 사령관으로 헤렌(Thomas W. Herren) 소장이 임명되었다. 헤렌은 1946년 여름부터 24군단에서 하지 사령관의 참모장으로 근무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KComZ 사령관이 되기 전까지 미 8군의 민사담당 부사령관으로 밴플리트 중장의 휘하에 있던 인물이다.¹⁶⁾

미군정 운영을 경험하고 민사 업무에 밝은 헤렌이 KComZ 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KComZ의 기능과 역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병참관구(Communications Zone)에 걸맞게 병참업무를 전담한 것은 기본이었고 이밖에도 피난민과 전재민 관리, 이들의 이동 통제, 전후 복구 등 민사 업무 전반에 연관을 맺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KComZ는 임시 수도인 부산 지역 역시 관할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와 클라크 유엔사령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역시 KComZ 창설 이전에는 밴플리트 미 8군사령관이 수행하던 임무였으니 KComZ의 창설과

16) http://en.wikipedia.org/wiki/Thomas_W._Herren;

함께 밴플리트의 역할이 여러 면에서 축소된 것만은 분명했다.¹⁷⁾

헤렌은 KComZ 사령관에 임명되기 불과 1주일 전인 1952년 7월 3일,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 : CEB)의 유엔군측 대표로 지명되기도 했다.¹⁸⁾ 1952년 8월분 KComZ 지휘보고서에서도 그가 미 8군 민사담당 부사령관으로서의 업무에 “최고조에 달했을 때” KComZ 사령관이 되었으며 합동경제위원회의 유엔측 대표로 지명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민사원조 문제에 대한 그의 친화성은 KComZ 사령관으로서 실로 다행스럽고 매우 바람직한 특질”이었다고 평가했다.¹⁹⁾

KComZ는 1952년 8월 1일 부대 편제가 편성되었고 8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밝힌 대로 KComZ의 작전구역은 대략 북위 37도선 이남의 후방지역으로 다음의 지도들에 나타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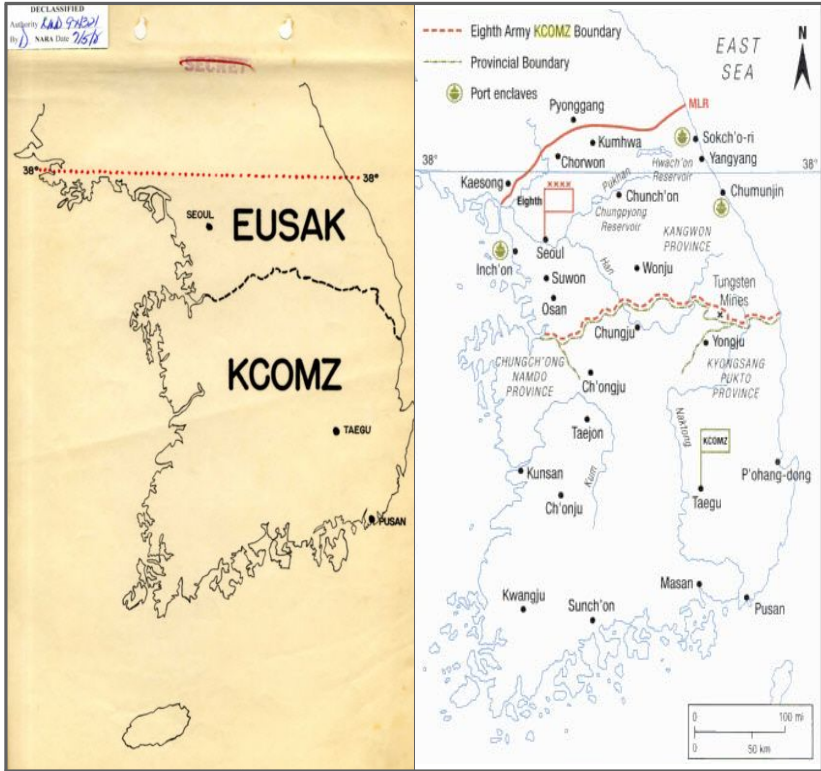


17) 1953년 2월 4일, 클라크는 한국정부의 서울 환도 의사에 대해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사업무의 관점에서 KComZ와 한국 정부의 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8군은 이 지역에서 내가 KComZ의 책임이 되길 바랐던 민사, 정치, 경제문제로부터 8군을 제외하려는 나의 명령을 무효로 만들 가능성들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FRUS』 1953, pp.729~731, 『자료대한민국사』에서 재인용) 클라크의 이러한 보고를 보면 그가 한국정부와의 협의 문제, 즉 ‘정치’ 문제에서 8군을 제외하고 이를 KComZ로 대체하려 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8)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혜안, 2009, 173쪽.

19)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지도 1〉 주한 미 8군과 KComZ의 경계(A)²⁰⁾ 〈지도 2〉 주한 미 8군과 KComZ의 경계(B)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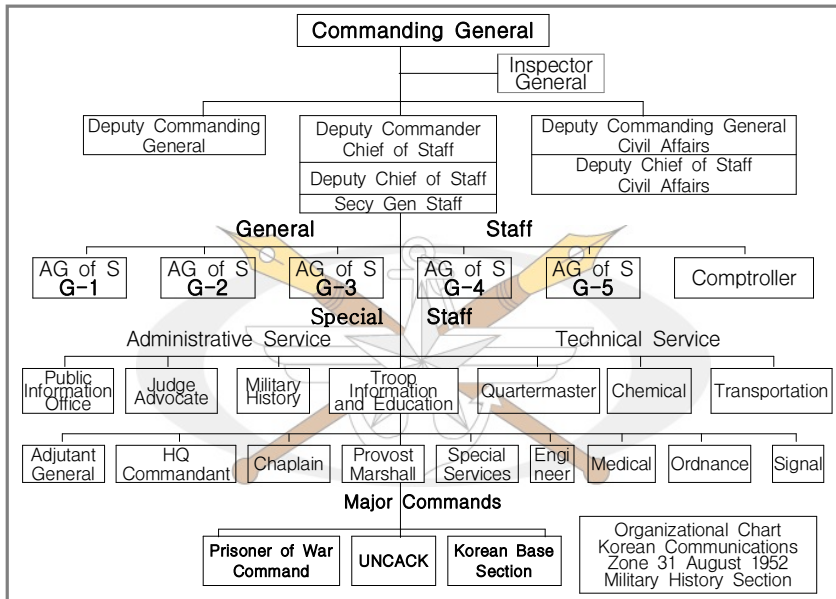
극동군사령부 지침에 따라 미 8군 휘하에서 병참 업무를 담당했던 제2병참사령부는 KComZ의 예하 사령부인 KBS(Korean Base Section, 한국병참기지관구) 휘하에서 기능하게 되었고 11월 1일에는 완전히 KBS에 흡수되었다. KComZ 지구 내의 모든 미 육군부대와 설비는, 예외적으로 미 8군 담당지역 내에 위치한 인천, 속초리, 주문진의 항구들과 함께 KComZ에 귀속되었다. KComZ의 주요 예하

20)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21) Donald W. Boose, Jr., *US Army Forces in the Korean War 1950-53(Battle Orders)*(Ospery Publishing, 2005), p.88.

부대는 한국병참기지원구(KBS)와 포로사령부(Prisoner of War Command), 그리고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rps Korea)였다. 이러한 KComZ의 편제는 다음의 표에 잘 나타나 있다.

〈표 1〉 KComZ의 편제표²²⁾



UNCACK은 1950년 11월부터 민사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KComZ가 창설되면서 미 8군에서 KComZ로 지휘 체계만 바뀐 것이 지 업무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포로 사령부는 KComZ 창설과 비슷한 시기에 창설되었으며 창설되자마자 KComZ 휘하에 편제되었다. KBS는 KComZ가 창설되면서 부산에 근거지를 둔 일종의 ‘기지사령부’로서 창설되었으며 미 8군 휘하의 제2병참사령부가 담당하던 병참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KComZ 창설과 함께

22)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UNCACK-민사, 포로사령부-포로 관리, KBS-병참지원이라는 KComZ의 주요 업무가 예하 부대의 편성과 함께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KComZ 부대 약사를 보면 KComZ의 임무는 크게 다음의 아홉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① 주한유엔군에 대한 병참과 행정 지원, ② 한국군에 대한 병참지원, ③ 책임지역 내에서의 이동(movement) 통제, ④ 한국 국립 철도(Korean National Railway)의 운영, ⑤ 책임 지역 내의 안전보장(Security), ⑥ 전쟁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의 수용, 관리, 통제, ⑦ 민사 관리와 민사 원조의 책임, ⑧ 한국정부, 유엔한국재건단(UNKRA), 주한미대사,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와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 수행, ⑨ 한국 내 다양한 사령부들의 인원배치전환(replacement) 통제가 그것이다.²³⁾ 이는 극동군의 지침에 따라 7월 13일 헤렌이 초안을 잡았다고 하는 KComZ의 여덟 가지 임무에 마지막 아홉 번째 임무만을 추가한 것으로, 내용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이 중에서 ①~④, ⑨는 KComZ의 기본 업무인 병참 관련 임무이며, ⑤는 모든 군부대가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²⁴⁾ 따라서 눈여겨 볼 것은 ⑥, ⑦, ⑧에 해당하는 포로 관리, 민사 업무, 한국정부 및 유엔 기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KComZ의 활동을 월별 혹은 분기별로 정리한 지휘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23) RG 550, Entry (A1)-1, Box 339, KComZ History.

24) 군부대가 담당지역 내의 안전보장(Security)을 책임지는 것은 전시에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러나 이 시기 KComZ의 담당지역 내에서 ‘안전보장’이란 기본적인 치안 활동 이외에도 ‘빨치산 토벌’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토벌’은 1952년 2~3월이 되면 대체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KComZ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1952년 8월 27일 현재 남한 내에는 여전히 1627명의 빨치산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정보 보고서의 빨치산 분포도에는 지리산, 회문산, 백운산, 덕유산, 대둔산 등 주요 거점별로 무장 및 비무장 인원수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있는데, 인사(Personnel), 정보(Intelligence), 작전(Operations), 군수(Logistics), 민사(Civil Affairs)의 전형적인 참모부서별 활동이 정리된 지휘보고서에서 특히 정보와 작전, 민사 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난다.

정보참모부의 활동으로 주요한 것은 빨치산 활동에 대한 보고와 포로 활동에 대한 감시,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치’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 작전참모부의 활동은 빨치산 활동과 포로 활동에 대한 대응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사참모부의 활동은 농업, 전력 및 연료, 광산, 수송과 통신, 산업과 상업, 재정, 물가, 임금, 구호물자, 피난민과 피난민 주거 문제, 의료 및 구호 의약품 문제, 공보와 교육까지 매우 다양했으며 그 비중도 군수참모부의 비중만큼이나 컸다. 다음 장에서는 1952년 8월부터 1955년 6월까지의 활동 내용을 통해 이러한 KComZ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4. 한국후방관구사령부의 활동과 해체

KComZ는 1952년 8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될 무렵까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활동 영역이 점차 줄어들면서 1954년 초부터 해체가 모색되었고 미국 회계연도 1955년(FY1955)에 맞추어 1954년 7월 1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부대 해체(Roll-up) 기간이 설정되어 1955년 6월 30일 최종 해체되었다.²⁵⁾

KComZ의 활동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1) 한국병참기지관구(KBS)가 주관한 병참지원 업무, 2)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25) RG 550, Entry (A1)-1, Box 95, Roll-up Opns.

가 주관한 민사 업무, 3) 포로사령부가 주관한 포로 관리 업무를 들 수 있다. KComZ의 참모부서들은 KComZ 산하의 이러한 주요사령부로부터 각각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하였고, 이밖에도 4) 빨치산 토벌, 5) 한국 정부와의 관계 및 정치 관련 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의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각 활동의 핵심 내용과 시기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각각의 활동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가. 병참지원

병참지원 업무는 KComZ의 창설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된 KComZ의 기본 업무였다. 여기에는 탄약, 포탄, 의복 등 각종 군수품 통제에서 노획물과 레이션 관리, 철도, 도로, 해상, 공중 수송, 사상자 이송 등 다양한 병참 관련 업무가 망라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투 관련 군수품 수요가 급감하였고, 부대 해체를 준비하면서 물자와 기능의 이전을 중심으로 업무의 내용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지만 병참지원 업무가 KComZ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임에는 틀림없었다.²⁶⁾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병참지원 업무는 별도의 병참사령부(Logistical Command)가 수행하는 것이 교리로 받아들여졌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나는 이탈리아 전투에서도 같은 방법을 썼었다. 제5군에 의하여 점령된 나폴리 항구의 관리, 전방으로의 보급품 수송 등을 전담할 별개의 사령부를 창설하였던 것이다. 전방부대는 오직 독일군과의 전쟁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⁷⁾

26)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RG 554, KComZ Annual Historical Report, Fourth Quarter, 1953.

27) 마크 클라크, 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 242쪽.

6·25전쟁기에는 1950년 8월 25일, 요코하마의 미 8군 후방본부(Rear Headquarters)가 주일병참사령부(Japan Logistical Command)로 편성되어 주한미군과 일본 지역행정(area administration) 양쪽에 대한 병참지원을 맡으면서 사실상의 전장 병참관구사령부(a theater communications zone)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해 전쟁 초기 미8군의 병참지원은 주일병참사령부가 도맡았던 것이다. 얼마 뒤인 1950년 9월 19일, 부산병참사령부가 해산되면서 제2병참사령부가 창설되었고, 같은 날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미 10군단의 병참지원을 위해 제3병참사령부가 편성됨으로써 유엔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담당하는 3개의 병참사령부 구성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1951년 1월, 임무를 마친 제3병참사령부가 부산으로 물러나 제2병참사령부의 예하부대로 편성되면서 일본과 한국에 각각 하나의 병참사령부가 남게 되었다. 1952년 8월 1일에는 제2병참사령부가 KComZ 산하의 한국병참기지원구(Korea Base Section)가 되었고, 같은 해 10월 1일, 주일병참사령부가 해산되어 재조직된 극동미육군(U.S. Army Forces, Far East)에 흡수되었다. 따라서 6·25전쟁기 병참지원 체계는 초창기 JCL-제2-제3 병참사령부 체제에서 1952년 가을 무렵 극동미육군-KComZ 체제로 변화한 셈이다.²⁸⁾

이렇듯 병참지원 업무는 KComZ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기능이었고 KComZ가 한국병참관구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KComZ는 병참지원 업무 이외에도 민사 활동, 포로관리, 빨치산 토벌, 한국정부와의 관계 등 다양한 ‘후방’ 관련 업무들을 수행했다.

28) RG 550, Entry (A1)-1, Box 66, Logistical Problems and Solutions by EUSAK: Terrence J. Gough,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A Research Approach*(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7)

나. 민사 활동

KComZ의 민사 활동은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가 주관하였는데 UNCACK은 KComZ 창설 이전인 1950년 10월부터 고유의 민사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다. KComZ가 창설되면서 UNCACK은 KComZ의 예하 부대가 되었지만 조직의 책임과 작전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ComZ의 민사 활동은 농업, 전력 및 연료, 광업, 수송 및 통신, 어업, 공업, 공공 재정, 물가 및 가격과 임금, 구호물자, 공공복지, 피난민, 피난민 주거, 공중위생, 구호의료, 공보와 교육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²⁹⁾

1952년 5월 24일,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양측의 견해를 조정할 자문기관으로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 CEB)를 설치하였다. 같은 해 7월 3일, 첫 회의가 열렸을 때 한국대표는 재무부장관 백두진이었고 유엔군사령부 대표는 KComZ 사령관 헤렌이었다. 다음 달인 8월 헤렌은 해군소장 헨론(B. Hall Hanlon)에게 합동경제위원회 유엔군사령부 대표 지위를 넘겼고, 이후에는 KComZ 민사 부사령관이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합동경제위원회 산하에는 총수요(overall requirement), 구호와 원조 물자, 재정, 외환을 다루는 분과위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민사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따라 KComZ의 민사 활동에는 한동안 합동경제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³⁰⁾

이밖에도 환율문제, 통화개혁, 유엔군 자금조달 등 경제영역과 관련된 문제들도 민사영역으로 분류하여 취급하였다. 이런 부분들을

29)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김학재,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60쪽.

30)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김학재,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자료 해제」,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299~300쪽.

고려하면 KComZ의 민사 활동은 UNCACK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했다고 할 수 있다.³¹⁾

다. 포로 관리

KComZ의 포로 관리 업무는 KComZ 산하 기관으로서 1952년 7월 14일 부산에 창설된 포로사령부가 주관하였다. 포로사령부 사령관은 보트너(Hayden L. Boatner) 준장으로, 돛드 수용소장 피랍사건 이후 돛드와 콜슨 준장의 뒤를 이어 거제도포로수용소장에 새로 임명된 인물이었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포로들이 휴전회담을 무산시키고자 한다고 보았고, 보트너에게 “거제도에 있는 반란 포로들을 장악하고 통제를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보트너는 ‘유혈극’의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클라크는 “귀하가 해야 할 바를 하라. 내가 뒷받침하겠다.”고 밀어붙였다. 결국 보트너는 각 단위 수용소에 매일 공개적인 보안검색을 실시했고 수용소 측과 포로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1952년 6월 10일 폭동은 보트너 수용소장이 10일 06시까지 포로들에게 제76포로수용소를 비우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되었다. 포로들은 터널을 파고 창을 만들어 저항했지만 미군은 충격탄과 최루탄, 화염방사기를 사용하였고 제187연대 병력과 탱크 6대를 동원하여 2시간 30분 만에 진압을 완료하였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의 결과 포로 40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부상을 당했다. 미군은 1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 포로들은 여러 곳에 더 작은 단위로 분산 수용되었고 포로수용소의 통제 정책은 강화되었다.³²⁾

포로사령부의 창설과 보트너의 사령관 임명은 이렇게 포로 문제가

31) RG 554, KComZ Command Report, December 1952; RG 554, KComZ Command Report, March 1953.

32)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263~269쪽; 김준봉, 『한국전쟁의 진실』, 이담북스, 2010, 299쪽.

폭발하여 정점을 찍은 뒤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KComZ 산하 포로사령부가 포로 관리 과정을 책임진 이후에도 포로 문제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였다. 1952년 12월의 봉암도 사건, 1953년 3월의 용초도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봉암도 사건에서는 진압 과정에서 기관총이 등장하였고 85명의 포로가 총격으로 사망하였다.³³⁾

그러나 포로 관리 문제에 관한 최대 사건은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에게 직접 명령하여 이루어진 6·18반공포로 석방이었다. 반공포로 석방으로 2만 6천여 명의 포로들이 탈출에 성공하였고, 이는 유엔군의 포로사령부 창설과 통제 정책 강화를 무색하게 하면서 KComZ뿐만 아니라 유엔군 전체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탈출한 반공포로들의 한국군 강제 입대와 세뇌 공작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포로 문제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포로사령부가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KComZ의 포로 관리 임무도 종결되었다.³⁴⁾

라. 빨치산 토벌

빨치산 토벌은 KComZ의 임무 중 “책임지역 내의 안전보장 (Security)”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미 1951년 11월 25일 전주에 백야전사령부(이하 백야사)가 설치되면서 같은 해 12월 2일부터 1952년 1월 4일까지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주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서남지구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 백야사의 소탕작전으로 큰

33) RG 554, KComZ Command Report, December 1952; RG 554, KComZ Command Report, March 1953;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299~306쪽.

34) RG 554, KComZ Command Report, June 1953; RG 554, KComZ Command Report, July 1953; RG 554, KComZ Command Report, September 1953.

타격을 입은 서남지구 빨치산은 게릴라 활동에 유리한 산악지역으로 재잠입을 시도했는데, 지리산, 백운산, 회문산, 백아산, 덕유산, 운장산지구 등이었다. 이에 따라 백야사는 1952년 1월 4일부터 제3기 작전에 돌입하여 공비 사살 1,867명, 포로 1,155명의 전과를 올렸다. 1952년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의 제4기 작전은 지리산, 백아산, 조계산, 회문산, 덕유산 일대를 재수색하여 잔존 빨치산을 일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국 총 4차례의 ‘쥐잡기작전’에 의해 남부군을 비롯한 빨치산 주력이 대부분 섬멸되었고 사살 5,009명, 생포 3,968명의 전과를 올렸다.³⁵⁾

그러나 토벌대의 포위망을 탈출한 일부 빨치산은 후방 지역 곳곳에 분산 은거하였다. 1952년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수행된 제1사단의 공비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1952년 8월 27일 현재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1,629명의 빨치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ComZ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 관할지역을 북부, 중부, 남부의 3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각 경비사령부(Security Command)를 설치하여 잔여 빨치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각 지역별 인원수가 매우 구체적이고 무장한 인원과 무장하지 않은 인원까지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빨치산 활동에 대한 매우 세밀한 정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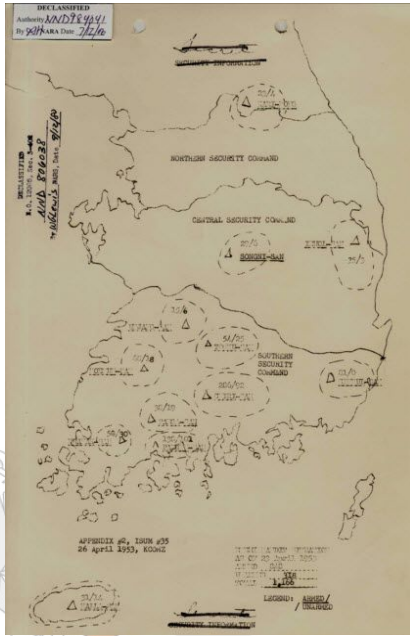
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2012, 251~270쪽.

36) RG 550, Entry (A1)-2, Box 94, KComZ Command Report, August 1952.

〈지도 3〉 빨치산 상황도(1952.8.)



〈지도 4〉 빨치산 상황도(1953.4.)



그러나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53년 4월 26일에도 잔존 빨치산의 수는 1,166명으로 여전히 1,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빨치산 규모는 체제의 위협이 된다거나 휴전회담을 방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KComZ 사령부와 한국 정부에게는 지속적인 골칫거리가 되었다. 빨치산 토벌작전에 대한 보고는 1953년 4/4분기까지도 지속되어 정전협정 이후에도 적어도 6개월 이상 후방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⁷⁾

37) RG 554, KComZ Command Report, April 1953; RG 554, KComZ Annual Historical Report, Fourth Quarter 1953.

마. 한국정부와의 관계 및 정치 관련 활동

KComZ의 활동 중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KComZ의 관할구역 내에 부산 피난 정부가 존재하였고, KComZ가 창설되면서 “한국정부, 유엔한국재건단(UNKRA), 주한미대사,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와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 수행”이 KComZ의 임무 중 하나로 부여되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1952년 5월의 돛드 수용소장 피랍사건과 뒤이은 포로수용소 내의 유혈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이 KComZ의 창설 직전에 벌어졌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었다.

제헌헌법이 규정한 간선제 하에서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대통령이 이승만은 5월 25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12명을 구속하였다. 직선제 개헌을 위해 국회해산을 강행하려는 시도였다. 부통령 김성수가 사임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이승만은 1952년 6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민주정체로 발전해가는 과정시기에 있어서 다소간 정치파동이 있는 것은 … 민주정체의 발전되는 경험으로 간주할 것이요 중대한 우려되는 것도 없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³⁸⁾ 결국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주도하여 정부안과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였고, 7월 4일 기립투표방식으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의 계엄령 선포는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 작전지휘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고, 이는 잘 알려져 있듯이 유엔군이 이승만 제거를 모색하는 상비계획(Plan Ever-ready) 작성으로 발전하였다.³⁹⁾ 따라서 클라크가 이승만을 제어하고자 했다면 미 8군사령관 밴플리트보다는 KComZ 사령관 헤렌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유리

38) 『경향신문』 1952.6.6.

39) 홍석률, 「집중분석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역사비평 28』, 역사비평사, 1994, 138~169쪽.

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밴플리트는 한국군 증강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등 이승만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다. KComZ 창설 이후 KComZ의 관할구역 내에 임시수도 부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KComZ의 월간 지휘보고서나 분기별 지휘보고서 등에는 헤렌 사령관이 이승만이나 자유당 인사 등과 직접 접촉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회 내의 정치적 분파들에 대한 보고나 한일 관계의 문제, 한국군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헤렌은 1953년 3월, 극동군사령관에게 “보통은 KComZ 사령부와 한국 정부 간에 정치적 연락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사관의 기능과 중복될 수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⁴⁰⁾ 따라서 KComZ의 창설과 활동이 한국 정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자료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바. KComZ의 해체(1954.7.1.~1955.6.30.)

1954년 6월 3일자 극동군사령부 병참 조정에 관한 육군부 계획(DA plan for logistical adjustment in FECOM)에 따라 KComZ의 철수(Roll-up)가 결정되었다. 이후 병참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KComZ가 담당해 왔던 임무들을 주한미8군(EUSAK)과 한국군에 이관하는 문제들이 KComZ 참모부서에서 논의되고 계획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후 1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르면 KComZ의 역할은 전쟁 중인 1952~1953년과 달리 병참지원업무를 중심으로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포로 송환이 완료되었고, 빨치산 토벌도 대체로 마무리되었으며, 피난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서울로 환도하였다.

40) RG 554, KComZ Command Report, March 1953.

KComZ의 민사 활동도 1953년 7월 1일부로 유엔한국민사처(UNCACK)가 한국민사처(KCACK)로 전환되면서 전후 부흥계획의 맥락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KComZ 철수(Roll-up) 작전은 기본적으로 병참 업무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 주한미군의 재조정과 재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① 유엔군·미군 전투부대 상당부분의 한국에서 철수, ② 서울-인천 지역을 바탕으로 자립형 잔류부대(self-supporting residual force)의 구성, ③ 한미상호방위원조계획(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 MDAP) 하에서 한국군 자립형 병참 시스템의 발전, ④ 중요 보급 물자의 미군 보급 시스템(supply system)으로의 반환, ⑤ 한국에서의 초과 물자 및 장비의 철거 및 처리, ⑥ KComZ의 단계적 철수로 구성되었다.⁴¹⁾

이에 따라 한국 육군은 1954년 10월 31일, 한국군 전군에 대한 병참 지원과 후방 경비임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제2군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제2군사령부 창설 이후 KComZ는 제2군사령부 산하 지원부대(service type units)들의 지휘관과 참모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는 1954년 11월 15일에 시작되어 1955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KComZ가 실시한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은 한국군 제2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모두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KComZ는 이러한 프로그램 수행 이후 한국군 병참 능력을 평가하면서 “단계적 발전을 보였으나 미국 표준(American standards)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⁴²⁾

41) NARA, RG 550 Entry (A1)-1,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Files, Box 95, Report of KComZ Roll-up Operations, pp.1~8.

42) NARA, RG 550 Entry (A1)-1,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Files, Box 95, Report of KComZ Roll-up Operations, pp.20~22.

이밖에도 KComZ는 1955년 3월 31일까지 유엔군·미군에 대한 병참 지원 기능을 미 8군 전방사령부(Eighth Army (Forward))에 이관하였고, 극동군 군수참모부(FEC J-4 Section)에서 파견한 경제조정관실 군사고문에게 한국에서 미군이 운용했던 물자와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 지원을 위한 대외활동본부(FOA) 원조 7억 달러 중 미군으로부터 물자와 장비를 구매할 목적으로 책정된 4,300만 달러의 집행 과정에서 한국측 책임자와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1955년 6월 30일, 이러한 다양한 병참 관련 업무의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 뒤 KComZ는 결국 해체되었다.

5. 결론



1952년 7월 창설된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는 6·25전쟁기 후반에 이르러 적어도 군사적 측면에서 전방과 후방이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생겨날 수 있었다. KComZ는 남한 면적의 약 2/3에 해당하는 후방지역을 담당하며 미 8군이 담당하던 병참지원 업무를 대신해서 미 8군이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창설되었던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기 처음 등장한 연합군의 병참관구(communications zone) 개념이 한반도에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2년 7월 상황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방과 평화로운 후방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포로 문제로 인한 휴전회담의 교착, 포로수용소 문제, 부산정치파동, 여전히 계속되는 빨치산 활동과 각종 민사 문제 등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후방이 더욱

치열한 전장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KComZ는 단순히 병참지원 업무만을 담당했던 부대가 아니라 포로사령부,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한국병참기지관구(KBS)를 예하부대로 거느리며 병참과 포로관리, 민사 문제와 빨치산 토벌, 나아가서 한국정부와의 관계 등 ‘정치’ 영역에까지 관여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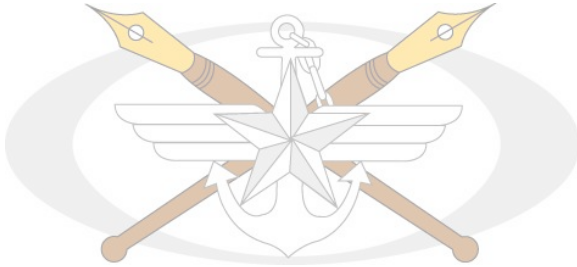
물론 KComZ에 부여된 이러한 임무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포로사령부가 창설되어 기능했음에도 KComZ는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속수무책이었고, 빨치산 토벌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전협정 체결 이후까지도 계속되었다. 결국 KComZ의 역할은 스탈린 사망 이후 휴전회담의 교착 상태가 해소되는 1953년 3월을 전후하여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인 1953년 10월을 전후하여 급속도로 축소되어 1954년 7월부터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클라크는 “밴플리트 장군이 전투 이외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에서 KComZ를 창설했다고 회고하였다. 백선엽은 KComZ의 임무가 1954년 7월 창설되어 후방을 담당한 한국 육군 제2군사령부에 대부분 승계되었다고 회고하였다. 동아일보는 1955년 6월로 예정된 KComZ의 활동 종료가 한국군의 발전을 입증한다는 기사를 신기도 했다. 하지만 KComZ의 창설과 해체는 6·25전쟁기 ‘후방’이 또 하나의 전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유엔군과 한국정부는 모두 ‘정전(停戰)’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후방은 전쟁과 일상이 교차하는 6·25전쟁의 또 다른 주요 무대였다. 본고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KComZ의 활동과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을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한다면 6·25전쟁기 ‘후방’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전쟁 이후 1950년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43) 마크 클라크, 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 한국후방관구사령부, 주한미8군, 극동군, 한국육군 제2군, 후방,
병참, 이승만, 마크 클라크, 밴플리트, 헤렌



<ABSTRACT>

Activation and Deactivation of Korean Communications Zone(KComZ) from 1952 to 1955

Lee, Don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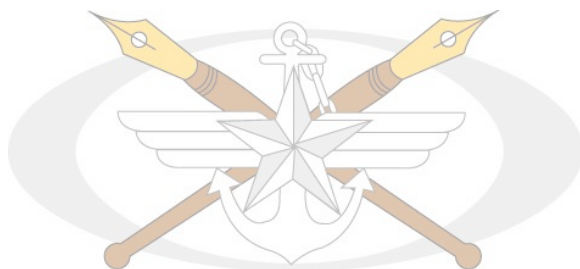
KComZ(Korean Communications Zone) was activated by the General Order No.65 of CINCFEC/CINCUNC, Mark W. Clark and had been charged with the 'rear area' of South Korea which had set the boundary line as approximately 37 degree northern latitude. In Korean peninsula, KComZ had lasted about for three years, from the activation on July 10th, 1952 to the deactivation on June 30th, 1955.

Ostensibly, KcomZ was activated for saving EUSAK(Eighth U.S. Army in Korea) from the burden of logistics supporting mission and conducting the mission independently. But KComZ had not only conducted the logistics supporting mission, but also performed the supervision of POWs, managed the civil assistance for Korea, and even involved in the relations of FEC/UNC and Korean government in Pusan. This means that the aspect and the meaning of Korean War was changed on 1952 and the meaning of 'rear area' was also changed simultaneously.

As the armistice agreement of Korean War was signed on July 26th, 1953, the role and the status of KComZ was changed again. Eventually,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Roll-up" plan, KComZ transferred the mission of logistics to the 2nd ROK Army and 8th U.S. Army (Forward). By researching the progress of KComZ from activation to deactivation,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rear area' of Korean War which FEC/UNC and US Army had in those days, also understand how the US intended to rearrange the military strength of UN forces and ROK forces in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of Korea War.

Key Words : KComZ, EUSAK, FEC, The 2nd ROK Army, 'Rear Area',
Logistics, Syngman Rhee, Mark W. Clark, James A. Van Fleet,
Thomas W. Herren



북한의 도발사례 분석

이 윤 규*

1. 서론
2. 북한의 침투도발 본질
3. 북한의 연대별 침투도발 사례
4.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분석
5. 결론

1. 서론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¹⁾에서 남북한 쌍방은 일체의

*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교수(정치학박사)

1)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3년 1개월 2일째, 그리고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을 개시한지 2년 18일 만에 조인되었다. 정전협정 조인식은 휴전회담 유엔군 측 수석대표 ‘헤리슨’ 소장과 공산군측 수석대표인 ‘남일’이 판문점에서 먼저 서명하고, 양측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유엔군사령관인 ‘클라크’ 대장과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일성’과 중공군사령관인 ‘팽덕희’가 최종서명을 하였다. 정전협정 조인일시는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이었으며, 협정 발효시점은 이날 22시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27일 22시 01분부터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병력 및 장비들은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를 개시하게 되었다. 정전협정 문서는 영문(英文), 중문(中文), 국문(國文)으로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고 상호합의 한 5개조 63개항의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56년 4월 23일 노동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평화통일 선언문과 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무장간첩을 남파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다차원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남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과거 60여 년 동안 자행해 왔던 침투도발²⁾과는 수단방법과 도발수준에서 ‘한반도 판 9·11테러’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도발이었다. 북한은 대남도발을 우리식 사회주의 유지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응전(應戰)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 세습독재체제가 존속하는 한 언제라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대남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6·25전쟁이후의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대남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6·25전쟁 이후의 북한의 대남도발 역사는 한반도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는 도발사례의 통계나 경과위주의 서술로서 왜 그러한 도발을 감행했으며,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대비해야 하는 교훈적인 연구와 저술은 부족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서 그 당시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많은 교훈을 일깨워주었지만 이를 대비태세에 접목

작성되었으며, 각각 6부씩 18부에 서명 후 교환하였다.

- 2) 『합동·연합작전용어집』, 합동참모본부, 2010에 “**도발**이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 “**침투도발**이란 적이 특정임무수행을 위해 우리 영역을 **은밀히** 침범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도발과 침투도발의 구분은 은밀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도발**은 대남혁명전략의 목적이든 북한의 체제유지 목적이든 우리의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의 일체의 위해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도발 중 **침투도발**은 한반도 적화목적이나 우리의 군사적 안보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나 테러, 정전협정 위반** 등의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시키지 못한 점도 많았다.

본 논문은 6.25전쟁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 도발사례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역사자료와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북한 도발실체를 이해하고 교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공개된 자료와 육군군사연구소 「대침투작전사 시리즈」, 각 부대의 전투상보·부대사 등을 인용하였고, 증언과 현장 확인을 통해 내용과 자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다.

2. 북한의 침투도발 본질

가.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

북한의 대남전략 최종목표는 한반도적화통일이다. 이러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대남혁명기구를 조직 운영하고 있고, 대남전략 최종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침투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분석을 위해 대남혁명의 이론적 배경과 침투도발 관련기구 및 전략전술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북한의 혁명론

북한의 통일론은 대남혁명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북한에서 체계화시킨 혁명과 통일에 관한 이론은 ‘남조선혁명 이론’과 ‘조국통일 이론’이 있으며 상호연관성과 공통점이 있다. 즉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곧 남조선혁명을 위한 투쟁이 되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있고,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은 다 같이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투쟁대상으로서는 미국 및 남한을, 그리고 주체사상을 지도적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김일성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의 기본구도는 ①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② 남조선혁명을 이룩하고, ③ 조국을 통일시켜 ④ 전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계속혁명론(繼續革命論)이다. 계속혁명이란 3대혁명운동(사상, 기술, 문화)에 입각하여 한 단계의 혁명이 성공하면 곧이어 다음 단계의 혁명을 계속 추진하여 최종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혁명투쟁을 쉬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

북한의 ‘조국통일 이론’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요구를 구현하고 조국통일의 주인은 전조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한민족 내부문제이며 외세에 의하여 유린된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민족자주권은 남한이 아직까지도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통일 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주란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대남혁명의 기본목적은 북한 노동당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김정일 사망 후 최초로 개최된 당대표자 회의(2012.4.11)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⁴⁾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 구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당 규약에서 용어의 표현은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대남혁명의 목적은 여전히 대남 적화혁명으로서 변화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국적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3) 박채용, 『북한정치연구』, 세계 아기선교 출판사, 1995, 610쪽.

4) 북한 노동신문, 2012.4.12일자.

남한이 혁명 이전의 단계에 놓여 있다는 인식으로서 ‘조국통일이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2)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은 정권초기부터 자신들의 유일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혁명기 지전략’에 의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전략을 수립 추진해 왔다.⁵⁾ 혁명기 지전략은 무력통일을 위해 북한지역의 전쟁준비를 강화하여 혁명의 근거지를 구축한 다음에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에서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혁명기 지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정권수립 1년 만인 1949년에 무력으로 남한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준비를 서둘렀고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혁명기 지전략’을 추구하는 소위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하여 남한 적화통일을 위한 기습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모든 전쟁은 그 원인이 되는 정치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평화 역시 다른 수단으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전쟁을 당연시 하는 군사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남한을 민족해방의 대상지역으로 상정하여, 간첩침투, 군사도발, 테러 등을 감행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북한의 사회 전반 및 인민전체를 전쟁준비태세를 구축하여 대남적화혁명을 통해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통일전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3) 3대 혁명역량 강화

북한은 1964년 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전 조선혁명 달성을 위한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 즉 북한사회주의 혁명역량강화, 남한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국제 사회주의 혁명

5) 이도영 외, 『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4. 15~20쪽.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조선 혁명역량 강화는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으로 구성된다. 정치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 인민들을 철저히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노동당과 혁명 건설의 무기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주의체제를 강화하고, 3대 기술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력국방의 원칙에 따라 4대 군사노선⁶⁾을 실천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둘째,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란 남한에서의 민주세력 지원, 남한 인민의 사상적 각성, 통일전선 형성, 국군의 와해, 무장공비 침투 등 남한사회 혼란 및 교란 등이 실천과업이다. 여기서 남한의 민주세력 지원이란 남한 내의 친북·중북세력과 반정부세력의 정치적 투쟁을 고무·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북한은 간첩납파, 밀입북 유도, 지하당 조직, 사이버 심리전 등을 통해 친북·중북세력과 연계하며 투쟁지령과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공작을 전개해왔다. 특히 남한의 발달된 사이버공간과 점증되고 있는 남남 갈등으로 인해 남한 내 혁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국제 혁명역량 강화란 사회주의국가 및 제3세계 국가 인민들과의 유대강화, 자본주의 국가내의 노동운동 세력과 단결할 것, 전 세계 반제평화 애호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6) 1962년 12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구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채택된 것으로서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전 인민 무장화, 전국토 요새화, 인민군의 간부화, 군 장비의 현대화란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되었다. 국방대학교,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국방대학교, 2012, 52쪽.

들어서 공산권 국가들이 몰락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북한은 국제혁명 역량 강화를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마약, 위조지폐, 탈북자 처형 등 인권유린, 핵무기 개발 시도,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인식되어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3대 혁명역량 강화는 북한의 대내외 상황과 남북관계 및 한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북조선 혁명역량 강화는 김정은 세습 체제 유지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혁명역량 강화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데 급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는 남한사회에 유리한 대남 혁명역량 여건을 활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차원 영역에서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단방법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는 북조선 혁명역량과 국제적 혁명역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전환을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북한의 대남적화혁명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행동차원인 대남혁명전술은 ① 지하당 구축전술, ② 통일전선전술, ③ 대중투쟁전술, ④ 적군외해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⁷⁾

첫째, 지하당 구축전술은 남한 내에 '조선노동당'의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에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1970년대에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에 한국민족민주전선, 1990년대에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최근의 일심회 및 왕재산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하고 종북세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지하당 구축에

7)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 1983-1993』, 북한연구소, 1993, 942~944쪽.

집요한 노력을 전개하는 이유는 지하당을 혁명주력군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혁명이 일어날 경우 남한 자체의 혁명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 전술이다. 통일전선은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주적을 타도하는데 공산당세력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통일전선 형성전술은 일차적으로 주적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동맹하여 그들의 힘을 활용, 타도시키고 그 이후에 공산세력을 지지하는 세력 이외에는 모두 제거하는 전술인 것이다.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전선 형성원칙은 조직상 원칙으로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균중노선을 결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술상의 원칙으로는 ① 하층 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고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 ②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③ 통일전선체내에서 중간층, 민족자본가들과 단결하는 가운데 투쟁할 것 등이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혁명을 위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1949년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조국전선)을 결성한 바 있고, 이후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 민주연합전선 구축을 외치며 1980년대 통혁당의 후신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위장 출범시킨 바 있다. 1990년대 들어 전 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범민족적 대회를 통해 남북한과 해외동포를 연합한 친북반한 통일전선체인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연합) 등을 결성하고 활동하였다.⁸⁾

셋째, 대중 투쟁전술은 노동자나 일반 민중들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인상, 노동환경 개선 등의 구호를 내세워 경제투쟁을

8) 차주완,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변화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52~54쪽.

전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파업, 시위, 폭동, 무장봉기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이 있으며, 이를 배합하기도 한다.

넷째, 국군와해전술은 국군을 와해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 민족군대, 인민군대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다. 북한은 국군을 미제 식민지 통치의 무력적 기초이며 반동통치의 중추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혁명 성사를 위해서는 반혁명 무력을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군 내부에 침투하여 상급자의 명령 기피, 도주 등 낮은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항명, 폭동과 같은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부분적인 연합투쟁에서 전 사단, 전 군단 등 높은 형태의 전면적인 연합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고 있다.⁹⁾

나. 북한의 대남혁명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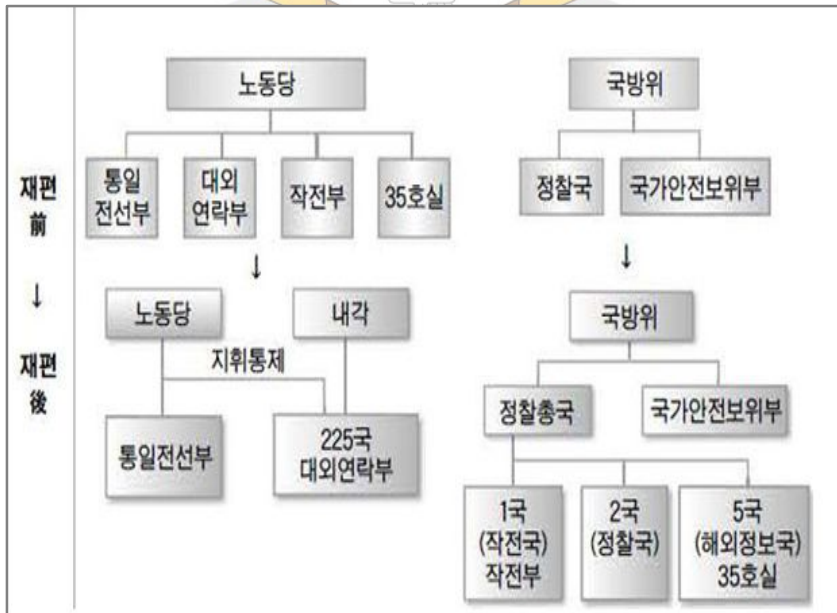
북한의 대남혁명기구는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최고 상위조직으로서 최고 권력의 직접적인 지도와 지령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조직이나 노동당 대남정책 결정기관과 지휘체계는 연계되어 있지만 때로는 별도 조직으로서 군과 당의 타 조직보다 과업이나 운용 측면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 대남혁명기구는 수시로 변화되고 또 비밀조직이기 때문에 북한문헌에도 잘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정보기관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 자료와 탈북귀순자 증언, 정보기관의 첩보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⁰⁾

-
- 9) 조선노동당,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 조선노동당출판사, 168쪽.
 10) 유동렬,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의 개편의 의의 및 전망」, 『합참지 44호』 14~17쪽과 2010년 4월 19일자 인터넷 안보웹진, 『코나스 플러스(제32호)』을 재정리한 것임.

북한의 대남혁명기구는 <그림 1>과 같이 2009년 5월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2009년 개편 전 대남혁명기구는 노동당 주도로 수행해 왔다. 즉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대남사업담당비서를 두고 그 휘하에 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를 두었으며, 국방위원회 통제하에 총참모부 정찰국, 국가안전보위부 등 6개 기구에서 수행하여 왔다. 이들 대남혁명기구는 각자 독립성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조직과 선전공작, 침투도발을 수행하고 있고, 중요 공작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예 공작요원을 차출하여 특별팀(TaskForce)을 편성하여 수행해 왔다.

<그림 1> 2009년 5월 변경 전·후 대남적화혁명기구 비교



※ 출처 : 인터넷 안보웹진, 『코나스 플러스(제32호)』, 2010.4.19.

그러나 이러한 대남혁명공작기구는 2009년 5월에 당 주도에서 군 주도(국방위원회)로 일대 변화를 가져 왔다. 변화된 내용은 <그림 1>과 같이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작전국(舊 당 작전부), 정찰국(舊 총참모부 정찰국), 해외정보국(舊 당 35호실)을 전환 편성하고, 당 대외연락부는 225국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당 통일전선부는 축소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변경된 대남혁명조직의 지휘 체계는 국방위위원장 ⇒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대남공작 담당 ⇒ 정찰총국장 및 225국장, 그리고 통일전선부장 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국방위제1부위원장 겸 당 총비서이기 때문에 통일전선부와 내각의 225국도 결국 김정은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지휘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대남혁명기구의 역할과 기능도 대남공작 비밀사업의 속성상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존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당 주도에서 군주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대남공작이 과거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 대한항공(KAL) 폭파 등과 같이 초강경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개편 후에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을 자행한 것이 그 변화징후라고 판단되며, 김정은의 체제유지를 위해 강경군부의 관계유지를 위해서라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3. 북한의 연대별 침투도발 사례¹¹⁾

가. 1953. 7. 27 정전협정 이후

1) 시대적 상황과 침투도발 전개양상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이 조인되어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중지됨으로써 외면상의 평온을 되찾았으나,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병력증강과 신무기의 도입, 그리고 비행장 건설 등 또 다시 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중공군의 압록강 북안으로의 철수에 상응한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였다. 국군은 휴전에 방심하지 않고, 전시와 같은 결전태세의 완비와 전력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보유 전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을 정비하여 야전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1954년에 체결된 ‘한·미의정서’에 의해 72만 명의 군이 유지되었으나 1957년도에 미국 측으로부터 10만 병력 감축제안이 있어 63만 명으로 감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군 장비의 현대화 사업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남북한의 시대적 배경에서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위장 평화공세와 대남도발 및 간첩, 테러 등 화전양면전술을 전개하였다. 특히 6·25전쟁 중 남노당에 의한 우리의 후방지역에서 봉기와 유격전이 잘 전개되지 않아 후방에서 제2전선이 형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후방지역에 대한 교란을 위한 무장공비와 간첩들을 남파하고 테러 및 납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정전 이후 1956년

11) 북한의 연대별 도발사례는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육군본부 군사문제연구소의 『대침투작전사 시리즈』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대학의 교재 등 공인기관의 연구 내용과 자료를 인용하고 정리하였다. 아울러 각 연대별 대내외 정세는 대남도발사와 관련된 내용위주로 작성된 육군본부, 『대침투자작전시시리즈』와 국방대에서 매년 발간되는 『국가안보정세』 내용을 반영하였다.

9월까지 3여 년 동안 249건의 대간첩 작전 및 검거로 375명의 북한 남파간첩을 체포한 것은 그 실증적 근거가 된다.¹²⁾

북한은 1956년 4월 23일 노동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평화통일 선언문과 신 5개년 계획’ 발표 등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무장간첩 남파를 계속하였고, 1957년 11월 11일에는 동해에서 어업 중이던 우리어선 8척을 납치한 이후 간첩선과 무장공비 남파, 테러를 계속 감행하였다. 정전이후 1950년대 북한의 침투도발 주요사례는 <표 1>과 같다.

<표 1> 정전 이후 195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57.11.11. 우리어선 8척 납치	'58. 9. 8. 동해 무장간첩선(사실2, 체포2)
'58. 2.16. 대한민국항공사(KNA)납치	'58.10. 6. 인천 무장간첩선(체포4)
'58. 4.10. C-46수송기 납북 시도	'59. 7.27. 무장선박 격침(사실5, 체포2)
'58. 4.24. 조기잡이 어선 1척 납치	'59. 8. 9. 북한군 우리어선 7척 납치
'58. 6. 8. 서해안 무장간첩선(사실3, 체포1)	

2) 주요도발 사례 : 창랑호 납북 및 공군기 납북 시도

창랑호 납북은 1958년 2월 16일 11시 30분 부산 수영비행장을 출발한 대한민국항공사(KNA : KAL전신) 소속 쌍발여객기(DC-3)가 서울로 운항하던 중 승객 28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채 북한 무장간첩에 의해 강제 납북된 사건이다. 북한은 납치 다음날에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의 전쟁정책에 반대한 남조선인민의 의거 입북”이라고 허위 선전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비무장 민간비행기 납치를 규탄하는 세계 여론이 비등해지자 3월 6일에 조종사 승무원과 가족 8명을 범인으로 조작하여 억류하고 승객 26명만 송환하였다. 한편 1958년 4월 10일, 창랑호 납북사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공군

12) 국방대학교, 『건군 50년 한국 안보환경과 국방정세』, 국방대학교, 1988, 79쪽.

C-46수송기의 납북을 시도하였다. 대구를 출발하여 서울을 향하던 수송기가 평택 상공을 지날 무렵 북한 간첩인 현역 공군대위 최정일이 미제 4구경 권총으로 통신사 김상호 하사를 살해한 후 월북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조종사 김갑규 대위와 부조종사 최병린 중위, 정비사 천병훈 중사에 의해 제지당하고 실패하였으며 범인은 군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나. 1960년대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1) 1960년대 대남 침투도발 현황과 전개 양상

정전협정이후 50년대에는 전후 복구와 휴전선 설치 및 유엔 정전위원단의 감시 등으로 인해 대남도발은 빈번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남도발은 1960년 4·19의거이후부터 감행되었으며, 1960년대 북한의 연도별 대남 침투 도발 현황은 <표 2>와 같이 총 933건이며 지상침투 도발은 472건, 해상·해안침투 도발은 439건이다. <표 3>은 1960년대 주요 대남 침투도발 사례이다.

<표 2> 1960년대 연도별 대남 침투도발 현황

구분	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계	933	86	58	63	47	60	91	184	141	144	86
지상	472	28	14	16	17	20	21	96	104	97	59
해상	439	54	39	19	29	40	68	82	35	46	27
불상	22	4	5	1	1		2	6	2	1	

※ 출처 : 육군본부, 『침투사건편람 II집(53~'68)』, 1986, 866쪽과 『침투사건편람 III집(69~'76)』, 1990, 793쪽을 재정리.

〈표 3〉 1960년대 주요 대남도발 사례

진주 덕이마을 무장공비 침투(1966.5.17.)	경원선 폭파사건(1967.9.5.)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1967.1.19.)	경의선 폭파사건(1967.9.13.)
중부전선 교전(1967.4.12.)	1:21사태(1968.1.21.)
격렬비열도 간첩선 격침(1967.4.17.)	푸에블로호 피랍사건(1968.1.23.)
화천군 비무장지대 침투(1967.4.12.)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1968.11.2.)
서부전선 미군막사 폭파사건(1967.4.22.)	주문진 무장간첩사건(1969.3.16.)
강릉 고단지구 무장공비 침투(1967.5.21.)	EC-121 격추 사건(1969.4.15.)
연평도 근해 어선포격사건(1967.5.27.)	1차 흑산도 간첩선 격침(1969.6.9.)
대성동 미군트럭 기습사건(1967.8.7.)	2차 흑산도 간첩선 격침(1969.10.23.)
서부전선 군용트럭 기습사건(1967.8.10.)	대한항공 YS-11기 납북(1969.12.11.)
판문점 미군막사 기습사건(1967.8.28.)	해군 방송선 피랍사건(1970.6.5.)

1960년대 침투도발 전개양상의 특징은 육상 침투도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특히 휴전선 전 지역에서 거의 매일 침투도발이 있었고, 미 2사단지역에서는 1일 평균 4회의 침투기도가 있었다. 침투도발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미 2사단이 담당한 지역인 파주지역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수도권까지의 단거리 침투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미군이 월남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수행능력이 제한된다는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미군에게 많은 피해를 줌으로써 조기에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5년 이후에는 지상 침투도발은 단순한 공작원 침투뿐만 아니라 게릴라전식의 형태를 띠는 침투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아군 지역에 침투하여 경계초소나 막사, 작업병력, GP 식수운반조나 보급추진조, 수색 및 매복작전 병력 등에 대한 무차별 습격을 통하여 아군 시설 파괴, 병력에 대한 살상 및 납치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는 아군 이동통로에 지뢰 또는 TNT를 매설하여 이동병력을 살상하거나 차량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수중침투도발은 1960년대 초반에는 주로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이용하였고, 1965년 이후에는 연천군 임진강 상류를 다수 침투 도발하였다. 수중침투도발 수단은

수영에 의한 침투도발을 시도하였으나 때로는 소형잠수정이나 소형 선박을 이용하였다.

북한은 1968년에, 전 남방한계선에 철책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목적보다 철책을 뚫고 후방지역으로 침투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철책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침투에 활용할 목적으로 소형땅굴을 구축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최초의 소형땅굴침투 시도는 1968년 미 2사단지역으로 철책 하단을 굴토하여 아군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였으며, 197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소형땅굴을 구축하여 침투도발을 기도하였으나, 1971년 연천, 인제, 고성지역에서 아군에게 조기 노출되어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전 전선에서 본격적으로 남침용 땅굴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전후방 동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며, 1970년대 발견된 것만으로도 4개에 이른다. <표 4>는 1960년대 북한의 대남침투에 대한 작전결과 전과를 제시한 것이다.¹³⁾

북한의 대남침투도발 외에 함정이나 공작선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우리 어선들을 불법으로 납치하는 사건들도 빈번하게 자행하였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북한이 대한민국의 어선을 강제로 납북한 사건은 <표 5>에서와 같이 총 319척에 2,234명이나 되었으며 어선 287척과 1,937명의 선원은 귀환하고 나머지 어선 32척과 297명의 선원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표 4> 1960년대 대침투작전 결과 전과

구분	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침투인원	2,693	115	104	57	96	142	210	694	601	429	245	
전과	소계	1,447	86	92	45	56	85	90	372	406	125	90
	사살	954	12	26	7	10	21	33	297	376	94	78
	검거	418	67	57	33	42	48	45	62	27	26	11
	자수	75	7	9	5	4	16	12	13	3	5	1
도주	1,246	29	12	12	40	57	120	322	195	304	155	

13) 육군본부, 『침투사건편람 II집』과 『침투사건편람 III집』 참고하여 재정리.

〈표 5〉 1961~1970년 어선 납북 현황

구분	납 북		귀 환		미귀환	
	선박(척)	인원(명)	선박(척)	인원(명)	선박(척)	인원(명)
현황	319	2,234	287	1,937	32	297

※ 출처 : 해군본부, 『해상대침투작전사』, 1988, 71쪽.

2) 주요 대남도발 사례

가) 1968년 1·21 사태(청와대 기습 사건)

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하여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하였던 사건이다.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요인 암살지령을 받고, 한국군의 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휴전선을 넘어 야간을 이용하여 수도권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세검정고개의 자하문을 통과하려다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검문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하는 한편,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이 살상 당하였고, 작전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무장공비의 총탄으로 순직하였다. 군·경은 비상경계령을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 28명을 사살하고 무장공비 김신조를 생포하였다.

1·21사태는 남북한 정세와 상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북한이 대남적화공작에서 적극적인 유격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후 1967년 4월 정찰국 산하에 유격전특수부대인 ‘제124군부대’가 편성되었고, 이들은 북한이 대남적화공작을 위한 적극적인 유격전 활동에 앞서 여건조성과 작전환경을 탐색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 감행된 대남도발이었다. 또한 아군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와 전투력이 부족한 상황과 침투징후를 식별할 능력이 구비되지 않은 취약점을 기회로 삼아 대남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군의 적절한 대응으로 적의 도발 의도를 분쇄하였고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와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를 위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은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정보수집 보조함이 북한 해안에서 40km 떨어진 공해상을 지나던 중 원산항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북한군은 1·21사태가 실패로 돌아가자 새로운 군사도발을 통해 동북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이 월남전에 깊이 개입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미국 내에서 반전 사상이 극에 달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푸에블로호 납북사건도 1·21사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무력적화통일을 시도하면서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을 견제하려는 당면목표와 외국인의 한국투자 의욕상실 등 경제발전의 저해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에 걸쳐 울진·삼척 지구에 북한군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한 사건이다. 정세와 상황적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1·21 청와대 기습 실패로 북한 군부가 의기소침해 있던 차에 김일성이 196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창건 20주년 기념식에서 “남한 혁명은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 주권 쟁취 방법은 무력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김일성이 직접 지시된 대남 침투도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대남적화혁명 강조에 고무된 북한의 강경파들은 남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하조직과 불순 세력을 선동, 민중봉기를 획책해 재침 구실과 기회를 모색하고자 광 분했다. 그리고 무자비한 테러와 파괴 활동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 하고 전·후방 동시 전장화라는 전술을 구사하여, 우리 군·경부대의 전투력 분산과 피로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도하였다. 우리는 군경과 예비군을 투입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착수하여 12월 28일까지 약 2 개월간 작전을 하였다. 작전결과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 포하여 침투한 120명 모두를 소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탕작전 을 실시하면서 국군과 경찰, 일반인 등 20여 명이 희생당했다. 울 진·삼척 무장공비 침투는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이 강경파에 의해 주 도된 이래 본격적인 게릴라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하조직 및 불순세력의 선동으로 민중봉기를 획책하여 전쟁도발의 구실을 모색 하고 지하조직의 사기진작과 직·간접 지원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 한 국가차원의 도발이었다.

다. 1970년대 북한의 침투도발

1) 1970년대 침투도발 현황과 전개양상

북한은 1970년대에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하여 끊임없이 무장공비 와 간첩침투를 감행하였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북한의 대남침 투는 확인된 것 만해도 <표 6>과 같이 총 190회이다.

<표 6> 연도별 유형별 침투도발 현황

구분	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계	190	49	20	20	23	28	8	9	13	5	15
지상	57	22	7	1	5	3	1	3	3	3	9
해상 해안	132	27	13	19	18	24	7	6	10	2	6
공중	1					1					

북한의 침투도발사례를 연도별로는 <표 6>에서와 같이 1971년에 49회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 남한 내에서 ‘5·16군사혁명’에 의한 반공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개혁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등 사회가 더욱 굳건해져 가고 월남전에 파병하며 전투경험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계기로 작용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도 월남에 참전할 것을 월맹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남한이 더욱 발전하여 강해지기 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루는 호기를 조성하고자 ‘대남폭력도발위주의 혁명전술’을 사용했다. 1970년대 북한은 침투기도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은밀한 침투를 위한 침투전술을 더욱 발전시켰다. 특히, 해상침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침투장비를 개량하고 발전시켰으며, 간첩선의 모선으로부터 해안에 침투시 사용하는 장비는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고 고속으로 도주가 가능하도록 소형보트형 자선이나 반잠수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해안에 상륙시 초병의 눈을 피해 신속하고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중잠행보트(수중추진기)로 침투하였다. <표 7>은 197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이다.

<표 7> 197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해군 방송선 피랍사건(1970.6.5.)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1974.8.15.)
현충문 폭파 미수 사건(1970.6.22.)	1호 남침용 땅굴 발견(1974.11.5. 발견)
대한항공 F-27기 납북미수(1971.1.23.)	헨더슨 소령 사건(1975.6.30.)
소흑산도 근해 간첩선 격침(1971.6.1.)	8.18 도끼만행(1976.8.18.)
철원군 DMZ 총격(1973.3.7.)	광천지구 무장간첩 침투(1978.11.4.)
추자도 무장공비 침투사건(1974.5.20.)	최은희 신상옥 납치사건
해경 863경비함 격침 사건(1974.6.28.)	(1978.1.14., 1978.7.19. 순차적 납치)

2) 197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가) 판문점 도끼만행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경 미군장교 2명과 사병 4명, 한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 등 1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UN군 측 초소의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치는 한국인 노무자 5명의 작업을 감독·경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었다. 당시 UN군으로서 미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2개 초소와 비무장지대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 3개 초소에 둘러싸인 유엔군 초소 부근에 약 12m에 이르는 미루나무 가지가 무성하여 이를 제대로 관측할 수 없었고, 북한군에 의한 미군의 납치를 우려하여 이날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이때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지켜보던 북한군 장교 2명과 15명의 하전사가 나타나 작업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자 11시경 수십 명의 북한군 병력들이 트럭을 타고 달려와서, 몽둥이와 UN군 측 노무자들이 나무 밑에 두었던 도끼 등을 휘두르며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이들은 UN군 측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집중공격을 가해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미군 대위와 소대장 바레트 미군 중위가 현장에서 피살되었고, 미군 사병 4명, 한국군 장교와 사병 4명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울러 UN군 측 트럭 3대가 파손되었다. 정전협정 조인 이후 23년 만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나) 경남 남해도 침투도발

1980년 12월 1일 경남 남해도 상주리 금포부락 해안으로 수중잠행보트를 이용하여 침투 중인 공비 3명을 매복 중인 아군이 발견하여 2명은 현장에서 사살하였고, 도주한 1명은 12월 6일 대침투작전에

의해 사살하였다. 이때 공비들이 침투에 사용한 간첩선(자선)은 해군에서 남해도 동남방 약 80km까지 추격하여 12월 2일 06:59에 격침시켰다. 남해도 침투는 무장공비들이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간첩과 접선 및 대동복귀를 목적으로 침투하였다. 국군은 이 작전결과 북한 간첩선 1척을 격침시켰고 침투인원 9명(안내조 3명, 선박조 6명)을 모두 사살하였으나 도주공비의 소탕작전간 아군도 전사 3명, 부상 3명의 피해를 입었다. <표 8>은 남해도 대침투작전시 주요 노획품이다.

<표 8> 남해도 대침투작전시 주요 노획품¹⁴⁾

구분	주요 노획품
무기류 (14종 482점)	체코제 기관단총 3정(탄창 11개, 실탄 394발, 탄피 45발), 권총 2정(탄창 4), 수류탄 5발, 신호탄 2발, 단도 2개 등
통신장비/문건 (15종 86점)	무전기, 송신기, 수신기, 워키토키, 암호표, 난수표 등
침투장비 (20종 42점)	수중잠행보트(보트, 연료탱크, 엔진, 스크루, 나침반), 오리발, 수경, 나침의, 수중시계, 구명대, 방수복 등
피복/기타 (24종 78점)	전투복, 동내의, 통일화, 신사복, 물주머니, 양말, 우의, 소금, 미숫가루, 성냥, 연필, 의약품세트 등

다) 땅굴 침투 도발 사례

땅굴침투 도발은 <표 9>에서와 같이 소형땅굴은 1968년도 초에 시작하여 1970년도에 2회가 시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형땅굴의 규모는 지하 1~2m에 폭이 0.8~1m, 높이가 0.7~0.8m에 불과하였으며, 1개 분대의 소규모 병력으로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북한이 전 전선에서 소형땅굴을 구축하여 침투하려던 기도는 아군에게 조기에 발견되어 실패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철책 부근에서의

14) 육군본부, 『간첩침투사건편람』, 1997, 368쪽.

소형땅굴 구축을 포기하고 그 대신 보다 원거리인 북한지역에서부터 대규모의 땅굴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970년대 중반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남침용 땅굴이다. 남침용 땅굴은 1974년 11월 발견된 서부전선 고랑포 제1땅굴과 1975년 3월 철원 북방 제2땅굴, 1978년 10월 판문점 제3땅굴, 1990년 3월 양구 제4땅굴이 있다. 이때 구축된 고랑포 제1땅굴은 시간당 1개 연대 병력이 침투할 수 있는 수준이며, 철원북방 제2땅굴과 판문점 제3땅굴은 높이와 폭이 각각 2m에 달하는 대형 터널수준으로 시간당 약 3만여 명의 병력과 야포까지 침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표 9〉 북한의 철책침투용 및 남침용 땅굴 현황

구분	계	'68	'70	'71	'74	'75	'78	'90
계	10	1	2	3	1	1	1	1
지역		파주	양구, 철원	연천, 인제, 고성	고랑포	철원	판문점	양구
비고		철책침투용 소형땅굴				남침용 땅굴		

라. 1980년대 북한의 침투도발

1) 1980년대 침투도발 현황과 전개양상

북한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한 내에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고 학원소요 등의 정국불안이 가중되자 침투도발과 민주화세력 및 운동권을 대상으로 남한 내 혁명을 유도하는데 주안을 둔 대남공작을 펼쳤다. 특히 기간 중에 북한은 남한에 대한 혼란 조성과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및 ‘KAL-858기 폭파사건’과 같은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하였고, 한편으로는 군사정찰과 동조자 포섭 및 지하당구축을 위한 침투활동을 계속하였다. 80년대 초에는 전방지역인 필승교, 임월교, 저진 해안

등 군사분계선을 통한 무장공비의 직접침투를 시도하였고, 80년대 중반에는 다대포, 청사포 등 남해안을 통한 원거리 우회침투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는 한국의 국제적 행사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로 인한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을 의식한 듯 침투활동을 다소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대남공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당 예하 조직으로 대남사업담당 비서 통제 하에 대외연락부와 연락부, 작전부의 3개 부서를 두고 공작을 전담시켰다.

1980년대 북한이 침투도발이 확인된 것은 <표 10>에서와 같이 총 25회이다. 이 중에서 18회는 우리가 침투도발 당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이 침투한 이후에 생포간첩이나 기타 경로를 통하여 침투도발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횟수이다. 그런데 <표 10>과 같이 1980년대에는 1970년대에 비하여 침투도발 횟수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된 침투도발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아군의 전력보강이나 감시장비의 성능향상, 경계시설물 보강 등으로 침투도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표 10> 1970년대와 1980년대 적 침투도발 사례 비교

구분	계	육상침투	강안침투	해상침투
계	217(158)	30(9)	23(13)	164(136)
1970년대	192(140)	29(8)	17(9)	146(123)
1980년대	25(18)	1(1)	6(4)	18(13)

1980년대에 북한은 육상을 통한 침투도발보다는 강안이나 해상으로 침투도발 증가하였고, 무장공비에 의한 직접적인 파괴나 양민학살 등은 감소되었다. 해상침투전술은 간첩선을 이용하여 해안이나 도서지역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모선에서 자선을 분리하여 침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즉, 간첩선(모선)을 이용하여 공해상으로 멀리 우회한 다음, 모선에 적재하였던 자선을 이용하여 근해로 침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해상침투전술 중에서 또 하나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소형 쾌속선박을 이용한 서해안지역 당야침투 및 복귀전술을 사용한 것이다. <표 11>은 198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이다.

<표 11> 198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 필승교 무장공비 침투(1981.6.29.)	-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983.10.9.)
- SR-71 정찰기 피격(1981.8.26.)	- 다대포 무장공비 침투(1983.12.3.)
- 저진해안 무장공비 침투(1982.5.15.)	- 청사포 간첩선 격침(1985.10.19.)
- 임월교 무장공비 침투(1983.6.19.)	- 김포국제공항 폭탄테러(1986.9.14.)
- 월성해안 무장공비 침투(1983.8.4.)	- 대한항공 858편 폭파(1987.11.29.)
- 독도 근해 간첩선 격침(1983.8.13.)	

2) 198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가) 미얀마(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암살을 노린 폭탄 테러가 아웅산 묘소에서 발생했다. 북한 비밀공작 요원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살해하여 남한 정부를 혼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 고성능 폭약을 설치·폭파하여 집단 암살을 기도했던 것이다. 이 폭발테러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장관 등 17명이 순직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버마인 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후 동남아 순방의 첫 방문지를 미얀마로 선택했다. 미얀마는 제3세계 국가였지만 북한 및 공산권과 가까운 나라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제3세계와의 교류를 증대하려고 했고, 그 중 미얀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곳을 먼저 방문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지득한

북한 당국은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아웅산 묘소를 참배할 때 미리 설치한 폭발물을 원격조정 장치로 폭발시켜 일거에 대통령 일행을 모두 살해한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나) 대한항공 858 폭파

대한항공(KAL) 폭파사건은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KAL 858편 보잉 747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북한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되어 이라크에서 귀국하는 근로자 80여 명을 포함, 115명 전원이 희생된 사건이다. 수사결과 KAL기는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 대남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고 기내에 두고 내린 시한 폭탄과 술로 위장한 액체폭발물(PLX)에 의해 폭파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대남테러 사건의 목적은 북한의 노동당 최고지도부의 지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88서울 올림픽의 개최를 저지, 방해하고,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 정치적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 1990년대 북한의 침투도발

1) 1990년대 침투도발 현황과 전개양상

이 시기에 북한은 겉으로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추진하면서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단을 철수시키면서 5회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10회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하였다. 특히 1996년 9월 13일~9월 15일까지 ‘나진·선봉지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선전하면서 1996년 9월 18일 강릉지역에 잠수함을 침투시키는 등 해상을 통한 침투도발을 계속하였다. 또한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연평도 해상에서는 북한

경비정들이 NLL을 수차례 침범하여 결국 6월 15일에는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에도 서해상 NLL 침범, 잠수함(정)을 이용한 해상침투로 개척과 군사정찰 활동 등의 대남도발과 동조자 포섭 및 지하당 구축을 대남공작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침투도발로 확인된 것은 <표 12>와 같이 총 36회이다. 이 중 29회는 우리가 침투당시에 발견하지 못했으나 적이 침투한 이후 생포간첩이나 기타 경로를 통하여 침투 사실을 인지한 횟수이다.

<표 12> 1980년대와 1990년대 침투도발 사례 비교

구분	계	육상 침투	강안 침투	해상 침투
계	61(47)	5(4)	9(6)	47(37)
1980년대	25(18)	1(1)	6(4)	18(13)
1990년대	36(29)	4(3)	3(2)	29(24)

※ ()안의 숫자는 간첩침투 이후 사후에 인지된 것임

1990년대에는 1980년대에 비하여 침투횟수가 오히려 11회나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80년대 말에 ‘서울올림픽’ 등 한국의 국제행사를 통한 국제적 이목 집중을 고려하여 침투를 다소 자제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침투전술면에서는 북한은 80년대와 같이 육상과 강안침투보다는 주로 해상침투를 많이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들어와서 특이한 것은 동해안지역에서 잠수함(정)을 이용한 침투도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은 아군이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정)을 전력화하여 90년대 이후 동해안 침투로 개척과 군사정찰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침투도발 횟수도 사후인 지된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에 이른다. 또한 서해안 강화도지역에 대한 당야침투전술도 90년대에 4회에 이르렀다. <표 13>은 199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이다.

〈표 13〉 199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DMZ은하계곡무장공비침투(1992.5.22.)	최정남, 강연정 부부간첩사건(1997.10.)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사건(1995.10.17.)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1998.6.22.)
부여 간첩 사건(1995.10.24.)	동해 무장공비 사체 발견(1998.7.12.)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1996.9.18.)	강화도 간첩선 침투 사건(1998.11.19.)
철원 GP교전(1997.7.16.)	여수해안 간첩선 격침(1998.12.17.)
	제1연평해전(1999.6.15.)

2) 199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가)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1996년 9월 18일 00:55경 강릉시 강동면 동해 7번 도로상에서 택시기사가 거동수상자 2명과 해안가에 좌초된 선박 1척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군인·경찰·예비군은 합동으로 무장공비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한 사례이다. 소탕작전 중 잠수함과 도주로 주변에서 중화기인 대전차 로켓을 비롯하여 M-16·AK소총·정찰용 지도 등 유류품 367종 4,380점을 노획하고 조타수 이광수(31세, 상위)를 생포하였으며, 동승했던 정찰조원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잠수함 좌초책임을 물어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조원 11명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도주한 잔당을 추적한 끝에 정찰조장·잠수함장 등 13명을 발견하여 교전 끝에 사살하였으나 아군 11명, 경찰·예비군 2명, 민간인 4명이 피살되었다.

생포된 이광수에 의하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중 하나인 인민무력부 정찰국 해상처 22전대 소속으로 1994년 12월 함남 신포에서 건조된 300톤급 잠수함을 타고 총 26명이 침투하여 강릉비행장·영동발전소 등을 정밀 촬영하였으며, 침투 임무는 전쟁에 대비하여 한국의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은 북한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령에 따라

남침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 사전정찰 및 국내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감행되었다고 분석된다.

나) 제1연평해전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서남방 8NM(15km), 북방한계선(NLL) 남방 4.3NM(8km)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기습적인 선제사격에 대해 우리 해군 경비함정이 대응사격을 실시한 해전이다.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다수의 북한 경비정과 어선들이 연평도 서남방에서 북방한계선을 여러 차례 침범하였고, 우리 해군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소위 밀어내기식 작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6월 15일 9시 28분 북한 경비정이 선제사격을 가해왔고, 우리 해군 함정들이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이 해전에 우리 해군의 참가전력은 고속정 8척, 초계함 2척이었으며, 북한 해군은 경비정 4척, 어뢰정 3척이었다. 작전 결과 북한 해군은 어뢰정 1척 격침, 경비정 4척과 어뢰정 1척 손상, 다수의 사상자 발생 등 큰 피해를 입고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도주하였다. 우리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고, 9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하였다. 제1연평해전에서의 밀어내기식 작전은 피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작전의 의도가 있었지만 그러한 작전지침을 내린 상급부서 및 지휘관에게 많은 비판이 있었다.

바. 2000년대 이후 침투도발

1) 2000년대 이후의 침투도발 현황과 전개양상

2000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북한의 침투도발 확인된 것은 <표 14>와 같이 총 90회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아 영해 및 영토에 직접적인 화력도발을 감행하였던 사건으로 그 강도와 방법 면에서 과거의 침투도발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이었다.

〈표 14〉 2000년도 이후 침투도발 내용별 현황

계	육·해상 침투	MDL 침범	총격 도발	DMZ 습격	NLL 침범	해상 교전	해상 납치	영공 침범	납치 폭파	직접 도발
90	·	4	7	·	73	3	·	1	·	2

〈표 15〉 2000년대 이후 주요 침투도발 사례

2002. 6.29. NLL 침범, 2차 연평해전	2009. 5.25. 2차 핵실험
2004.10.26. 연천군 GOP 철책선 침투	2009.11.10. 대청해전
2005. 2.10. 핵무기 보유 선언	2010. 3.26. 천안함 피격사건
2006. 7. 5.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2010.11.23. 연평도 포격도발
2006.10. 9. 제1차 핵실험 강행(2002.6.2)	2012. 4. 광명성 3호 발사
2008. 7.1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2013. 2.12. 3차 핵실험
2009. 4. 광명성 2호 발사	

〈표 15〉는 2000년대 이후 주요 침투도발 사례이며, 〈표 16〉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2010 이후의 침투도발 양상의 변화내용이다.

〈표 16〉 2010년대 전·후 국지도발 비교 분석

구분	2010년 이전	2010년 이후
상황	남·북 경쟁/상대적 우위	남한의 절대 우위
목적/ 의도	대남공작, 남한 위상 훼손	대남/대내외 정세전환/여건조성
목표/ 대상	포섭대상/중요시설/VIP	특정표적/효과 극대화 대상
징후/ 시기	징후 없음/위장평화로 방심/ 침투 성공 시점(아 취약시기)	징후암시/기습/남한상황연계 (도발 주체 기만/후유증 최소화)
수단/ 방법	간첩/공비/테러리스트/ 은밀/특수요원위주	아 사전 대비/대응 곤란, 취약점 고려 이외의 수단/차원 기습
강도/ 수준	저강도/전술적(침투도발)	고강도(예상치 못한 수준)/공격
공통점	국가전략목표달성의 방법, 도발 전·후 위장평화/책임전가, 도발주체 은폐/대남 전략 연계, 아 대비 및 대응의 곤란과 취약점 활용 도발	
결과	성공	직접타격으로 기습/효과 극대화
	실패	아군의 대비강화 기회제공 전략적 목표/목적 달성 실패
		국제적 호전적 주체임을 각인 우호세력 입지약화/정세 미전환

수단과 침투방법에서도 1980년 이전은 주로 지상은밀침투였고, 1990년대 이후는 해상은밀침투와 우회 침투하는 방법이었다. 특히 지상침투는 1995년 1사단 침투, 해상은 1998년 여수 반잠수정 침투 이후 징후가 미식별되고 있다. 임무는 고정간첩 접선, 공작원 대동 복귀, 중요시설 정찰, 남한 내 통일전선 형성을 하였거나 아웅산 테러(대통령 암살)와 KAL 폭파(88올림픽 방해 등)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2010년대 이전의 북한의 침투도발은 사전 징후 없이 지·해상으로 야간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공작원을 은밀침투하거나 우회침투 후 공작 및 테러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양상이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농협전산망 사이버 공격이나 GPS 전자전 공격 등에서 보듯이 이외의 수단 및 방법으로 기습적 도발형태로 변화되었다. 즉 침투 단계 없이 직접적으로 서해 5도와 아 함정에 타격하는 방법이었으며, 사전에 징후를 암시 혹은 은폐하여 전략적 기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내외 상황과 연계된 도발을 하였고, 국가급 지시에 의해 도발계획 수립 후 상황도래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도발의 원인 및 주체 식별의 곤란한 수단과 방법으로 도발하였고, 도발 수준도 무차별 국지전 수준으로 증강되었고, 전략적 심리전과 사이버 및 전자전 등 비물리적 도발로 국가기반 시설 무력화와 혼란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2) 2000년대 이후 주요 도발 사례

가) 2002년 제2연평해전

제2연평해전은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1999년 6월 15일 오전에 발생한 제1연평해전이 벌어진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남북한 함정 사이의 해전이다.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었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경비정 2척이 남한 측 북방한계선을 침범을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즉 계속 우리의 영해로 침범한 북한경비정을 우리 해군의 고속정 4척이 즉각 대응에 나서 퇴거 경고 방송을 하는 순간 아무런 징후도 없이 북한 경비정이 선제기습포격을 가해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때부터 양측 함정 사이에 교전이 시작되고, 곧바로 인근해역에 있던 해군 고속정과 초계정들이 교전에 합류하였다. 이어 10시 43분경 북한 경비정 1척에서 화염이 발생하자 나머지 1척과 함께 퇴각하기 시작해, 10시 50분경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상함으로써 교전은 25분 만에 끝이 났다.

이 교전으로 한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형 병장 등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고, 해군 고속정 참수리호 357호가 침몰하였다. 한편 북한군 30여 명의 사상자와 SO-1급 초계정(등산포 684호)가 반파된 채로 퇴각하였다. 교전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북한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반응하지 않았다.

나) 천안함 폭침

천안함 폭침 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우리 해군 PCC-772 천안함이 북한해군의 어뢰공격으로 인해 피침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 해군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에 “천안함이 북한 해군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되었으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에서 폭발하였고,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되며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폭발지역 인근에서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이 북한군 해군 무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하고 북한측 주장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써 북한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 해상교통로 이용을 불가하게 하고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과 관련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였고, 일부 남한의 중북세력들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부화뇌동하면서 북한소행을 부인하고 남남갈등 조장 및 대적경계심을 이완시켰다. 천안함 피침사건은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악화되고, 남한의 대북강경 정책과 현재의 한반도 구도에 대한 상황전환을 위해 한미 독수리훈련의 기회를 이용하여 최고권부의 지시로 기습 도발한 사건이라고 분석된다.

다) 2010년, 연평도 포격

(1) 연평도 포격도발 경과

2010년 11월 23일 우리 군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서해 남쪽에서 실시하던 중 북한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에 포격을 했다. 북한은 당일 오전에 우리 군이 육·해·공 연합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자국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중단을 요청하는 전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연례적인 훈련일 뿐이라며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후 오후 2시 30분경(훈련종료 1시간 정도 경과 후) 북한이 76.2mm평사포, 122mm 방사포, 130mm 대구경포로 연평도 해병대 및 민가지역을 향해 북한 개머리 해안부근 해안포 기지에서 포격을 시작하였다. 적 포격 13분 후에 우리 군의 K-9자주포는 무도 진지에 50발, 개머리 포진지에 30발 등 총 80여 발을 사격하였다. 북한은 오후 3시 41분까지 약 170발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시간 정도 교전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은 KF-16기 2대와 F-15K 4대를 긴급 출격하였으나 적의 도발이 계속되지 않아 실제 타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백령도를 향한 북한군 해안포 기지에서 입구 개방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공격은 하지 않았다.

(2) 피해 현황

북한군의 포격으로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 2명과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인명 피해 외에도 연평도 내연발전소, 고압변전기가 파괴됐고 주택 21채가 불에 탔으며, 산불도 10곳 이상에서 발생했다.

(3) 북한의 연평도 포격 원인 및 의도 분석

연평도 포격은 6·25 이후 처음으로 민간지역까지 직접 포격을

했다는 점에서 과거 어떤 도발보다 심각한 도발이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5도 지역을 분쟁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와 대내외 상황악화, 천안함 피침사건 이후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강경정책에 대응하고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여건조성 등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도발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조기 구축을 위한 것으로 후계구축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존재와 리더십을 과시함과 동시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유도 차원에서 군부에 힘을 실어주고, 주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혀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대화국면을 유도하였으나 실패하면서 좀 더 강한 도발로써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둘째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호국훈련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과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셋째는 포격 지역을 연평도로 선정한 이유는 서해 NLL은 북한이 보유한 해안포에서 공격하기에 적당한 지역이고 파급력도 크다는 점과 육지에 비해 확산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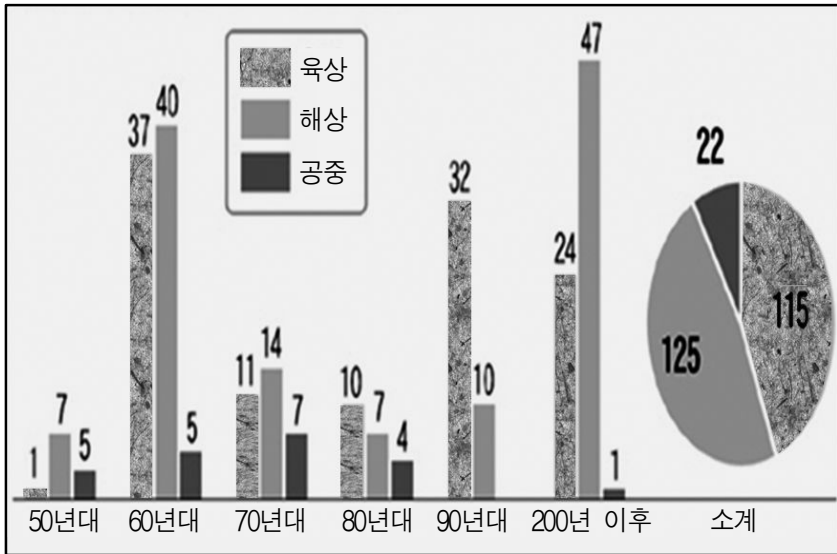
4.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분석

가.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변화추이

남북한은 정전협정서에 일체의 무력도발과 정전협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대남적화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대남 침투도발을 감행하여 왔다. 특히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화해협력시대가 열렸다고 대내외 과시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교류협력이 전개되는 시기에도 서해교전을 유발하였고, 2010년도에는 불리한 대내외 정세를 전환하기 위해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포격까지 감행하였다.

〈그림 2〉 정전이후 주요 대남 침투도발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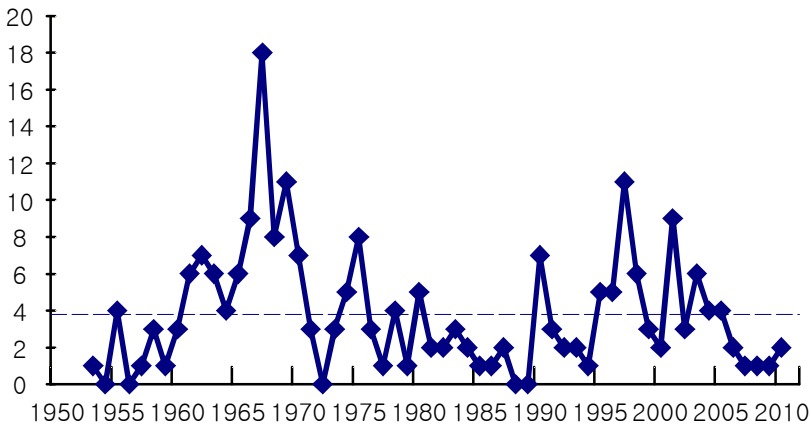


※ 출처 : 합동참모대학, “국지도발 대비작전 합동성 제고방안” 세미나, 2010.7.

〈그림 3〉은 북한이 6·25전쟁이후 정전협정위반사례를 포함한 주요 침투도발의 변화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196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침투도발이 격화되었으며, 1960년에서 1971년까지 총 88건, 연평균 7.33건으로 가장 많은 침투도발이 있었다. 이 기간 중 발생했던 주요 침투도발은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사건과 1월 23일 美 해군 푸에블로호 납치,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9년 4월에 美 공군 EC-121 정찰기 격추

사건 등이다. 이후 남북회담이 일시적으로 전개되었던 1970년대 초반에 침투도발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고, 1970년 중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기점으로 대남 침투도발은 줄었지만 새로운 침투도발 수단으로 남침용 땅굴을 구축하여 남침여건 조성에 주력했다고 분석된다. 1980년대에도 버마 아웅산 테러나 대한항공 858편 공중테러와 같은 도발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침투도발은 전체 평균보다 감소하였다. 탈냉전이 시작되는 1990년대를 들어서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왔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관되게 침투도발이 지속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국군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2000년도 이후 NLL침범과 서해 5도에 대한 침투 도발이 빈번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 NLL 이슈화와 무효화, 한반도에 대한 정세 주도권 장악,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 북한내부의 어려운 상황의 관심 전환과 국면타개 등 전략적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연대별 주요 대남 침투도발 변화추이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도별 주요 대남 침투도발 변화 추이



※ 출처 : <http://www.songyoungsun.com>, 검색일 : 2012.10.10.

정전협정 체결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횟수는 도발의 기준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 :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¹⁵⁾와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의 통계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파악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는 총 42만여 건이며, 이 중 주요 정전협정 위반 및 침투도발사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262회로 산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침투도발 횟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2,660회와 2,720회로 파악하고 있다.¹⁶⁾ 이와 같이 대남 침투도발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관련 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관별 침투도발과 관련된 개념이나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 군정위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앞에서 연대별 주요 침투도발사례로 예시한 것은 유엔사 군정위 통계자료 262건 중 무장공비 침투, 테러, 미군에 대한 도발 등 한반도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남북한 긴장과 갈등이 높았던 사례들이다.

나. 침투도발 유형별 수단방법

북한의 정전이후 주요 대남도발 2,720여 건 중 유형별로는 <표 17>과 같이 분석되고 있다.¹⁷⁾

<표 17> 주요 대남도발 유형별 현황

구분	총계	육상	해상	공중	기타
계	2,720 여건	1,190 여건	1,431건	43 건	56 여건

15) 1953년 7월 27일 이후 정전협정체제를 운영 및 유지하는 실질적 기구로서 남·북간 유일한 군사문제 협의의 창구 역할을 하였다.

16) 합동참모본부, 『북한 대남 침투 및 도발 사례집』, 합참 정보본부, 2011. 4~5쪽.

17) 국방부, 『2010국방백서』와 육군본부 군사문제연구소, 『대침투작전사 시리즈』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침투도발 유형별 수단 및 방법은 <표 18>과 같이 ①항공기의 피랍 및 격추, ②함정 및 어선의 피랍 및 격침, ③지상 간첩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 ④해상 간첩 및 무장공비 침투, ⑤NLL월선 및 무력 충돌, ⑥화력에 의한 도발, ⑦인명살상 및 시설 폭파 등의 테러, ⑧기타 땅굴침투를 위한 굴설과 무력시위 등이며 침투도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8> 주요 침투도발 유형별 수단방법

수단/방법	건 수	내 용
항공기피랍 및 격추	43	KNA 여객기 피랍('58.2월), 공군 F-86D 월선/격추('64.1월) 미 EC-121 정찰 중 격추('76.4월) 미 CH-47 월선/격추('77.7월), KAL858기 폭파('87.11월) 등
함정(어선)피랍 및 격침	8	미 푸에블로호 피랍('68.1월), 당포함 격침('69.1월), 동건호 피랍('87.1월), 제37·38태양호 피랍('89.1월) 천안함 격침('10.3월) 등
간첩(무장공비) 침투	지상	1,027 청와대 기습 미수 ('68.1월), 대성동 주민피랍('97.10월), MDL/임진강 등 지상침투, GP/판문점 미군에 도발 등
	해상	1,011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68.10월), 다대포 간첩침투('83.12월) 제주 온평리 간첩침투('95.9월), 다대포 잠수함침투('96.9월) 제주 갈곳리 간첩침투('97.8월), 양양 잠수함 침투('98.6월), 강화도 캐속선 침투('98.11월), 여수 반잠수정 침투('98.12월) 등
NLL월선 및 해전	414	제1연평해전('99.6월), 제2연평해전('02.6월) 대청해전('09.11월) 등
화력도발	92	연평도 화력 도발('10.11월), GP총/포격 등
테러	10	테러 :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70.6월), 판문점 도끼만행('76.8월), 김포공항 입국장 폭파('86.9월), 8·15광복절 기념식 저격('74.8월), 아웅산 테러('83.10월) 등
기타	125	땅굴 발견(4회 : '74.11월, '75.3월, '78.10월, '90.3월) 미사일 발사 등

첫째, 항공기와 함정, 어선의 피랍 및 격추(침)는 주로 북한의 영공이나 영해를 고의 또는 우발적으로 침범했을 때나 정찰 및 정보수집을 했을 때 감행되었지만 KAL 858 민항기의 폭파나 천안함의 피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영토의 침범과 관계없이 만행을 저질렀다.

둘째, 간첩이나 무장공비의 침투도발은 지상 및 해상으로 간첩 침투 및 복귀, 군사정찰을 하거나 울진·삼척의 경우처럼 대규모로 침투하여 국가적 행사를 방해하거나 남한사회 혼란, 대남적화혁명 여건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며 청와대를 기습하여 대한민국이 공황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셋째,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해로 우리 군의 경비정이 진입 시에 침범으로 간주하고 8차례에 걸쳐 해전을 일으켰다. 한편 우리 영해내로 잠수함(정)으로 은밀침투 도발하는 유형이다.

넷째, 테러는 대통령을 저격하려는 등의 요인 암살과 국립묘지와 김포공항 등 주요시설 폭파로 남한 내 불안을 조성하고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다섯째, 기타 전면전과 평시 은밀 침투를 위하여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전 전선에서 침투용 소형 땅굴 및 남침용 대형 땅굴을 굴설하였고 그 중 10개가 발견되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무장병력에 의한 시위도 있었다.

다. 북한의 연대별 침투도발 전개양상

북한의 대남도발은 시대적 대내외 정세를 연계되어 연대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첫째, 1960년대는 남한 및 미국에 대한 과감한 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이는 냉전체제 완화 등 세계적인 동서화해무드 속에서 한반도 위기사태 발생 시 미국의 반응정도와 남한의 방어태세에 대한 강도를

확인하는 의도였으며, 북한의 군사력 수준 우위를 이용한 대남적화 무력통일 야욕을 달성할 목적이었다.

둘째, 1970년대는 중국의 UN가입 등 전 세계적으로 화해무드가 고조되고 있었고, 북한은 김정일의 세습체제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남한은 경제개발 추진 가속화와 동시에 유신정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였던 시대적 배경에 의해 남·북 대화제의, 이산가족 상봉 등 화전양면전술을 병행하였다.

셋째, 1980년대에서는 미·중간 군사교류 재개 등 평화무드가 조성되었고, 북한은 김정일 세습체제 본격화되는 시기이고, 남한은 88서울올림픽 개최 등 국제적 위상 격상과 비약적 경제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웅산 폭파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 등 테러 공격과 어민과 어선 납치사건 등 비군사적 도발이 증폭되었다.

넷째, 1990년대는 공산권의 붕괴, 남·북한 동시 UN가입 등 냉전이 종식되고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 외교적 고립 심화, 남한의 햇볕정책 등 화해분위기 조성 등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국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수단과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력을 이용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였고, 남한사회 혼란 조성을 위한 도발이 전개되었다.

다섯째, 2000년 이후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화해무드 등을 이용한 NLL무력화를 위한 도발, 해킹 및 사이버 심리전 등을 통한 남한사회 혼란 조성, 체제불안과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관심 전환과 대북정책 변화를 강압하는 정치 전략적 도발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진행,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대내외적인 가시적 성과 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남한의 대북강경정책과 중북세력 준동 등을 계기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전통적인 침투, 테러리즘 도발에서 아군 및 영토에 대해 기습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감행하였다. 아울러 사이버 심리전,

전자전 공격, 간첩활동 지원 등 간접적인 도발도 전개하는 특징이 있었다.

라. 북한의 침투도발 전개양상 특징

북한의 과거 60년 동안 정전협정을 위반과 다양한 수단 방법으로 침투 및 도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식별할 수 있었다.

첫째, 도발 목적과 의도이다. 북한은 과거의 60년 동안 각종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 중 8·18도끼만행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남적화혁명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공작 및 군부의 최고기관의 지시에 의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감행되었다.

둘째, 도발동기 및 시점이다. 북한의 침투도발은 사전에 능력과 준비에 관계없이 침투도발 목적과 동기가 도래되면 상황을 조성해서라도 언제라도 감행하였다. 침투도발의 동기와 시점은 북한의 대내외 상황 악화, 주민들의 체제 불만 증폭으로 관심 전환 필요시, 권력 세습의 유리한 여건 조성 및 권력세습체제 공고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필요시, 남북한이 대내외적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심화되어 남한의 우월적 위상 훼손이 요구가 될 때, 그리고 남북한 및 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중러 지원과 국제적 관심이 요구될 시점이었다고 식별되었다.

셋째, 국지도발의 수준 및 강도이다. 2010년도 이전의 도발과 테러는 주로 무장공비 침투 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수준이었고, 군사적 도발이었다. 하지만 2010년도 연평도 포격도발과 농협 전산망 해킹 등에서는 민간인 살상과 비군사적 영역까지 도발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앞으로도 북한은 군사적 및 비군사적 수단으로 민간영역이나 사회기반시설 등 구분 없이 도발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수준과 강도면에서는 도발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면서 전면전이나 한·미군이 선제공격할 수 있는 빌미는 회피하는 범위까지 한정될 것이다. 또한 국지도발로 인해 북한 내 급변사태로 비화되거나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중·러 지원 단절 상황 등 도발의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내에서 도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북한군의 국지도발 전략상 특징이다. 이는 ‘선(先) 감수할 위험, 후(後) 효과극대화, 차후(此後) 성공가능성, 최후(最後) 역대응’이라는 전략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선 감수할 위험 전략’이란 국지도발 수준과 강도를 우선 결정한 다음 침투도발 수준 및 강도 범위내에서 감행된다는 개념이다. ‘후 효과극대화 전략’이란 기습과 부수적 효과를 최대한 발생시켜 남한사회에 많은 피해와 후유증이 발생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정부나 군이 기습을 당해 대비 및 대응시스템이 마비되고, 도발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은폐 및 기만하여 즉시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남남갈등과 아 사회적 취약점이 악화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차후 성공가능성 전략’이란 도발의 성공여건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상황을 연계시키면서, 예기치 못한 수단방법으로 도발을 하고 심리전을 병행하여 지원세력까지 확보하여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는 것이다. ‘최후 역대응 전략’이란 아군의 조직적이며 즉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아 대응작전시는 군사 및 비군사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역대응하여 아 대응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도발이 실패했을 때를 고려하여 아 응징과 국제적 고립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침투 및 도발은 과거에는 군사분계선이나 해상을 통한 공작원의 직접침투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침투 및 습격, 총격도발 위주로 실시되어 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탈북자 및 밀입국자나 외국인 등을 가장한 우회침투와

사이버상의 공격,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일대에서의 기습적인 무력 도발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침투 및 도발행위는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우리가 예측하기 곤란한 새로운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적이고 기만적인 형태의 다양한 도발 스펙트럼으로 변화되고 있다.

5. 결론

북한은 6·25전쟁이후 대남적화혁명 목표달성을 위해 지상, 지하, 해상, 해저, 공중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을 감행하여 왔으며,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을 선택하였으며, 지상, 해상, 공중, 국내, 해외를 불문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과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즉 함정, 항공기, 포, 납치 폭파 등 다양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였고, 대상도 국군과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아 국민과 최고지도자를 가리지 않았다. 세 번째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도발강도와 위협수준이 점증되었다. 최초에는 소수 특수공작원이나 간첩 등 소수 인원의 침투공작으로부터, 수십 명의 침투도발, 아 함정을 향한 공격, 우리 영토에 국민들을 향한 직접공격으로 도발강도가 점증되어 왔다. 네 번째는 도발을 은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장평화공세와 긴장조성 등 ‘화전양면전술’을 전개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침투 및 도발은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우리가 예측하기 곤란한 새로운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적이고 기만적인 형태의 다양한 도발 스펙트럼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침투도발시점과 전개양상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침투도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복합적이고 북한내부의 상황 타개를 위한 생존전략에 의해 감행되고 있기에 그들의 내부 상황을 사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 서해 5도에 대한 타격 등 군사적 위협의 수준을 더욱 높여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킹, 전자전, 대남공작과 선전공작의 심리전 등 비군사분야의 위협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침투도발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비태세가 요구된다.

첫째,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특히 위장평화전술과 병행하여 전개되는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침투도발시 확전(擴戰)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국가 및 군 지도자들의 결단성과 국민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단성과 의지는 사소한 위협과 침투도발에도 적용시킴으로서 북한도발자들이 인식하고 도발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심리전과 병행해서 전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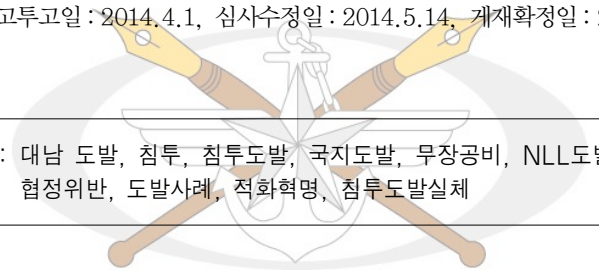
둘째, 북한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무력적화통일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자주,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내세워 미군철수를 획책하고 있다. 한미동맹체제는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승을 위한 필요 충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유지시키고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하여 대남도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전승 전력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과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제재를 강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험적인 행동에 일정분야 통제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언제라도 8·18도끼만행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KAL기 폭파,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침투도발이 감행될 수 있다. 따라서 6·25전쟁이후 60년 동안 계속 되어 온 침투도발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북한 세습독재체제의 생존전략의 실체를 간파하고 침투도발의도 및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선제적 대응과 대비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 대남 도발, 침투, 침투도발, 국지도발, 무장공비, NLL도발, 정전 협정위반, 도발사례, 적화혁명, 침투도발실체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Provocations by nK

Lee, Yoon-Gyu

The nK has often infiltrated and provoked against South Korea with various ways and means such as ground, maritime and air, aiming to communize entire Korean Peninsula since Korean War. Such actions of infiltration and provocation have been taken as following cases.

First, they have chosen any time and any places. If necessary, they selected the times which they deemed advantageous, regardless of various locations including maritime, air, domestic and abroad. Second, they have employed any ways and means. They applied many kinds of ways and means such as naval vessels, aircraft, artilleries, hijacking and blasting. Even more they selected any kinds of targets such as armed forces, USFK as well as normal people and President. Third, the pattern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and the strength of provocation and level of threat has been increased steadily. In the beginning a small number of agents and spies infiltrated in the territory of South Korea but as the time passes, the intensity of provocations have been increased steadily as scores of agents' infiltration, a torpedo attack against ROK navy warship and direct firing toward civilians in the land of ROK happened. Forth, in order to conceal their provocation and maximize effectiveness, they tried to build up tension and performed 'disguised peace offensive', subsequently concluding to 'Peace and War Strategy'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set up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very difficult to estimate the time and pattern of nK's infiltration because identifying their internal situation in advance is quite hard,

which nK normally takes provocative action toward ROK in order to overcome internal instability through the provocation as the survival strategy. Henceforth, nK is possibly supposed to elevate the level of military threat such as nuclear, missile and shelling NWI. Furthermore, non-military threats, known as hacking, electronic warfare, propaganda maneuvers, psychological warfare, will be developed in various ways. The provis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nK's military & non-military and non-regular provo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we should read the intention and nature of nK's provocation. Especially, we should be alert to the provocation running parallel with 'disguised peace offensive' and it is imperative to have the national and military leaderships' resolution and nation's strong willing to make strong reprisals against provocations regardless of escalation of engagements. Second, we should strengthen a deterrence capability by consolidating ROK-US alliance and combined forces. Third, we should build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with regard to threat of nuclear, missile and non-military provocations by nK. With reflecting on the lesson of continuous provocations by nK for 6 decades since Korean War, also penetrating the strategy of dictatorship survival and sensing the intension and indications of provocation in advance, the preemptive action and military readiness posture should be reinforced.

Key Word : Provocation against the South, Infiltration, Infiltration and Provocation, Local Provocation, Armed Guerrillas, Provocation against NLL, Violation of Armistice, Case of Provocation, Revolutionary Communization, The nature of Infiltration and Provocation

손원일 제독의 해군건설과 수군전통 계승활동

- 총무공 이순신 중심의 계승에 주목하여 -

신 성 재*

1. 머리말
2. 해군력 건설 추진과 총무공 계승의식의 표방
 - 가. 해군력의 가치 인식과 해방병단 창단
 - 나. 총무공 계승의식의 표방과 총무공정신
3. 총무공 중심의 수군전통 계승활동과 의미
 - 가. 최초의 군함 건조와 총무공정 명명
 - 나. 해군사관학교의 교가와 교훈 제정
 - 다. 한국해양사 편찬과 총무·한산·노량작전
4. 맺음말

1. 머리말

오늘날 대한민국 해군은 임진왜란(壬辰倭亂)에서 조선의 해양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대표논문 : 「고려의 수군전략과 후삼국통일」, 『東方學志』 158,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2012; 「후백제의 수군활동과 전략전술」,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영토를 지켜낸 수군과 국난 극복의 성공으로 추앙받고 있는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후예임을 자부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은 해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본받고자 하는 표상이요, 현대 해군의 역사 계승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70~'80년대를 거치면서 정립된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로 시작하는 해군의 다짐¹⁾과 충무공 5대정신²⁾은 우리 해군이 충무공 이순신의 수군전통을 계승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해군이 충무공 이순신의 수군전통을 계승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해군이 창군을 전후하여 충무공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음을 실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6·25전쟁기의 국가적인 위기상황과 '50~'60년대 미국의 해군 제도가 도입되어 세계적인 보편성을 형성해 가던 상황 속에서도 조선 수군의 전통을 보전하고 자주적인 해군을 건설하고자 하였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던 일제강점기에도 수군의 명맥이 단절되지 않고 해방 이후의 해군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건군 사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해군 창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손원일(孫元一) 제독이 해군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을 계승한 사실에 주목하여 그 과정을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하였다.

1) 해군의 다짐에 대한 변천과정은 海軍本部, 『海軍史』 9집 下권, 1980, 830쪽; 대한민국 해군, 『반세기를 넘어서 - 海軍 政訓50年史』,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1990, 186~188·217~221쪽 참조.

2) 충무공 5대정신의 제정과 변천은 이은상, 『성웅 이순신』, 민족문화협회 부설 햇불사, 1969, 195~222쪽; 해군본부, 『충무공 정신교육교재(특별 정훈교육교재 83-1)』, 1983, 209~212쪽 참조.

손원일 제독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체로 그의 일대기에 대한 조명을 시작으로 창군기의 활약과 해군력 건설, 창군에 깃든 정신, 사상과 리더십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일대기를 다룬 성과로는 1976년 9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1일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된 이력서³⁾와 그의 미망인인 홍은혜(洪恩惠) 여사가 1990년에 이력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엮어낸 회고록⁴⁾, 그리고 최근 손원일 제독의 일생 전반을 회고록과 창군기의 해군자료 등에 기초하여 정리해낸 전기가 있다.⁵⁾ 창군기의 활약과 해군력 건설을 다룬 연구에서는 해방 직후 해사대(海事隊)를 조직하는 시점부터 '50년대 말 서독대사 시절까지의 주요 활동상과 6·25전쟁기까지 추진된 일련의 해군력 건설 내용을 다루고 있다.⁶⁾ 이러한 성과들은 손원일 제독의 탄생으로부터 성장 과정, 창군기를 전후한 해군활동과 해군력 건설, 국방부장관 시절의 군사외교활동, 전역 이후의 공직자 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일대기 전반을 다루고 있어 손제독의 삶 전체는 물론 현대 해군 건설에 끼친 그의 업적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창군정신과 관련한 성과는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표방한 창군정신의 요체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현대적인 의미와 적용 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⁷⁾ 이와 함께

3)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서거(1980년 2월 5일)하기 불과 4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1편 '아버지의 변신'에서부터 55편 '공직생활 청산'까지 연재되었다.

4) 홍은혜 엮음,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 가인기획, 1990.

5)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6) 임성채, 「손원일 제독의 창군기 활약과 주요업적」; 이춘근, 「창군기의 해군력 건설 과정」(『손원일 제독의 생애와 업적 재조명: 손원일 제독 탄신 100주년 기념 제30회 해양학술세미나』, 해군사관학교, 2009 수록).

7) 윤명철, 「손원일 제독 해군 창군정신의 현대적 재조명」, 『손원일 제독의 창군정신

손원일정신으로 대표되는 창군정신의 개념적 모형을 추출하고, 그 의미를 6·25전쟁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행된 주요 해군작전 및 해군건설 사례와 접목하여 살펴본 성과가 있다.⁸⁾ 리더십에 주목한 성과로는 손원일 제독의 창군정신을 소개하고 현대 리더십 이론에 기초하여 해군 리더십 모형과 손원일 리더십 모형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것이 있다.⁹⁾ 또 손원일 제독의 생애와 사상을 개괄적으로 다루면서 그의 리더십이 20세기에 형성된 것이지만 오히려 21세기형에 가까운 선구자적인 리더십이었다고 평가한 견해도 제시되었다.¹⁰⁾ 이 성과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이론에 기초하여 손원일 제독이 표방한 창군정신의 개념과 의미를 새기고, 그의 리더십 형성의 사상적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며, 또한 현대 리더십 모델과의 적용 가능성 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를 갖는다.¹¹⁾

하지만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창군 주체들의 구성과 해군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고¹²⁾, 손원일 제독의 해군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과 한국 해군력 발전 : 제13회 함상토론회 발표자료집』, 2009.

- 8) 이기현·김정환, 「창군정신에 관한 연구」, 『教育發展』 34, 海軍教育司令部, 2013.
- 9) 이기현, 「창군정신과 손원일 리더십 연구」, 『海洋研究論叢』 44, 海軍사관학교, 2013.
- 10) 서상문, 「21세기형 리더십의 20세기 顯現 - 孫元一 제독의 생애와 사상 발전」, 『군사논단』 61, 한국군사학회, 2010.
- 11) 이 밖에 최근 손원일 제독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가 남긴 유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도록이 출판되어 도움이 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탄신 100주년 손원일 제독 특별전 기념도록 -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 유품으로 보는 해군의 발자취』, 2009.
- 12) 창군 주체들의 출신과 구성, 해군활동에 대해서는 김재승, 「한국해운 여명기(1946~1953) 해운과 해군의 협력」, 『해양정책심포지엄』, 대한민국 해양연맹, 2004; 한성호, 『근대 해군 육성 노력과 한국해군 창설 주체에 대한 재고』,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참조.

특히 대한민국 해군이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護國精神)¹³⁾과 조선 수군의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자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군이 그와 같은 전통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계승하였는지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성과는 전무하다.

이 글에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손원일 제독의 해군 건설과 충무공 이순신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전통 계승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먼저 해방을 전후하여 형성된 손원일 제독의 해양 인식과 해군력 건설에 대한 가치 인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창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 창단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손원일 제독이 창군과 동시에 충무공 계승의식을 표방하고 ‘충무공정신’을 해군 장병들이 실천해야 할 지침으로¹⁴⁾ 내세웠던 사실에 주목하여 그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그런 다음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주요 해군활동을 다룰 것이다. 군함 건조와 충무공정 명명, 해사 교가와 교훈의 제정, 한국해양사 편찬, 6·25전쟁기에 수행하였던 충무·한산·노량작전의 명명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우리 해군이 해방 이후에도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일제강점기의 노력과 활동을 중심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13) 林元彬, 「‘해군정신’ 연구」, 『海洋研究論叢(Ⅰ)』, 海軍士官學校 海軍海洋研究所, 2003, 132~136쪽.

14) 당대의 기록에는 격어(激語)로 나타난다(해군 정훈감실·해병정훈감실, 『해군』 5~7월호, 1953).

2. 해군력 건설 추진과 충무공 계승의식의 표방

가. 해군력의 가치 인식과 해방병단 창단

1945년 8월 15일에 맞은 해방은 전 민족적인 감격과 환희, 그리고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 민족 앞에는 조속히 자주 정부를 수립하여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제반 사회경제적 모순과 문화적 질곡을 청산해야 하는 신국가 건설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¹⁵⁾ 자주적인 신국가 건설의 과제에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보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군대의 육성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주지하듯이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군대는 1907년 8월 1일자로 일본 제국주의가 수립한 치밀한 계략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산당하였다.¹⁶⁾ 일제는 군대 해산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무력적 지배정책을 급속도로 추진하였고, 마침내 1910년에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강제 병합하였다. 일제강점기는 국권을 탈취당한 민족 최대의 수난기이자 국가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뜻 있는 민족 지도자들의 저항과 국권회복 활동, 애국계몽 단체들의 독립의식 고취 활동, 3·1운동으로 대표되는 조선 민중들의 거국적인 봉기, 임시정부 요원들의 국내외 독립운동, 만주와 북간도 지역을 거점으로 활약한 무장 독립군의 항일 투쟁 등에 힘입어 점차 독립의 길을 모색해가던 희망과 가능성이 공존하던 시대였다. 독립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15)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227쪽.

16)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과정은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해안, 2000, 258~280쪽;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77~294쪽 참조.

패망하면서 실현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극복한 해방 공간에서 국가의 독립을 보전할 군대의 확보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제였다. 1945년 11월 미 군정청(軍政廳)에 등록된 군사단체가 무려 30여개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¹⁷⁾ 국가방위를 수호하는 군대의 육성이 절실하였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 해군의 건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색되고 있었다. 특히 개항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외세의 침탈이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대한제국이 추진하던 근대 해군 건설 노력이 좌절되면서¹⁸⁾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바다를 방위할 해군력은 무엇보다도 조속히 건설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였다. 이를 실현할 꿈을 품고 해방을 맞은 조국으로 돌아오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손원일 제독이었다.

손원일 제독은 해양을 둘러싼 세계사의 흐름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독립될 조국의 미래가 해양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¹⁹⁾ 상해(上海) 남경(南京) 중앙대학(中央大學) 농학원(農學院) 항해과 유학 시절을 보면, “바다에는 미래가 있다. 지금은 빼앗긴 나라이지만 언젠가 나라를 되찾는 날은 우리도 해양으로 뻗어나 가야만 한다”²⁰⁾고 다짐하는 기록이 나온다. 비록 짙막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손원일 제독이 독립될 조국의 운명을 해양에서 찾고, 국가의 번영과 발전이 해양력에 의해 좌우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17) 韓鎔源, 『創軍』, 搏英社, 1984, 26쪽.

18) 대한제국기 고종의 해방력 강화와 근대 해군 건설 노력은 金在勝, 『韓國近代海軍創設史 - 구한말 고종시대의 근대식 해군과 군함』, 혜안, 2000 참조.

19) 대한민국해군, 『해군장교 리더십-성찰 그리고 실천』, 2007, 35쪽.

20)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0월 22일. 중국의 중앙대학 항해과에서 수학하던 기간은 1927~1930년간으로 손원일의 나이는 대략 18~21세였다.

손원일 제독의 해양에 대한 인식은 6·25전쟁이 종료된 직후인 1954년 4월 5일에 발행된 『대한민국해군사』 제1집의 서문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해양으로의 진취성이 강한 민족은 융성하고 약한 나라는 쇠퇴의 길을 밟아 왔다는 사실은 과거의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다. ‘해양을 제패하는 자는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은 이 사실을 갈파한 것이다.”²¹⁾ 이는 유학 시절에 나타나는 해양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보다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 유학시절의 인식이 다소 관념적이며 추상적이라면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는 한층 구체적이며 확신에 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해양 진출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해 왔던 역사적 사실을 학습 과정을 통해 체계화하고, 마한(Alfred Thayer Mahan : 1840~1914)이 제창한 해양을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해양력 이론을 제시한 점은 해양에 대한 가치 인식이 보다 명확해졌음을 보여준다.²²⁾ 그렇기에 손원일 제독에게 있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해양력을 뒷받침하는 해군력 건설은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었다.

손원일 제독의 해군력에 대한 가치 인식은 1953년 7월 5일자로 작성된 참모총장 이임사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번에 비상 시국하의 국방의 책임자로서 그 직을 맡게 됨에 지식이 적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본인이 차지하게 됨을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각하께서 나에게 국방을 맡아달라는 말씀이 계셨으나, 그때는 국방보다

21)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海軍史』, 行政編 第1輯 序文, 1954, 9쪽. 책자는 1954년 4월 5일에 발행되었지만, 서문의 내용은 동년 3월 1일로 기록되어 있다.

22) 서문의 내용으로 보아 손원일 제독이 마한의 이론을 학습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남겨진 자료에서는 그가 어느 시기에 또한 어떠한 학습과정을 거쳐 마한의 해양력 이론을 접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를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해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건설에 있어 모든 면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해군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발전에는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만 무진장한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에서 발전한다면 국내는 자연적으로 따라 오고 위신을 날릴 수 있다는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²³⁾

위는 1954년 7월 5일자로 작성된 손원일 제독의 참모총장 이임사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²⁴⁾ 이임사의 내용이 말해주듯이, 손원일 제독은 이승만 대통령이 누차 국방부장관의 직무를 맡아 달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양하였다. 손제독이 장관직을 사양한 이유는 국가 건설과 발전에 있어 해군력 건설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우선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국가 건설에 있어 모든 면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해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 이유는 무진장한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 경영을 통해서 발전한다면 국내에 산적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국가의 위신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해군력의 가치를 우선시할 만큼 독립된 조국의 미래가 해군력을 여하히 건설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손원일 제독은 해군력 건설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그 시급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하였다. 해방된 지 불과 5일 만인 8월 20일에 창군의 뜻을 품고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유억겸(俞億兼)을 찾아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당시 유억겸은 손원일의 큰 자형인 윤치창(尹致昌)과 가까운 사이

23) 해군본부 정훈감실, 「이임사(1953년 7월 5일)」, 『역대 해군참모총장 훈시문집』 제 1집, 1971, 19쪽.

24) 이임사의 날짜는 7월 5일로 표기되었지만, 실제 이임식은 6월 30일에 거행되었다(서상문, 2010, 앞의 논문, 146쪽).

였다. 손원일의 해군 건설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듣고 난 유억겸은 즉석에서 민병증(閔丙曾)을 소개해주면서 서로 뜻이 잘 맞을테니 협력을 해보라고 했다.²⁵⁾ 손원일은 곧바로 민병증을 찾아가 협력을 구한 다음 해군 창설에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또 김영철(金英哲), 정공모(鄭兢謨), 변택주(邊宅周)와도 의기를 투합하여 8월 21일에는 해군 건설의 초석이 될 해사대(海事隊)를 결성하였다.²⁶⁾ 이틀 뒤인 8월 23일에는 안국동의 안동예배당에 현판을 내걸고 그곳을 해사대 본부로 정했다. 이후 해사대는 9월 30일경에 조선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로 개칭되었고, 마침내 11월 11일 11시에 미 군정청 고문 이동근(李東根)과 해사국장 미 육군소령 칼스텐(Carsten), 대원 7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원일 제독을 단장으로 하는 해방병단의 창단식을 가졌다.²⁷⁾

해방병단의 창단은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이자 전신으로서²⁸⁾ 건군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조선 수군이 1894년 7월 15일에 폐지된 지 51년 3개월 26일 만에 다시금 해군으로 탄생하였던 점에서나, 3군 중 가장 먼저 창군의 주춧돌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²⁹⁾

이와 함께 손원일 제독에게 있어 해방병단의 창단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흥망을 좌우

25)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1월 19일.

26)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17쪽. 해사대 결성시 주요 참여 인물로 변택주가 아닌 한갑수를 거론하기도 한다(오진근·임성채, 2006, 앞의 책, 27~28쪽). 여기에서는 손원일의 이력서(『한국일보』, 1976년 11월 19일)에 근거하여 변택주로 서술한다.

27) 창단 시 직책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장 손원일, 일반행정 민병증, 항해교육 김영철, 기관교육 정공모·석은태, 군사훈련 변택주·김정주, 경리 석은태(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20쪽).

28)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19~20쪽.

29) 오진근·임성채, 2006, 앞의 책, 36쪽.

함에 있어 실질적인 힘이 되는 해군력을 건설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인적 기반에 토대하여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지고 있던 조선 수군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양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의 건조와 부대를 조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것이었다.³⁰⁾

나. 충무공 계승의식의 표방과 충무공정신

손원일 제독은 해방병단을 창단하여 해군력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군의 역사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손원일과 함께 해사대 조직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 정궁모가 해군 장병들을 모집하기 위한 붙인 벽보의 내용 속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손원일 제독은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21일에 민병증과 함께 대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조국의 광복에 즈음하여 앞으로 이 나라 해양과 국토를 지킬 뜻 있는 동지들을 구함”³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다녔다. 그런데 같은 날에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키자. 조국의 바다를 지켜 나갈 충무공의 후예를 모집함”³²⁾이라는 문구의 벽보를 붙이던 정궁모와 만나게 되었다. 손원일과 정궁모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벽보를 붙였는지는 알 수 없다.³³⁾ 양자가 붙인 벽보의 내용에도 문구상 차이가

30) 이후 해방병단은 1946년 6월 15일에 공포된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하여 조선해안 경비대로 개칭되었고,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1)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1월 19일.

32) 오진근·임성채 공저, 2006, 위의 책, 25쪽. 동일한 내용의 벽보에 대해서는 함명수, 『바다로 세계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24쪽 참조.

33) 오진근·임성채 공저, 2006, 위의 책, 27쪽.

있다. 그러나 “같은 뜻을 품었으니 서로 손잡고 일해 나가자”³⁴⁾며 해군 창설에 대해 맹세를 하였고, 해양을 바라보는 안목과 현실 인식 또한 비슷한 입장이었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양자가 붙인 벽보는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³⁵⁾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손원일 제독이 구하고자 하던 이 나라 해양과 국토를 지킬 뜻 있는 ‘동지들’은 바로 정공모가 모집하고자 하던 조국의 바다를 지켜 나갈 ‘충무공의 후예’와 동일한 존재인 셈이다. 손원일 제독이 해사대를 결성하던 시점부터 장차 해군을 이끌어갈 구성원들을 충무공의 뒤를 잇는 후예로 인식하였음을 짐작케한다.³⁶⁾

해군이 창군기에 충무공 이순신을 본받아야 할 선배이자 또한 그의 후예로 인식하였음은 당대의 기록을 통해서도 곧잘 확인된다. 해방병단의 참모장이었던 민병증이 1946년 4월 초에 훈련에 임하는 대원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면서 “이충무공을 선배로 모신 우리 동포들은 이 방면에서도 특이한 소질을 발휘하여 사격술이나 기관 수리는 교관을 놀라게 하며 로프 작업은 현재에도 세계에서 제일이다”³⁷⁾라며 자랑스러워한 대목이 그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진해에서 군함을 시찰하던 중에 목격하였던 어느 이름 모를 병사의 침상에 새겨진 문구 또한 그러하다. 당시 이 대통령이 목격한 침상에는 “본받자 충무공을, 찾아오자 우리 바다”³⁸⁾라고 하는 문구가 씌여 있었다. 자나 깨나 충무공을 모범삼아 우리 바다를 지키고자 염원하던 병사들의 강렬한 수군전통 계승

34)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제1집, 2006, 1쪽.

35) 海軍士官學校,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1946~1980』, 1981, 46쪽.

36)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해군의 숭배전통이 해사대를 설립하던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金州植, 「해군의 창설과 발전」, 『군사』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217쪽).

37) 「明日의 大海軍을 目標로」, 『자유신문』, 1946년 4월 8일.

38) 「忠武公을 따르자 - 李大統領의 觀覽 所懷」, 『조선중앙일보』, 1949년 8월 26일.

의식을 살필 수 있다.

손원일 제독이 해군 구성원을 충무공의 후예로 인식하였음은 조선 수군의 전통을 창군기의 해군이 계승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김성삼(金省三) 제독이 창군기를 회고한 글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감격의 해 난관의 해가 새고 4279년 1월 14일 군정법령 제42호가 공포된 후의 우리 해방병단은 국방사령부 군무국에 편입케 되어 同局 후기나 미 해군소령의 지시를 받게 되어 겨우 일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 이로서 정규 군사단체로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단원 일동은 손제독과 더불어 임진 국난을 도맡아 구국하신 충무공의 위업을 계승하여 국토의 수호를 손을 높이 들어 맹서하였던 것이다. 대해군 건설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삼가 이 몸을 바치나이다’라는 표어 아래 ‘충무공정신에 살고 충무공정신에 죽자’고 굳게 맹서하였던 것이다.³⁹⁾

위 글은 김성삼 제독(준장)이 1951년 6월 1일에 자신의 해군생활을 회상하며 『해군』 창간호에 기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손원일 제독을 단장으로 하는 해방병단은 단기 4279년(1946년) 1월 14일 군정법령 제42호가 공포된 뒤 국방사령부에 편입되면서 합법적인 군사단체로 승인받게 되었다. 정식 군사단체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손제독은 단원들과 함께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의 위업을 계승하여 국토를 수호할 것을 맹세하였다. 손원일 제독이 창군과 더불어 해군 구성원들이 본받아야 할 역사적 인물로 임진

39) 金省三, 「우리 海軍의 걸어온 길 - 나의 海軍生活의 回想을 中心으로」, 『海軍』 創刊號(제1권 1호), 海軍恤兵會出版部, 1951, 28쪽.

왜란기에 국난을 극복한 충무공 이순신을 중시하고, 충무공이 이룩한 업적과 국토 수호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였음을 말해준다.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을 계승하였음은 이어지는 기록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대해군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삼가 이 몸을 바치나이다’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그 슬로건 아래 ‘충무공정신에 살고 충무공정신에 죽자’는 굳은 맹세를 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대체로 손원일 제독이 내세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삼가 이 몸을 바치나이다’라는 문구는 1948년 해군 총참모장에 임명된 후 장병들이 가져야 할 정신적인 지표의 필요성을 느껴 창군 이념으로 표방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섯 개의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⁰⁾ ‘군인은 충무공정신에 살고 충무공정신에 죽자’는 지침은 창군 이념을 뒷받침하는 다섯 번째 지침에 해당한다.⁴¹⁾ 그런데 손원일 제독이 1946년 1월 초에 창군 이념을 표방하고 충무공정신을 그 실천 지침으로 정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김성삼 제독의 기고문 내용은 손 제독이 총참모장에 임명되는 1948년의 사실로 이해하는 입장과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남겨진 자료만으로 손원일 제독이 어느 시점에 창군 이념과 충무공정신을 포함한 여섯 개의 실천 지침을 표방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47년 10월 21일에 제정된 해군사관학교 교훈 중 ‘희생하자’의 덕목이 ‘충무공정신과 조국수호’⁴²⁾의 내용을 담고

40)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50년사』, 1996, 46쪽.

41) 당대의 기록에는 실천 지침이라는 표현이 아닌 장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의지를 고양시키는 격어(激語)로 명명되었다. 나머지 격어는 다음과 같다. ①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경애하자. ② 군인은 명령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자. ③ 군인은 명량활발하고 신의를 지키자. ④ 군인은 정치담을 말고 도벌담을 폐지하자. ⑥ 군인은 관품을 애용하고 물자를 절약하자.

42) 海軍士官學校, 1981, 앞의 책, 77~78쪽.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1947년 11월 11일에 거행된 해군 창설 2주년 기념식에서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정신을 강조한 사실도 주목된다. “우리의 각오와 포부는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으로서 오로지 조국 광복과 융성의 초석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바입니다.”⁴³⁾ 손원일 제독이 총참모장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충무공정신을 해군이 계승해야 할 핵심적인 이념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보아 충무공정신은 1946~47년 단계에 장병들간에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던 이념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이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삼가 이 몸을 바치나이다’라고 하는 창군 이념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이를 실천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정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손원일 제독에게 충무공정신은 무엇이였을까. 아래 기록을 보자.

제군은 이 국란을 몸으로 쓰리게 겪지 않았다할망정 마음으로 정신으로 아플만큼 아프게 겪어왔다. 그리고 3년 동안 몸으로 단련을 받았다. 그리하여 3년 전 이 교문에 들어설 때의 제군과 3년 후 오늘에 나가는 제군들과는 스스로 다른 그 무엇이 있음을 제군 자신은 발견할 것이다. 그 무엇이란 무어냐? 이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제군이 앞으로 실적에 말없이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말할 것 없이 충무공이 몸소 겪으신 국난과 같은 국란을 겪으면서 『충무공의 정신에 살고 충무공의 정신에 죽자』는 교훈 밑에 수련된 충무공정신의 발현인 것이다. 충무공정신이란 무어냐? 나라를 위하여 몸을 잇는 것 『忘身殉國』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삼가 바치자는 이 한마디에 그치는 것이다. 교문을 떠나서는 제군 정도에, 나아가 용사 제군에게 다만 하나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 한마디뿐이다.⁴⁴⁾

43)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54쪽.

44) 해군본부 정훈감실, 「제군은 충무공정신에 살았다 - 해사 제7기생 졸업식 훈시

위는 손원일 제독이 1953년 5월 30일에 거행된 해사 7기생 졸업식에서 연설한 훈시문에 수록된 내용이다. 손원일 제독은 임관하는 7기생들을 대상으로 한 훈시문에서 충무공정신란 무엇인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충무공정신은 한마디로 말해 ‘나라를 위하여 몸을 잊는 것, 즉 망신순국(忘身殉國)의 자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삼가 바치자’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창설하면서 표방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삼가 이 몸을 삼가 바치나이다’라는 창군 이념과 망신순국으로 함축된 충무공정신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손원일 제독이 내세운 창군 이념이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⁴⁵⁾ “교문을 떠나서는 제군 정도에, 나아가 용사 제군에게 다만 하나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 한마디뿐이다” 라며 망신순국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칠 것을 당부한 것은 졸업하는 7기생 모두 충무공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줄 것은 강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손원일 제독은 충무공정신을 창군기의 해군이 계승해야 할 핵심 이념이자 실천적 지침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손원일 제독이 고대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근현대 시기까지 이어져 온 수군의 전통을 충무공을 중심으로 정립하고, 이를 계승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사실 창군기의 해군이 계승해야 할 수군전통의 핵심적인 이념으로 충무공정신이 탄생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그 연원이 꽤나 오래된 것이었다. 해방병단 창설식에 즈음하여 “청해대사(淸海大使) 궁복(弓福) 장군이 호령하는 바다, 삼도수군

(1953년 5월 30일), 『역대 해군참모총장 훈시문집』 제1집, 1971, 18쪽.

45) 공정식, 「해군·해병대에 깃든 손원일 제독의 창군정신」, 『전략논단』 15, 해병대 전략연구소, 2012, 16쪽.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을 하던”⁴⁶⁾ 바다를 다시 찾은 감격적인 표현을 통해 보듯이, 그 연원은 멀게는 통일신라 말기에 서남해역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던 청해진대사 장보고(張保臯)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장구한 것이었다.

손원일 제독이 해방과 동시에 해군 건설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해군 구성원이 사표로 삼아야 할 인물로 충무공 이순신을 설정하고, 그가 실천한 망신순국의 자세를 충무공정신으로 구체화하여 해군이 계승해야 할 전통의 중심으로 표방한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손원일 제독은 해방된 조국의 영속적인 독립 보장과 국가의 미래가 해양력에 달려 있음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다. 또한 해양력의 궁극적인 힘이 해군력 건설에 따라 좌우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진왜란에서 조선왕조를 구하여 독립된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전시키고, 강력한 수군력을 바탕으로 서남해역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던 충무공 이순신은 그가 이룩하고자 하던 해군 건설의 구심적인 인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망신순국,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충무공정신은 창군될 해군 구성원이 계승해야 할 수군의 전통으로 표방되기에 적합하였던 것이다.⁴⁷⁾

46) 『太極旗 밑의 우리海軍』, 『동아일보』, 1946년 1월 2일.

47) 충무공정신은 '60~'70년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해군의 정신적 이념으로 끊임없이 계승되고 있다. 1968년 해군참모총장에 재직 중이던 김영관 제독은 '충무공정신 이어받아 조국의 방패되자'를 지휘방침으로 정하였다(백구부대 공보실, 『백구』 創刊号, 1968 참조).

3.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 계승활동과 의미

가. 최초의 군함 건조와 충무공정 명명

손원일 제독은 충무공의 후예임을 천명하고,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중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켜나갈 군함을 건조하여 충무공정(忠武公艇)⁴⁸⁾으로 명명한 것은 대표적인 쾌거였다.

여러 자료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충무공정은 일본 해군이 1944년 9월 14일에 경비정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착공한 군함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게 됨에 따라 공사는 자연스럽게 중단을 맞게 되었다.⁴⁹⁾ 이후 충무공정은 1946년 7월 17일에 이르러 장호근(長縞根) 대위를 비롯한 배화상, 윤태운, 박영봉, 홍윤도, 광정수 등⁵⁰⁾ 한인 기술자들의 혼신어린 건조 노력에 의해 진수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47년 2월 7일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충무공정은 건조될 당시 전장 46미터에 배수량 260톤, 항속거리 450마일, 최대 속도 19노트에 불과한 소형 군함이었다. 그러나 “비록 300톤급 미만의 작은 함정일망정 우리는 빈약한 것에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⁵¹⁾고 자랑스러워할 만큼 이 함정의 건조가 갖는 의미는 각별한 것이었다. 그 의미는 “제작에 있어

48) 여러 기록을 통하여 함정의 명칭이 ‘충무공정’이 아닌 ‘충무공호’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조된 함정이 군함이므로 이하에서는 ‘충무공정’으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49)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37쪽.

50) 해군본부, 2006, 앞의 책, 49~50쪽에는 배화상·박봉우·배몽상·윤태운·이금식 등으로 나온다.

51) 「빛나는 우리 海岸警備隊의 활약」, 『서울신문』, 1947년 2월 11일.

외인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 손으로 만 1년 만에 준공을 보게 된 해방 이후의 첫 작품”⁵²⁾이라는 점에 있었다. 충무공정이 독립된 조선인들 스스로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최초로 건조한 군함이라는 사실 속에서 강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1947년 2월 7일 조선해안경비대(朝鮮海岸警備隊) 총사령관이었던 손원일 제독과 군정장관(軍政長官) 러취(Archer L. Lerch), 통위부장(統衛部長) 유동열(柳東悅)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함정에 대한 명명식이 거행되었다.⁵³⁾ 함정의 명칭은 임진왜란 때에 왜적을 물리쳐 그 이름을 전사상에 길이 빛낸 이순신의 시호를 따서 ‘충무공정’으로 명명되었다. 초대 지휘관에는 박홍철(朴弘哲) 중위가 임명되었다. 충무공정의 지휘관은 명명식 직후 정장으로 호칭되었다. 그러나 이후 해군의 기함인 충무공정의 지휘관을 ‘정장’이라 호칭하는 것은 나라의 체면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함장’으로 불리곤 하였다.⁵⁴⁾

손원일 제독이 함명을 충무공정으로 명명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이 바다에서 7백 척의 왜선을 무찔러 버린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을 수많은 바다의 용사를 길러내기 위하여 그 이름도 충무공호라고 하였다”⁵⁵⁾고 하는 것처럼 충무공의 뒤를 잇는 해군 용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장병들로 하여금 충무공 이순신이 이룩한 업적과 백전불굴의 전통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⁵⁶⁾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을 계승하는 용사를 양성하고 수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음은 동일한 날짜에 발간된 『대동

52) 「三百噸警備船竣工! 忠武公號로 命名」, 『조선일보』, 1947년 2월 4일.

53)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앞의 책, 38쪽.

54) 함명수, 2007, 앞의 책, 245쪽.

55) 「구호는 忠武公을 따라」, 『자유신문』, 1947년 2월 12일.

56) 「우리 海岸警備隊의 눈부신 活躍」, 『동아일보』, 1947년 2월 12일.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들은 이번 이충무공의 위훈과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손과 그 칼의 힘으로써만 삼백 톤의 경비선을 진수시킨 것이다. 이것은 조선의 처음된 일이며 더욱 일찍이 왜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존호를 명명한 것은 새로이 출발하는 가까운 장래의 조선 해군을 위하여 힘찬 의의를 주는 것이다. 더욱 기대할 것은 전통을 살릴 그들 조선의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여하히 노력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그들 젊은이들은 말하였다. 역사와 전통을 세우고 살리는데는 불굴의 의지와 모든 청년의 정열을 바쳐 노력하는데서 산출되는 것이다. (중략) 임진왜란의 예전에 우리의 선조가 미증유의 국난을 앞에 놓고 과연 그 비장한 결심은 무엇이었을까? 이 몸을 바쳐 왜적을 물리치지 않았던가. 그는 3백 년 전에 침공한 7백여 척의 왜선을 한산도 구렁이에서 전멸시킨 것이다. 세상에 유명한 制勝戰法의 역사와 피 흘린 선조의 영혼이 사모친 이 바다를 그 전통을 계승한 자손들이 이제 그 역사를 심고 지나가는 것이다.⁵⁷⁾

위 기록을 통해 보듯이, 진수된 경비선은 이충무공의 위훈과 전통을 계승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조선 해군을 위하여 힘찬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 의미는 바로 창군기의 해군 구성원 스스로 충무공이 이룩한 위업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임진왜란기에 활약한 조선 수군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조선의 젊은이들이 충무공정을 건조한 시점부터 여하히 노력하고 정열을 바치는가에 달린 것이었다. 함정에 대한 명명식을 마친 다음날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안경비대원들은 충무공정에 승함하여 이충무공의 충혼을 모신 통영으로 향해하여 충렬사(忠烈祠)를 참배하였다.⁵⁸⁾ 충무공의 후예로서 수군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57) 「李舜臣將軍號의 命名!」, 『대동신문』, 1947년 2월 12일.

58) 「씩々한 忠武公號의 進水」, 『서울신문』, 1947년 2월 11일.

행보를 내딛은 것이었다.⁵⁹⁾

충무공정은 대외적으로 해군이 이순신의 수군 전통을 계승한 후예임을 알리는데에도 기여하였다. 손원일 제독이 함명식을 마치고 약 2개월 뒤에 실시한 이충무공 선양 행사를 통하여 그러한 면을 살필 수 있다. 즉 손제독은 충무공이 탄생한 4월 28일을 민족의 기념일이자 바다의 성웅을 기념하는 날로 기리기 위하여 민중들을 대상으로 함정을 관람케하는 관함식을 거행하였다.⁶⁰⁾ 당시 손 제독이 관람토록 지명한 함정 가운데에는 충무공정이 포함되었다. 충무공정의 위상과 상징성은 참가한 관람객들로 하여금 해양사상 고취와 민족정신 양양에 큰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관함식에 위용을 드러낸 충무공정의 존재를 통하여 인접한 함정에 승조한 장병들 역시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요, 그가 이룩한 수군 전통을 계승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한편 첫 번째 충무공정이 명명된 뒤로부터 약 4년여의 기간이 흐른 뒤인 1951년 8월 25일, 또 하나의 충무공정이 해군에 인수되었다.⁶¹⁾ 그로부터 6일 뒤인 8월 31일,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신익희 국회의장, 무초 대사를 비롯한 다수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함정에 대한 명명식이 거행되었다. 함정의 명칭은 충무공정을 이어 제2충무공정(PG-315)으로 명명되었다.⁶²⁾ 함정의 명칭을 충무공정으로 명명한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이 시기는 해군이 6·25전쟁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서해상의 수많은 작전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59) 이후 매년 입관 및 수료하는 해군장병들은 충렬사와 한산도를 정례적으로 참배하게 되었다(金州植, 2008, 앞의 논문, 217쪽).

60) 「李忠武公誕生日에 海岸警備隊서 行事 多彩」, 『조선일보』, 1947년 4월 19일.

61) 임성채, 「6·25전쟁 중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이 한국해군력에 미친 영향 - 조직·부대 및 함정·장비를 중심으로」, 『군사』 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233쪽.

62) 「第二忠武公號命名式」, 『조선일보』, 1951년 9월 3일.

이처럼 어려운 역경하에서 해군이 거둔 승리는 과거 충무공이 이룩한 그것에 비견될 정도로 가치가 큰 것으로 여겨졌음직하다. 또한 해군이 충무공의 후예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가 보여준 정신을 계승하여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당대의 신문 기사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충무공의 정신에 살고 충무공의 정신에 죽자’는 손원일 제독의 숭고한 염원 아래 굳게 뭉치어 잘 싸우고 있는 우리 해군이야말로 충무공정신의 계승자인 것이다.”⁶³⁾ 충무공의 후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가 이룩한 연전 연승의 전통을 이어 나아가기 위하여 또 하나의 함정을 충무공정신으로 명명하였던 것이다.

나. 해군사관학교의 교가와 교훈 제정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비슷한 시기에 제정한 해군사관학교의 교가와 교훈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군사관학교는 해방병단이 점차 체계를 잡게 되고, 장차 해군을 이끌어갈 장교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46년 1월 17일에 개교하였다. 개교시의 학교 명칭은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였다. 초대 교장은 손원일 제독이었다.⁶⁴⁾ 그러나 손 제독이 해방병단의 단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2개월여 뒤인 3월 15일에 사임하고, 김일병(金一秉) 부위(副尉 : 현재의 중위)가 3월 16일에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해사 교가의 제정은 김일병 교장이 1947년에 노산 이은상에게 작사를 청탁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은상은 충무공 연구의 전문가로 해군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관생도

63) 「오늘 11월 11日 海軍創設紀念日」, 『부산일보』, 1951년 11월 11일.

64) 당시 손원일 제독의 계급은 참령으로 현재의 소령 계급이었다.

들을 충무공의 후예로 칭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교가 작사의 청탁을 받아 1947년 6월에 완성본을 작성하여 김일병 교장에게 전달하였다. 김일병 교장은 이은상의 작사를 작곡하도록 저명한 작곡가들에게 요청하였다. 이 중에는 손 제독의 부인인 홍은혜가 작곡한 것도 포함되었다. 손 제독은 자신의 아내가 작곡에 응모했다는 사실을 알고 심사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다.⁶⁵⁾ 하지만 김일병 교장은 심사도 하지 않고 제외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 손 제독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 방법은 해사 2기생들이 모두 둘러앉아 한 곡씩 차례로 불러 보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곡을 뽑는 것이었다. 그 결과, 생도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홍은혜가 작곡한 곡이 제일 좋다 하여 교가로 채택되어지게 되었다.⁶⁶⁾

해사의 교가는 크게 세 개의 절과 후렴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주목해볼 부분은 제3절의 내용이다. 가사를 보면, “청춘의 피가 끓는 대한의 아들, 두 손을 높이 들고 맹세하노니, 거룩한 충무공의 뒤를 받들어 조국의 한 바다를 지키오리다”로 서술되어 있다. 가사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사의 교가에는 제정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아들인 사관생도들이 충무공의 뒤를 잇는 후예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교가는 젊은 사관생도들이 실천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도 말해주고 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맹세하였던 그 중요한 실천적 가치는 충무공 이순신이 조선의 바다를 지켜냈던 것처럼 사관생도들 역시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해사 교장이던 김일병 중위와 작사자인

65) 오진근·임성채, 2006, 앞의 책, 143~144쪽.

66)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1월 24일. 홍은혜, 1990, 앞의 책, 139쪽.

이은상, 작곡자인 홍은혜 모두 충무공이 이룩한 수군의 전통을 교가라는 매개체를 빌어 계승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교가에 반영된 충무공 계승 노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 졸업생들의 기생별 노래에도 잘 나타난다. 제1기생으로부터 3기생까지의 가사를 보면, ‘충무공 순국정신 이어가려고’, ‘충무의 젊은 해사 이 품 안에서’, ‘충무의 전통을 이어받들고’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⁶⁷⁾ 또 5·7·9기생의 기생가의 가사를 보면, ‘충무공의 정신을 거울삼아서’, ‘충무공의 일사보국 붉은 충성’, ‘우리는 해군 남아 충무의 아들’이라는 구절 등이 나온다.⁶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사관생도들 스스로 기생가를 만들어 동기생들간의 단결력을 결속시키고, 충무공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음을 살필 수 있겠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해사 1기생의 졸업식이 1947년 2월 7일에 거행되었다는 점이다. 통상 기생가의 제정이 졸업에 임박하여 만들어지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1기생가는 동년 7월에 제정된 교가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셈이 된다. 교가와 1기생가 중 어느 것이 먼저 만들어졌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여러 기생가의 가사에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주목받아 마땅할 것이다.

해사의 교훈에도 충무공의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이념이 반영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1947년 초, 손원일 제독은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김일병 교장에게 미국 해군사관학교 시찰을 지시했다. 김일병 교장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김석범(金錫範) 교두(敎頭)와 간부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에게 교훈 제정 등 교육체계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김일병 교장은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교육체계 뿐만

67) 海軍士官學校, 『海軍士官學校 期生の 노래』, 1997, 2~4쪽.

68) 海軍士官學校, 1997, 위의 책, 6~10쪽.

아니라 교훈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교장이 귀국한 뒤 교육운영 위회는 약 10개월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교훈을 건의하였다. 교장은 교육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교훈을 당시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이었던 손원일 제독의 승인을 받아 10월 21일에 공포하였다.⁶⁹⁾ 제정된 교훈은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등 세 개의 덕목으로 구성되었다.

해사 교훈에서 주목되는 덕목은 세 번째 교훈인 희생하자의 내용이다. 희생하자의 교훈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현은 아름다움(美)과 애국애족, 충성심, 인내극기와 바다 생활, 충무공정신과 조국 수호의 실천을 통해 달성된다.⁷⁰⁾ 희생하자라는 교훈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내용으로 충무공정신을 강조하고 있음이 흥미롭기만하다. 충무공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모호하지만, 그 뒤에 언급된 조국 수호와 연결시켜보면 그 의미는 분명해 보인다. 충무공이 이룩해낸 조국 수호의 위업을 젊은 사관생도 또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삼고 그와 같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손원일 제독이 창군초기부터 누차 강조해왔던 충무공정신을 해사의 교훈에 반영함으로써 사관생도들의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충무공을 핵심으로 하는 조선 수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음을 살필 수 있겠다.

69)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0, 19쪽.

70) 나머지 교훈의 목표와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리를 구하자는 교훈은 ‘진리’ 추구를 목표로 眞, 인격도야, 지력과 체력의 연마, 인생관의 정립을 실천한다. 허위를 버리자는 ‘정의’ 실현을 목표로 善, 긍지와 명예심, 정직과 정결, 세계관의 정립을 실천한다.

다. 한국해양사 편찬과 충무·한산·노량작전

충무공의 수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해군 및 해양 관련 서적을 편찬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는 방향으로도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편찬된 주목할만한 서적은 『한국해양사』이다.⁷¹⁾ 이 서적은 1951년 1·4후퇴 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의 피난지에서 몇 명의 사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⁷²⁾, 1954년 11월 10일에 해군 본부 전사편찬관실(戰史編纂官室)에서 출간하였다.

『한국해양사』는 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조선 전후기, 근대 일제강점기까지의 해상활동과 수군활동, 해사 문제와 해운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서적에서 주목되는 점은 임진왜란기의 수군활동과 이순신이 수행한 해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는 점이다. 거북선의 구조와 성능, 화포의 종류와 성능과 같은 수군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되는 전함과 무기 체계는 물론 옥포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한산도해전, 부산포해전, 칠천량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 이순신이 참전하여 승첩을 거둔 모든 해전을 망라하였다. 내용은 학술적인 성격이 강하고 풍부하게 구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적은 이전 시기에 출판된 충무공 서적과 비교하여 가장 해전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⁷³⁾ 비록 서문에서 전란의 와중에서 대부분의 사료를 소실당하여 그 수집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실상은 당시에 출간된 충무공과 관련한 서적 중에서는

71)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韓國海洋史』, 1954. 근래 이 책을 한글로 알기 쉽게 번역한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정진술·이민웅·신성재·최영호, 『다시 보는 한국해양사』, 신서원, 2008.

72) 편찬 작업에는 1951년 5월 13일에 해군 촉탁 군무원으로 들어온 육당 최남선도 참가하였다.

73) 崔永禧, 「忠武公에 關한 文獻 - 忠武公은 어떻게 理解되고 있는가」, 『制海』 11호, 海軍士官學校, 1957, 70~71쪽.

가장 많은 사료를 인용하고 있다.⁷⁴⁾ 이러한 사실은 서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목적을 반영하였음을 보여준다.

『한국해양사』가 간행된 시기는 6·25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이었다. 손원일 제독이 1953년에 제5대 국방부장관에 취임했던 사실⁷⁵⁾을 감안해볼 때 손제독이 이 서적의 편찬 및 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서적 편찬 작업이 처음 시작되던 1951년 1·4후퇴시부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2년까지 총참모장으로서 해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한국해양사』와 같은 전문 해양서적 편찬을 통하여 충무공을 비롯한 역대 수군장수들이 보여준 해양 진출과 개척 정신을 선양하는 한편, 이들이 이룩한 업적을 그 후예들로 하여금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해당 서적의 편찬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손원일 제독이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의 연두사에서 ‘이 원수 없앨 수만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此讐若除 死即無憾)’라며 충무공의 충혼을 받들 것을 강조한 기록이⁷⁶⁾ 주목된다. 서적 편찬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나타나는 손제독의 충무공 유훈에 대한 언급은 그 후예들의 수군전통 계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충무공과 같은 역사적 위인에 대한 숭배와 계승의식은 책이 간행되던 1954년 당시 해군 총참모장으로 재직 중이던 정궁모 제독의

74) 崔永禧, 1957, 위의 논문, 71쪽.

75) 손원일 제독이 국방부장관에 취임한 것은 1953년 6월 30일로 당시 나이는 40세였다.

76) 孫元一, 「年頭辭」, 『海軍』 제2권 제1호, 海軍恤兵會出版部, 1952, 9쪽. 연두사가 있던 동년 4월 13일에 진해 북원로터리에서 충무공 동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해군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충무공 선양 및 추모의 글을 기고받아 『해군』 특집호를 발행하였다.

서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고구려 시대에 살수대첩의 을지문덕, 신라시대에 해상 웅비의 큰 뜻을 품었던 장보고, 조선 시대에 세계적으로 위대한 해군장수 이순신 같은 인물들, 즉 물을 이용하고 바다를 개척하며, 함선을 건조하고 바다에서 싸움에 유능한 영걸들이 연달아 배출되었으나 근대와 현대에 해양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은 천추의 한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⁷⁷⁾ 을지문덕으로부터 장보고 및 충무공으로 이어지는 영웅호걸들의 해양수호 활동과 해양개척 정신을 근현대로 접어들면서 이어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아쉬움과 함께 이를 반성적 교훈으로 삼아 이들이 이룩하였던 수군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6·25전쟁기에 해군이 수행한 몇몇 작전을 통해서도 충무공이 남긴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적극 전개되었다. 6·25전쟁기에 해군은 전략·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역별로 다양한 명칭을 띤 해군작전을 수행하였다.⁷⁸⁾ 이 중 충무공의 수군전통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작전은 충무작전, 한산작전, 노량작전이다. 먼저 충무작전은 1952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서해안 강화도·옹진반도를 중심으로 장산곶(長山串) 북방과 중방리(中方里) 부근, 덕적도에 이르는 주요 도서를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한 작전이었다.⁷⁹⁾ 작전의 총 지휘는 UN 극동함대 서해봉쇄전대의 지휘하에 수행되었다. 한국 해군과 유엔군 해군에 의해 해양통제권이 장악된 상태였으므로 적의 저항은 소강 상태였으나, 1952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702함의 창린도(昌麟島) 탈환

77)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1954, 위의 책 서문, 11쪽.

78) 6·25전쟁 중에 수행된 다양한 작전의 명칭은 임성채, 2009, 앞의 논문, 220쪽 표5 참조.

79) 海軍本部 政訓監室, 『大韓民國海軍史 作戰篇』 제2집, 1958, 47~53쪽.

작전은 특히 치열했다.⁸⁰⁾

한산작전은 남해 방면에서 1951년 10월부터 목포-제주-포항을 연결하는 해상방위선 일대의 주요 항로에서 수행한 작전으로 밀수선 취제와 일본 어선 취제, 경비 위주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301정을 비롯하여 수 척의 경비정이 교대하면서 경비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작전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이승만 라인 혹은 평화선)’을 발표함에⁸¹⁾ 따라 해군이 관할해야 하는 해역을 침범하는 선박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입안된 작전으로 1952년 7월부터 동년 12월 말까지 계속되었다.⁸²⁾ 전투행위는 없었지만, 301호정이 9월 2일 제주도 북방에서 주권선을 불법 침입하여 어로 중인 일본 어선 수십 척을 발견하여 퇴거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⁸³⁾

노랑작전은 남해안 일대에서 수행된 해상작전의 하나로서, 그 임무는 전시 경제의 궁핍한 사정을 기회로 일본 및 중국 등지를 대상으로 밀수 행위를 자행하는 선박들을 단속하는 한편 이들을 이용하여 침투를 기도하는 적들의 간첩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작전이다. 작전은 수시로 지시된 구역을 저속으로 순항하면서 부근에 항해중인 선박들을 취제하고 밀수선임을 확인시에는 나포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정찰정은 지정 구역을 정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⁸⁴⁾ 경비 임무는 308호정 및 309호정이 주로 실시하였으며, 한산작전과 같이 평화선 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일본

80) 해군본부, 2010, 앞의 책, 432쪽.

81) 배규성,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 해양법 발전에서의 의의와 독도 문제에서의 의미」, 『日本文化研究』 47, 동아시아 일본학회, 2013, 227~229쪽.

82) 海軍本部 政訓監室, 1958, 위의 책, 67~68쪽.

83) 위와 같음.

84) 海軍本部 政訓監室, 1958, 위의 책, 70~72쪽.

선박들을 퇴거 조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을 통하여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벌이던 일본 어선들을 퇴출하였으며, 밀수선들을 색출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소개한 작전은 충무공이 임진왜란기에 서남해에서 일본 수군과 싸워 승리한 해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군이 6·25전쟁기에 왜 이러한 명칭의 작전명을 제정하였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명명된 해전 모두 충무공이 헌신하여 싸워 승리를 거둔 해전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충무공이 일본 수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국가를 보위하였던 것처럼 해군 역시 충무공과 같이 싸워 조국의 바다를 지켜야할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작전 명칭이 제정되던 시기가 6·25전쟁이 발발하여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던 상황임을 생각해 보면 충무공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란을 승리로 이끈 주요 해전은 당시의 해군이 수행해야 하는 작전 명칭으로 제정되기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전쟁기에 한국 해군을 총지휘하던 손원일 제독이 그러한 목적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생각된다. 작전 명칭을 통해 보더라도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이 쌓은 무훈과 그가 수립해 놓은 조선 수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4. 맺음말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 중심의 수군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해군이 창설되는 시점과 비교하여 가장 멀게는 충무공 사후 논공행상 과정에서의 평가, 인조대부터 정조시대로 이어지는 현창 사업, 이순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재평가 작업 등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온 결과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게는 해방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즉 일제강점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⁸⁵⁾ 특히 일제 강점하에서의 노력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고대로부터 이어지고 있던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말살될뻔한 시기였기에 이 시기를 중심으로 추진된 수군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의 계승 노력은 이순신 전기를 저술하는 방식을 통해 표출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申采浩)의 『수군제일위인전(水軍第一偉人傳)』을 들 수 있다.⁸⁶⁾ 이 책은 1908년 5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연재된 것으로 모두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채호가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1907년 중국 양계초(梁啓超)의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을 번역한 후 곧이어 한국 역사상의

85) 이순신의 사후 평가와 인식의 변천은 노영구, 「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 『역사비평』 69, 역사문제연구소, 2004; 오종록, 「보통 장수에서 구국의 영웅으로 - 조선 후기 이순신에 대한 평가」, 『내일을 여는 역사』 권18, 2004; 정두희,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역사와 역사화 - 4백 년간 이어진 이순신 담론의 계보학」, 『임진왜란 동북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이민웅, 『이순신 평전』, 성안당, 2012 참조.

86)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丹齋申采浩全集』 中(改訂版), 螢雪出版社, 1977, 357~414쪽 참조.

세 영웅으로 을지문덕, 이순신, 최영을 뽑아 그들의 전기를 저술하여 청년 학생과 민중에게 국민적 영웅이 되어 투쟁할 것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⁸⁷⁾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이순신을 영국의 해군제독 넬슨과 비교하여 훨씬 열악한 싸움에서도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순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당시 대한제국의 국력이 미약하여 이를 세계에 알리지 못한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위대성을 국민에게 밝히고자 책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는 거북선을 세계 철갑선의 원조로 높이 평가한 점이다. 신채호의 이러한 인식은 남북전쟁을 전후한 19세기 후반기에 서양에서 강철로 군함을 건조하였던 시대적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부국강병을 통해 국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시대적 인식의 소산이었음을 반영한다.⁸⁸⁾

신채호에 이어 박은식(朴殷植) 또한 저술활동을 통해 수군 역사의 계승을 표방하였다. 『이순신전』이 그것이다. 이 책은 1915년 중국 상하이에서 저술되었다. 책의 부제인 “고금수군의 제일위인 세계철함의 발명시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이순신의 위대성과 거북선의 독창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순신은 백전백승의 명장이면서 동시에 지혜와 용기, 충성과 효성, 공평무사와 지성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등 온전한 인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철갑선인 거북선으로 멀리 가서 해양 패권을 장악했으면 조선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망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민족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순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신채호와 마찬가지로

87) 배일용, 『박은식과 신채호 사상의 비교연구』, 景仁文化社, 2002, 57쪽.

88) 노영구, 2004, 위의 논문, 348~349쪽.

가지로 이순신과 넬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이순신이 넬슨보다 더 위대한 영웅임을 증명하였다.⁸⁹⁾

박은식의 이러한 평가는 이순신을 구국의 영웅으로 현양시키는 한편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그 후손들이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계승해줄 것을 염원한 것이었다. 박은식의 『이순신전』은 이후의 충무공 계승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영창서관(永昌書館)이 1925년에 『이순신실기』를 발행하는가 하면 1927년에는 회동서관(匯東書館)이 『이순신전』을 간행하였다. 1931년에는 이윤재(李允宰)가 『성웅이순신(聖雄李舜臣)』을 집필하였고⁹⁰⁾, 1946년에는 이은상이 충무공 일대기를 출간하였다.⁹¹⁾ 신채호로부터 박은식으로 이어지는 충무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그 뒷 시기에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케 하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은상이 해방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충무공 전기를 출간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은상은 1947년 해군사관학교 교가를 제정하던 당시에 사관생도들이 충무공의 후예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거룩한 충무공의 뒤를 받들어’라는 문구를 가사의 내용으로 작사한 인물이다. 1946년 충무공 실기의 출간과 1947년 해사 교가 제정시 사관생도가 충무공의 후예임을 나타내는 가사의 표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 수군에 대한 역사인식과 충무공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이 일제강점기에도 단절됨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채호로부터 박은식, 이윤재, 이은상 등으로 이어지는 이순신

89) 노영구, 2004, 위의 논문, 350쪽. 『이순신전』의 전문 분석은 朴現圭·權赫泰, 「朴殷植 『李舜臣傳』의 全文 발굴과 분석」, 『이순신연구논총』 제1권 1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3 참조.

90) 李允宰, 『聖雄李舜臣』, 漢城圖書株式會社, 1931.

91) 李殷相, 『李忠武公一代記』, 國學圖書出版館, 1946.

선양과 저술활동이 실제 손원일의 수군 역사 계승과 창군될 해군의 전통 확립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와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그 연결 가능성은 1919년 임시정부의정원(臨時政府議政院) 의장이었던 손원일의 부친인 손정도(孫貞道) 목사와 도산 안창호(安昌浩)와의 관계, 아버지 손정도 목사의 가르침과 유훈 등을 통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유추해 봄직하다.

도산 안창호와 손정도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 이렇게 가깝게 지낸 도산과 손정도는 함께 임정원 요원들의 파당 싸움을 걱정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민족의 대동단결을 외치고 다녔고, 어떻게 하면 임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국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에 노력을 기울였다.⁹²⁾ 독립 운동가이자 애국계몽주의자로 명망이 높았던 안창호의 역사 인식과 사상은 손정도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도산의 사상과 역사 인식,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 등은 자연스럽게 손정도에게 이어졌을 것이다. 손정도가 도산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한 손원일 제독의 회고록이 이를 짐작케한다.⁹³⁾

안창호의 독립 사상과 역사 인식은 아버지인 손정도를 거쳐 아들인 손원일 제독의 역사관과 국가관, 세계관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더구나 손 제독은 임종을 앞둔 안창호를 문명한 적이 있고, 그로부터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듣기도 했다. 아버지인 손정도 목사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지방색을 가르는 파당 싸움을 말아야 한다”⁹⁴⁾는 말을 강조하였고, 독립운동을

92)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0월 12일.

93) 위와 같음.

94)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0월 14일.

유업으로 남겼다.⁹⁵⁾ 손원일 제독은 신채호와 박은식, 안창호 등으로 연결되는 민족주의 사학자와 계몽사상가들로부터 독립 사상과 역사 계승의식을 배웠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도 지나간 역사의 교훈과 독립정신을 체득하였을 것이다. 길림의 문광(文光) 중학교 2학년 재학시에 지었다고 하는 나라를 잃고 살아야 하는 설움을 표현한 노래는⁹⁶⁾ 그의 성숙된 자의식과 독립에의 염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과 분위기 속에서 손원일 제독이 민족의 독립을 보전해준 조선 수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충무공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해방을 맞이함과 동시에 손원일 제독이 충무공을 계승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충무공정신을 창군될 해군이 실천해야 할 이념이자 지침으로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가능하였다.

(원고투고일 : 2014.4.1, 심사수정일 : 2014.5.14, 게재확정일 : 2014.5.20)

주제어 : 손원일, 해군, 충무공, 이순신, 수군전통

95) 孫元一, 「나의 履歷書」, 『한국일보』, 1976년 11월 7일.

96) 김창수·김승일, 『해석 손정도의 생애와 사상』, 넥서스, 1999, 415~417쪽.

<ABSTRACT>

Admiral Son Won-II's Navy Building and Succession Activities of Naval Tradition

- focused on succession centered on Choongmugong Yi Sun-sin -

Shin, Seong Jae

This paper's main objective is to focus on the fact that admiral Son Won-il, nicknamed 'father of the modern Korean navy' has succeeded the naval tradition of legendary Yi Sun-sin in the process of founding the navy and to understand such procedures, as well as to extract its historical significance.

Currently, study on admiral Son ranges from his biography to philosophy on military foundation to leadership, and expanding. However, although the modern Korean navy insists that it is the direct recipient of admiral Yi's marine legacy, there is hardly any organized research on how such naval tradition has been established over the years. This question became the motive for my article.

Admiral Son Won-il organized Haesadae in August of 1946, so as to champion that navy members are indeed the descendants of admiral Yi. Since the founding of Haebangbaengdan, Son proclaimed 'Choongmugong spirit' as the ultimate ideology and doctrine of the Korean navy, so that it can surely claim that Yi is the benefactor of the tradition. This spirit was firmly established as one of the indicators to execute Son's navy-foundation motto : 'to sacrifice myself for the sake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in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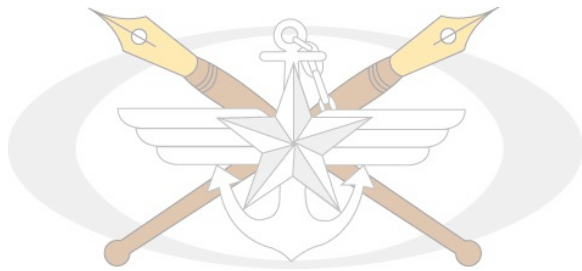
The reason for admiral Son's Yi-succeeding policy was because of Son's vision that naval power will play a dominant role in guaranteeing homeland's independence as well as to determine the future of this

nation. Yi sun-sin was naturally chosen as the perfect model for the construction of the modern Korean navy since Yi literally saved the Joseon dynasty from the Hideyoshi invasion and thereby preserved the independent status of the country,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Yi's powerful navy actually controlled the maritimes of the southwest.

Son has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to fulfill his mission to succeed Yi's heritage. Son's most inspiring achievement was naming a post-liberation new ship as 'Choongmugongjeong'. He also made an effort to include Choongmugong-oriented traditional spirit in the formation of school song and motto. One such example is that a phrase 'fulfilling the great teachings of Choongmugong', which implies that cadets are the virtual military descendants of admiral Yi, is reflected in the words of the school song. In one of the Naval Academy's motto 'sacrifice', 'Choongmugong spirit and defending the homeland' is also included to reflect the same purpose. Admiral Son published the book 'History of Korean Maritime Operations' in 1951, and named the operations of the Korean War as respectively Choongmu, Hansan, and Noryang, of which the latter is in accordance of the aforementioned motives.

Admiral Son's devotion to emphasize Choongmugong to be the ultimate symbol of naval tradition is indeed attributed to series of endeavors made by some Korean patriots during the early modern age. Especially, nationalist historians, independence fighters, and Son's own father have left an enduring mark on his view of history and nation. Admiral Son's post-liberation career to place Choongmugong as the core of naval tradition is rooted in these historical backgrounds.

Key Words : Son Won-il, navy, Choongmugong, Yi Sun-sin, naval tradition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전 덕 재**

1. 머리말
2. 上古期 新羅와 高句麗의 境界
가. 3세기 후반 新羅의 東北境
나. 麻立干時期 新羅와 高句麗의 境界
3. 眞興王代의 領土擴張과 東北境界의 變動
4. 新羅·渤海의 境界와 그 變遷
5. 맺음말

1. 머리말

동해안지역은 태백산맥이 해안에 근접하게 평행하고 해안선이 단조로운 관계로 군사적인 침략에 대응하기에 불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동해안지역에서

* 이 논문은 2013년도 단국대학교 교책중점연구기관(동양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은 변동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 예를 들면 고구려는 한때 포항시 북구 청하면과 그 이북의 경북 동해안지역을 영역으로 편제하여 지배하였고, 삼국시대에 신라는 한때 함흥과 이원 일대까지 進出하여 영역으로 삼기도 하였다. 종래에 동해안지역 지형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신라 동북 국경을 검토한 연구성과가 여럿 제출되었고¹⁾, 삼국통일 이후 발해와 신라의 국경 및 그 변천을 둘러싼 연구성과도 적지 않게 제출된 편이었다.²⁾ 이 결과 신라의 동북 국경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에 특정 시기 신라의 동북 국경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신라 역사의 전개과정에 따라 동북 국경이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세밀하게 천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까지 신라와 고구려가

-
- 1) 津田左右吉,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1913(『津田左右吉全集』 제11권, 岩波書店, 1964); 池內宏, 「眞興王の戊子巡境碑と新羅の東北境」, 『古蹟調査特別報告』 第6冊, 朝鮮總督府, 1929(『滿鮮史研究』 上世第2冊, 吉川弘文館, 1960); 이병도, 「진흥대왕의 위업」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 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2008; 서영일, 「사료국의 실직국 병합과 동해 해상권의 장악」, 『신라문화』 21, 2003; 장창은, 「3~5세기 고구려-신라 관계의 전쟁사적 추이」, 『고구려연구』 24, 2004; 홍승우, 「4~6세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진출과 지방지배 방식」 『4~6세기 영남 동해안지역의 문화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09; 김창겸,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출항지」, 『사학연구』101, 2011; 강봉룡, 「5세기 이전 신라의 동해안방면 진출과 ‘동해안로」, 『한국고대사연구』 63, 2011; 김창겸, 「고대 안변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검토-북한지역 향토사 정리를 위한 하나의 시도-」, 『민족문화논총』48, 2011; 이경섭, 「고대 동해안지역의 정치적 동향과 우산국」, 『신라문화』39, 2012; 전덕재, 「상고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역사문화연구』 45, 2013.
- 2) 松井等, 「渤海國の疆域」, 『滿洲歷史地理』上, (株)丸善, 1940; 이문기, 「통일신라기 북진과 군사적 위상」 『구국황중동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1994; 송기호, 「발해의 성쇠와 강역」, 『백산학보』 47, 1996; 조이욱, 「신라와 발해의 국경문제」, 『백산학보』 52, 1999; 김종복, 「남북국의 경계와 상호교섭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현실』 82, 2011; 赤羽目匡由, 『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2011.

동해안지역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두 나라의 국경이 자주 바뀌었는데, 종래에 이에 대해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성과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밖에 牛山城과 牛鳴山城,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 및 신라와 발해의 경계에 위치한 泥河, 그리고 泉井郡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하지 않고 논지를 전개하여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존에 신라의 동북 국경과 관련하여 논란이 분분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지를 전개하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의 기록, 그리고 동해안지역의 고고학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상고기에 동해안 지역에서 신라와 고구려 국경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를 고찰할 예정이다. 이어 3장에서는 6세기 전반부터 7세기 중반까지 신라 동북 국경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를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卅와 6停 관련 기사 및 진흥왕순수비 마운령비와 황초령비를 세밀하게 분석, 정리하여 검토한 다음, 계속해서 4장에서는 통일 이후 신라의 동북 국경이 어디였고, 발해 팽창 이후 신라와 발해가 어디를 경계로 대치하였는가를 『삼국사기』와 중국 및 일본측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다. 본고에서 부족한 점은 추후에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질정을 바란다.

2. 上古期 新羅와 高句麗의 境界

가. 3세기 후반 新羅의 東北境

『三國志』 魏書 東夷傳 濊條에 濊는 남쪽으로 辰韓과 접하였다고 전한다. 3세기 중반에 동예와 진한이 동해안에서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辰韓 小國 가운데 勤耆國을 포함시 남구 연일읍(옛 영일군)³⁾, 優由國(優中國)을 경북 울진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 그러나 이에 대하여 異見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기국과 우유국이 반드시 동해안지역에 위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⁵⁾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마조마을(옛 마조리)에서 ‘晉率善穢伯長’이 새겨진 銅印이 발견되었다. 3세기 후반에 경주 근처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일대까지 穢(濊)族이 거주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濊條에 247년(正始 8)에 濊가 魏에 朝貢을 바치자, 魏는 不耐侯를 不耐濊王으로 封하였고, 그는 계절마다 낙랑군에 이르러 朝謁하였다고 전한다. 『三國志』 魏書에 ‘景元 2년(261) 가을 7월에 낙랑의 外夷인 韓·濊·貊이 각각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朝貢하였다’고 전한다.⁶⁾ 260년대까지 동해안지역의 예족이 낙랑군의 통제를 받았음을 알려준다. 낙랑군 不耐縣은 현재 북한의 강원도 안변을 중심으로 원산 내지 통천군에 걸쳐 있었다고 추정되므로⁷⁾ 3세기 후반 예족의 핵심 세력은 원산만 일원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이병도, 「삼한의 제소국문제」,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276쪽.

4) 천관우, 「진·변한 제국의 위치 시론」, 『백산학보』 20, 1976; 『가야사연구』, 일조각, 1991, 83~85쪽.

5) 이병도, 앞의 논문, 1976, 276쪽에서 우유국을, 천관우, 위의 책, 73~75쪽에서 근기국을 각기 경북 청도에 위치한 소국으로 추정하였다.

6) 『三國志』 권4 魏書 陳留王奐紀, “景元二年 秋七月 樂浪外夷韓穢貊 各率其屬來朝貢”.

7) 이병도, 「臨屯郡考」,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201쪽.

『삼국지』 위서 동이전 예조에 동예가 漢末(後漢末)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고 전하므로 3세기 후반에 원산만 일원에 거주한 예족의 핵심세력은 고구려에 복속된 상태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고구려에 복속된 동예의 범위를 포항시 북구 신평면 일대까지 규정할 수 있을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파사이사금 23년에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悉直國의 왕이 신라, 즉 斯盧國에 항복하였고, 파사이사금 25년에 실직국이 반란을 일으키자, 신라에서 군사를 보내 반란을 평정한 다음, 그 남은 무리들을 남쪽의 변방으로 옮겼다고 전한다. 파사이사금 23년은 기년상으로 102년에 해당하나, 신라본기 초기기록의 기년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직국이 2세기 초반에 사로국에 복속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尼師今時期 신라본기의 기록은 4세기 후반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위의 기록은 4세기 후반 이전에 실직국이 사로국에 복속되었음을 시사해주는 자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로국(신라)이 구체적으로 실직국을 服屬시킨 시기를 언제까지 소급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분왕) 4년 7월에 倭人이 침입해 왔으므로 (昔)于老가 沙道에서 추격하여 싸웠는데, 바람을 따라 불을 놓아서 전함을 불태우니, 적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 (침해왕) 7년 癸酉에 왜국의 사신 葛那古가 客館에 와 있었는데, 우로가 그를 접대하였다. 손님과 더불어 희롱하여 말하기를, ‘조만간에 너희 왕을 소금을 만드는 노비(鹽奴)로 만들고, 왕비를 밥을 짓는 여자(爨婦)로 삼겠다’고 하였다.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장군 于道朱君을 보내 우리(신라)를 치니, 대왕이 于柚村으로 出居하였다. 우로가 말하기를, ‘지금 이 환난은 내가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고, 마침내 왜군에게로 가서 이르기, ‘전일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었을

뿐이었다. 어찌 군사를 일으켜 이곳에 이를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라고 하였다. 왜인이 대답하지 않고 그를 잡아서 나무를 쌓아 그 위에 엮어놓고 불태워 죽인 다음 돌아갔다(『三國史記』 列傳第5 昔于老).

석우로가 沙道에서 왜군을 격퇴한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제 2 조분이사금 4년 가을 7월조에도 보인다. 조분이사금 4년은 기년상으로 233년에 해당하나 이것 역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석우로는 흘해이사금의 아버지인데, 『삼국사기』 석우로열전에 우로가 사망할 때에 아들인 흘해는 어려서 걷지도 못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실과 흘해의 재위 연대가 310년에서 356년까지였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건대, 석우로가 활동한 연대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⁸⁾ 사도성은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위치한 沙冬院으로 비정할 수 있다.⁹⁾ 한편 于柚村은 종래에 울진군 울진읍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었으나¹⁰⁾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영덕군 영해면의 옛지명이 于尸郡인데, 于尸에서 ‘尸’는 ‘리’ 또는 ‘스(入)’ 받침을 의미하므로 ‘于尸’는 ‘울’ 또는 ‘웃(웃)’으로 독음할 수 있다. 한편 진흥왕순수비 창녕비에 于抽郡이 나오는데, 于抽와 于柚는 相通한다. 于柚는 ‘우추’뿐만 아니라 ‘웃’으로도 讀音할 수 있으므로 결국 ‘于尸(울 또는 웃)’와 음운상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사도성을 沙冬院과 연결시키고, 于柚村을 영덕군 영해면으로 비정할 수 있다면, 위의 기록은 석우로가 활동한 3세기 후반 무렵에 사로국, 즉 신라가 동해안으로 영덕군 영해면지역까지 진출하였음을 알려주는 사료로 활용할

8) 전덕재, 「勿稽子の 避隱과 그에 대한 평가」,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1(명예보다 求道를 택한 신라인), 2010, 235~238쪽.

9)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29쪽; 전덕재, 앞의 논문, 2013, 15~16쪽.

10) 前間恭作, 「新羅王の世次と其の名について」, 『東洋學報』 15-2, 1925; 『半島上代の人文』, 松浦書店, 1938에서 처음 우유촌을 울진군 울진읍으로 비정한 이래, 여러 학자들이 이를 지지하였다.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제1 지마이사금 14년 가을 7월조에 말갈이 大嶺柵을 습격하고 泥河를 지나 신라를 침략하였다는 내용이 전하고, 또한 일성이사금 4년 2월조에는 말갈이 변방에 쳐들어와 長嶺의 木柵 5개를 불살랐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밖에 일성이사금 7년 봄 2월조에 말갈의 침략에 대비하여 長嶺에 목책을 세웠고, 신라본기제2 아달라이사금 4년 3월조에 왕이 長嶺鎭에 巡幸하여 거기에 주둔한 군졸을 위로하고 각자에게 군복을 내려 주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말갈은 東濊를 지칭하고¹¹⁾, 大嶺은 大關嶺, 長嶺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옛 도암면) 병내리와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를 잇는 진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¹²⁾, 뒤에서 자세하게 살필 예정이지만, 泥河는 강릉시 남쪽에 위치한 南大川(옛 城南川)을 가리킨다고 추정되며, 鎭은 군대가 주둔한 군사기지를 이른다. 따라서 위의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신라가 4세기 후반 이전 어느 시기에 대관령이 위치한 강릉을 경계로 하여 말갈(동예)과 대치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아마도 경북 영덕군 영해면까지 진출한 3세기 후반 무렵을 전후한 시기에 사로국이 실직국을 복속시킨 다음, 강릉지역까지 진출하여 대관령 또는 진고개에 木柵을 설치하고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말갈, 즉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던 동예와 대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당시 사로국은 동해안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城을 쌓거나 鎭을 설치한 다음,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켜 그 근처에 위치한 소국과 읍락을 간접적으로 지배, 통제하였다고 알려졌다.¹³⁾

11) 노태돈,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 관계 기사 검토』, 『경주사학』 16, 1997, 83~84쪽.

12) 진고개는 비만 오면 땅이 질어지는 특성 때문에 泥峴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고개가 길어 長峴으로 표기하기도 한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 <강원편>, 1967, 489쪽). 본래 진고개(長峴, 長嶺)라고 불렀다가 후에 방언의 구개음화를 걸쳐 진고개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13) 4세기 이전 사로국의 동해안지역에 대한 지배, 통제방식과 관련하여 전덕재, 앞의

나. 麻立干時期 新羅와 高句麗의 경계

앞 절에서 3세기 후반에 신라의 東北境이 강릉 근처였음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3세기 후반 이후 동해안지역에서 신라의 北境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가 궁금하다. 3세기 후반에서 6세기 사이에 동해안지역에서 신라의 北境이 어디였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①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으므로 군사를 내어 그들을 悉直의 들판에서 크게 쳐부수었다(『삼국사기』 신라본기제3 나물이사금 40년 가을 8월).
- I-② 북쪽 변방 何瑟羅에 가뭄이 들고 蝗虫의 재해가 있어 흉년이 들었으며, 백성들이 굶주렸다. (하슬라의) 罪囚를 살피서 사면하고, 1년의 租와 調를 면제해 주었다(上同, 나물이사금 42년 가을 7월).
- II-① 고구려의 변방 將帥가 悉直의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何瑟羅城城主 三直이 군사를 내어 불의에 공격하여 그를 죽였다. 고구려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사신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대왕과 우호를 닦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군사를 내어 우리의 변방 장수를 죽이니, 이는 어찌 의리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서쪽 변경을 침입하였다. 왕이 겸허한 말로 사과하자, 물러갔다(上同, 눌지마립간 34년 가을 7월).
- II-②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 悉直城을 습격하였다. 가을 9월에 何瑟羅 사람으로서 15세 이상인 자를 징발하여 泥河(혹은 泥川)에 城을 쌓았다(上同, 자비마립간 11년 봄).
- III-① (왕이) 比列城에 행차하여 군사들을 위로하고 술을 넣어 만든 군복을 내려주었다. 3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을 쳐 들어와 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또 彌秩夫에 進軍하였다. 우리 군사가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여러 길로 나누어서 그들을 막았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므로 泥河의 서쪽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천여 명을 목 베었다(上同, 소지마립간 3년 봄 2월).

Ⅲ-② 고구려가 牛山城을 공격해 왔다. 장군 實竹이 나아가 泥河 가
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다(上同, 소지마립간 18년 가을 7월)

Ⅲ-③ 고구려가 牛山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上同, 소지마립간 19년
8월).

I-②는 나물이사금 42년(397)에 신라의 동북 국경이 오늘날
강릉시에 해당하는 何瑟羅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나물이사금
40년(395)에 신라가 말갈을 실직의 들판에서 물리친 것으로 보아,
당시 신라의 北境은 실직 또는 하슬라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제2 나해이사금 8년 겨울 10월조에 말갈이 신
라를 침략하였다고 전하고, 또 조분이사금 16년 겨울 10월조에 고
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으므로 우로가 군사를 이끌고나가 쳤
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馬頭柵을 지켰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밖
에 조분이사금 16년 이후부터 나물이사금 40년까지의 신라본기 기
록에서 말갈 또는 고구려가 동해안지역에서 신라를 침략하였음을
전하는 史料를 찾을 수 없다. 395년 이전 시기 신라의 北境과 관련
하여 馬頭柵의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그것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3세기 후반부터 395년 사이 동
해안지역 신라의 北境을 정확하게 考究하기 곤란하다. 다만 3세기
후반 무렵 신라의 북경이 대관령이 위치한 강릉이었고 390년대에
그것이 실직 또는 하슬라였음을 미루어보건대, 3세기 후반에서 390
년대 사이에 동해안지역 신라의 北境은 실직 또는 하슬라였을 가능
성이 높지 않을까 여겨진다.

Ⅱ-①에서 보듯이 눌지마립간 34년(450) 고구려 변방의 장수가
悉直의 들에서 사냥하고, 何瑟羅 城主가 고구려 장수를 살해한 사실
을 통하여 450년 무렵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가 何瑟羅 또는 悉直
이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Ⅱ-②에 자비마립간 11년(468) 봄에
신라의 북쪽 변경이 悉直城이고, 그해 가을 9월에 하슬라 사람을

동원하여 泥河에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468년 무렵 신라의 동북경이 실직 또는 하슬라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5세기 후반에 신라가 하슬라, 즉 강릉지역의 정치세력을 지배, 통제하였음은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5세기 3/4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강릉지역에서 수혈식석곽묘가 주요 분묘로 조성되었지만, 그러나 목곽묘와 적석목곽묘, 횡구식석실묘 등 신라계의 분묘도 함께 축조되었으며, 여기에서 경주 양식의 신라계 토기뿐만 아니라 창녕과 의성 양식의 토기, 다양한 신라계 위세 품이 출토되었다고 한다.¹⁴⁾ 결국 Ⅱ-①, ②의 기록 및 강릉지역의 고고학 발굴 현황을 통하여 450년 무렵부터 468년까지 신라의 北境이 悉直 또는 何瑟羅였음을 살필 수 있다.

소지마립간 2년(480) 11월에 말갈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는데, 당시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를 밝히지 않았다. 468년 이후 신라의 북쪽 경계에 변동이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자료가 바로 Ⅲ-①이다. 소지마립간 3년(481) 2월에 북한(北)의 강원도 안변(安邊)에 해당하는 比列城(比列忽)에 신라의 군대가 주둔한 것에서 당시 신라가 안변지역까지 진출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475년에 고구려가 백제 漢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이때 신라는 백제를 도와주기 위하여 군사 1만을 파견하고, 왕궁을 월성에서 명활성으로 옮겼다. 이밖에 신라가 고구려의 남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느닷없이 481년 2월에 소지마립간이 비열성에 순행하여 거기에 주둔한 군사들에게 군복을 하사하였다는 기사가 전할 뿐이다. 480년 무렵 고구려가 남진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신라가 안변의 비열성까지 진출하였다고 상정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14) 이한상, 「동해안지역의 5~6세기대 신라분묘 확산양상」, 『영남고고학』 32, 2003; 심현용,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신라의 강릉지역 지배방식」, 『문화재』 42권 3호, 2009.

그렇다고 하여 이 기사를 무조건 불신하는 것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 소지마립간이 비열성에 순행한 바로 그 다음 달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쪽 변경을 쳐들어와 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으로 비정되는 彌秩夫까지 進軍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신라의 비열성 진출이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81년 3월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신라의 비열성 진출에 대한 반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¹⁵⁾

475년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킬 무렵, 勿吉이 백제와 수로를 통해 연결하여 고구려를 협공하려고 하였고, 北魏 獻文帝와 고구려 宗室 여자와의 혼인 문제를 둘러싸고 북위와 고구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고구려는 한성을 함락시킨 후에 계속 남진하지 못하고 군대를 한강 이북으로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¹⁶⁾ 필자는 고구려의 서부 국경지역에서 고구려와 물길 및 북위와의 긴장관계가 고조된 틈을 타서 신라가 475년에서 481년 사이에 비열성까지 진출하고,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키자, 이에 고구려가 481년 3월에 동해안지역에서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였다가 결국 백제와 대가야, 신라의 연합군에게 패배한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종래에 Ⅱ-②와 Ⅲ-①, ②의 기록에 보이는 泥河의 위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였다. 현재 泥河를 태백산맥에서 강릉 방향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비정하는 견해와¹⁷⁾ 정선 방면에 위치한 남한강

15) 김현숙, 앞의 책, 2005, 237~242쪽에서 신라가 450~480년 사이에 고구려에게 넘겨준 명주지역의 故土를 상당부분 회복한 다음, 안변지역까지 북상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16) 노태돈, 「고구려의 한강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향토서울』 66, 2005; 『한국 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2009, 190~194쪽.

17) 정약용이 泥河를 강릉 북쪽에 위치한 泥川水라고 언급하였고, 후대에 그것이 泥峴(진고개)에서 발원하는 連谷川임이 밝혀졌다. 여러 학자들이 강릉시 사천면과 연곡면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는 연곡천을 니하로 비정하는 견해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대관령에서 발원하는 城南川(지금의 남대천)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상류의 하천으로 보는 견해로¹⁸⁾ 나뉘고 있다. 泥河의 위치 고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갈이 북쪽 변경에 대거 침입하고 관리와 백성을 노략질하였다. 가을 7월에 또 大嶺柵을 습격하고 泥河를 지났으므로 왕이 백제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백제가 다섯 명의 장군을 보내 돕자, 적병이 이를 듣고서 물러갔다(『삼국사기』 신라본기제1 지마이사금 14년 봄 정월).

『삼국사기』 백제본기제1 기루왕 49년조에는 신라가 말갈에게 침략을 당하자, 백제에게 편지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백제 왕이 5장군을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라고 전한다. 지마이사금 14년과 기루왕 49년은 기년상 125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사금시기 기록의 기년을 그대로 신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말갈이 신라를 침략한 시기를 2세기 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세기 후반에 신라의 北境이 대관령 근처였음을 주목하건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후반 사이에 말갈이 대관령에 설치한 木柵을 습격한 다음, 곧이어 泥河를 넘어 신라를 공격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만약에 泥河를 남한강 상류로 비정한다면, 안변 일대에 거주하던

18) 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1913; 『津田左右吉全集』 제11권, 岩波書店, 1964, 57~59쪽에서 처음으로 니하를 정선 방면의 남한강 상류로 비정한 이래, 여러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였다. 니하의 위치를 둘러싼 견해에 대해서는 홍영호, 『『삼국사기』 所載 泥河의 위치 비정』 『한국사연구』 150, 2010, 45~60쪽이 참조된다. 참고로 니하를 남한강 상류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481년에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이 아니라 정선, 임계 등 강원도 영서지역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안지역으로 진격한 것으로 이해한다(박성현, 『신라의 거점성 축조와 지방제도의 정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09~111쪽). 한편 김현숙, 앞의 책, 2005, 239쪽에서 481년에 고구려군은 순흥, 부석, 봉화, 예안 등지에서 출발하여 임하-진보-청송-영덕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통해 동해안지역으로 진격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

말갈, 즉 동예가 大嶺柵을 공격하고, 이어 대관령을 넘어 정선 방면의 남한강 상류를 지나 신라를 공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지하듯이 신라는 자비마립간대 이후에 소백산맥에 집중적으로 산성을 축조하여 고구려의 南進에 대항하였던 바, 4세기 후반 이전의 이사금 시기에 신라가 남한강 상류의 강원도지역까지 진출하였다고 상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충주지역을 차지하고, 다시 거기에서 남한강 상류 방면으로 진출한 것은 6세기 중반 진흥왕대로 봄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기사는 3세기 후반 무렵에 신라가 말갈, 즉 동예의 침략에 대비해 대관령에 목책을 설치하였고, 그때부터 4세기 후반 사이에 동예가 大嶺柵을 공격한 다음, 이어 동해안 방면에 위치한 泥河를 지나 신라를 공격하자, 백제군이 신라를 도와주려고 출동하였으며, 이에 동예가 니하를 건너 다시 안변 방면으로 물러간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말갈이 大嶺柵, 즉 대관령에 설치한 목책을 습격한 다음, 泥河를 지나 신라를 공격하였다면, 자연히 泥河는 大嶺(大關嶺)의 남쪽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종래에 泥河를 泥峴에서 발원한 連谷川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지만, 이것은 대관령 북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니하로 보기 어렵다. 대관령 남쪽에 위치한 강릉의 대표적인 하천이 바로 대관령에서 발원하는 南大川(옛 城南川)이다.¹⁹⁾ 최근에 남대천 북쪽의 강문동 현대호텔 신축 부지에서 둘레가 1km인 5~6세기 삼국시대 토성이 발견되었는데²⁰⁾, 468년(자비마립간 11)에

1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강릉도호부 산천조에 ‘城南川은 府城 남쪽 1백 보에 있으며, 물 근원이 대관령에서 나온다. 여러 골짜기 물과 합류하여 松嶽淵·廣濟淵이 되고,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 전한다.

20) 국강고고학연구소, 「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삼국시대 신라토성)」, 현장설명회 자료, 2012.8.30.; 국강고고학연구소, 「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삼국시대 신라토성)」, 현장설명회 자료, 2013.2.15.; 홍영호, 「신라의 동해안 연안항로와 하슬라-강릉 경포호 강문동 신라 토성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신라가 하슬라인을 징발하여 泥河에 城을 쌓았던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남대천이 대관령 남쪽에 위치한 점, 남대천 북쪽에 위치한 강문동 신라 토성의 축조 시기가 근처의 초당동과 안현동 분묘유적 등 주변 유적의 조영 시기와 일치하는 점, 468년에 하슬라인을 징발하여 니하에 성을 쌓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하건대, 니하는 남대천으로 비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인다.²¹⁾ 이러한 추정에 잘못이 없다면, 481년에 고구려군은 신라와 백제, 대가야 연합군에 쫓겨 강릉의 남대천 근처로 후퇴하였다가 결국 그곳에서 크게 연합군에게 격파된 셈이 된다. 이에서 고구려가 481년 3월에 말갈과 함께 연합하여 비열성을 먼저 공격하여 함락시킨 다음, 이어 계속해서 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남쪽으로 彌秩夫까지 진격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에서 489년(소지마립간 11; 장수왕 77) 9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갑자기 쳐들어와 戈峴에 이르렀고, 10월에 狐山城을 쳐서 함락시켰다고 전한다. 그러나 戈峴, 狐山城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489년에 신라와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에서 전쟁을 치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490년대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를 짐작케 해주는 자료가 바로 Ⅲ-②, ③이다. 泥河를 남한강 상류로 비정하는 연구자들은 牛山城을 보은 혹은 충주 방면, 또는 충주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비정하였다.²²⁾ 그러나 泥河는 강릉의 남대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牛山城은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비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Ⅲ-②에 소지마립간 18년(496) 7월에 고구려군이 牛山城을 공격하여

95, 2013.

21) 종래에 이병도, 앞의 책, 1977, 19쪽에서 대령책을 대관령에 위치한 柵門으로, 니하를 강릉의 성남천(남대천)이라고 주장하여 참고된다.

22) 津田左右吉, 『長壽王征服地域考』,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1913; 『津田左右吉全集』 제11권, 岩波書店, 1964, 71쪽에서는 牛山城을 충주·보은 방면, 박성현, 앞의 논문, 2010, 109~111쪽에서는 충주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비정하였다.

함락시켰다는 내용은 전하지 않고, 다만 泥河 가에서 신라군이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깨뜨렸다는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찬찬히 살펴보면 고구려군이 우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니하까지 진출하였다가 신라군의 반격을 받아 패배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서 우산성은 니하 이북에 위치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우산성의 위치와 관련하여 강원도 통천군의 옛 이름이 金壤郡 또는 金腦였음이 주목된다.²³⁾

‘壤’은 ‘奴’ 또는 ‘那’와 상통한다.²⁴⁾ 한편 『삼국사기』 열전제7 素那條에서 素那를 또는 金川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서기』에서 김해의 金官國을 須那羅 또는 素奈羅라고도 불렀다.²⁵⁾ 이밖에 『삼국유사』 권제3 흥법제3 阿道基羅條에 金橋를 세간에서는 松橋라고 잘못 부르고 있다고 전한다. ‘솔(소)다리’로 독음할 수 있는 松橋는 바로 ‘쇠다리(金橋)’ 또는 ‘소다리’를 訓借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사례를 통하여 신라에서 ‘金’을 ‘소(쇠, 수)’로 독음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金壤과 金腦는 ‘소내(소노)’의 借字 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 잡지제6 지리4 고구려조에 牛岑郡을 또는 首知衣, 牛首州를 또는 首次若이라고도 불렀다고 전한다. ‘牛’를 ‘首’로 借字 표기하였음을 시사해준다. 『鷄林類事』에서 ‘牛日燒’라고 하였고, 『훈몽자회』에서 牛의 훈이 ‘쇼’라고 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牛’의 訓이 ‘소’ 또는 ‘쇼’였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牛山’은 ‘소(수)산’ 또는 ‘쇼산’으로 독음할 수 있는데, 경덕왕대에 押梁(押督)郡을 獐山郡으로, 發羅郡을 錦山郡으로 개칭한 점을 미루어보건대, ‘소내(金腦)’와

23) 『삼국사기』 잡지제4 지리2 명주조에서 金壤郡이 본래 고구려 休壤郡이었고, 잡지제6 지리4 고구려 하슬라주조에서 休壤郡은 또는 金腦라고도 하였다고 전한다.

24)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9쪽.

25) 須那羅는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3년 夏4月 是月條, 素奈羅는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8년 是歲條에 보인다.

‘소산(牛山)’은 음운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곤란할 것이다.²⁶⁾ 언어학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우산성의 위치를 고증하는 것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약간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우산성이 니하로 추정되는 남대천 북쪽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신라가 480년대에 比列城까지 진출하였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건대, 우산성을 金壤郡(金腦郡)과 연결시키는 것이 결코 황당무계한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 이에 필자는 대담하게 牛山城을 金壤郡으로 비정하는 견해를 제기해두고자 한다.²⁷⁾

이처럼 牛山城을 金壤郡으로 비정할 수 있다면, Ⅲ-③의 기록은 소지마립간 19년(497)에 고구려가 우산성(강원도 통천)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에 동해안 방면으로 南進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에 고구려는 어디까지 남진하였을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지증왕 5년(504) 가을 9월에 인부를 징발하여 波里城, 彌實城, 珍德城, 骨火城 등 12성을 쌓았고, 그 다음 해 2월에 悉直州를 설치하고 異斯夫를 軍主로 삼았다고 전한다. 파리성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미실성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으로, 골화성은 경북 영천시 완산동으로 비정된다. 진흥왕순수비 창녕비에 上州와 下州가 보인다. 이밖에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553년(진흥왕 14)에 한강 유역에 新州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550년대에 신라는 전국을 上州와 下州, 新州로 구분하여 통치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505년 2월에 悉直州를 설치

26) 押梁에서 ‘梁’은 들이나 들판을 가리키는 ‘들(돌 또는 달)’의 借字이고, 發羅에서 ‘羅’ 역시 지명 어미 ‘那’와 통한다. 경덕왕대에 押梁을 獐山, 發羅를 鎬山으로 개칭한 것에서 那(奴, 壤, 腦)와 山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지명 어미였음을 인지할 수 있다.

27)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540년(성왕 18) 9월에 백제 聖王이 장군 燕會에게 고구려의 牛山城을 공격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540년 무렵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가 태안반도에서 충남 천안시 직산면을 연결하는 선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백제가 공격한 고구려의 우산성은 천안시 직산면이나 충북 진천군 또는 옛 충남 연기군 전의면에 위치한 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하였다는 위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때에 軍主라는 職名을 지닌 異斯夫를 悉直에 파견한 것만은 부인하기 힘들다. 당시 군주는 지방에 주둔한 6부인으로 구성된 정군단, 즉 悉直停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성격을 지녔다고 이해되고 있다.²⁸⁾ 따라서 실직주 설치 기사는 505년(지증왕 6) 2월에 실직에 주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6부인 군대가 실직지역에 常時 주둔하고, 그 군단을 지휘하는 사령관, 즉 군주로서 이사부를 임명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함이 옳다고 보인다.

504년에 삼척시 원덕읍으로 비정되는 波里城을 쌓고, 그 다음해에 실직지역에 6부인으로 구성된 悉直停을 설치한 다음, 그 사령관으로 軍主를 파견한 것으로 보아 505년 무렵에 실직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되었음이 확실시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지증왕 13년(512) 6월에 이사부가 하슬라(주)군주로서 우산국(울릉도)을 공격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고 전하고, 법흥왕 11년(524)에 건립된 울진봉평신라비에 悉支軍主가 나온다. 이에서 처음 悉直에 위치하였던 停軍團이 512년 이전 어느 시기에 何瑟羅로 옮겨졌고, 다시 524년 이전 어느 시기에 悉直으로 옮겨졌음을 살필 수 있다. 505년에서 524년 사이에 정군단이 실직에서 하슬라로, 다시 하슬라에서 실직으로 移置된 사실을 주목하건대, 6세기 초반 신라의 북쪽 경계는 실직 또는 하슬라였음이 분명한 듯하다. 이에 따르면, 497년에 고구려가 우산성을 함락시킨 후에 실직 또는 하슬라 근처까지 남진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450년에서 468년까지 신라의 北境이 悉直 또는 何瑟羅였다가 475년과 481년 사이에 신라가 안변의 比列城까지 북진하였고, 그후 497년에 다시 고구려가 동해안방면으로 南進하여 실직 또는 하슬라를 경계로 신라와 고구려가 대치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28) 전덕재, 「신라 중고기 주의 성격 변화와 군주」, 『역사와 현실』 40, 2001, 80쪽.

여기서 상고기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삼국사기』 잡지제4 지리2 명주조에서 삼척 이남에 위치한 군현, 즉 野城郡(영덕군 영덕읍), 有鄰郡(영덕군 영해면) 및 蔚珍郡과 그 領縣들이 본래 고구려의 군 또는 현으로 전한다는 점이다. 종래에 일부 학자는 경북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군·현이 본래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였다는 지리지의 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²⁹⁾, 野城郡의 옛 이름이 也尸忽이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힘들다. 주지하듯이 ‘忽’은 고구려계 지명 어미로서 널리 쓰인 것인 바, 也尸忽이란 지명을 통해서 영덕 지역이 상당 기간 동안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음을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제되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나물이사금 42년(397)과 눌지마립간 34년(450) 사이에 신라의 北境이 실직 또는 하슬라였다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 사실, 392년에 신라 나물왕은 고구려에 實聖을 볼모로 보내 고구려의 복속국을 자처하였고, 399년에 왜군이 신라를 침략하자, 나물왕의 요청으로 400년에 고구려 5만의 군대가 신라로 나아가 왜군을 물리친 사실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400년 무렵에 고구려가 경북 동해안지역을 영역으로 편제하여 지배하였다가 450년대에 신라가 다시 그곳을 되찾았다고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³⁰⁾ 이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자세하게 논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언급은 자세하도록 하겠다.

29) 강중훈, 「5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경계선』, 서경문화사, 2008.

30) 김현숙, 앞의 책, 2005, 211~212쪽 및 232~242쪽; 주보돈, 「울진봉평리신라비와 신라의 동해안 경영」, 『울진봉평리신라비와 한국고대금석문』, 울진군·한국고대사학회, 2011, 107~108쪽; 전덕재, 앞의 논문, 2013, 5~14쪽.

3. 眞興王代의 領土擴張과 東北境界의 변동

종래에 신라가 6세기 전반에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소국이나 읍락을 행정촌으로 재편하고, 거기에 道使와 같은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를 실현하였다고 이해하였다.³¹⁾ 앞에서 당시 신라의 동북 변경은 실직 또는 하슬라 근처였음을 살폈는데, 그 중심 연대가 6세기 1/4분기로 알려진 신라토성이 최근에 강릉시 경포호 강문동에서 발견된 점³²⁾ 이와 관련하여 참조된다.

그 후 신라 동북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제4 진흥왕 17년(556) 가을 7월조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沙飡 成宗을 군주로 삼았다고 전하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이 무렵 신라에는 卅로서 上州와 下州, 新州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기사를 비열홀주 설치 기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고기 기록에 전하는 卅의 置廢記事는 정군단의 치폐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³⁾ 이에 따르면, 이 기사는 신라가 556년(진흥왕 17) 7월에 6부인으로 구성된 정군단을 비열홀에 설치하고, 그 사령관, 즉 軍主로서 사찬 성종을 임명한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524년에 정군단은 실직에 주둔하고 있다. 그 이후 하슬라지역으로 그것을 다시 移置시켰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524년 이전 어느 시기에 정군단의 주둔지를 하슬라에서 실직으로 옮겼음을 알려주는 기록도 전하지 않은 점을 참조하건대, 524년 이후에 정군단의 주둔지를 실직에서 하슬라로 옮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556년 7월 비열홀주의

31) 동해안지역을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하는 과정을 다룬 최근의 연구로서 전덕재, 위의 논문을 들 수 있다.

32) 홍영호, 앞의 논문, 2013, 140쪽.

33) 전덕재, 앞의 논문, 2001, 68~79쪽.

설치 기사는 실직 또는 하슬라에 위치한 정군단의 주둔지를 비열홀로 移置시킨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신라의 東北境이 하슬라 근처에서 비열홀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신라는 550년대 전반에 한강 유역에 진출하였다. 아마도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 신라는 곧이어 556년 7월에 동해안 방향으로 北上하여 비열홀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진흥왕대에 신라가 동해안 방향으로 어디까지 진출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자료가 바로 진흥왕순수비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이다. 두 비의 앞 부분에 ‘太昌 8년 歲次 戊子 8월 21일 癸未에 眞興太王이 管境을 巡狩하고 돌에 새겨 기록하였다’고 전한다. 태창 8년 무자는 568년(진흥왕 29)이다. 마운령비는 옛 함남 이원군 동면 사동 萬德山 福興寺의 배후에 솟아 있는 雲施山(雲霧山)의 산꼭대기에 세워져 있었다고 전해지고, 황초령비는 옛 함남 함흥군 하기천면 황초령에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두 비를 568년 8월에 신라가 함흥과 이원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진흥왕 29년(568) 10월에 比列忽州를 폐하고 達忽州를 설치하였다고 전한다. 이것은 정군단의 주둔지를 비열홀에서 達忽(고성군 고성읍)로 移置시켰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때 동시에 北漢山州를 폐하고, 南川州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정군단의 주둔지를 북한산(한강 이북의 서울)에서 남천(경기도 이천시)으로 옮겼음을 반영한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는 552년 무렵에 동맹을 맺었고³⁴⁾, 568년을 전후한 시기에 두 나라의 관계가 변동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신라가 한강

34) 신라와 고구려가 552년 무렵에 밀약을 맺은 사실과 관련하여 노태돈, 앞의 책, 1999, 401~435쪽이 참조된다.

이북의 영토를 고구려에게 빼앗겨 정군단의 주둔지를 북한산에서 남천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군단의 移置를 곧바로 영역의 변동과 직결시키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라가 정군단의 주둔지를 비열홀에서 달홀로 옮긴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으로 신라를 공격하여 비열홀과 그 이북의 함흥과 이원 일대를 차지하였다고 추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면 신라가 함흥과 이원 일대를 고구려에게 빼앗긴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왕이 고구려가 자주 강역을 침략하는 것을 걱정해 수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圓光에게 명령하여 乞師表를 짓게 하니, 원광이 말하기를, ‘자기 살기를 구하여 남을 멸하는 것은 승려로서의 행동이 아니나, 貧道는 대왕의 땅에서 살고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이에 (글을) 지어서 바쳤다. 2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방을 침략하여 8천 명을 사로잡아 갔다. 4월에 고구려가 牛鳴山城을 빼앗았다(『삼국사기』 신라본기제4 진평왕 30년).

위의 기록에 보이는 牛鳴山城의 위치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9 안변도호부 고적조에 翁谷縣(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북한의 통천군 장대리) 경계에 있다고 전하는 鐵垣戍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⁵⁾ 牛鳴은 ‘소울(쇠울)’, 鐵垣 역시 ‘쇠울(소울)’의 訓借 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牛鳴山城을 안변 동남쪽에 위치한 鐵垣戍로 비정한다면, 고구려가 안변지역을 신라로부터 빼앗은 시기는 608년(진평왕 30, 영양왕 19) 4월 무렵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3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9 安邊都護府 古跡, “鐵垣戍. 在府東派川社海口 有小石城 世稱戍城 在江原道歙谷縣境”.

36) 정구복 등, 『역주 삼국사기』 3(주석편 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532쪽.

〈그림 1〉 鐵垣戍(鐵垣古戍)와 通川(牛山城)의 위치(『東輿圖』)



550년대에 신라와 동맹을 맺었던 고구려가 서북지방에서 고구려를 위협하던 돌궐의 기세가 한풀 꺾이자, 590년 무렵부터 과거에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영양왕이 즉위한 590년 무렵에 溫達이 군사를 이끌고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³⁷⁾ 603년(진평왕 25) 8월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가 신라군의 반격을 받고 물러났다. 아울러 위의 기록을 통하여

608년 무렵에도 고구려가 자주 신라 강역을 침략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비록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608년 4월에 동해안 방면으로 신라를 공격하여 함흥과 이원 일대뿐만 아니라 안변지역을 빼앗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제5 선덕왕 8년(639) 봄 2월조에 ‘何瑟羅州를 北小京으로 삼고 사찬 眞珠에게 명하고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고 전하고, 그리고 태종무열왕 5년(658) 3월조에 ‘何瑟羅의 땅이 말갈과 맞닿아 있으므로 사람들이 편안치 못하다고 여겨 小京을 폐지하여 州를 삼고 도독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또 悉直을 北鎭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일단 후자의 기록을 통하여 658년 무렵에 하슬라가 신라의 北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종무열왕 2년(655) 정월에 고구려가 말갈·백제와 함께 군사를 연합하여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33성을 탈취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한다. 이때 말갈, 즉 동예가 동해안 방면에서 신라 북방을 공격하여 하슬라 근처까지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국사기』 잡지제9 직관(하) 무관조에 ‘河西停은 본래 悉直停이었다. 태종왕 5년에 실직정을 혁파하고 하서정을 두었다’고 전한다. 태종무열왕 5년(658)에 북소경을 폐지하고, 州를 설치함과 동시에 정군단을 실직에서 河西(何瑟羅)로 옮겼음을 알려준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동해안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실직에도 군사기지인 北鎭을 설치하여 군대를 주둔시켰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고기 기록에 전하는 州의 置廢記事는 6정군단의 치폐를 반영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何瑟羅州를 폐지하고, 하슬라를 北小京

37) 『삼국사기』 열전제5 온달조에 陽岡王(陽原王)이 즉위하자, 온달이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가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그런데 온달은 양원왕의 아들인 平原王 때에 활동한 인물이므로 양강왕은 영양왕의 착오로 봄이 옳다[정구복 등,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 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751~752쪽].

으로 삼은 선덕여왕 8년(639) 2월 이전 시기에는 정군단이 하슬라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³⁸⁾ 이어서 568년(진흥왕 29) 10월부터 639년 2월 사이에 정군단을 달홀에서 하슬라로 移置시켰음을 추론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고구려에게 우명산성을 빼앗긴 608년 4월 무렵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이때 고구려가 하슬라 이북의 어느 지역까지 남진하였을 것이나 그곳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考究하기 어렵다.

태종무열왕 5년(658) 3월에 北小京이 말갈과 맞닿아 있어 사람들이 편안치 못하다고 하여 그것을 폐지하고 州를 설치한 것에서 역설적으로 하슬라에 북소경을 설치한 639년 2월에는 그곳이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신라의 東北境은 어디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① (貞觀) 17년(643)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와 백제가 여러 차례 번갈아 공격하여 수십 성을 잃었고, 두 나라의 군대가 연합하여 臣(신라)의 社稷을 없애려고 합니다. 삼가 陪臣을 보내어 大國에 보고를 하오니, 약간의 군사로나마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上言하였다(『舊唐書』新羅傳).

VI-② 또한 卑列의 城(卑列之城)은 본래 신라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공격하여 빼앗은 지 30여 년 만에 (신라가) 다시 이 땅을 되찾아 백성을 옮겨 살게 하고 관리를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이 城을 가져다 다시 고구려에 되돌려 주었습니다(『삼국사기』신라본기제7 문무왕 11년 7월).

38) 658년 3월 북소경을 폐지할 때, 실직정을 하슬라정으로 개칭한 것을 통하여 639년 2월 하슬라주를 폐지하고 하슬라지역을 북소경으로 삼을 때에 정군단을 실직으로 移置시켰음을 유추할 수 있다.

Ⅵ-②는 671년에 唐의 將帥 薛仁貴가 문무왕에게 편지를 보내자, 문무왕이 거기에 대하여 答信한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뒤에서 자세하게 살필 예정이지만,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비열성을 되찾은 것은 666년 12월이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비열성을 신라로부터 빼앗은 시기는 630년대 후반이었던 셈이 된다. 그러나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史書에서 630년대 후반에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에서 신라를 침략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고구려가 비열성을 차지한 시기와 관련하여 Ⅵ-①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42년에 백제가 신라의 서쪽 변경 4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대야성을 함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하려 하였다. 아마도 이때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으로 진출하여 비열성을 빼앗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무왕은 答薛仁貴書에서 이를 두고 고구려가 마치 30여 년 전에 비열의 성을 빼앗은 것처럼 언급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처럼 639년 2월에 비열성이 분명히 신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하슬라를 北小京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642년에 신라가 비열성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소경을 폐지하지 않은 것에서 신라의 북경은 하슬라에서 비열성 사이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608년(진평왕 30) 무렵에 고구려가 안변지역을 신라로부터 빼앗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639년 사이에 다시 신라가 동해안지역으로 북상하여 비열홀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 현재 그 시기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다만 612년 이래 고구려가 수나라와 치열한 전쟁을 치렀음을 염두에 둔다면, 신라가 동해안 방면으로 비열성까지 北上한 시기는 612년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을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4. 新羅·渤海의 境界와 그 변천

앞에서 태종무열왕 2년(655) 정월에 신라가 하슬라를 경계로 말갈(동예)과 대치하였음을 살폈다. 그런데 문무왕은 671년에 지은 薛仁貴書에서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卑列(比列忽)의 城을 되찾아 백성을 옮겨 살게 하고 관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신라가 비열성을 되찾은 계기는 666년 12월 淵淨土의 신라 망명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의 貴臣 淵淨土가 12城, 763戶, 3,543口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연정토와 그의 부하 24명에게 의복과 식량, 집을 하사하고, 서울 및 州府에 안주시키고, 그 8성은 온전하였으므로 군사를 보내 지키게 하였다(『삼국사기』 신라본기제6 문무왕 6년 겨울 12월).

문무왕 6년(666) 겨울 12월에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12성을 들어 신라에 항복하였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여기서 문제는 12성이 어느 곳에 위치하였는가에 관해서인데, 종래에 선덕여왕대부터 문무왕 7년(667)까지 신라와 고구려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七重城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정황을 주목하여 연정토가 12성을 들어 항복한 지역은 서북 국경지역이 아니라 동북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³⁹⁾ 이에 따르면, 666년 12월 연정토가 동북지역에 위치한 12성을 들어 신라에 망명한 것을 계기로 비열성이 다시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문무왕 9년(669) 여름 5월에 泉井과 比列忽, 各連 등 3郡의 백성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다. 신라가 666년 12월에

39) 노태돈, 앞의 책, 1999, 248~251쪽; 전덕재, 「우수주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강원문화연구』 28, 2009, 99~101쪽.

천정군까지 영토로 확보하였음을 시사해준다.

신라는 666년 12월에 비열성을 되찾은 다음, 668년(문무왕 8) 봄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파진찬 龍文을 총관으로 삼았다. 이것은 우수주를 폐지하고, 주치를 비열홀로 옮겨 비열홀주를 설치한 사실 뿐만 아니라 정군단의 주둔지를 우수에서 비열홀로 옮겼음을 반영한 것이다. 『삼국사기』 잡지제4 지리2 삭주조에 ‘문무왕 13년, 당나라 咸亨 4년(673)에 首若州를 설치하였다’라고 전한다. 그리고 잡지제9 직관(하) 무관조에 ‘牛首停은 본래 비열홀정이었는데, 문무왕 13년에 비열홀정을 혁파하고 우수정을 두었다’고 전한다. 673년에 주치를 비열홀에서 우수(수약)로 옮기고, 정군단의 주둔지도 역시 그렇게 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泉井郡을 문무왕 21년(681)에 고구려로부터 빼앗았다고 하였다. 문무왕 9년(669) 5월에 천정군에 기근이 들어 진흙한 것으로 보아 당시 천정군은 신라의 영토였음이 확실시된다. 그러면 681년에 다시 천정군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671년에 문무왕은 답설인귀서에서 비열의 성을 당나라가 고구려에게 넘겨주었다고 언급하였지만, 668년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673년에 州治를 牛首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停軍團의 주둔지 역시 비열홀에서 우수로 옮긴 정황을 감안한다면, 671년 무렵에 비열홀(비열성)을 당나라가 고구려에게 넘겨주었다고 언급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⁴⁰⁾ 다만 681년에 고구려로부터 천정군을 되찾은 점을 주목하건대, 671년 무렵에 당나라가 고구려에게 넘겨준 군·현은 비열홀주 예하의 천정군과 그 領縣뿐이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40) 여기서 고구려는 당이 옛 고구려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安東都護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2〉 鐵關城, 北面川, 鎮溟縣(蒜山縣), 龍津鎮(松山縣)의 위치(『東輿圖』)



문무왕 15년(675) 9월에 신라는 買肖城戰鬪에서 李謹行이 이끄는 唐軍을 크게 격파한 다음, 安北河를 따라 關과 城을 설치하고, 또 鐵關城을 쌓았다. 41) 『삼국유사』 권제2 기이제2 문무왕법민조에 安北河邊에 鐵城을 쌓았다고 전한다. 철관성과 철성은 동일한 성일

41) 『三國史記』新羅本紀第7 文武王 15年 가을 9月,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鄉導 來攻泉水城 我將軍文訓等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 其餘兵仗稱是. 遣使入唐貢方物. 緣安北河設關城 又築鐵關城”.

것이다. 조선시대 지리서에 鐵關山 또는 鐵關은 덕원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전한다.⁴²⁾ 종래에 이를 근거로 鐵關山을 해안을 따라 안변에서 문천으로 가는 도로 좌측에 위치한 望德山으로 비정하고, 문무왕 15년에 쌓은 鐵關城 또는 鐵城을 望德山古城址(古井泉城)로 고증하였다. 아울러 망덕산 남쪽 盆地를 지나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北面川을 安北河로 비정하고, 북면천을 사이에 두고 望德山과 남북으로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는 小望德山에 위치한 古城이 문무왕 15년에 안북하를 따라 설치한 關, 城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⁴³⁾ 나름대로 수공이 가는 견해로 보인다. 철관산, 즉 망덕산은 안변과 문천을 연결하는 街道에 위치한 요해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마식령을 넘고 阿虎飛嶺(阿好非嶺)을 지나 양덕, 성천, 강동을 지나 평양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 신라는 675년(문무왕 15) 9월에 要害處인 망덕산에 철관성을 쌓고, 안북하, 즉 북면천변에 關과 城을 설치한 다음, 문무왕 21년(681) 정월에 沙飡 武仙으로 정예군사 3천 명을 이끌고 비열홀을 지키게 하였다. 아마도 신라는 무선이 지휘하는 3천 명의 군사를 기반으로 681년에 천정군에 진출하여 그곳과 그 領縣들을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사기』 잡지제6 지리4에 賈耽의 古今郡國志에 ‘발해국의 南海府, 鴨渚府, 扶餘府, 柵城府의 4府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었다. 신라 泉井郡으로부터 책성부에 이르기까지 무릇 39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였다는 내용이 전한다. 한편 『신당서』 발해전에 ‘남쪽으로 신라와 접해 있으며, 泥河로서 경계로 하였다’고 전한다. 발해는

42) 『세종실록지리지』 宜川郡條에 ‘要害는 鐵關山이다(군의 북쪽에 있다)’고 전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9 덕원도호부 고적조에 ‘古井泉城이 府 북쪽 15리에 있는데, 石築으로 되어 있으며, 둘레가 4,322尺으로서 지금은 廢하였다’, ‘鐵關은 府 북쪽 15리에 있는데, 둘레가 1,403척이다’라고 전한다.

43) 池內宏, 앞의 논문, 1929; 앞의 책, 1960, 40~45쪽.

武王代(719~737) 초반에 정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는데, 이때 발해가 함경도 동해안지역으로 진출하여 신라와 국경을 맞대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⁴⁴⁾ 신라는 발해의 동해안 진출에 대응하여 성덕왕 20년(721) 가을 7월에 하슬라지역의 丁夫 2천 명을 징발하여 북쪽 국경에 長城을 쌓았다. 721년 당시 北境은 천정군이었기 때문에 長城은 거기에 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해 책성부는 중국 길림성 琿春縣에 위치한 八連城으로, 책성부에서 신라 천정군에 이르는 도로, 이른바 新羅道가 경유하는 신라와 국경 근처에 위치한 南京南海府는 함남 북청군 북청읍에서 동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청해토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발해의 남쪽 경계와 관련하여 『續日本紀』 권34 光仁天皇 寶龜 8년(777) 정월 계유조에 발해 사신 史都蒙 등이 南海府 吐号浦로부터 출발하여 서쪽으로 대마도 竹室津으로 향하려고 하였다고 언급한 내용이 주목된다. 종래에 ‘号’는 ‘另’의 誤字로 이해하고, 吐另浦를 都連浦로 비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⁴⁵⁾ 도련포는 현재 함남 정평군 봉대리, 호남리, 향동리, 호중리, 선덕리, 동호리, 삼도리 및 함주군과의 경계에 있는 넓은 호수, 즉 廣浦로 비정된다. 따라서 발해와 신라의 경계는 광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발해와 신라의 국경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고증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泉井郡과 泥河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종래에 천정군과 니하의 위치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먼저 일찍이 泥河를 金津川(북한의 금진강)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고⁴⁶⁾, 후에 泥河를 龍興江(북한의 금야강)으로 비정하는

44) 송기호,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의 발해와 신라」, 『한국사시민강좌』 5, 일조각, 1989, 48~49쪽.

45) 조병순, 「발해 남경남해부의 위치 추정에 대한 고찰」, 『서지학보』 28, 2004, 20~23쪽.

46) 池内宏, 앞의 논문, 1929; 앞의 책, 1960, 68~69쪽.

견해가 제기되었다.⁴⁷⁾ 그런데 니하의 위치 고증은 천정군의 위치 비정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녔다. 泉井郡의 위치를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V-① 井泉郡은 본래 고구려의 泉井郡이었는데, 문무왕 21년에 빼앗았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치고 炭項關門을 쌓았다. 지금(고려)의 湧州이다(『삼국사기』 잡지제4 지리2 삭주).

V-② 宜州는 본래 고구려의 泉井郡(또는 於乙買라고도 한다)이다. 新羅 文武王 21년에 취하였다. 이름을 고쳐 井泉郡이라고 하였다. 高麗初에 湧州라고 칭하였고, 成宗 14년에 防禦使를 두었으며, 후에 다시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睿宗 3년에 城을 쌓았다(『高麗史』 卷58 志12 地理3 東界).

V-②에 나오는 宜州를 조선 태종 13년(1412) 癸巳에 宜川郡으로, 세종 19년(1437)에 德源郡으로 개칭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고려 宜州가 고구려의 천정군이었다고 언급한 이래, 조선시대에 편찬된 여러 지리서에서 그대로 이를 따랐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면서 천정군=덕원설이 통설화되었다. 이에 반해 일찍이 성덕왕대에 쌓은 長城은 금진천과 용흥강 사이의 分水山脈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한 다음, 정천군을 용흥강이 흐르는 永興으로 비정하고, 아마도 湧州는 和州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⁸⁾ 그러면 두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타당할까?

V-②에 고려초에 천정군을 湧州로 개칭하고, 성종 14년(995) 이후

47) 松井等, 앞의 논문, 1940, 422~423쪽.

이밖에 津田左右吉, 「新羅北境考」,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1913; 『津田左右吉全集』 제11권, 岩波書店, 1964, 215~217쪽에서 泥河를 안변의 南大川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

48) 池內宏, 앞의 논문, 1929; 앞의 책, 1960, 47~70쪽.

어느 시기에 용주를 宜州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그런데 V-①에 용주를 의주로 개칭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고구려와 신라의 천정군은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종 23년(1145) 당시 용주로 비정된다고만 언급하였을 뿐이다. 적어도 인종 23년(1145)까지 용주를 의주로 개칭하지 않았음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사실은 『高麗史』 卷 53 志7 五行1 水條에 ‘(인종) 23년 6월 갑신일에 큰 물이 나서 東界 文州와 湧州 두 주에서 산이 무너지고 물이 쏟아져 나와서 성문과 민가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 간 것이 매우 많았다’고 전하는 기록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이후 시기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에서 湧州에 관한 정보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V-②에 따르면, 인종 23년(1145) 이후에 湧州를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고려 인종 23년 이전의 『고려사』 기록에 의주에 관한 내용이 여럿 보인다는 점이다.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3년(1108) 3월조에 尹瓘이 또 宜州, 通泰, 平戎 등 3城을 쌓고 南界의 백성들을 이주시켰으며 새로 9개의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고려사』 권82 지36 城堡條에 ‘현종 7년(1016)에 宜州에 성을 쌓으니, 길이가 652間이고 門이 5개이다’라고 전한다. 이 기록들은 인종 23년(1145) 이전에 용주와 의주가 별도로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른다면, 『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 성종 14년 이후에 용주를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선인들은 왜 용주를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인식하였을까가 궁금해진다. 일단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용주가 인종 23년 이후에 의주에 합속되었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천정군의 領縣 가운데 일부가 의주에 합속되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천정군, 즉 용주를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경우이다.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할까?

泉井郡의 영현으로 買尸達縣(蒜山縣), 夫斯達縣(松山縣), 東虛縣(幽居縣)이 있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3현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김정호는 『대동지지』에서 산산현은 고려의 鎭溟縣, 송산현은 고려의 龍津鎭으로 비정된다고 언급하였다. 진명현은 圓山縣 또는 水江縣이라고 불렀는데, 현재 북한의 강원도 원산시 내 원산동(옛 함남 원산시 두산동 일대)으로 비정되고 있다. 용진진은 북한의 강원도 문천시 송탄동·고암노동자구(옛 함남 문천군 북서면 송탄리 일대)로, 마지막으로 동허현은 북한의 강원도 문천시 부거리(옛 함남 문천군 문천면 부거리)로 고증된다.⁴⁹⁾ 『고려사』 지리지에서 文州(문천시)를 성종 8년 이후에 宜州에 合屬시켰다가 충목왕 원년에 다시 복구하였고, 용진진을 목종 9년 이후에 문주에 合속시켰다가 우왕 5년에 다시 복구하여 현령을 두었으며, 진명현을 현종 9년 이후에 의주에 合속시켰다고 밝혔다. 이처럼 천정군의 영현이 대체로 宜州에 合속되었거나 한때 合속되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천정군, 즉 湧州도 宜州에 合속되었고,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용주를 성종 14년 이후에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한다.

池內宏은 일찍이 湧州는 和州의 誤記로 추정하였는데, 인종 23년 이전 시기의 『고려사』 기록에 용주와 화주가 병존하였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발견되는 점⁵⁰⁾, 조선시대 지리서에 용주를 후에 화주가 아니라 의주로 개칭하였다고 전하는 점을 감안하건대, 이 견해를

49) 정구복 등, 『역주 삼국사기』 4(주석편 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84~285쪽.

50) 『고려사』 지리지에 고려 長嶺鎭을 고려 초에 和州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현종 1년 5월 갑신일에 尙書左司郎中 河拱辰과 和州防禦郎中 柳宗을 遠島로 유배 보냈다고 전하는 기록이 世家에 전하는 和州 관련 기록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한편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水旱疫癘賑貸之制條에 (선종) 11년 2월 東路의 高州, 和州, 文州, 湧州, 定州, 長州, 登州, 交州 등 8주와 宣德, 元興, 寧仁, 長平, 永興, 龍津 등 6진에서 작년에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굶주렸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화주와 문주, 그리고 용주가 인종 23년 이전에 병존하였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자료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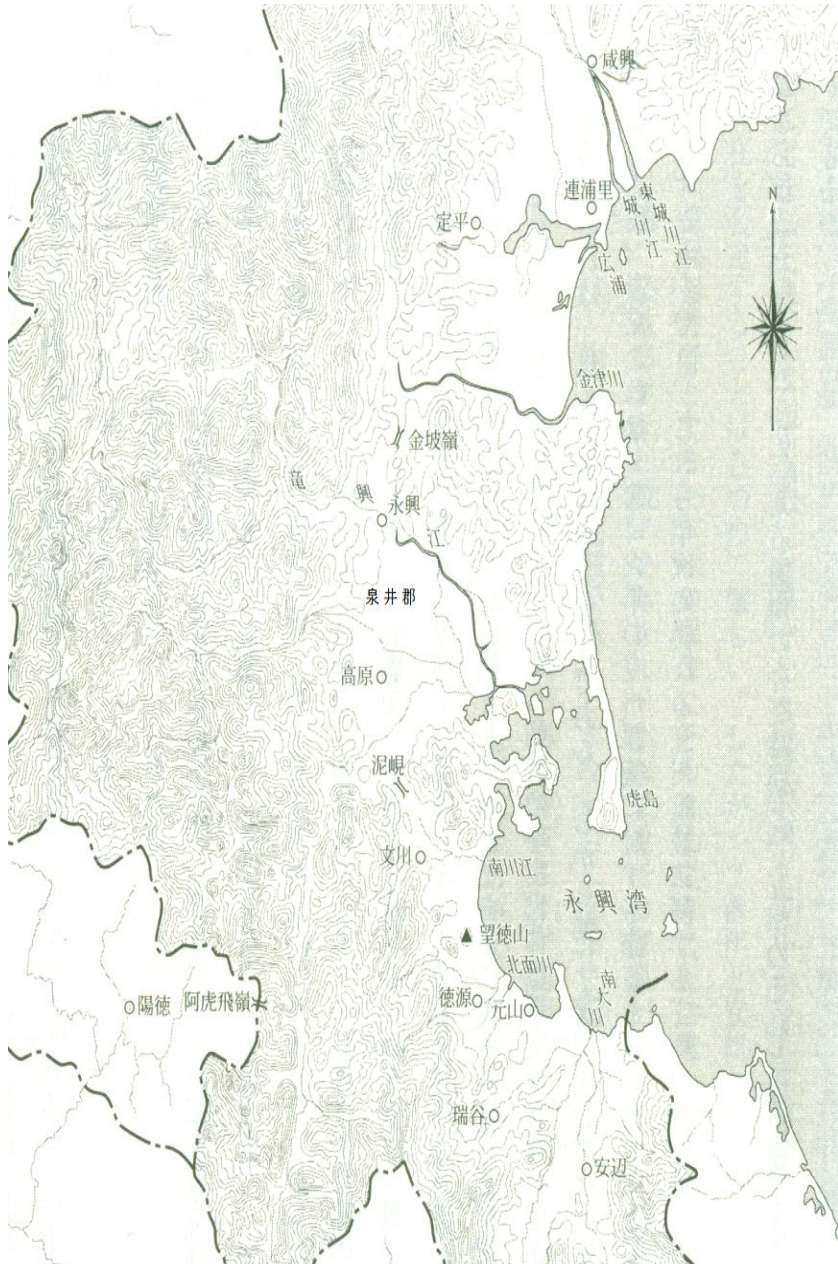
그대로 수궁하기 곤란하다. 근래에 고려 인종 23년 이전에 宜州를 설치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湧州를 宜州로 改稱하였다고 전하는 조선시대 지리서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湧州를 和州의 誤記로 보는 견해도 수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용주, 즉 천정군의 위치를 새롭게 비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金津川을 泥河로, 성덕왕대 쌓은 장성을 용흥강과 금진천 사이의 분수산맥에 위치한 古長城으로 비정한 池內宏의 견해를 수용한다면, 천정군이 所在한 하나의 후보지로서 일단 영흥 주변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성덕왕대에 쌓은 長城, 즉 炭項關門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문천시 고암동, 문평동에서 동해의 월산만으로 유입되는 남천강 지류의 분수산맥에 위치한 泥峴에 비정할 수 있다면, 천정군=용주는 그 이남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과 아울러 문주와 용주가 병존하였음을 고려하건대, 천정군이 소재한 또 다른 후보지로서 문천 주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⁵¹⁾ 매우 흥미로운 견해이나 구체적으로 천정군의 위치를 고증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천정군의 위치를 고증하고자 할 때, 일단 그것이 고려초에 湧州로 개칭되었다는 점, 湧州와 宜州(덕원), 文州(문천), 和州(영흥)는 동시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용주를 의주, 문주, 화주와 연결시키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泥河를 금진천 또는 용흥강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고 언급하였다. 泥河의 비정과 관련하여 용흥강(북한의 금야강)을 고려시대에 橫江이라고 불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²⁾ 橫江은 橫川으로 치환할 수 있는데,

51) 赤羽目匡由著·이유진 옮김, 「신라동북경에서의 신라와 발해의 교섭에 대하여」, 『고구려연구』31, 2008, 257~264쪽; 赤羽目匡由, 「新羅泉井(井泉)郡の位置について」, 『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2011a.

52) 『고려사』 지리지에 和州에 橫江이 있다고 전하고, 『세종실록지리지』 영흥대도호부주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8 함경도 영흥대도호부 산천조에서는 용흥강의 옛 이름이 橫江이라고 전한다.

〈그림 3〉 龍興江과 金津川, 廣浦(都連浦), 泉井郡의 위치



『삼국사기』 지리지에 橫川縣이 본래 고구려의 於斯買였다고 전하는 점이 유의된다. 종래에 ‘橫’의 訓借인 ‘엇’을 주목하여 璿天, 즉 於斯買를 ‘엇믹’로 독음하기도 하였으나⁵³⁾ 근래에 ‘橫’을 ‘서로 걸쳐서’, ‘서로 비껴서’ 등의 뜻을 지닌 ‘넛(눗)’의 訓借로 이해하여 於斯買를 ‘넛믹(눗믹)’로 訓讀한 견해가 제기되었다.⁵⁴⁾ 아울러 천정군의 옛 이름인 於乙買 역시 ‘엇믹’ 또는 ‘얼믹’가 아니라⁵⁵⁾ ‘늘믹’ 또는 ‘느르믹(느리믹)’, ‘늘믹(於<느 또는 늘>+乙<리>+買<믹>)’로 읽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⁵⁶⁾ 이러한 견해들을 존중할 때, 泥河 또는 泥川을 ‘니믹’ 또는 ‘니닉’로 독음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늘믹 또는 늘리로 읽을 수 있는 於乙買 및 넛믹(눗믹)로 읽을 수 있는 於斯買와⁵⁷⁾ ‘니믹(닐믹)’ 또는 ‘니닉(닐닉)’로 읽을 수 있는 泥河(泥川)가 음운상으로 相通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발해 남쪽 경계가 都連浦, 즉 현재의 廣浦 근처였는데, 그곳과 금진천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於乙買(泉井郡), 於斯買(橫江, 橫川)와 泥河(泥川)가 음운상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 않았음을 두루 감안하건대, 泥河를 용흥강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천정군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할 수 있는 단서는

53) 도수희, 『백제어연구』Ⅱ, 백제문화개발원, 1989, 47쪽; 박병채, 『고대국어학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180쪽.

54) 김종택, 「於乙買(串)를 다시 해독함」, 『지명학』 7, 2002, 93~94쪽.
한편 천소영, 「지명에 쓰인 ‘느르’계 어사에 대하여」, 『구결연구』1, 1996, 278쪽에서는 於斯買를 ‘눗믹’로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55) 도수희, 앞의 책, 1989; 박병채, 앞의 책, 1990; 유창균, 『한국고대한자음연구』, 계명대 출판부, 1980에서는 於乙買를 ‘엇(얼)믹’로 읽었다.

56) 김종택, 앞의 논문, 2002에서는 於乙買를 ‘늘믹’, 천소영, 앞의 논문, 1996, 276쪽에서는 ‘느르믹(느리믹)’, 황금연, 「옛 지명 형태소 ‘於乙-’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글』 254, 2001에서는 ‘늘믹(於<느 또는 늘>+乙<리>+買<믹>)’로 읽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57) 水城郡이 본래 고구려의 買忽郡, 沙川縣이 본래 高句麗 內乙買縣, 伊川縣이 본래 高句麗 伊珍買縣이었고, 水谷城縣을 또는 買旦忽, 水入縣을 또는 買伊縣, 南川縣을 또는 南買, 述川郡을 省知買, 深川縣을 伏斯買, 狹川郡을 也尸買라고도 불렀던 것에서 지명 어미 買(믹)가 삼국시대에 ‘水’와 ‘川’을 뜻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그것이 신라의 최북단, 즉 발해와의 국경에 위치한 점과 ‘於乙買’라는 지명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에 溟州와 和州는 분명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금야읍(옛 영흥읍)을 천정군의 郡治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필자는 ‘泥河’와 ‘於乙買’가 音韻上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에서 천정군의 군치가 용흥강 유역에 위치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점 및 천정군이 신라의 최북단에 위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그 郡治를 오늘날 북한의 금야읍과 고원읍 사이의 어느 곳으로 비정하는 견해를 제기해 두고자 한다(〈그림 3〉 참조).⁵⁸⁾ 아마도 신라의 천정군은 오늘날 북한 금야군과 고원군, 요덕읍의 영역을 망라하는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에 필자의 이러한 추정에 커다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성덕왕대에 쌓은 長城은 池內宏의 견해처럼 금진천과 용흥강 사이의 분수산맥에 위치한, 즉 영흥군(북한의 금야군)과 정평군 사이에 위치한 古長城으로 비정되고, 경덕왕대에 설치한 炭項關門은 그 분수산맥에 위치한, 오늘날 함남 금야군 금사리 서부에 위치한 金陂嶺(金彼嶺; 246m)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⁵⁹⁾ 결과적으로 8세기 전·중반 신라와 발해는 금진천과 용흥강 사이를 두고 대치한 셈이 된다.

58) 〈그림 3〉은 赤羽目匡由, 앞의 책, 2011, 191쪽의 圖11 新羅·渤海境界地域圖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59) 『신당서』 신라전에 ‘그(신라) 나라의 산은 수십 리씩 연결되어 있는데, 입구의 골짜기에 튼튼한 鐵闔(쇠문짝)을 만들어 달고, 關門이라고 부르며, 신라는 항상 이곳에 弩士 수천 명을 주둔시켰다’고 전한다. 炭項關門에 수천 명의 군사를 주둔시켰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그림 4〉 古長城과 金陂院(金彼院<金陂嶺>)의 위치(『東輿圖』)



그런데 9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라의 東北境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전한다.

北鎮에서 아뢰기를, ‘狄國人이 鎮에 들어와 나무조각을 나무에 걸어놓고 돌아갔습니다’라고 하고는 그것을 가져다 바쳤다. 그 나무조각에는

15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르기를 ‘寶露國과 黑水國 사람들이 함께 신라국과 화친을 통하겠다’고 하였다(『삼국사기』 신라본기제11 헌강왕 12년 봄).

위의 기록에 나오는 寶露國과 黑水國은 흑수말갈부족과 관련이 깊다.⁶⁰⁾ 최치원이 지은 「讓位表」에 진성여왕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처음에 黑水가 강토를 침범하며 독기를 내뿜었고, 다음에는 綠林이 때를 지어 경쟁적으로 광기를 부렸다는 내용이 보인다.⁶¹⁾ 9세기 후반에 신라의 동북지방에 흑수말갈이 거주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력한 증거 자료이다. 이밖에 흑수뿐만 아니라 말갈의 일파인 達姑, 鐵勒과 관계된 기록이 『삼국사기』와 『고려사』 태조세가에 여럿 전하는데, 이들은 8세기 중엽에 발해에 의하여 원 거주지역에서 신라의 동북지역으로 遷徙된 존재로서 9세기 후반 발해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동하였다고 알려졌다.⁶²⁾ 일찍이 池內宏이 寶露國을 『세종실록지리지』 함길도 안변도호부조에 나오는 奉龍驛(또는 寶龍驛)과 연결시켜 안변지역에 거주한 말갈 부족을 지칭한다고 주장한 이래⁶³⁾, 현재까지도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강왕 12년(886) 北鎭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구하기 곤란하지만⁶⁴⁾, 신라의 東北境은 안변 근처였다고 정리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60) 寶露國은 흑수말갈의 추장인 倪屬利稽가 당으로부터 수여받은 勃利州刺史의 ‘勃利’와 상통한다고 이해되고 있다(赤羽目匡由, 「渤海·新羅接地域における黑水·鐵勒·達姑の諸族の存在樣態」『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2011b, 150쪽).

61) 『東文選』 卷43 表箋 讓位表<崔致遠>, “臣某言 --- 而及愚臣繼守 諸患併臻 始則黑水侵疆 曾噴毒液 次乃綠林成黨 競簸狂氛 --- 謹因當國賀正使 某官入朝 附表陳讓以聞”.

62) 여러 말갈족과 관련된 기록들과 그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赤羽目匡由, 위의 논문이 참조된다.

63) 池內宏, 앞의 논문, 1929; 앞의 책, 1960, 56쪽.

64) 675년 무렵에 北鎭은 철관산에 위치하였고, 경덕왕대에 탄항관문을 설치하면서 북진이 이곳으로 移置되었으며, 9세기 전반 이후에 말갈 부족이 남하하면서 그것을 안변 또는 안변 이남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짐작된다.

것이다.

한편 『고려사』 권82 지36 병2 鎭戍條에 ‘태조 3년 3월에 북계 鵲巖城이 자주 北狄의 침략을 받으므로 庾黔弼에게 명하여 開定軍 3천 명을 이끌고 골암에 이르러 東山에 큰 성을 쌓고 거처하게 하니, 북방이 평안하게 되었다’고 전하는 기록이 주목을 끈다. 여기서 태조 3년(920)에 골암성이 고려의 북변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⁶⁵⁾, 골암성은 함경남도 안변군 新高山面 신대리(북한의 강원도 고산군 고산읍)에 위치한 山城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⁶⁾ 한편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4년 2월 임신조에 ‘達姑狄 171인이 신라를 침략하러 가는 도중에 登州(안변)를 통과하니, 장군 堅權이 이를 가로막아 크게 격파하여 말 한 필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신라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사신을 보내 사의를 표하였다’고 전하며, 동일한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제12 경명왕 5년(921) 2월조에도 보인다. 이 기록은 9세기 후반부터 921년까지 신라의 북경이 登州, 즉 안변이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유의된다.

이상에서 9세기 후반 이래 신라의 북변이 안변이었음을 살폈는데, 그러면 발해의 지배하에 있었던 여러 말갈족이 천정군지역을 차지하고, 안변지역까지 진출한 시기는 언제였을까? 신라가 헌덕왕 4년(812) 가을 9월에 급찬 崇正을 北國, 즉 渤海에 사신으로 파견하였고, 그 이후에 신라가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였음을 알려주는 사료는 찾을 수 없다. 이때 승정은 신라도를 경유하여 발해로 향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당시 신라의 북경은 여전히 천정군이었을

65) 『高麗史』 卷92 列傳5 王順式附尹瑄條에 ‘尹瑄은 鹽州 사람인데, 사람됨이 침착, 용감하고 병법에 정통하였다. --- 鵲巖城을 근거지로 삼고, 黑水의 미개인들을 불러 들여 오랫동안 邊郡에 해를 끼쳤다. 태조가 즉위하자, 부하들을 거느리고 귀순하여 왔으므로 北邊이 편안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고려 태조대 동북경이 골암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66) 池內宏, 앞의 논문, 1929; 앞의 책, 1960, 57~58쪽에서 처음 골암성을 신대리산성으로 비정한 이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에 동조하였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812년 이후부터 886년 사이에 발해 지배 하의 말갈족들이 천정군을 차지하고, 안변지역까지 南進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考究할 수 있는 자료가 不備하기 때문에 추후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⁶⁷⁾ 다만 836년 흥덕왕 사후에 치열한 왕위계승분쟁이 전개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말갈의 여러 부족이 천정군지역을 차지하고, 안변지역까지 진출한 시기는 830년대 후반 이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하여 두고자 한다.

5.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3세기 후반부터 신라 말까지 신라의 동북 국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본문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3세기 후반에 斯盧國, 즉 신라가 동해안지역으로 진출하여 大關嶺에 木柵 등을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던 東濊와 대치하였고, 이후부터 390년대까지 신라의 東北境은 悉直 또는 何瑟羅(강릉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00년에 고구려 廣開土王이 步騎 5만을 보내 신라 변방을 침략한 왜군을 물리치게 하였는데, 이때 고구려가 포항시 북구 청하면과 그 이북의 경북 동해안지역을 영토로 편입하여 450년 (눌지마립간 34)까지 지배한 것으로 이해된다.

450년 무렵에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실직 또는 하슬라 이남의 동해안지역을 고구려로부터 빼앗고, 475년에서 481년 사이에

67) 赤羽目匡由, 앞의 논문, 2011b, 180쪽에서 9세기 전반 이래 신라의 쇠퇴에 수반하여 동북경계에서 긴장이 완화된다고, 아마도 그러한 틈을 타서 黑水, 達姑, 鐵勒 등의 말갈 부족이 점진적으로 안변지역까지 진출하였다고 주장하여 참조된다.

比列城(안변)까지 북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고구려가 497년(소지마립간 19)에 동해안 방면에서 신라를 공격하여 比列城과 牛山城(강원도 통천군)을 함락시키고 悉直 또는 何瑟羅 근처까지 南進하였다. 신라는 550년대 전반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다음, 이어 556년(진흥왕 17) 7월에 동해안 방면으로 比列忽(比列城)에 진출하고, 그로부터 568년(진흥왕 29) 8월 사이에 함흥과 이원 일대까지 北上하였다. 고구려는 590년 무렵부터 신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여 마침내 608년(진평왕 30) 4월에 함흥·이원 일대와 안변지역을 되찾는데 성공하였으나 612년 이후부터 642년(선덕여왕 11) 사이에 다시 신라에게 비열성을 빼앗겼다가 642년 무렵에 되찾았고, 655년(태종무열왕 2) 정월에 말갈(동예)과 함께 신라를 강하게 압박하며 하슬라 근처까지 진출하였다.

신라는 666년(문무왕 6) 12월 연정도의 망명을 계기로 비열홀과 천정군을 다시 영토로 편입하였고, 668년 봄에 比列忽州를 설치한 다음, 거기에 停軍團을 주둔시켰다. 669년부터 671년 이전 어느 시기에 당나라가 천정군을 고구려(안동도호부)에 넘겨준 것으로 확인되며, 신라는 673년(문무왕 13)에 비열홀주를 폐지하고 牛首州(강원도 춘천시)를 설치하면서 정군단의 주둔지를 비열홀에서 우수로 옮겼다. 이후 675년 9월에 덕원의 북면천으로 비정되는 安北河를 따라 關과 城을 설치하고, 덕원 북쪽의 요해처인 望德山에 鐵關城을 쌓았으며, 681년(문무왕 21) 정월에 사찬 武仙으로 정예군사 3천 명을 이끌고 비열홀을 지키게 하였다. 이해에 신라는 무선이 지휘한 3천 명의 군사를 기반으로 천정군으로 진출하여 그곳과 그 領縣들을 다시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발해는 武王代 초반에 한반도 동북지방으로 진출하여 비로소 신라와 국경을 맞댔는데, 당시 두 나라의 국경은 泉井郡과 泥河였다. 천정군(溟州)의 군치는 옛 영흥읍(오늘날의 금야읍)과 고원읍 사이의

어느 곳으로 비정되고, 泥河는 영흥을 가로질러 흐르는 龍興江(북한의 금야강)으로 추정된다. 신라는 721년(성덕왕 20)에 발해의 南進에 대비하여 옛 영흥군(금야군)과 정평군의 경계에 長城을 쌓았으며, 경덕왕대에 長城의 要地에 해당하는 金陂嶺에 炭項關門을 설치하고, 거기에 수천 명의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후 9세기 전반에서 886년(헌강왕 12) 사이에 발해의 지배를 받았던 黑水와 達姑, 鐵勒 등의 말갈 부족이 점진적으로 남하하여 천정군과 그 영현을 차지하고 안변을 경계로 하여 신라와 대치하였음이 확인된다. 신라 경덕왕대에 泉井郡을 井泉郡으로, 고려초에 井泉郡(泉井郡)을 湧州로 개칭하였고, 인종 23년(1145) 이후에 그 영역이 和州(영흥) 또는 文州(문천), 高州(고원) 등에 合屬되면서 湧州는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투고일 : 2014.4.1, 심사수정일 : 2014.5.14, 게재확정일 : 2014.5.20)

주제어 : 新羅 東北境, 何瑟羅, 比列城(比列忽), 牛山城, 泉井郡, 泥河, 鐵關城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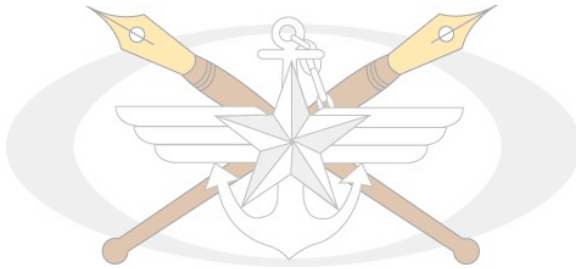
A study on the Northeastern border and it's changes in Si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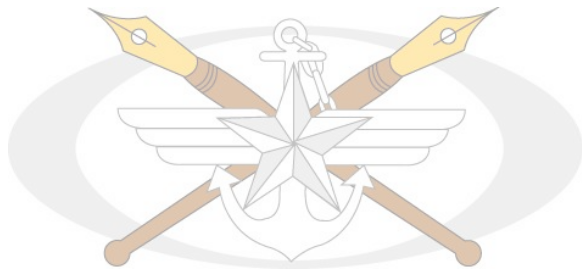
Jeon, Deog-jae

This paper examined how the Northeastern border of Silla dynasty changed over the passage of time. The northeastern border of Silla was near the Haseula(Gangneung City) from the late 3rd century to 390s. In 400 AD, Goguryeo dynasty advanced southwards and incorporated the East Sea coastal area of the Gyeongbuk Province and ruled it until 450s. In nearly 450 AD, Silla attacked Goguryeo, and advanced to the Haseula(Gangneung City). Silla continuously went to the north to the Anbyeon between 475 and 481 AD, but lost the Eastern coastal area in north of the Haseula by Goguryeo in 497 AD. After Silla occupied the Han river area in 550s, Silla took over the Biyeolseong Fortress(Anbyeon) to the eastern coast in 556 AD and advanced to the Hamheung and Iweon area. Silla lost the east coastal region of the north of Anbyeon in 608 by Goguryeo. Silla had it back in 612 but Goguryeo reoccupied it in 642 year. Silla conquered the Biyeolhol area(Anbyeon) on December of 666 and incorporated the Cheonjeon-gun into their territory. Balhae advanced to the Northeastern Korean province and confronted Silla with the border of the Cheonjeon-gun and Niha river in the early era of King Mu's reign. The Center of the Cheonjeon-gun was somewhere between the Geumya-eup and Goweon-eup, so Niha river is estimated to be located in the Yongheung river. Thereafter between the early 9th century to 886 AD, the Malgal tribes had advanced southwards gradually, and took the Cheonjeon-gun and Hyeons that

was under control of the Cheonjeon-gun, confronted Silla with the border of the Anbyeon.

Key Words : Silla's northeastern border, Haseula, Biyeolseong Fortress(Biyeolhol), Usan Fortress, Cheonjeong-gun, Niha river, Cheolguanseong Fortress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김 병 희**

1. 머리말
2. 매소성의 위치 비정
가. 『삼국사기』 수록 매소성 전투 관련 기사 분석
나. 『삼국사기』 「잡지」의 매소성 관련 지명 분석
3. 매소성 전투의 실상
4. 맺음말

1. 머리말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신라가 당과 맞서 싸운 매소성(買肖城) 전투는 기벌포(伎伐浦) 전투와 함께 신라사의 향방을 매듭지은 중요한 전투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대체로 매소성 전투를

* 본 논문은 2012년 2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논문, 「羅唐 戰爭 期の 買肖城 戰鬪 研究 - 位置 比定과 675年의 戰況 復原을 中心으로-」 및 2014년 3월 22일 韓國古代史探究學會 제39차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기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육전에서, 기벌포 전투를 수전에서 신라가 당의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당의 한반도 지배 의지를 완전히 상실시킨 결정적인 계기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처럼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 대해서는 승리와 그 역사적 의미를 줄곧 강조해왔지만¹⁾, 정작 이들 전투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관련 사료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특히 매소성 전투는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연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²⁾

이에 본고에서는 매소성 전투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검토 방식은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사료의 내용을 다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먼저 매소성의 위치를 비정해 본 뒤, 당시의 전황을 고려하여 매소성 전투의 실상을 복원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위치 비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고, 매소성 전투 관련 사료를 재해석하여 도출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렇지만 부족한 사료와 필자의 미진한 능력으로 인해 오류 또는 비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질정(叱正)을 바랄 뿐이다.

- 1)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과 입장이 다른 연구도 국내 학계에서 등장하였는데, 토번의 세력 확대에 대한 당의 군사적 대응이 나당전쟁(羅唐戰爭)의 종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 2) 현재까지 ‘매소성’ 또는 ‘매소성 전투’를 주제로 다룬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민덕식, 「買肖城址考」, 『孫寶基博士 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 知識産業社, 1988; 閔德植,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買肖城(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40, 韓國史學會, 1989; 安國承, 「買肖城 研究」, 『경기향토사학』 2,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7; 李恩影, 「買肖城 位置 比定과 戰鬥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安國承, 「買肖城의 位置 批定」, 『京畿鄉土史學』 11, 全國文化院聯合會 京畿道支會, 2006; 서영교, 『당보급선단(唐補給船團)의 격파와 매소성 전투』,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이상훈, 「매소성 戰役과 신라의 승리」,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장광열, 「매소성(買肖城) 전투가 7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정치변화에 주는 함의」, 『軍史研究』 135, 陸軍軍史研究所, 2013.

2. 매소성의 위치 비정

매소성의 위치로 비정되는 지역은 여러 곳이 있다.³⁾ 그러나 근거가 빈약하거나 근거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제외하면, 학계에서는 연천 대전리(大田里) 산성 또는 양주 대모산성(大母山城)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학계의 경향은 양주 대모산성설⁴⁾보다는 연천 대전리 산성설⁵⁾을 지지한다는 느낌이 강하다.⁶⁾ 이에 해당 사료를 먼저 살펴보겠다.

가. 『삼국사기』 수록 매소성 전투 관련 기사 분석

매소성 전투 자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내 사료는 다음의 하나뿐이다.

- A. 29일에 이근행(李謹行)이 (당의)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우리(=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당군을) 도망가게 하고는 전마(戰馬) 30,380필을 얻었으며 남겨놓은 병기도 이처럼

-
- 3) 지계홀, 대모산성(양주산성), 남방리 토성, 대전리 산성, 초성리 산성, 감악산, 인천, 사파산성 등. 안국승, 앞의 논문, 2006, 219~220쪽 및 235~241쪽.
 4) 李丙燾 譯註, 『國譯 三國史記』 國譯篇, 乙酉文化社, 1977, 123쪽; 이은영, 앞의 논문, 2005.
 5) 민덕식, 앞의 논문, 1988; 민덕식, 앞의 논문, 1989; 안국승, 앞의 논문, 1997; 鄭求福 外, 『譯註 三國史記』 4 주석편(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684~685쪽; 안국승, 앞의 논문, 2006; 이상훈, 앞의 책, 2012, 205쪽.
 6) 매소성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연구도 있다. 서영교의 경우는 매소성 전투를 다루면서 매소성 전투 직전에 벌어진 천성(泉城) 전투에 주목하여 천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매소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서영교, 앞의 책, 2006, 224쪽) 즉, 연천과 양주 중 그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장광열의 경우는 매소성의 위치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지만, 사료를 종합해볼 때 현재 경기북부 일대 임진강과 연계된 장소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하며 언급을 보류하였다.(장광열, 앞의 논문, 2013, 140쪽)

이르렀다.⁷⁾

A는 밑줄 친 부분의 원문이 ‘我軍擊走之’인데, 이는 ‘도망가는 당군을 공격하여’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로 해석하든 신라군과 당군 간에 접전은 벌어지지 않았고, 대신 다른 무엇인가에 급했던 당군이 후퇴했다는 내용으로 보면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당군은 병력이 20만 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말과 병기를 남겨놓고 도망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단 신라군과 당군의 정확한 병력 및 규모가 어떻게 되든⁸⁾ 간에 2가지 이유를 상정해볼 수 있다. 당군의 입장에서 볼 때 유인책으로의 전술 변화 또는 보급을 위한 이동이다.

당이 전술을 유인으로 바꾸었을 경우로 보면, 남겨놓은 말과 병기는 일종의 미끼에 해당된다. 그런데 미끼가 30,380필의 말과 이에 필적하는 수의 병기라면, 미끼치고는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문제로 떠오른다.

반면 보급을 위해 안전한 후방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라고 보면, 남겨놓은 말과 병기는 신속한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짐이 된다. 이러한 시각은 매우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매소성 전투의 날짜가 29일, 즉 9월 29일이기 때문이다. 사료에 기록된 9월 29일은 음력이며, 양력으로 따지면 675년 10월 23일에 해당된다.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므로, 당에서도 이 무렵에 추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약간의 차이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추수 이후 조세의 수취와 보급품의 수송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맞아떨어지는 시간대임에는 틀림없다.

실제로 매소성 전투 직전의 당군에게 보급은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7)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년 9월조. “二十九日 李謹行 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 其餘兵仗稱是.”

8) 사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매소성 전투 당시 신라군과 당군의 병력 및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잘 알 수 없다.

나당전쟁(羅唐戰爭)의 개전⁹⁾ 이후 675년 9월 매소성 전투까지 최소한 몇 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당군이 한반도 전선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중간에 병력의 교체를 통한 해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675년 2월 칠중성(七重城) 전투에서 승리한 당군은 이후 매소성을 포함한 지금의 경기도 북부에서 교체 없이 계속 주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관련 한중 사료에서 675년 2월 이후부터 675년 9월까지 나당전쟁과 관련된 전투 기사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¹⁰⁾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군부대가 원정 지역에 장기간 있게 되면, 항상 보급이 문제가 된다. 즉, 현지 조달을 한다고 해도 시간과 양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었을 것이므로, 상당 부분을 보급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음력 2월부터 9월까지의 봄부터 가을까지 날씨가 따뜻했던 기간이며, 한반도에 투입된 당군은 직접 보유한 것과 현지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급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9월부터는 보급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29일 신라군의 매소성 공격이 시작되자 당군은 어쩔 수 없이 보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소성에서 철수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신라군은 당군이 이동에 불필요하여 놓고 간 말과 병기를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¹⁾ 따라서 매소성 전투를

9) 나당전쟁의 시작은 학계의 다수가 670년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669년이나 671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연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나당전쟁의 개전 시기를 언급한 연구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자 한다.

10) 어떤 지역을 점령하였다면,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수성(守成)을 하거나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기본적인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때 일부 병력은 귀환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주둔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 경우는 신라와 당 서로가 소강상태나 교착상태로, 교전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교전이 있더라도 신라와 당 모두 기록으로 남길 만큼 승패가 갈린 전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제39차 월례발표회에서 필자의 토론자였던 한준수는 ‘퇴각시 남긴 3만 필의 말과 병기 등은 신라군이 획득할 경우 전투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당군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인 전술이나 보급 목적의 후퇴라는 견해는 전략이나 전술 면에서

수적 열세에 있던 신라군이 수적 우세에 있던 매소성 주둔 당군을 획기적인 전략이나 뛰어난 전술로 공격하여 승리한 것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 A에서 추정된 내용을 토대로 매소성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도출해보자. 이를 위해 우선 매소성 주둔 당군 20만 명에 대한 사항부터 검토해보겠다. 필자가 연천 대전리 산성과 양주 대모산성을 비롯하여 경기도 북부의 여러 산성들을 직접 답사해본 결과, 그 어디에도 성(城) 내부에 20만 명이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그렇다면 20만 명이라는 수치는 과장일까? 아울러 남겨놓고 갔다는 말 30,380 필이라는 것도 거짓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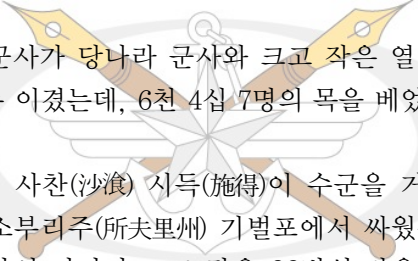
A의 기록은 신라 당대가 아니라 후대인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의 기사이다. 어떤 기록이든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의 편찬자는 지금의 경기도 북부에는 20만 명이 들어갈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소성에 당군 20만 명이 주둔하였다고 기술하였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매소성 전투는 나당전쟁의 기간 동안 있었던 육전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다. 매소성 전투 직후 다른 전투들이 있었지만, 이 모두를 매소성 전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이후에 당의 신라 침공은

이해하기 힘들며, 특히 말의 경우 고대 군사전략이나 무기체계면에서 전략물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병기의 경우 한준수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여기지만, 말의 경우에는 생각이 다르다. 당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던 신라가 당군이 버리고 간 3만 필의 말을 전투에 바로 활용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토론 중에 식량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언급되었지만, 어쨌든 말이 전투 자체에 곧바로 어떤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영교는 '말도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후속 보급이 없다면 말은 기름이 떨어진 탱크나 마찬가지로.'(서영교, 앞의 책, 2006, 237쪽)라고 하였는데, 필자는 이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필자 역시 당군이 불필요해진 말들을 왜 식량으로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채 후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사실상 없었다. 676년에 벌어진 기벌포 전투는 수전이고 시기도 달라 함께 취급할 수 없기에, A의 기록에 등장하는 병력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편찬자 역시 매소성 전투를 나당전쟁이 종결되는 계기로 보았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최근까지 학계의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왔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결국 당군 20만 명이란 그 수치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한반도 전선에 투입되었던 모든 당군 또는 적어도 매소성을 필두로 지금의 경기 북부에 주둔하고 있었던 모든 당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²⁾ 이러한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있다.

- 
- a. 또한 우리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크고 작은 열여덟 번의 싸움을 벌여 모두 이겼는데, 6천 4십 7명의 목을 베었고 말 2백 필을 얻었다.¹³⁾
 - b. 겨울 11월에 사찬(沙澗) 시득(施得)이 수군을 거느리고 설인귀(薛仁貴)와 소부리주(所夫里州) 기벌포에서 싸웠는데 연이어 패배하였다. 다시 나아가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을 벌여 이기고서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¹⁴⁾

a는 매소성 전투 직후 벌어진 다른 전투에 대한 기사로, 시기는 675년 10월 중으로 추정된다. 신라와 당의 장수 이름 및 구체적인 전투의 과정은 여기에서 알 수 없고, 신라가 승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결과물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매소성 전투는 당의 장수 이름은 알 수 있는 대신 신라의 장수 이름과 구체적인 전투의 과정은 알 수

12)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본고의 각주 15)를 참고할 것.
 13)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조. “又我兵與唐兵 大小十八戰 皆勝之 斬首六千四十七級 得戰馬二百匹”.
 14)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6년 11월조. “冬十一月 沙澗 施得 領船兵 與薛仁貴戰 於所夫里州 伐伐浦 敗績 又進大小二十二戰 克之 斬首四千餘級.”

없고, 신라가 승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결과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와 서술방식에 있어 유사성이 엇보인다.

b는 676년 11월에 벌어진 기벌포 전투에 대한 기사이다. 여기에서 신라와 당의 장수 이름은 알 수 있는 대신 구체적인 전투의 과정은 알 수 없다. 또한 신라의 패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신라의 승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확인된다.

내용상 차이는 있지만, 매소성 전투 및 a와 b의 기사는 서술방식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 모두 신라가 승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놓은 『삼국사기』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나당전쟁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 즉 서술방식에는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의도란 신라가 승리한 경우에는 쟁취한 결과물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록함으로써 부각시키는 대신, 신라가 패배한 경우에는 장수를 알 수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함으로써 축소시킨 것은 아닐까? 이는 나당전쟁의 다른 전투에서도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전마 30,380필을 얻었으며’, ‘6천 4십 7명의 목을 베었고 말 2백 필을 얻었다’,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등의 표현에서 나타난 수치는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일단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매소성 전투 기사에 나타난 당군 20만 명이라는 수치는 주의 를 요한다. 신라가 매소성에 입성하면서 그 일대를 포함하여 경기도 북부를 장악하며 얻은 전리품이 말 30,380필이라면, 이는 일리 있는 수치이고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경기도 북부에 있는 산성 안에 병력 20만 명은 차치(且置)하더라도, 말무덤만을 쌓아놓은 경우가 아닌 이상 말 30,380필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신라는 획득한 전리품을 분명 세어 보았을 것이고, 그 수치를 기록하여 남긴 사료를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참고 하였다면, 당군 20만 명은 매소성 일대 중심의 경기 북부에서 획득한

말 30,380필에서 추측하여 기록한 수치라고 판단된다.

결국 필자는 매소성 주둔 당군 20만 명이란 『삼국사기』의 편찬자가 ‘말 30,380필’이라는 사실적 내용을 토대로 당군의 병력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뒤, 나당전쟁을 종결시키는 신라의 승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으로 본다. 즉, 당군 20만 명은 당시까지 한반도 전선에 투입되었던 모든 당군, 또는 적어도 매소성을 필두로 지금의 경기 북부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대다수의 당군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매소성에 주둔했던 당군은 실제로 20만 명이 아니었다고 보고, 이를 염두에 두면서 매소성의 위치를 파악해 보자. 신라가 매소성 전투를 통해 얻은 말 30,380필을 경기도 북부의 전선(戰線)에서 획득한 것으로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경우 최소한 당의 한반도 투입 병력은 30,380명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당군 병력의 최소한을 대략 3만 명 정도로 보자는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당의 이 근행 부대는 매소성에 주둔하였다고 보자. 매소성에 주둔했을 병력의 최대한을 3만 명 정도로 보자는 것이다.¹⁶⁾ 이상에서 최소와 최대를 절충하면, 매소성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병력 최대 3만 명 + α ’의 수용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연천 대전리 산성과 양주 대모산성에 각각 적용해 보겠다.

15) 매소성 주둔 당군 병력의 수치 또는 한반도 전선에 투입된 당군 병력의 수치를 연구한 선학들의 성과는,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당군 최대 4~5만 명 추산 : 민덕식, 앞의 논문, 1989, 171쪽; 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1997, 247쪽.
- ② 당군 최대 10만 명 추산 : 拜根興, 「七世紀 中葉 羅唐關係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 98~99쪽.
- ③ 당군 최소 10만 명 이상 추산 : 이상훈, 「羅唐戰爭의 종전배경과 新羅의 역할」, 『東北亞歷史論叢』 32, 동북아역사재단, 2011, 346~347쪽.

16) 당군은 통상 1개 행군의 경우 수천~3만 명 정도로 편성되는데, 표준 행군인원은 2만 명이다. 1개 행군의 장수는 행군총관으로 임명되고 복수의 행군을 거느리는 장수는 행군대총관으로 임명된다. 孫繼民, 『唐代行軍制度研究』, 臺北 : 文津出版社, 1995, 141~145쪽; 이상훈, 앞의 논문, 2011, 346쪽 재인용.

연천 대전리 산성은 규모 자체가 큰 편이 아니므로, 3만 명이 들어갈 공간은 없다.¹⁷⁾ 그러나 성 바깥에서 기마병을 비롯한 상당수의 병력들이 진을 치고 지낸다고 보면, 2월부터 9월까지 '3만 명 + α '를 수용할 공간은 충분히 있는 셈이다. 또한 식수 등 생활용수를 주변에 있는 한탄강(漢灘江)과 신천(莘川)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적진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위험 부담과 함께 보급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상기할 때, 당군의 입장에서 부담이 덜 되는 곳은 양주 대모산성 보다는 연천 대전리 산성이다. 왜냐하면 인접한 한탄강으로 인하여 북쪽으로의 후퇴가 양주 대모산성에 비해 용이하고, 후퇴 이후 추격해오는 신라군이 있을 경우 이를 저지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거나 서쪽의 칠중성 방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동 방법으로 육로와 수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다양한 대비책이 존재한다.

보급에 차질이 생겨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각종 변수에 따라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둘 수 있다면, 신라군의 공격에 전혀 대응도 하지 않고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당시의 한탄강 이북 지역부터는 일단 당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으로 보아야 한다. 한탄강은 배나 장비를 이용해야 건널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연천 대전리 산성 북쪽의 한탄강 유역은 별다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도강(渡江)하는 것이 용이하다. 안전한 보급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 이동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런 점에서 연천 대전리 산성은 후퇴에 대한 압박이 양주 대모산성 보다는 절대 크지 않다.

한편, 양주 대모산성 역시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3만 명이 들어갈

17) 연천 대전리 산성은 둘레가 약 680m이고 면적이 약 13,000㎡이다. 성 안에 1㎡당 1명이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대략 1만 3천 명의 병력이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성 내부의 실제 병력은 당연히 이보다는 적은 수치였을 것이다.

공간은 없다.¹⁸⁾ 그러나 연천 대전리 산성과 마찬가지로 성의 외부에서도 병력들이 진을 치고 지낸다면 ‘3만 명 + α’를 수용할 공간은 충분히 있으며, 북동쪽의 유양천(維楊川)과 남쪽의 어둔천(於屯川) 및 어둔리 저수지 등으로 미루어보아 물의 공급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다. 대신 북동쪽에는 불곡산(佛谷山), 도락산(道樂山) 등이 있고 북서쪽에는 노고산(老故山), 노아산(老兒山) 등이 있어 후퇴할 때는 반드시 이 산들을 피해 북쪽으로만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위험 및 보급의 부담은 연천 대전리 산성보다 양주 대모산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매소성의 기본 조건에는 일단 연천 대전리 산성보다는 양주 대모산성이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매소성 전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기사를 살펴보자.

- B. 을해년(문무왕 15년, 675)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가 와서 매소천성(買蘇川城)을 공격하니, 원술(元述)이 이를 듣고 죽어서 지난번의 치욕을 씻고자 하였다. 드디어 힘껏 싸워서 공을 세워 상을 받았다.¹⁹⁾

B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기존의 연천 대전리 산성설과 양주 대모산성설 모두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같은 곳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는 모두 음운 또는 명칭의 유사성 및 당시의 전황 등을 고려하여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같은 곳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별 무리가 없는 것일까? 다른 경우는 제외하고, 매소성과 관련해서는

18) 양주 대모산성은 둘레가 약 1,400m이고 면적이 약 33,000㎡이다. 성 안에 1㎡당 1명이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대략 3만 3천 명의 병력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산술적으로는 3만 명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양주 대모산성이 해발 212m의 대모산 정상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각종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까지 감안하면, 성 내부의 실제 병력은 분명 3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三國史記』 권43, 「列傳」 3, 金庾信 下, 元述 傳. “至 乙亥年 唐兵來 攻買蘇川城 元述 聞之 欲死之以雪前恥 遂力戰 有功賞.”

별 문제가 없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일단 어떤 학설이든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같은 장소로 전제한 이면에는 A와 B가 같은 사건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과연 A와 B는 같은 사건, 즉 같은 전투에 해당되는지 표를 작성해서 비교해 보겠다.

〈표 1〉 『삼국사기』의 매소성 전투 기사 및 매소천성 전투 기사 비교

	시기 (음력)	장소	공성	수성	결과	원술 참전
A	675년 9월 29일	매소성	신라	당	신라 승리, 당 패배	?
B	675년 ?월 ??일	매소천성	당	신라	신라 승리, 당 패배	○

〈표 1〉을 통해서 A와 B는 같은 전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A와 B는 675년에 벌어진 신라와 당의 전투이며, 결과가 같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다. 기존의 어떤 학설이든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동일 장소로 가정한 이유는 음운과 명칭의 유사성 및 신라가 당을 상대로 거둔 승리라는 점에 너무 주목한 탓일 것이다. 반면, 두 학설 모두 공성과 수성의 주체가 누구지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다.²⁰⁾ 원술은 B에는 참전하였지만, A에서는 참전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A와 B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와 함께 B는 언제 일어난 전투이며, 원술이 A에는 참전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앞서 필자는 A의 경우 매소성에 있던 당군이 신라군의

20) 본고의 심사과정에서 A의 경우 ‘李謹行 率兵二十萬 屯買冑城’은 당의 이근행 부대가 매소성 주변에 진을 치자 매소성에 있던 신라군이 공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뒤에서 다룰 『자치통감』의 기록, 즉 사료 G의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屯新羅之買冑城 以經略之 三戰皆捷’은 675년 2월의 기록이며, 같은 해 9월에 발생한 A보다 앞선 기록이고, 중간에 한·중 사서에서 어떠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A의 공성 주체는 신라, 수성 주체는 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격을 감지하고, 결국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퇴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의문사항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한다.

① A와 B가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순서를 'A→B'로 볼 수는 있어도 'B→A'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675년 2월부터 9월 29일 사이에 신라군 주둔 성에서 벌어진 전투를 신라가 이겼는데, 675년 9월 29일의 성내 주둔 병력은 당군이고 이를 탈환하려고 신라가 공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B가 A 이전의 사건이 확실하다면 B와 A의 중간에 신라의 패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논리 전개에서 B에 원술의 공적을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게다가 A는 전공자와 전사자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전리품에 대한 기록만 있다. 그 이유는 보급 사정 악화에 따른 당군의 후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따르면 당연히 원술의 공적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유신(金庾信)의 아들인 원술이 참전해서 공을 세우고 이긴 전투라면, 『삼국사기』 편찬자의 성격상 반드시 기록했을 것이다. 따라서 원술이 공을 세워 상을 받은 시점 역시 A 이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원술은 A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시기의 순서는 'A→B'가 타당하다고 해도 A와 B가 같은 장소라면, A와 B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한·중 사료에 나타난 나당전쟁기의 모든 전투를 살펴보면, 수전인 기벌포 전투를 제외하고 육전은 모두 음력 1월부터 음력 9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벌어졌다.²¹⁾ 이는 겨울인 음력 10·11·12월을 피한 것임을 감안할 때, A가 음력 9월 29일의 전투이므로 B는 음력 10월 초순(또는 중순)의 전투일 것이다. 이 짧은 간격 안에 A에는 참전하지 않았던 원술이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B에는 참전하였다고 보는 것은

21) 이상훈, 앞의 책, 2012, 121쪽 <표 9> 참조.

무리가 있다. B 이전까지 원술은 672년 8월 석문(石門) 전투에서 신라군이 패할 때 죽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태백산(太伯山)에 들어가 있었던 상태²²⁾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태백산에 있던 원술이 B에 참전하였다면, 태백산의 위치가 지금의 태백산이든 아니든 간에 A 이후 전황의 소식을 듣고 결심하여 가는데 걸린 시간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A 이후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당군은 곧바로 매소성 주변의 아달성(阿達城), 적목성(赤木城), 석현성(石峴城) 등을 공격하여 신라에 큰 타격을 주었다.²³⁾ 이러한 상황에서도 A와 B가 같은 장소라면, B에서 원술이 세웠다는 공은 사실상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①의 가정은 성립 가능성이 희박하다.

② 이제 A와 B가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가정하자.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기의 순서는 ‘B→A’가 아닌 ‘A→B’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①의 가정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A는 원술이 공을 세우기 전의 전투, B는 원술이 공을 세운 전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와 B가 각각 지금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A와 B에 나타난 지명, 즉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비교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고대의 음가가 현재에도 같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므로, 지명 분석은 글자 자체만을 보는 것에 일단 원칙을 두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글자는 ‘매(賈)’로 같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글자는 ‘소(肖)’와 ‘소(蘇)’로 다르다. 그런데 ‘肖’는 ‘소’ 외에 ‘초’로 읽을 수 있고, 뜻을 비교해보면 ‘蘇’와는 연관성이 보이지를 않는다. 고대에도 음운이 같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두 번째 글자들은 위치 비정에 별다른 도움을

22) 『三國史記』 권43, 「列傳」 3, 金庾信 下, 元述 條.

23)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條. 인용 사료 I 참고.

주지 못한다. 마지막 글자인 ‘성(城)’은 산성 또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 결국 A와 B의 유일한 차이점은 ‘천(川)’이다. ‘川’은 A에는 없고, B에만 있다. 다른 장소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여겨진다.

‘川’이란 글자는 ‘강’이나 ‘하천’ 등 ‘물(水)’과 관련된 지명에 자주 쓰인다. 따라서 B, 즉 매소천성은 ‘물’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같은 지역으로 보면서 유력한 위치로 지목하였던 곳은 연천과 양주였는데, 지역 특성상 ‘물’이 더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연천이다. 연천 대전리 산성 주변에는 한탄강과 신천이 흐르고 있다. 강과 하천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다. 양주 대모산성은 주변에 유양천, 어둔천 등이 있긴 하지만 ‘川’을 지명으로 쓰기에는 약한 감이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연천 대전리 산성과 양주 대모산성 이외의 다른 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매소천성은 연천 대전리 산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매소성은 과연 어디일까?

기존의 연구에서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같은 지역으로 본 가장 큰 이유는 첫 글자가 같다는 것과 음운의 유사성에 있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매소성과 매소천성이 다른 지역이라면, 첫 글자가 같고 음운이 비슷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당시 하나의 권역에 포함되었거나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한다. 매소성과 매소천성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다른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²⁴⁾ 양주는 연천과 가까운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매소성이 양주 대모산성일

24) 이처럼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삼국사기』의 「잡지」에 실려 있는 지명들처럼 통치주체와 시대가 달라지면서 명칭과 표기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편찬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삼국사기』 내에서 동일한 성이나 지역을 동시대에 다른 명칭으로 표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능성 역시 높다.

나. 『삼국사기』 「잡지」의 매소성 관련 지명 분석

‘매소성’ 관련 사료로 위치에 대한 단서가 있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 C. 매성군(買省郡) - 마홀(馬忽)이라고도 한다.²⁵⁾
- c. 내소군(來蘇郡)은 본래 고구려 매성현(買省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견주(見州)이다.²⁶⁾

C와 c에 나타난 매성군과 매성현은 같은 지역이다. 『삼국사기』의 「잡지」는 통일신라의 전체 행정구역을 소개한 뒤, 통일 이전의 지명을 다룬 고구려조와 백제조를 따로 두어 순서대로 대응이 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소성 또는 매소천성과는 어떤 관계를 도출할 수 있을까?

일단 모두 첫 글자는 ‘매(買)’로 같다. 따라서 비교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 글자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성(城)’, ‘현(縣)’, ‘군(郡)’은 행정구역의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가운데 글자에 있다.

‘소(肖)’는 ‘성(省)’과 글자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소(蘇)’ 또는 ‘소천(蘇川)’의 경우 ‘성(省)’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성군(현)은 매소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 매소천성과는 관련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매성군(현)은 매소성과는 관련이 있지만, 매소천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5) 『三國史記』 권37, 「雜志」 6, 地理4, 高句麗, 漢山州 조. “買省郡 一云 馬忽.”

26) 『三國史記』 권35, 「雜志」 4, 地理2, 新羅, 來蘇郡 조. “來蘇郡 本 高句麗 買省縣 景德王改名 今 見州.”

매성군(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C와 c에 나와 있는 다른 지명 단서들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단서가 보인다. 바로 ‘마홀’이다. ‘마홀’은 『삼국사기』의 「잡지」 내에 있는 같은 조의 다른 기사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 D. 비성군(臂城郡) - 마홀(馬忽)이라고도 한다.²⁷⁾
 d. 견성군(堅城郡)은 본래 고구려 마홀군(馬忽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포주(抱州)이다.²⁸⁾

C, c, D, d에 나타난 지명들이 현재의 어디를 언급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현대로 올수록 지명의 변천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잘 수록한 사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1530년에 간행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E. 양주목(楊州牧)
 동쪽으로 포천현(抱川縣) 경계까지 25리이고, 또 같은 현 경계까지 22리가 되기도 하며, 가평현(加平縣) 경계까지는 96리이고, 광주(廣州) 경계까지 75리이다. 남쪽으로는 광주 경계까지 67리이고, 또는 82리가 되기도 한다. 서쪽으로는 고양군(高陽郡) 경계까지 40리이고, 파주(坡州) 경계까지는 33리이다. 북으로는 적성현(積城縣) 경계까지 22리이고, 마전군(麻田郡) 경계까지 58리이며, 연천현(漣川縣) 경계까지 74리인데, 서울과의 거리는 56리이다.
 건치연혁 : 본래 고구려 매성군인데, 창화군(昌化郡)이라 하기도 한다. 신라 경덕왕이 내소(來蘇)라 고쳤다. 고려 초에는 승격하여서 견주라 하였고, 현종 9년에는 양주에 예속하였다. 본조 태조 3년에 도읍을 한양부(漢陽府) - 곧 옛 양주 - 에 정한 다음, 부의

27) 『三國史記』 권37, 「雜志」 6, 地理4, 高句麗, 漢山州 注. “臂城郡 一云 馬忽.”
 28) 『三國史記』 권35, 「雜志」 4, 地理2, 新羅, 堅城郡 注. “堅城郡 本 高句麗 馬忽郡 景德王改名 今 抱州.”

관아를 동촌(東村) 대동리(大洞里)에 옮기고, 강등하여 지양주사(知楊州事)가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다시 승격하여 부(府)로 만들었다. 6년에 또 부치(府治)를 견주 옛터에 옮기고, 그대로 양주라 불렀다. 태종 13년에 예에 따라 도호부로 고쳤다. 세조 12년에 승격하여서, 목(牧)으로 만들고 진(鎭)을 설치하였다.²⁹⁾

F. 포천현(抱川縣)

동쪽으로 가평현 경계까지 18리이고, 서쪽으로 양주 경계까지 30리이며, 남쪽으로 같은 주 경계까지 36리이며, 북쪽으로 영평현(永平縣) 경계까지 26리인데, 서울과의 거리는 97리이다.

건치연혁 : 본래 고구려 마홀군인데 일명 명지(命旨)라 하기도 한다. 신라에서 견성군이라 고쳤고, 고려 초기에 포주라 고쳤다. 성종 14년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 8년에 파하였다. 현종 9년에 양주에 예속시켰고, 명종이 감무를 설치하였다. 본조 태종 13년에 현감으로 고쳐 만들었다.³⁰⁾

제시된 E, F를 보면 C, c, D, d의 내용이 건치연혁에 모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방위 및 거리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어 현재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C, c, D, d, E, F에 나타난 지명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京畿」, 楊州牧 조. “楊州牧 : 東至抱川縣界二十五里 至同縣界二十二里 至加平縣界九十六里 至廣州界七十五里 南至同州界六十七里 至同州界八十二里 西至高陽郡界四十里 至坡州界三十三里 北之積城縣界二十二里 至麻田郡界五十八里 至漣川縣界七十四里 距京都五十六里 / 建置沿革 本 高句麗 買省郡 一云 昌化郡 新羅景德王改來蘇 高麗初陞見州 顯宗九年屬楊州 本朝太祖三年定都于漢陽府 卽古楊州 移府治于東村大洞里 降爲知楊州事 未幾 復陞爲府 六年又移府治于見州古址 仍稱楊州 太宗十三年例改 爲都護府 世祖十二年陞 爲牧置鎭.”
- 3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京畿」, 抱川縣 조. “抱川縣 : 東至加平縣界十八里 西至楊州界三十里 南至同州界三十六里 北至永平縣界二十六里 距京都九十七里 / 建置沿革 本 高句麗 馬忽 一云 命旨 新羅改堅城郡 高麗初改抱州 成宗十四年置團練使 穆宗八年罷之 顯宗九年屬楊州 明宗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改 爲縣監.”

〈표 2〉 ‘마홀(馬忽)’의 지명 변천

옛 지명	고구려	통일신라 (경덕왕 이후)	고려	조선	위치 비정 (현재 행정구역)
마홀 (馬忽)	매성군·현 (買省郡·顯)	내소군 (來蘇郡)	견주 (見州)	양주목 (楊州牧)	경기도 양주시 양주1동
	마홀군·현 (馬忽郡·顯)	비성군 = 견성군 (臂城郡) = (堅城郡)	포주 (抱州)	포천현 (抱川縣)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마홀’은 음을 고려하면 순수 고구려어를 한자로 옮긴 지명일 수 있고, 뜻을 고려하면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명일 수 있다. 고대의 경기도 북부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 고구려와 신라의 전투, 신라와 당의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곳곳에서 말무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의 구역이었던 ‘마홀’이 고구려의 어느 시점에서 ‘마홀군(현)’과 ‘매성군(현)’으로 갈라졌다. E의 ‘동쪽으로 포천현 경계까지 25리이고’라는 말을 볼 때, ‘마홀군(현)’과 ‘매성군(현)’은 인접지역으로 과거에는 하나의 구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구려가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한다. 다만, ‘마홀군(현)’이 ‘마홀’이라는 지명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고구려 통치 시기에는 ‘매성군(현)’보다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쪽에 있는 백제나 신라의 공격을 대비하자면, 방위를 고려할 때 앞(남쪽)에 있는 지역은 저지선, 뒤(북쪽)에 있는 지역은 주변을 관할하던 치소(治所)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물론 C, c, D, d, E, F에서 고구려의 ‘군’과 ‘현’이 행정구역으로서 어떤 기능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같은 지명이 어떤 경우는 ‘군’, 어떤 경우는 ‘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구려의 군현제 실시 여부나 실상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삼국사기』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찬자들이 고구려 지명을 ‘군’과 ‘현’으로 표기한 것은 후대인의 관점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고구려 지명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표기되었든 그 의미와 기능을 살피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어찌 되었든 ‘마홀군(현)’은 통일신라 때 지명이 ‘비성군’ 또는 ‘견성군’으로 바뀐다. ‘비(臂)’와 ‘견(堅)’의 글자 모양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성군과 견성군은 동일 장소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마홀군(현)’은 <표 2>에서 보다시피 고려시대에 ‘포주’, 조선시대에 ‘포천현’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F에 소개된 타 지역과의 방위 및 거리를 계산하면, ‘마홀군(현)’은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에 해당된다. 이곳에는 반월산성(半月山城)이 있다. 그러나 이를 매소성으로 비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주나 연천이 아니라는 점도 그렇고, 매소성 전투를 상기했을 때 당군이 신속하게 당의 영역으로 후퇴할 수 있는 곳이 포천 일대에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홀군(현)’은 매소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매성군(현)’은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에 ‘견주’, 조선시대에 ‘양주목’으로 지명이 바뀌었는데, F에 소개된 타 지역과의 방위 및 거리를 계산하면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양주1동에 해당된다. 양주역 옆의 양주1동 주민센터에서 길을 따라 서쪽으로 약 5km를 가면 양주 대모산성이 있다. 따라서 매성군(현)은 매소성과 관련이 있으며, 매소성은 바로 양주 대모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연천 대전리 산성을 살펴보겠다. 연천 대전리 산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문헌기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 그 유래를 짐작하기 곤란하다. 연천의 지역적 특성이 기록된 기사는 간혹 보이지만,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치환해 보면 대부분 한탄강 이북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탄강 이남인 연천 대전리 산성과는 어떤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상대적으로 양주에 대한 기사는 풍부한 편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만

보더라도 양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권지11에서는 양주목조가 가장 분량이 많다. ⑤의 ‘목(牧)으로 만들고 진(鎭)을 설치하였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은 연천 보다 양주가 더 높다.

이상에서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소성과 매소천성은 동일한 지명이 아니다.

둘째, 매소성은 양주 대모산성이며, 매소천성은 연천 대전리 산성이다.

3. 매소성 전투의 실상

이제 매소성 전투의 실상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매소성 전투가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후에 벌어진 신라와 당의 전투 기록들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전황이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보다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와 관련된 한중 사료를 모두 검토해 보고자 한다.

G. ① 2월 유인궤(劉仁軌)가 신라의 무리들을 칠중성에서 대파하였고, / ② 또 말갈(靺鞨)로 하여금 바다로 가서 신라의 남쪽 경계를 경략하게 하니, 목을 베고 붙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 ③ 유인궤의 군사가 돌아왔다. 조서(詔書)를 내려서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鎭撫大使)로 삼고 / ④ 신라의 매소성에 주둔하여 이를 경략(經略)하게 하였는데, 세 번 싸워서 모두 승리하자 / ⑤ 신라는 마침내 사신을 파견하여 들어와서 공물을 바치고 또 사죄하였으며, 황상은 이를 사면하고 신라왕 김법민(金法敏)의 관작(官爵)을 회복시켰다. 김인문(金仁問)이 중도(中途)에서 돌아오니 임해군공(臨海郡公)으로 고쳐서 책봉하였다.³¹⁾

H. ① 2월에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 ② 인궤는

병사를 이끌고 돌아가고, 조서로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아 /
 ㉔ 다스리게 하였다. / ㉕ 왕은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바치고 또
 한 사죄하였다. 황제는 용서하고 왕의 관작을 회복시켰다. 김인문
 은 오는 길에 [당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를 임해군공으로 고쳐서
 봉하였다.³²⁾

- I. 가을 9월에 설인귀가 숙위학생(宿衛學生) 풍훈(風訓)의 아버지 김
 진주(金眞珠)가 본국(本國)에서 목 베어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풍
 훈을 길을 이끄는 사람으로 삼아 천성(泉城)을 쳐들어왔다. 우리
 장군인 문훈(文訓) 등이 맞서 싸워 이겼는데, 1천4백 명의 목을 베
 고 병선(兵船) 40척을 빼앗았으며, 설인귀가 포위를 풀고 도망가
 자 전마 1천 필도 얻었다.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
 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도망가게 하고는
 전마 30,380필을 얻었으며 남겨놓은 병기도 이처럼 이르렀다. 사
 신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토산물을 바치게 하였다. 안북하(安北
 河)를 따라 관(關)과 성(城)을 설치하였고, 또한 철관성(鐵關城)을
 쌓았다. 말갈이 아달성(阿達城)에 들어와 위협하고 노략질하자 성
 주(城主) 소나(素那)가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당나라 군사가 거란
 과 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을 둘러쌓았지만 이기지 못하였
 고, 소수(小守) 유동(儒冬)이 죽임을 당하였다. 말갈이 또한 적목성
 (赤木城)을 에워싸서 없애드렸다. 현령(縣令) 탈기(脫起)가 백성을
 거느리고 막아 지키다가 힘이 다하여 모두 죽었다. 당나라 군사가
 또한 석현성(石峴城)을 둘러싸고 쳐서 빼앗았는데, 현령(縣令) 선
 백(仙伯)과 실모(悉毛) 등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또한 우리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크고 작은 열여덟 번의 싸움을
 벌여 모두 이겼는데, 6천 4십 7명의 목을 베었고 말 2백 필을 얻
 었다.³³⁾

31) 『資治通鑑』 권202, 「唐紀」 18, 高宗 上元 2년 2월조. “㉔ 二月 劉仁軌 大破 新羅 之衆 於七重城 / ㉕ 又使 鞬鞞 浮海 略新羅之南境 斬獲甚衆 / ㉖ 仁軌引兵還 詔以李 謹行爲安東鎮撫大使 / ㉗ 屯新羅之買肖城 以經略之 三戰皆捷 / ㉘ 新羅乃遣使入貢 且謝罪 上赦之 復新羅王法敏官爵 金仁問中道而還 改封臨海郡公”.

32)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2월조. “㉔ 二月 劉仁軌 破我兵 於 七重城 / ㉕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 / ㉖ 以經略之 / ㉗ 王乃遣使入 貢 且謝罪 帝赦之 復王官爵 金仁問中路而還 改封臨海郡公”.

G는 중국 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록이고, H와 I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G·H·I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3〉 675년의 나당전쟁 기록 비교 : 『자치통감』과 『삼국사기』

		『자치통감』 (1084년 완성 / G)	『삼국사기』 (1145년 편찬 / H, I)
675년 2월 칠중성 전투 (G, H)	Ⓐ	당의 유인계 부대 - 칠중성에서 신라군 격파	
	Ⓑ	말갈의 남쪽 경계 경략 ³⁴⁾	×
	Ⓒ	i) 유인계 부대 → 당 귀환 ii) 이근행 → 안동진무대사	
	Ⓓ	이근행의 매소성 주둔 및 경략 < 3전 전승 >	이근행의 (칠중성) ³⁵⁾ 경략 < ? >
	Ⓔ	i) 신라 - 당에 사죄사 파견 및 공물(= 특산물) 진상 ii) 당 - 문무왕 김법민의 관작 회복 김인문의 당 귀환 및 임해군공 책봉	
675년 9월 (I)	×	천성 전투 매소성 전투	

33)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조. “秋九月 薛仁貴 以宿衛學生 風訓之父 金眞珠 伏誅 於李國 引風訓 爲鄉導來 攻泉城 我將軍 文訓等 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 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二十九日 李謹行 率兵二十萬 屯買省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 其餘兵仗稱是 遣使入 唐 貢方物 緣 安北河 設關城 又築鐵關城 靺鞨 入阿達城 劫掠 城主 素那 逆戰死之 唐兵與契丹靺鞨兵 來圍七重城 不克 小守 儒冬 死之 靺鞨 又圍赤木城 滅之 縣令 脫起 率百姓 拒之 力竭俱死 唐兵 又圍石峴城 拔之 縣令 仙伯 悉毛等 力戰死之 又我兵與唐兵 大小十八戰 皆勝之 斬首六千四十七級 得戰馬二百匹.”

34) 이 부분은 『신당서』와 『자치통감』의 원문이 다르다. 『신당서』에는 ‘말갈의 남쪽 경계경략(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新唐書』 권220, 「列傳」 145, 東夷, 新羅, 上元 2년 2월조)’으로, 『자치통감』에는 ‘말갈의 신라 남쪽 경계경략(又使靺鞨浮海略新羅之南境. 『資治通鑑』 권202, 「唐紀」 18, 高宗 上元 2년 2월조)’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말갈이 신라의 남쪽 경계를 경략했다는 말은 지금의 전라도나 경상도에 말갈이 침입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당시 신라의 실제 지배영역과 전황을 잘못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신당서』의 내용이 바르기예, 이를 채택하였다.

35) 원문 ㉔부분에는 없지만 인용 사료 H 전체, 즉 『삼국사기』의 내용으로 볼 때 전후 문맥상 이근행이 칠중성을 다스린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675년 2월의 칠중성 전투에 대해 살펴보자. 이 전투의 기사는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에 모두 실려 있는데,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는 내용이 같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와 ㉤는 문제가 있다.

㉣는 말갈이 바다를 건너 남쪽 경계를 경략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신라인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남쪽 경계를 당의 남쪽 경계로 해석하면, 이는 신라의 북쪽 경계에 해당되고, 대체로 경기도 북부 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 이후임을 감안하면 칠중성을 기준으로 남쪽 경계가 되는데, 이는 양주 일대가 되므로 매소성을 양주 대모산성으로 본 필자의 견해와 부합된다. 왜냐하면, 675년 2월부터 9월 사이의 어느 시점에 매소성은 당의 수중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는 『자치통감』에만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없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아무래도 신라가 전투에서 패한 내용인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자치통감』과 『삼국사기』의 기록이 달라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해당 부분의 원문을 발췌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자치통감』의 ㉣ : 屯新羅之買肖城以經略之 三戰皆捷

『삼국사기』의 ㉣ : 以經略之

같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치통감』에는 있는 글자들이 『삼국사기』에는 빠져 있다. 『자치통감』이 1084년에 완성되었고, 『삼국사기』가 1145년에 편찬되었으니,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은 『자치통감』을 분명 원자료로 참고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이 『자치통감』을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치통감』에 실렸던 내용은 『삼국사기』에서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즉, 『삼국사기』의 ㉔대로라면, ‘之’가 가리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근행이 경락을 한 장소는 칠중성 주변으로 국한된다. 그렇지만, 이는 내용상 모순된다. 675년 2월에 유인계가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격파하였는데, 곧바로 이근행이 다시 칠중성을 경락하였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매소성이 당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는 ‘(이근행이) 신라의 매소성에 주둔하며 이 지역을 경락하였는데, 세 번 싸워 세 번 이겼다’라는 『자치통감』의 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이 승리하고 신라가 패배한 전투를 『자치통감』이 누락시킬 까닭은 없다. 반면, 『삼국사기』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당시 신라의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소성까지 당의 수중에 들어갔다면, 당의 다음 목표는 지금의 서울 한강 유역이 되기 때문이다. ㉔에서 문무왕이 사죄사를 파견하고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박함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살펴본 675년 2월 칠중성 전투 이후 전쟁은 한 동안 소강상태였다가 675년 9월에 재개되는데, 675년 9월 전투의 기록을 『자치통감』을 비롯한 중국 사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의 경우와는 반대, 즉 당의 패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675년 9월 전투의 실상은 I, 즉 『삼국사기』를 통해서만 추정해야 한다.

〈표 4〉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675년 9월의 나당전쟁 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매소성 전투의 실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표 4〉에서 제시된 각 전투들이 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하나의 큰 전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를 개별 전투인 ‘매소성 전투’와 구별하기 위해 ‘매소성 전역(戰役)³⁶⁾’이라는 용어를

36) 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鬥」, 『新羅文化』 29,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2007, 118쪽; 앞의 책, 2012, 223쪽. ‘매소성 전역’은 이상훈이 제시한 용어를 필자가 수용한 것이다. 그 이유는 매소성 전투 전후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표 4〉 『삼국사기』 수록 675년 9월의 나당전쟁 관련 기사 정리

시기 (음력)	전투 장소	위치 비정 (현재 행정구역)	당군 구성	승리	패배	순서	
675년 9월	천성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설인귀 함대	신라	당	1	
	당군 1천4백 명 참수 / 병선 40척 · 전마 1천 필 획득						
675년 9월 29일	매소성	경기도 양주시 양주1동	이근행 부대	신라	당	2	
	전마 30,380 필 및 이에 상응하는 병장기 획득						
675년 9월 29일 이후	당에 사신 파견 및 공물(= 특산물) 진상					3	
	안북하를 따라 관 · 성 설치 / 철관성 축조					4	
	아달성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	말갈	당	신라	5	
	칠중성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당병 거란 · 말갈	신라	당	6	
	적목성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	말갈	당	신라	7	
	석현성	미상	당병	당	신라	8	
	?	?	당병				
	18전 전승 (당군 6,047명 참수 / 전마 2백 필 획득)				신라	당	9

먼저 675년 9월 천성 전투는 지금의 파주 오두산성 일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라군이 승리하면서 병선 40척을 획득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전(河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군 1천4백 명의 목을 베었고 설인귀가 포위를 풀고 도망가자

있었던 전투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에 있다. 그러나 이상훈과 필자는 차이가 있다. 이상훈은 675년 9월 천성 전투부터 676년 7월 도림성(道臨城) 전투까지를 매소성 전역의 범위로 규정한 반면, 필자는 매소성 전투를 포함하여 675년 9월에 벌어진 전투만을 매소성 전역의 범위로 보았다. 필자가 이상훈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차이를 둔 까닭은 다른 전투들과 달리 지금의 강원도 통천 일대로 추정되는 도림성 전투의 경우, 매소성 전투로부터 발생 시점과 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벌어졌던 아달성 · 적목성 전투와는 공격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격 주체가 아달성 · 적목성 전투는 말갈이고 도림성 전투는 당병이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도림성 전투를 매소성 전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마 1천 필을 얻었다는 내용에서 육전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사자나 전리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천성 전투는 대규모의 병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675년 2월 칠중성 전투에서 패배한 신라가 천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 전쟁 준비를 매우 잘하였음도 엿볼 수 있다.

천성 전투가 끝나자 곧바로 매소성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매소성에는 당의 이근행 부대가 675년 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주둔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보급이 큰 문제였을 것임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천성 전투에서 당군이 패하고 매소성이 신라군의 공격을 받자 이근행 부대는 즉시 후퇴하였다는 점에서 천성 전투에 투입된 당의 대규모 함대에는 전투선단 이외에 보급선단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⁷⁾ 사료에 보급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보급 목적의 군사적 활동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가 걸림돌이 된다.

또한 보급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하역 장소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투선단이 먼저 앞장을 서고 보급선단은 뒤에서 거리를 두고 따르다가 전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하역을 하거나 아니면 차선책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군의 영역에 하역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설계하게 된다. 그러면 매소성 전투 이후 이근행 부대는 어떻게 보급 문제를 해결하였을까? 최소한의 필요 장비만 휴대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린 다음, 후방의 보급 기지로 이동하여 보급 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이다.³⁸⁾

37) 신라가 획득했다는 1천 필의 말이 물에 빠져 죽거나 다친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기병의 활용 목적과 보급 목적을 모두 상정할 수 있다.

38) 심사과정에서 안동진무대사 이근행은 당의 장수로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하며 매소성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전쟁수행능력을 보여주었는데, 단 순히 보급 문제 해결을 위해 3만 필의 말을 남겨둔 채 많은 병력의 군사를 거느리고 후퇴하였다고 보는 것은 많은 전쟁 경험을 지닌 당군의

후방의 보급기지는 지리적인 면을 감안하면 칠중성 앞 적성 가여울 건너편부터 예성강 하구 사이, 즉 지금의 개성(開城)직할시 일대 또는 경기도 개풍군(開豐郡) 일대로 추정된다.³⁹⁾ 이 경우가 아니라면 안동 도호부(安東都護府)가 있었던 평양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근행 부대는 보급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매소성을 포기하였고 더 북쪽에 있는 칠중성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매소성 전투 직후 곧바로 당병·거란·말갈이 칠중성을 둘러싸고 공격하였다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신라는 천성 전투와 매소성 전투에서 이기고도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료로 인하여 알 수가 없다.

한편, 이와는 달리 신라는 안북하를 따라 관과 성을 설치하였고, 철관성을 쌓았다. 안북하는 뒤에 등장하는 석현성과 함께 『삼국사기』에서 편찬 당시인 고려시대에도 어디인지 알 수 없던 곳⁴⁰⁾으로 분류했는데, 한자의 뜻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탄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준을 저평가하고 민족사적 관점에서 승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근행은 한반도 및 토번 전선에서 큰 활약을 하였던 당의 말갈 출신 번장(蕃將)이다. 따라서 많은 전쟁 경험을 지닌 이근행의 당군이 3만 필의 말을 남겨둔 채 후퇴한 것은,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그만큼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 듯하다. 절대 이근행의 당군을 저평가한 것이 아니다. 중국 사서들을 확인해 보면 매소성 전투 이후 이근행은 별다른 처벌 없이 토번 전선에 투입되고 있는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 매소성에 남겨둔 말 3만 필은 정말 쓸모가 없어진 경우로 이는 중대한 문책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버려진 말들은 소모품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필자는 앞서 매소성 전투를 수적 열세에 있던 신라군이 수적 우세에 있던 매소성 주둔 당군을 획기적인 전략·전술로 공격하여 승리한 것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은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한 결정적 원인을 당의 후퇴로 본 것인데, 이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승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기에 는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39) 이는 당의 보급선단이 보급품을 하역했던 장소를 예성강 하구로 본 것이다.

40) 『三國史記』 권37, 「雜志」 6, 地理4, 三國有名未詳地分 조.

보인다. 매소성 전투 바로 다음에 벌어진 아달성 전투와 적목성 전투가 강원도 북부에서 발생한 전투라는 점을 볼 때, 안북하가 한탄강일 가능성은 더욱 높다.

이제 그 다음 상황을 살펴보자. 매소성 전투 이후 후방으로 이동하였던 당의 이근행 부대는 보급 문제가 해결되자 당시 신라 북쪽의 최전방 기지가 된 칠중성을 공격하였고, 칠중성 공격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자 부대를 나누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매소성 전투가 벌어진 675년 9월 29일은 양력으로 675년 10월 23일이고, 경기도 북부지역은 전반적으로 날씨가 막 추워지기 시작할 무렵임을 감안할 때, 말갈은 자신들의 본거지인 함경도 지역으로 철수하면서 강원도 북부지역에 있는 아달성과 적목성을 공격하였고, 당병은 석현성⁴¹⁾ 일대를 공격한 뒤 철수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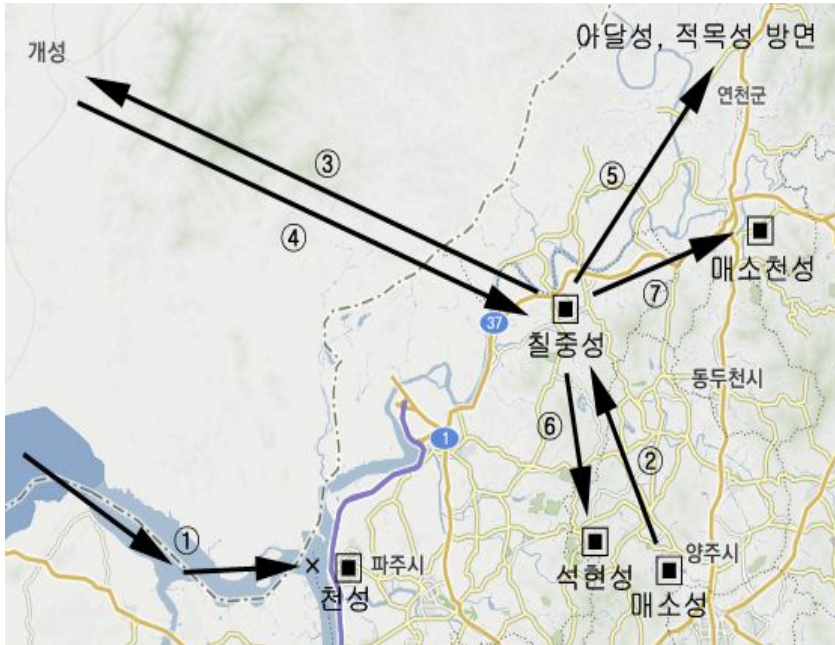
이러한 매소성 전역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석현성 전투 다음에 당병과 18번을 싸워 신라가 모두 이겼으며, 당군 6,047명을 척살하고 전마 2백 필을 획득했다는 내용이다. 석현성 전투 이후이며 말갈이 아닌 당병과 싸웠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경기도 북부에서 벌어진 전투로 추정된다. 필자는 앞에서 매소성 전투와 매소천성 전투는 동일한 전투가 아닌 것으로 보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원술이 참전한 매소천성 전투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원술의 행적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아무래도 전장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⁴²⁾

41) 석현성의 위치가 지금의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양주시 장흥면에는 석현리와 석현천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이상훈, 앞의 논문, 2007, 111쪽; 앞의 책, 2012, 217쪽)는 이상훈의 지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2) 앞서 전개된 아달성·적목성·석현성 전투는 신라가 패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지방관들이 있어 그 이름을 기록에 남겼다. 그렇지만, 원술은 화랑(花郎)이자 김유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사해야 할 전투에서는 죽지 못하였으며, 이후에 공을 세우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전장에서 죽지 않은 채로 살다가 삶을 마감하였다. 따라서 당대의 신라인들 또는 후대의 고려인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였기에, 전사자와

이상에서 매소성 전투의 실상, 나아가 매소성 전역의 실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지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 675년 9월 매소성 전역 당시 당군의 이동 경로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국내 학계에서 평가받아온 매소성 전투의 실상을 복원해 보고자는 취지에서 675년의 나당전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매소성의 위치 비정을 시도하였다.

전리품의 수치만 기록되고 원술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소성의 위치 비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매소성과 매소천성을 동일 장소로 전제하였는데, 필자는 매소성 전투와 매소천성 전투의 경우 공성 주체 및 수성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같은 전투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매소성과 매소천성은 다른 장소라고 판단하였으며, 매소성은 양주 대모산성이고 매소천성은 연천 대전리 산성이라고 비정하였다.

한편, 필자는 한중 사서에 실린 매소성 전투 관련 기사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편찬 주체의 입장에 따라 같은 전투라고 해도 의도적으로 글자를 누락시켜 의미를 축소·은폐하거나 아예 기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소성 전투를 포함한 675년의 나당전쟁에 대해 신라가 패배한 2월의 칠중성 전투와 신라가 승리한 9월의 매소성 전투 및 그 이후의 매소천성 전투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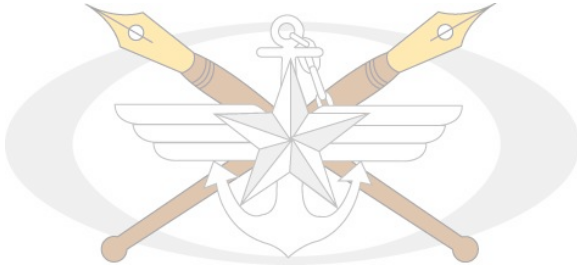
끝으로 매소성 전투의 역사적 의미는 교전 없이 전과를 얻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앞서 벌어진 천성 전투에서 사력을 다한 신라군의 활약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한국전쟁사의 관점에서 보면 제1차 거란 침입에서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되었던 서희의 외교담판과 비교해볼 경우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나당전쟁은 신라와 당의 의지 및 선택이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반영되어 나타난 역사적 사실로, 신라와 당 이외에 고구려와 백제 유민·거란·말갈·토번·발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 전역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매소성 전투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나당전쟁 종료의 초석(礎石)이 되었고, 신라의 삼국통일과 함께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부여에는 매소성 전투 역시 신라와 당의 의지 및 선택이 반영되었고, 거란과 말갈도 참전하였으며, 고구려·

백제 유민도 참전한 경우가 있었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4.3.5, 심사수정일 : 2014.5.14, 게재확정일 : 2014.5.20)

주제어 : 매소성, 매소성 전투, 매소성 전역(戰役), 매소천성, 매소천성 전투,
원술(元述), 양주 대모산성, 연천 대전리 산성, 나당전쟁, 보급



<ABSTRACT>

A Study on the Location and the Actuality of the Maeso Fortress Battle

Kim, Byoung-Hee

The Maeso Fortress Battle(買肖城 戰鬪) has been known as the representative engagement during the war Period between Silla and T'ang(羅唐戰爭) and it led to the end of the war eventually because Silla(新羅) gave decisive damage against T'ang(唐). According to the theory of few referential theses, the theory of Taejon-village Mountain Fortress in Yonchon(漣川 大田里 山城) and the theory of Daemo Mountain Fortress in Yang-Ju(楊州 大母山城) has been considered as the most persuasive points of view generally, which are based on the same premise that The Maeso Fortress(買肖城) and The Maesochun Fortress(買蘇川城) are the identical location. Following hypotheses are set in the process of studying the premise after researching the reference articles in 『SamGuk-SaGi(三國史記)』 and archaeological cases, the expeditionary force's supplying issues after the post-harvest season, changes of the name of the region and etc.

I concluded that the Maeso Fortress and the Maesochun Fortress are not the identical name of the location and the Maeso Fortress is the Daemo Mountain Fortress in Yang-Ju and the Maesochun Fortress is the Taejon-village Mountain Fortress in Yonchon.

The process of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including The Maeso Fortress Battle in 675 could be summarized with overall analyses of articles related to the war in 675 on 『SamGuk-SaGi』 and 『JaChee-TongGam(資治通鑑)』.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in 675 is divided into two phases,

the Chiljung Fortress Battle in Feb and the campaign(戰役) of Maeso Fortress in Sep. Silla was defeated in the first phase. However, Silla prepared well for the next phase. During The Cheon Fortress Battle(泉城戰鬪), Silla defeated the T'ang's fleet led by general Xue Ren-gui(薛仁貴) who had intended to conduct a landing operation and a supply mission for the troop of general Li Jin-xing(李謹行), which forced General Li Jin-xing to retreat. General Li Jin-xing rearranged his troops with T'ang's regular army and T'ang's barbarian forces and then he conducted several battles in northern part of the present Kyunggi-do(京畿道) and Kangwon-do(江原道). In spite of a certain outcome, they had to fall back due to the cold weather ending the campaign of Maeso Fortress. It seems The Maesochun Fortress Battle(買蘇川城 戰鬪)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and Wonsul(元述) took an main role in the battle.

This study focused on the Maeso Fortress Battle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battles during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in 675. The Maeso Fortress Battle had a great effect on contributing to finish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and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The Maeso Fortress Battle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great victory in Korean war history in that there had not been engagement, which could be compared with general SeoHee(徐熙)'s negotiation with the Kitan(契丹).

Key Words : The Maeso Fortress, The Maeso Fortress Battle,
The Warfare of Maeso Fortress, The Maesochun Fortress,
The Maesochun Fortress Battle, Wonsul,
The Daemo Mountain Fortress in Yang-Ju
The Taejon-village Mountain Fortress in Yonchon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supplies

고려 성종대 거란의 침략과 군사제도 개편

전 경 숙*

1. 머리말
2. 성종 전반기 군사제도의 정비
 - 가. 북계의 확정과 방어책
 - 나. 군조직의 정비
3. 거란의 침략과 군사제도의 개편
 - 가. 거란의 침략과 고려의 대응
 - 나. 거란 침략 이후의 군사제도 개편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 성종대는 후삼국을 통일한 후 펼친 중앙집권 정책이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기틀이 정착된 시기라고 평가된다. 군사제도 정비에 있어서도 고려 성종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기간에 걸친 통일 전쟁을 거친 고려에서 군사제도의 정비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성종 초반에 이르기까지 군사제도

*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중세고고학팀 책임연구원

정비의 목표는 통일전쟁에 참여하면서 기반을 확대한 호족들의 군사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왕권 아래 편입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각 지방의 군사적 기반 축소와 그를 통한 왕권 강화라는 군사정비의 목표는 거란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수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방의 군사적 기반 축소와 외적 방어에 안정적인 군사기반 마련이라는 두 축의 효율적인 균형을 추구해야 했을 것이다.

이렇듯 성종대는 고려전기 군사제도 정비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도를 추진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만을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성종대 군사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2군 6위의 중앙군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그들이 수행했던 군역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다.¹⁾ 최근 이민족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성종대 거란 침입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대의 배치·이동로, 그리고 전투지역 등을 지리적인 여건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고려의 전략이나 전술을 밝혀져²⁾ 고려시대 전쟁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고려 중앙군인 2군 6위에 대한 구체적인

-
- 1) 강진철, 「고려초기의 군인전」,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 1963; 이기백,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장동익, 「고려전기의 選軍-京軍 구성의 이해를 위한 一試論」,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1986; 마종락, 「고려시대의 군인과 군인전」, 『백산학보』 36, 1990; 오영선, 「고려전기 군인층의 구성과 衛宿軍의 성격」, 『한국사론』 28, 서울대, 1992; 정경현, 『고려전기 二軍六衛制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이혜옥, 「고려전기의 군역제」, 『국사관논총』 46, 1993; 홍승기, 「고려초기 경군의 이원적 구성론에 대하여」, 『李基白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일조각, 1994; 권영국, 『고려후기 군사제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이인철, 「고려전기의 軍人田」, 『군사』 30, 1995; 권영국, 「고려전기 군역제의 성격과 운영」, 『국사관논총』 87, 1999; 홍원기, 『고려전기 군제연구』, 혜안, 2001; 김중수, 「고려시기 府兵制 운영과 그 원칙」, 『역사교육』 73, 2001.
- 2) 안주섭,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2003; 임용한, 『전쟁과 역사』 2·3, 혜안, 2004·2008; 군사편찬연구소, 『고려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정해은, 『고려, 북진을 꿈꾸다』, 플래닛미디어, 2009.

검토없이 성종대 이미 2군6위제가 완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거란 1차 침입의 목적이 실질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서희의 강동6주 획득을 외교의 성과로 부각한 연구들도 성종대 군사제도 정비의 모습을 검토하는데 한계를 준다.³⁾ 또한 소손녕이 고려와 화의를 맺고 철군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란이 원거리 전쟁에서 장기간 전쟁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파악하여⁴⁾, 원인을 찾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고려 군사력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다. 즉 고려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라는 견해⁵⁾와 그와는 정반대로 고려의 군사력이 거란과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다는 견해⁶⁾가 그것인데, 이들

-
- 3) 이정신, 「강동6주와 윤관의 9성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군사』 48, 2003; 박현모, 「서희의 협상리더십 연구」, 『국제정치논총』 49, 2009; 신복룡·박현모, 『고려 실용외교의 중심 서희』, 서해문집, 2010; 박상현, 「전략적 사고의 관점에서 본 서희의 강동6주 협상」, 『한국정치학회보』 44, 한국정치학회, 2010.
- 4) 金渭顯은 소손녕이 화의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 고려에 대군이 장기간 주둔하거나 깊숙이 진군했다가는 여진과 가까이 지내오던 고려가 그들과 연결하여 압록강 유역을 차단할 경우와 송과 연결하여 송이 복진할 경우를 고려, 2. 만약 80만 대군이 참전하였다면 그들의 군사습관상 打草谷이 불가능하며 당장 인마의 양곡과 먹이가 문제, 3. 산악과 강에서 싸워본 경험이 적은 거란군이 전쟁 수행에 어려움, 4. 고려 침공군 중에는 상당수가 동경도관내의 주민일 것이므로 이들은 본래 발해의 유민 또는 여진계 주민일 것. 따라서 이들이 전쟁 중 고려에 투기하거나 밀모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서희의 외교』,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1999, 119~120쪽).
- 5) 羅鐘宇는 서희의 담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소손녕이 서희의 강직하고 당당한 인품에 빠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또한 서희가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반박을 했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을 것이며, 그것은 고려의 군사력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고려의 군사들은 우수한 무기, 잘 훈련된 상비군으로 거란의 군대보다 우수했다고 하였다. 이런 점은 거란이 봉산성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양국관계를 해결한 생각이 없었던 행동을 취한 데서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거란의 침구 목적 중 중요한 한 가지가 고려와 거란과의 정상적인 국교수립 때문이었다고 하였다(『10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와 거란관계』, 『군사』 46, 2002, 221~222쪽). 나종우는 서희의 담판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고려의 우수한 군사력을 들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제시 없이 소손녕의 군대가 서희와의 담판으로 물러난 상황을 통해 유추할 뿐이다.
- 6) 임용환은 ‘성종이 친정을 시도한 것은 당시 고려의 주력에서 시위군 내지는 친위

연구 역시 성종대 군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핀 결과는 아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성종대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군사제도 정비의 모습과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종의 국가체제 정비에는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면 그 중 군사제도 정비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 군사제도 정비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거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 성종 전반기의 군사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었는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성종 전반기에 마련한 군사제도가 거란과의 전쟁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마무리된 후 군사제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성종 전반기 군사제도의 정비

982년(성종 원년)에 올린 최승로의 상서는 성종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⁷⁾ 따라서 최승로의 상서를

군의 비중이 높았거나 군대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중앙군과 시위군까지 동원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였다(『군사전략에서 본 ‘서희 외교’』, 『고려 실용외교의 중심 서희』, 서해문집, 2010, 177쪽).

- 7) 김철준, 「최승로의 시무이십팔조」, 『조명기박사화갑기념불교사학논총』, 1965; 이기백, 「귀족적 정치기구의 성립」,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이기백 외, 『최승로상서문연구』, 일조각, 1993; 하현강, 「고려초기 최승로의 정치사상연구」, 『이대사원』 12, 1975; 조남국, 「최승로의 시무관과 유불관」, 『유승국박사화갑기념논문집 동방사상논고』, 1983; 김호동, 「최은함-승로 가문에 관한 연구」, 『교남사학』 2, 1986; 이재운, 「최승로의 정치사상」, 『선운사학』 3, 1989; 김복순, 「최치원과 최승로」, 『경주사학』 11, 1992; 김갑동, 「고려 귀족사회의 성립」,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석근, 「‘훈요십조’와 ‘시무이십팔조’」, 『아세아연구』 42-1, 고려대, 1999; 홍승기, 「최승로의 유교주의사학론」, 『진단학보』 92, 2001; 최인표, 「고려 성종의 유교정치이념 채택과 역사적 의의」, 『국학연구』 5, 2004; 정성식, 「崔承老의 儒佛觀 탐구 : 「시무(時務) 28조」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26, 2009.

통해서 성종 이전의 군사제도 정비의 모습과 성종대 군사제도 정비의 방향을 짐작해보고자 한다.

시무 28조 가운데 남아 있는 22조 중 군사제도와 관련 있는 내용은 세 조항으로, 다음과 같다.⁸⁾

1조 - 우리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47년이 되었는데 사졸이 아직까지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군량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서북지방이 미개 종족들과 접경되어 경비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馬歇灘을 국경으로 삼은 것은 태조의 뜻이요, 압록강가의 石城을 국경을 삼자는 것은 大朝에서 정한 바입니다. 앞으로 두 곳을 전하께서 판단하시어 요해처를 선택하여 국토의 경계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土人 중에서 말 달리고 활 쏠 줄 아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경비에 충당하고, 또 그들 중에서 2~3명의 偏將을 선출하여 통솔시키면 경군들은 교대 경비하는 고생을 면할 수 있으며, 사료와 군량을 시급하게 운반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⁹⁾

3조 - 우리 조정의 시위 군졸들은 태조시대에는 다만 궁성에서 숙위하는 일에만 충당되어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광종 때에 와서 참소를 믿고 장군들과 재상들을 책벌하였으며, 의혹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서 군졸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와 군에서 풍채 좋은 자들을 선발하여 입시하게 하고, 이들을 모두 內廐에서 먹였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것을 번잡하기만 하고 이로온 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종 때에 와서 비록 약간 감원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그 수가 많으니 바라건대 태조 때의 법을 준수하시어 단지 용감한 자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돌려보내신다면 원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요, 나라에는 저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¹⁰⁾

8)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전.

9) 「我國家，統三以來四十七年，士卒未得安枕，糧餉未免糜費者，以西北隣於戎狄，而防戍之所多也。願聖上以此爲念。夫以馬歇灘爲界，太祖之志也，鴨江邊石城爲界，大朝之所定也。乞將此兩處，斷於宸衷，擇要害，以定疆域。選土人能射御者，充其防戍，又選其中二三偏將，以統領之，則京軍免更戍之勞，芻粟省飛挽之費矣。」

10) 「我朝侍衛軍卒，在太祖時，但充宿衛宮城，其數不多。及光宗信讒，誅責將相，自生疑

15조 - 태조께서는 궁중에 소속된 內屬 노비를 제외하고는 교외에 나가 살면서 토지를 갈아 세금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광종 때에 이르러 불교 행사를 많이 일으켜 부역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 밖에서 살던 노비들까지 불러들여 부역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에 내궁의 비용으로는 경비 지급이 부족하여 창고의 미곡까지 소비하게 되었는데, 이 폐단이 전하의 시대에 와서도 오히려 없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內廐에서 기르는 말의 수가 많아 그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 백성들이 그 해를 입고 있습니다. 만약 국경에 사변이 일어난다면 군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것이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오직 태조의 제도에 의하여 궁중의 노비와 廐馬의 수를 적절히 제한하시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외방으로 보내십시오.¹¹⁾

1조는 북계의 확정과 방어책에 관한 것이고, 3조는 시위군졸의 정예화를 위한 축소에 관한 것, 15조는 궁중의 노비와 廐馬를 작정하여 군량을 원활하게 공급하자는 내용이다. 즉 최승로는 성종이 해결해야 할 군사문제로 국경의 확정과 강화, 군대의 정예화를 들고 있다. 최승로가 제시한 성종대 군제개혁의 방안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군비의 축소와 그를 통한 국가 재정의 확보, 나아가 왕권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군사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국경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예병을 중심으로 군액을 재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惑, 增益軍數. 簡選州郡有風彩者入侍, 皆食內廚. 時議以爲繁而無益. 至景宗朝, 雖稍減削, 泊于今時, 其數尚多. 伏望遵太祖之法, 但留驍勇者, 餘悉罷遣, 則人無嗟怨, 國有儲積。」

11) 「太祖除內屬奴婢, 在宮供役外, 出居外郊, 耕田納稅. 至光宗, 多作佛事, 役使日繁, 乃徵在外奴婢, 以充役使. 內宮之分, 不足支給, 并費倉米, 及乎聖朝, 弊猶未除. 且內廐養馬數多, 糜費甚廣, 民受其害. 如有邊患, 糧餉不周, 願聖上一依太祖之制, 酌定宮中奴婢廐馬之數, 餘悉分遣於外。」

가. 북계의 확정과 방어책

최승로가 기록한 고려의 북계는 태조가 정한 마혈탄과 대조가 정한 압록강가의 석성이다. 현재까지 마혈탄과 압록강가의 석성의 위치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승로가 상소문을 올린 982년에는 북계에 대한 2가지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영토획정의 주체인 大朝가 누구를 지칭하는가인데, 고려의 임금인 광종¹²⁾이나 경종¹³⁾, 성종¹⁴⁾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송이나 거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⁵⁾ 그러나 고려의 영역을 정하는 주체를 중국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성종 원년에 제출한 상서문이라면 압록강가의 석성은 성종대 이전에 생긴 북계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종이 북계를 확정했다면 성종이 추진한 북방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성종대 서북지역에서의 축성사례는 성종 2년 樹德鎮, 동계지역에서는 성종 3년 文州가 유일하다.¹⁶⁾ 성종 3년에는 압록강 강안에 관성을 쌓아 여진과 거란의 동태에 대비하려 했다. 그 책임자로 형관어사 李謙直를 파견할 만큼 적극적이었지만 이 시도는 여진의 방해로 이점의가 납치되면서¹⁷⁾ 실패하였다. 성종 10년에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축출한 사례가¹⁸⁾ 보이기 전까지 정확히 성종대의 북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없다. 그러나 태조~경종대까지 축성한 사례를

12) 허인욱, 『고려 거란의 압록강 지역 영토 분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0쪽.

13) 이정신, 「태조의 대건란 정책과 고려 건국이념의 형성」,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2004, 44쪽.

14) 이기백 외, 『최승로 상서문연구』, 일조각, 1993, 79~80쪽; 신안식, 「고려전기의 북방정책과 성곽체제」, 『역사교육』 89, 2004, 77쪽.

15) 최규성, 「고려초기의 북방영토와 구성의 위치비정」, 『백산학보』 76, 2006, 557쪽.

16) 『고려사』 권58, 地理3 북계 수덕진; 같은 책, 동계 문주.

17) 『고려사』 권3, 성종 3년.

18) 『고려사』 권3, 성종 10년 10월.

통해 추측하자면 압록강가까지 북계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그렇다면 마혈탄은 어디인가.¹⁹⁾ 청천강가가 아닐까 생각된다.

태조 이후 호족 세력의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북진정책’의 중요성이 많이 약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거란이 침입했을 때 성종이 군사를 파견한 북계는 청천강을 사이에 둔 귀주와 안주였으며, 성종 또한 후발대를 이끌고 안주에 둔을 치고 있었다.²⁰⁾ 고려군이 봉산전투에서 거란에서 패배하자 割地論이 대두했을 때 떼어주자는 땅은 서경 이북이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성종이 국경으로 삼은 것은 청천강가가 아닐까 한다.

북계를 확정된 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최승로는 高昌國을 당의 州縣으로 삼는 문제에 대한 일화를 들어²¹⁾ 토인을 선발하여 방수하는 일에 충원하면 경군이 교대로 방수하는 노고를 덜어줄 것이고, 芻粟을 나르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²⁾

이후 諸州鎭에 鎭頭를 대신하여 외관이 본격적으로 파견되었다. 성종 5년(986)에는 청천강 유역과 평안남도의 주요 군사지역인 안북대도호부, 順州, 渭州, 殷州, 肅州, 慈州 등지에 방어사가 파견되기 시작했다. 이어 성종 8년(989)에는 동서북면의 병마사가 신설

19) 마혈탄의 위치에 대해 청천강으로 보는 견해(이병도, 『한국사』 중세편, 1961, 58쪽; 강성문, 「고려초기의 북계개척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27, 1983; 서성호, 「고려 태조대 대거란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 1997, 36쪽), 압록강 중류의 楚山, 江界 방면으로 보는 견해(김상기, 「단구와의 항쟁」, 『국사상의 제문제』, 1959), 鴨綠江岸으로 보는 견해(박현서, 「북방민족과의 항쟁」, 『한국사』 4, 1974, 258쪽; 허인옥, 『고려 거란의 압록강 지역 영토 분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평양부 동쪽 40리에 있는 마탄으로 비정하는 연구(김순자, 「고려 전기의 영토 인식 - 서희와 성종대를 중심으로」, 『고려 실용외교의 중심 서희』, 서해문집, 2010, 129쪽) 등이 있다.

20) 『고려사』 권3, 성종 12년 10월, 윤 10월.

21) 『정관정요』 권9, 安邊 第36 부분을 살펴보면 ‘당 태종은 고창국 정벌 이후 西州를 설치하는 內地化 정책을 단행하였지만 결국 서돌궐이 서주를 침범하면서 당의 내지화 정책은 실패하였다. 이때 褚遂良은 당의 직접 통치를 반대하면서 변방 방위를 위해 매년 천여 명의 병사를 파견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22)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되었다.²³⁾ 운영방식으로 開定軍을 비롯한 중앙군 중심의 방수체제에서 현지인을 활용하는 방수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었다. 지역주민과 토병을 동원한 현지 방어체제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현지인을 활용하는 방수체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⁴⁾ 즉 거란이 침략할 때 안용진에서 중랑장 대도수와 낭장 유방이 성안의 주민들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공격해 거란의 침략 속도를 늦추는 등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나. 군조직의 정비

시무28조 중 3조에는 시위군의 축소에 관해 건의하고 있다. 태조 때의 시위군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광종때에 와서 크게 증가되어 나라의 살림을 축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군사의 정예화와 나라의 재정을 위해 시위군의 감액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성종 전반기에 추진된 시위군 정비에 관한 내용이다.

- 가)－① (성종 3년) 이 해에 처음으로 군인들의 복색을 제정했다(『고려사』 권3, 성종 3년).²⁵⁾
- ② (성종 7년 10월) 이 해 정월에 송나라 황제가 적전(籍田)을 친히 경작해 모범을 보인 후 대사면령을 내렸으며 연호를 단공(端拱)으로 바꾸고 전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각종 은전을 내렸다. 그리고

23) 『고려사절요』 권2, 성종 8년 3월.

24) 지역주민과 토병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제에 대해 구산우는 ‘경군의 방수역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발상에만 너무 경도된 것이어서, 당시 거란의 동태를 고려할 때 매우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며, 이 지역으로 침공한 거란에 의해 고려가 유린됨으로써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였다(『고려 성종대 대외관계의 전개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78, 1992, 38쪽). 이정신 역시 ‘최승로가 국내의 안정, 유교사회의 구현에 관심을 두었을 뿐 거란의 대두로 야기될 수 있는 국토분쟁이나 전쟁 위험성에는 무관심했던’ 방책으로 판단하여(『江東6州와 尹權의 9城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군사』 48, 2003, 284쪽), 최승로의 국경방어책에 대해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25) 「是歲, 始定軍人服色」.

여단(呂端) 등을 사신으로 보내 왕을 책봉하고 또 사면하는 뜻을 알렸다. 왕은 책명을 받자 교수형 이하의 죄수들을 사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문반으로서 오래 재직한 관리들은 복색을 상급의 것으로 고쳐 입게 하고, 무반으로서 나이가 많고 자손이 없는 관리들과 계묘년 이후 군적에 등록된 군인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양반도 은전을 입게 했다(위의 책).²⁶⁾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용감한 자들로 시위군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다른 군인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984년(성종 3) 군인 복색을 제정하였다(가)-①). 그리고 988년(성종 7)에는 송나라의 책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은전을 베풀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군적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가)-②).

계묘년은 해중 즉위년(943)이다. 계묘년 이후에 군적에 오른 대부분은 광종이 호족숙청을 위해 군사적 기반을 확대할 때 무리하게 군적에 오르게 된 군역담당 부적합자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왕권이 안정되고 전국적인 균역이 파악되면서 군사조직의 정예화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군적에 오를 군인들은 균역의 부과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적 대우가 보장되었던 만큼 국가의 입장에서는 군사조직의 정예화를 통해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예화된 시위군의 번상과 입역을 위해 좌우군영을 설치하였다.²⁷⁾

그렇다면 시위군의 번상과 입역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성종은 983년(성종 2)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²⁸⁾, 주·부·군·현의 향직을 개편하여²⁹⁾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驛長의 규모도 정비

26) 「是年正月，宋帝親耕籍田大赦，改元端拱，百官內外並加恩。遂遣端等來，冊王，仍諭赦旨。王既受冊，赦絞罪以下。文班從仕年深者改服，武班年老無子孫，自癸卯年錄軍籍者，皆放還鄉里，兩班並加恩。」

27) 『고려사』 권81, 병1 병제 성종 9년 10월.

28) 『고려사』 권3, 성종 2년 2월 무자.

29) 『고려사』 권75, 선거3 銓注 鄉職 성종 2년.

하여³⁰⁾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였다. 군사제도의 정비와 관련해서 절충부가 주목된다. 좌우군영을 설치하기 한 달 전인 성종 9년(990) 9월 병자일에 효를 장려하기 위해 내린 조서에 기록된 折衝府別將 趙英³¹⁾을 통해 성종이 절충부를 설치,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군제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본래 西魏 大統 16년(550)에 재상 宇文泰에 의해서 시행된 병농일치의 군사제도이다. 鮮卑族 왕조였던 서위가 수적으로 적은 선비족만으로는 필요한 병사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 漢人들로부터 병사를 징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부병제로, 이것은 北周를 거쳐 당나라 때 완비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당은 지방에 절충부를 설치하여 부병의 선발과 훈련, 번상과 동원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절충부의 부병은 21~59세의 丁男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3丁 가운데 1정을 뽑았다.³²⁾

절충부에 소속된 부병은 경사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상변하여 숙위를 담당하였다. 거리상 경사 500리 안에 있는 절충부 소속 부병은 5番, 1,000리 안에 있는 부병은 7번, 1,500리 안에 있는 경우에는 8번으로 나누어 숙위를 하게 되었다. 5·7·8번의 숫자는 1개 절충부의 병력을 그만큼의 수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상변 숙위하는 기간은 평균 1개월에 해당되었다.³³⁾ 절충부는 모두 중앙의 제위 또는 諸率府에 분속되었으며 일반 민정을 관할하는 지방관청과는 통속관계가 없었다. 절충부에서는 매년 부병의 장적인 衛士帳을 작성하여 중앙의 병부에 보고하였다. 병부는 이에 의거하여 전국의 군액을 파악하고 동원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때

30) 『고려사』 권82, 병2 站驛, 성종 2년.

31) 『高麗史』 권3, 성종 9년 秋9월 丙子:「敎曰 凡理國家 必先務本務本莫過於孝 … 折衝府別將趙英葬母家園 朝夕祀之 … 趙英超十等 授銀青光祿大夫檢校侍御司憲 左武侯衛翊府郎將」.

32) 『新唐書』 권50, 志40 兵.

33) 김택민 주편, 『역주 唐六典』 尙書兵部, 신서원, 2003.

절충부에서 번상병사의 명부, 防人의 명부, 재부자의 교습부, 매년 고과부 등의 문서 작성은 長史, 兵曹參軍事, 錄事 등이 담당하였다.³⁴⁾ 즉 절충부란 그와 같은 부병의 간점을 주관하고, 간점을 통해 군적에 등재된 부병을 관리, 훈련하며 중앙 12衛 및 兵部의 發兵 명령에 응하여 일정수의 소속 부병을 調遣·징발하는 일을 맡은 군사행정기관이자 부병제의 기본조직 단위였다.³⁵⁾

성종대에는 중앙의 정치제도를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제도를 수용했던 때이니만큼 절충부의 설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⁶⁾ 절충부가 구체적으로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34) 菊池英夫, 김선민 옮김, 「부병제도의 전개」, 『수당오대사』, 서경, 2005.

35) 金羨珉, 『出土文書를 통해 본 唐代의 府兵-西州地域을 中心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

36) 고려의 경우 당과 같은 절충부가 설치되었는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군반씩족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절충부의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원적 구성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설치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기백은 목종 전시과에 나타나는 절충도위나 과의가 고려 절충부의 존재를 시사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당의 그것처럼 부병의 번상을 담당한 지방군부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였다(「고려 군인고」,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1968, 100~102쪽). 즉 성종은 성종 14년 중앙으로부터 지방관을 대폭적으로 과건하고 6위를 정비하여 부병제를 완성하고자 했지만 결국 계획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목종 8년에 행해진 지방관의 대폭적인 감축이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종대에는 이미 절충부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하였고(「高麗 光軍考」 및 「高麗 지방제도의 정비와 州縣軍의 성립」, 앞의 책) 홍승기는 이 주장을 지지하였다(「고려초기 경군의 이원적 구성론에 대하여」,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상, 1994, 545~546쪽). 한편 이원적 구성론을 지지하는 홍원기는 당나라 부병제 원리에 입각하여 성립한 6위제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지방군부인 절충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성종9년에 보이는 절충부에 주목하고 6위가 완비되는 성종 14년경에는 실질적으로 번상을 담당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목종대 이후 절충부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부병제의 실시가 실패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부병의 번상을 관장하는 기관이 선군사로 바뀌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6위의 성립과 그 성격」, 『高麗前期軍制研究』, 해안, 2001, 94~95쪽). 권영국도 절충부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고려가 여러 중국의 제도를 수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쳐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군목도체제를 주장하였다. 즉 중국에 비해 영토나 인구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고려의 경우 일반 군현조직과 별개의 지방군부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절충부를 따로 설치하는 대신 기존의 지방 행정조직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없으나 성종 3년에 군인의 복색이 제정되고, 성종 7년에 새로운 군적이 작성되어 군액이 고정되는 그 사이로 추정된다.

성종대 단행된 일련의 군사개혁은 지방 호족세력들의 군사기반을 중앙으로 집중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12목이 설정되면서 조세 및 군역을 부과할 대상 지역이 정리되었고, 오부방리가 정해져서 수도 치안 범위가 설정되었다. 또한 절충부를 설치하여 농민번상을 담당하게 하였고, 좌우위가 설치되어 중앙군의 조직이 시작되는 단계였다.

이렇게 중앙군의 정비를 통해 중앙의 군사력을 강화해가는 동시에 송의 추밀원을 본받아 중추원을 설치하였다.³⁷⁾ 중추원을 설치한 시기와 과정 및 그 이유에 대하여 『고려사』 권76, 백관지1 밀직사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 왕명의 출납과 宿衛, 軍機에 관련되는 정무를 담당하였다. 성종 10년에 兵官侍郎 韓彥恭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宋의 樞密院은 곧 우리나라 直宿하는 員吏와 같은 직책을 맡은 관청입니다’라고 하자 이에 처음으로 中樞院을 설치하였다. 현종이 즉위하여 중추원과 銀臺南北院을 혁파하고 中臺省을 두어 三官의 주요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고, 使·副使·直中臺·兼直中臺가 있었다. (현종)2년에 中臺省을 혁파하고 다시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현종)14년에 중추원의 日直員을 左右承宣으로 임명하고, 그 아래 각각 副承宣을 두었는데 이는 副樞 이하가 겸하게 하였다(『高麗史』 권76, 百官1 密直司.).

형태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고, 그 결과 출현한 것이 일종의 군사도라고 할 수 있는 군목도체제라고 하였다(『고려전기 州縣軍의 동원과 지휘』, 『史學研究』 64, 2001, 34~35쪽).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 37) 중추원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변태섭, 「고려의 중추원」, 『진단학보』 41, 1976; 박용운, 「고려의 중추원 연구」, 『한국사연구』 12, 1976; 이정훈, 「고려전기 중추원의 설치와 職掌의 변화」, 『동방학지』 134, 2006; 전경숙, 「고려전기 군사기구 연구」, 2007; 권영국, 「고려전기 군정·군령기구의 정비」, 『역사와 현실』 73, 2009.

한언공은 성종 9년 12월 謝恩使로 송에 파견되었다가³⁸⁾, 성종 10년 4월 송 황제가 내린 대장경을 가지고 고려로 돌아왔고³⁹⁾, 6개월 뒤인 10월에 중추원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한언공이 사신으로 송나라에 간 성종 9년(990)은 송이 건국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로 추밀원은 軍政을 담당한 국가의 중요한 관부로 그 직능을 수행하고 있을 때였다.

고려 중추원제의 시범이 되었다는 송의 추밀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다) 軍國機務兵防邊備戎馬의 政令을 관장하고, 密命을 出納하여 邦治를 佐하고, 무릇 侍衛諸班職內外禁兵의 招募閱試遷補屯戍 상벌에 관련된 일을 모두 관장하며, 揭帖兵籍을 升擧廢置하여 調發 更戍가 있으면 사신을 파견하여 兵符를 내리고, 內侍省官 및 武選官將領·路分都監·緣邊都巡檢使 이상을 제수한다(『송사』 162, 직관지115 직관2 추밀원).

송의 추밀원은 軍國機務兵防邊備戎馬의 政令 및 密命의 出納을 기본으로 하고, 금위병의 관장, 내시관과 무관의 제수, 병적과 병부를 관장하는 등 兵政을 총괄하는 관부였다.

당말 지방세력이 중앙권력에 대항하는 권력의 분열적인 양상 속에서 출현한 宋은 군사제도를 정비의 주안점을 지방군을 약화시키고, 중앙군을 강화시키는 것에 두었다. 그리하여 금군을 중앙과 황제 직속 하에 두어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방군은 주둔군의 반란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주된 통제의 대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송의 군사제도는 사실상 철저한 황제의 통수 하에 편성·운영되었고, 최고지휘관이었던 都指揮使는 단지 부대의 지휘와 통제만을

38) 『高麗史』 권3, 성종 9년 12월 戊申.

39) 『高麗史』 권3, 성종 10년 4월 庚寅.

담당한 부대장에 불과하였다. 작전은 추밀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게 하였으며, 추밀원의 관리는 모두 문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지휘와 작전권을 분리시키는 이원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군사지휘체제의 특징은 ‘문으로써 무를 통제한다(以文制武)’는 ‘文’ 우위라 할 수 있다.⁴⁰⁾

한언공은 고려에 중추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송의 추밀원이 고려의 ‘直宿員吏’의職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直宿’에서 ‘直’은 주간에 守直하는 것을 말하고, ‘宿’은 야간에 숙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직숙원리는 왕명출납을 처리하기 위해 수직하는 문반 관료와 궁궐이나 궁성을 수비하는 군인들로 구성되며, 중추원은 이 두 계통을 모두 관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송나라에서 군사기구였던 중추원의 제도를 본받으면서 굳이 문만들만의 숙직기구로서 중추원을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추원 설치 이전에 왕명 출납을 담당한 관료로는 內議承旨舍人, 內承旨와 같은 승지직들이 있었다.⁴¹⁾ 따라서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또다시 문반을 중심으로 하는 왕명출납기구를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중추원은 무반들의 직숙을 담당한 기구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종대 이루어진 군제 개편의 핵심은 지방에 잔존해 있는 호족세력의 군사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려 중앙군에 대한 정비를 시작하면서 이들과 구분되어 왕과 직접 연결되는 시위군에 대한 정비도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설치한 것이 중추원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성종대 이후 전개된 거란과 여진의 잦은 침공으로 인하여 군사적 긴박감이 전개되고 있는 시국 속에서 속출하고 있는 다양한 군사적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일반적인

40) 白奇寅, 『宋-淸의 軍事制度』, 『中國軍事制度史』, 국방군사연구소, 1998, 147~148쪽.

41) 변태섭, 앞의 논문, 1976, 55쪽.

군정업무를 수행한 병부보다는 국왕 측근의 중추원을 핵심적 군사 기구로 부상시켜 업무의 분장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중추원 설치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기사가 군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입 때 중추부사 崔肅은 安宗에게 가숙을 이끌고 남방으로 피신하라는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⁴²⁾ 이때 비밀스런 군사 사안을 전달한 것이 바로 중추원 관원이며 아마 안종의 家屬들이 피신할 때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군사력도 파견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휘군관의 선정과 인솔병력의 규모를 책정하는 것도 중추원에서 담당하였을 것이다.⁴³⁾

최승로의 상소문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거란 침입이전의 군사 제도는 북방은 청천강가를 북계로 인식하고 현지인을 활용하는 방수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었다. 반면 중앙군의 경우 절충부를 설치하여 군대의 更戍제도를 정비하였고,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군액을 정리하여 정예군 위주의 중앙군 중심으로 정비하였다. 이들을 군적에 올려 관리하고, 군복을 통해 그 임무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군사적 정예화를 추구하였고 좌우군영을 설치하여 2군 6위의 중앙군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추원을 설치하여 시위군의 관리 및 軍機의 문제를 전문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42) 『朝鮮金石總覽』上 玄化寺碑, 242쪽.「癸巳冬因契丹不道無故 興兵侵擾我封疆 … 成宗大王親領雄師 出推巨數 未行之前 先差中樞副使給事中崔肅傳宣曰 … 君宜將家屬 覓出南方.」

43) 1009년(목종 12) 김치양 난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목종 호위와 현종 옹립에 중추원의 관리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세력을 장악한 강조가 바로 중추원을 혁파하고 중대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중추원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권한 때문일 것이며, 특히 국왕 측근의 군사력인 시위군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거란의 침략과 군사제도의 개편

가. 거란의 침략과 고려의 대응

거란의 제1차 침략은 993년(성종 12) 10월부터 윤10월까지 2개월 치러진 비교적 단기간의 전쟁이었지만, 이민족의 침입에 맞선 고려 군사력의 현황이 여실히 드러난 전쟁이었다. 993년(성종 12) 거란의 소손녕은 80만의 군대를⁴⁴⁾ 이끌고 침공해 왔다. 이미 5월에 여진이 거란(요)에서 고려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고하였지만, 고려는 여진의 말을 믿지 않았고, 8월에 여진은 거란이 고려의 국경까지 쳐들어왔음을 다시 알렸다.

여진의 2차례의 보고로 사태가 긴박해짐을 판단한 고려는 8월 각도에 兵馬齊正使를 파견하고⁴⁵⁾ 이들을 통해 군사를 징발하여⁴⁶⁾ 전쟁에 동원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朴良柔를 上軍使, 서희를 중군사, 崔亮을 하군사로 삼아 북계에 급파하였다.⁴⁷⁾ 윤10월에는 성종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서경으로 행차한 후 고려군 지휘부가 있는 안북부까지 이동해 전황을 점검하였다.

이때 성종이 안북부로 직접 거느리고 갔던 병력은 자신이 지방 세력들의 군사력을 감소시키는 대신 중앙으로 집중시켰던 정예한

44) 거란군의 규모가 80만이라고 한 것은 소손녕이 고려 사신 이몽전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이며(『高麗史』 권94, 열전7 서희), 실제 병력수는 알 수 없다. 안주섬은 거란군이 원정할 때는 최고 사령관으로 도통을 두느냐에 따라 원정군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거란의 제1차 침입에서는 도통이 없었는데, 도통이 없는 경우는 대개 기병 6만을 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원정군의 규모는 최대 6만 정도였다고 추정하였다(앞의 책, 2003, 102쪽). 그러나 임용환은 6만은 기병만을 지칭한 숫자이므로 기병 이외의 병력과 사역군까지 합하면 총동원 병력은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앞의 책, 2004, 91쪽).

45) 『고려사』 권3, 성종 12년 8월.

46) 병마제정사가 파견된 諸道の 내용을 알 수 없으나 12목을 단위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47)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10월.

시위군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諺道에 파견된 兵馬齊正使는 각 지방의 절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병들의 상태를 살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지방제도, 군사제도, 도로망이 정비된 때에도 각 출신지에서 전쟁터로 동원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종은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정예병들을 이끌고 전투에 직접 참전하였던 것이다. 성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갔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추진한 군사제도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거란군이 봉산성에 당도했을 때 그곳에는 尹庶顔 등이 지휘하는 선봉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윤서안 등이 사로잡히는 큰 패배를 당했고, 성종은 서경으로 되돌아왔다. 즉 실제로 전쟁에 투입한 고려의 군사력은 정예하지도 않았고, 병마제정사를 통한 군사징집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성종은 군사를 돌려야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성종은 거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군사 서희를 긴급 투입했다.⁴⁸⁾ 서희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전면으로 진출해 오자 거란군은 남진을 멈추고 선전 공작을 펴면서 고려의 항복을 종용했다. 이에 서경에 있던 성종은 이몽전을 파견해 강화 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손녕은 이몽전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위협하였고, 고려 조정은 거란과의 교섭을 놓고 의견이 대립했다. 한 쪽은 거란의 요구대로 항복하고 화친하자는 의견이었고, 다른 한쪽은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떼어주고 황주에서 절령까지를 국경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즉 평양 및 북쪽 지역을 포기하자는 할지론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아직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항복이나 조건부 항복과 같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들이 논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48)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성종은 즉위하고 거란의 침략이 있기 전까지 거의 매년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있었다. 2년에는 주부군현의 향직을 개편하면서 兵部를 司兵으로 개편하여⁴⁹⁾ 중앙과 지방의 군담당 조직에 대한 위계질서를 정리하였다. 3년에는 군인의 복색을 제정하였고⁵⁰⁾, 6년에는 주군의 병기를 몰수하여 농기구로 만들었고⁵¹⁾, 7년에는 새로운 군적을 작성하였다.⁵²⁾ 8년에는 양계병마사를 설치하여⁵³⁾ 양계의 국경 관리를 충실히 하였고, 9년에는 병력의 동원과 훈련을 담당했던 절충부가 확인되며⁵⁴⁾, 드디어 좌우군영의 설치가 이루어져 중앙군인 2군 6위위가 조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⁵⁵⁾ 10년에는 중추원을 설치하여⁵⁶⁾ 중앙으로 모아진 군사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군사제도를 마련했다.

성종은 후삼국 통일기 이후로 계속해서 왕권을 견제하던 요소였던 지방 호족들의 군사력의 최소화하면서 유교적 국가체제 확립이라는 거대 틀 속에 국내의 정치체제 안정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제도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완비를 추구했다고 보여진다. 즉 성종의 지속적인 군사제도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거란의 침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를 하지 못한 이유는 성종이 추구했던 군사제도 개편의 목적이 실질적인 전쟁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군조직의 실제적인 운영보다는 중국의 틀에 맞추기 위한 위계적이고 형식적인 틀 위주의 정비였기 때문에, 각 지방 호족들의 불만을 야기했고, 나아가

49) 『고려사』 권75, 선거3 銓注 鄉職.

50) 『고려사』 권3, 성종 3년.

51) 『고려사』 권79, 식화2 農桑.

52) 『고려사』 권81, 병1 병제 성종 9년 10월.

53) 『고려사절요』 권2, 성종 8년 3월.

54) 『고려사』 권3, 성종 9년 秋9월 丙子.

55) 『고려사절요』 권2, 성종 9년 10월.

56) 『고려사』 권76, 百官1 密直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 징발에도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할지론에 반대한 이지백의 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지백은 “경솔하게 토지를 敵國에 떼어주어 포기하는 것이, 어찌 선왕(先王)의 연등·팔관·仙郎 등의 행사를 다시 거행하고, 다른 나라의 이상한 법을 쓰지 않으면서 국가를 보전하여 태평을 이루게 하는 것만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마땅히 먼저 신명(神明)에게 고하고 난 뒤에나 싸우거나 화친하는 것을 주상께서 재결(裁決)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⁵⁷⁾라며 전쟁이 한창 중인 때에 연등·팔관·선랑 등의 전통 행사를 부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려사』 찬자는 “성종이 華風을 따르기를 좋아했는데, 국인들이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백이 그런 말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다.⁵⁸⁾ 이는 당시 전쟁이 단지 고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성종이 추진했던 군사제도 정비 방향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즉 화풍을 주장하며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축소하려는 성종의 개혁 방향에 반대하는 호족과 호족 성향을 가진 관료들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거란과의 전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던 것이다.⁵⁹⁾

한편 고려가 항복 권고에 응하지 않자 소손녕은 고려를 압박하기 위해 다시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993년 윤10월 소손녕은 청천강을 건너 안용진을 공격했다. 안용진에서는 중랑장 대도수와 낭장 유방이 성안의 주민들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강안으로 출진해 거란군의 전열을 무너뜨리고 타격을 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현지인을 활용

57) 『고려사』 권3, 성종 12년 겨울 윤10월.

58)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59) 성종대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김당택, 「서희와 성종대의 정치적 지배세력」,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2, 1999; 구산우, 「고려 성종대 대외관계의 정개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78, 1992; 구산우, 「고려 성종대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등이 참조된다.

하는 방수체제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안용진에서 패배한 거란군은 봉산성으로 퇴각했고, 할지론에 반대하는 서희가 자청해 강화 회담에 나서 소손녕과의 담판을 벌였다.⁶⁰⁾ 그 결과 송과의 단교를 약속하여 거란군을 철수시키고, 거란에 조공하는 조건으로 강동6주를 축성하게 된다.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고려는 정종 때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여 30만 명 규모의 군사가 파악되어 조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종 때 이들을 징발하기 위한 절충부, 징발한 군인을 편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좌우위 등의 군대가 실제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거란의 침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방의 안용진 전투에서 보여지듯이 현지인을 활용한 방수체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었고, 중추원도 기능하고 있었다.

거란의 침입이 전면적인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 군조직을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 거란 침입 초반 군대 동원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성종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참전했던 상황,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할지론이 대두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군사제도가 아직 제대로 운영될 만큼 정착하지 못했고, 중앙군과 지방군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나. 거란 침략 이후의 군사제도 개편

성종 16년(997) 10월에 성종이 죽으면서 고려의 국가체제 정비는 주춤하게 된다. 거란과의 전쟁 이후 성종이 죽기까지 4년여의 기간이라 이때 추진된 구체적인 개편 내용이나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민족과의 전쟁을 체험한 성종은 거란 침입 이전에 마련한 군사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려는

60)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움직임을 보인다.

그 움직임은 우선 국경지역의 강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거란 침략 이전에 서북지역의 樹德鎮, 동계지역의 文州 등 2곳의 축성에 그쳤지만 거란 침략 이후인 성종 13~15년에 걸쳐 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994년(성종 13) 2월 소손녕은 양국이 동시에 압록강변에 축성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즉 거란은 압록강 서쪽에다 성을 쌓을 예정이니 고려도 압록강 동쪽 요충지에 성을 쌓도록 권고했다.⁶¹⁾ 이에 서희가 주관하여 13년에는 장흥진, 귀화진, 광주, 귀주성, 안의진, 흥화진, 안주, 맹주, 선주 등 압록강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통로 상의 요지에 성을 쌓았으며, 그 외 지역에도 무려 29개소에 성을 쌓거나 보강하여 북방방어선을 확실히 구축하였다.⁶²⁾ 이 방어망의 위력은 이후 30년간 걸친 거란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증명된다.

한편 거란과의 전쟁 이후 고려는 전면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방어망과 전국적인 병력동원체제를 갖추어야 했다. 전국적인 동원체제의 구축은 지방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10도의⁶³⁾ 획정으로 나타났다.

61)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3년 2월.

62) 서일범, 「서희가 축성한 성곽과 청천강 이북 방어체계」,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학연문화사, 1999.

63) 기존 10도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고려초기 일련의 지방제도 개편 과정에서 성종 14년의 개편을 언급하는 수준으로만 논의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주로 외관제와 10도제에 국한되어 중앙집권의 진진, 또는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의 강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10도제는 주로 제도적 연원과 기능적 한계, 운영 담당자의 비정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당제를 도입한 것이라는 점, 당시에 함께 시행된 외관제를 보완하는 장치였다는 점, 그리고 행정기구로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변태섭, 「고려 전기의 외관제」, 『한국사연구』 2, 1968;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에 재수록, 1971; 하현강, 『고려 지방제도의 연구』, 1977;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에 재수록, 1988; 김갑동, 『나말려초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최근 도의 편성 원리나 그것이 지향한 운영 방식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윤경진은 10도가 당제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실제 도별 편성은 신라의 9주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고려초기 10도제의

995년(성종 14) 9월 경술 十道를 정하고⁶⁴⁾, 12주에 각각 절도사를 두어 지방행정에 있어 군사적인 면이 크게 강조하였다. 당나라의 10도제는 당나라 태종이 원년에 산천의 형편에 따라 천하를 10도로 나누었다고 한다.

고려의 10도도 그 도명으로 보아, 지리적인 조건을 고려해 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10도는 關內·中原·河南·江南·嶺南·嶺東·山南·海陽·朔方·淇西였다. 또한 12절도사와 아울러 7都團練使·11團練使·21防禦使·15刺使 등의 지방관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즉 수도권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해 개성부를 독립시키고, 그 외곽인 관내도에는 다른 도보다 많은 지방거점을 포함시켰으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절도사제를 도입한 것이다.⁶⁵⁾

절도사, 단련사 등은 당제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당의 절도사는 원래 변방의 군사적 임무를 맡고 있던 존재이나 安史의 난을 겪은 후 2州에서 10여 州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전국에 설치되었다. 단련사, 방어사 등도 그와 유사하게 일정 범위의 군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그 자신이 주창하는 주의 자사를 겸하고 있었다.⁶⁶⁾ 이러한 운영에서 절도사 등은 각 주의 행정을 담당하는 측면에서는 자사와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아울러 주 단위를 넘어서는 범위의 군사적 운영체계를 담당하였다.

절도사제를 시행한 것은 성종대 거란의 침입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군사적인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으면 절도사는 집중된 군사력을 토대로 하여 강력한 지방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왕권을 위협할

시행과 운영체계, 『진단학보』 101, 2006).

64) 『고려사』 권3, 성종 14년 9월.

65) 구산우, 「고려 성종대 대외관계의 전개와 그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78, 1992, 163쪽.

66) 『新唐書』 권49下, 百官4下. 「大率節度觀察防禦團練使 皆兼所治州刺史」.

가능성도 있었다.

라) (현종 2년) 정월 임오일에 參禮驛에 이르니 전주절도사 趙容謙이 야인의 옷차림으로 임금의 행차를 맞이하였다. 朴暹이 아뢰기를, “전주는 곧 옛 백제로서 성조께서도 미워하셨으니 주상께서는 행차하지 마소서.” 하니, 왕이 옳다 여겨 바로 長谷驛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이날 저녁에 용겸이 왕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왕의 위세를 끼고 호령을 하고자 꾀하여 轉運使 李載·巡檢使 崔楸·殿中少監 柳僧虔과 더불어 흰 표지를 관에 꽂고 북을 치고 소리지르며 나아갔다. 채문이 사람을 시켜 문을 닫고 굳게 지키니 적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였다. 왕은 왕후와 더불어 말을 타고 驛廳에 있었다. 채문이 지붕에 올라 묻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와같이 할 수 있느냐. 유승건이 왔느냐?” 하니, 적이 말하기를, “왔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너는 누구냐?” 하니, 적이, “너는 또 누구냐?” 하였다. 채문이 다른 말로 대답하니 적이 말하기를, “智將軍이로구나.” 하였다. 채문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말하기를, “너는 親從 馬韓兆로구나.” 하였다. 이어 왕명으로 승건을 부르니, 승건이 말하기를, “내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없다.” 하였다. 채문이 문 밖으로 나가서 승건을 불러 어가의 앞에까지 오게 하니 승건이 울면서 아뢰기를, “오늘날의 일은 용겸이 한 짓이므로 신은 알지 못합니다. 청컨대 명령을 받들어 용겸을 불러 오겠습니다.” 하므로, 왕이 이를 허락하였더니 승건이 나가서 도망해 버렸다. 왕이 良叶에게 명하여 용겸과 이재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오자 여러 장수들이 죽이려 하였는데, 채문이 꾸짖어 이를 말리고 두 사람을 시켜 大明宮主의 말을 이끌고 가게 하였다가 얼마 뒤에 전주로 돌려보내었다(『高麗史節要』 권3).

위의 사료 라)는 현종 원년 거란의 2차 침입 때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발호한 일을 전하고 있다. 절도사가 주도하여 피난 중인 왕을 군사적으로 위협한 것인데, 이는 절도사가 군사적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종 14년의 10도는 이전의 주요 중심

군현에 절도사와 도호부를 두어 지배의 거점으로 삼는 한편, 교통로를 매개로 주요 결절점에 도단련사와 관찰사를 설치하여 연결망을 장악하는 것을 기축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방어 기능의 필요 정도에 따라 방어사-단련사-자사의 체계를 구성하였다.⁶⁷⁾

이렇게 지방행정에 있어 군사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군사의 징발과 훈련을 담당하는 절충부의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목종 원년의 전시과에 보면 折衝都尉·果毅·別將 등 절충부 소속 장관·차관·보좌관의 경제적 급여가 정해지고 있다.⁶⁸⁾ 당 태종은 전국 10道에 634개의 절충부를 설치하고, 절충부를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군인 1천 200명이 있으면 상부上府, 1천 명이 있으면 中府, 800명이 있으면 下府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에는 절충도위 1명, 左·右 果毅都尉 각 1명, 長史·兵曹·別將 각 1명, 校尉 6명을 두었다. 절충도위는 정4품이고, 과의도위는 종5품이었다. 보병의 경우 매년 12월에 절충도위가 통솔하여 전법을 가르쳤고, 군대를 동원할 때 符契를 내리는데 符를 전부 내려 보냈으면 절충도위 이하가 다 동원되며 다 내려 보내지 않았으면 果毅가 동원되며 적게 내려 보냈으면 별장이 동원되었다.⁶⁹⁾ 고려의 경우 5품인 중낭장과 절충도위가, 6품인 낭장과 과의가 같이 전시과 지급을 받고 있어 唐制보다 한 등급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운영은 당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절충부의 조직을 강화한 것은 아마 거란 침략 당시 제대로 군사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또한 목종 원년 전시과에 상장군, 대장군, 제위장군 등의 호칭이

67) 윤경진, 앞의 논문, 2006, 131쪽.

68)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田柴科 목종 원년 12월. 9과 전지 60, 시지 33-諸郎中 中郎將 折衝都尉/10과 전지 55, 시지 30-郎將 諸員外郎 果毅/13과 전지 40, 시지 20-別將 散折衝都尉.

69) 『新唐書』 권50, 志40 兵.

보이고, 監門衛 등 중앙군인 6위의 명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군사조직의 체계화가 이루어졌고, 2군 6위 중 6위의 조직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성종 2년 3월에 왕이 詳政殿에 나와 문무관 원윤 이상의 관료에게 말 한필씩을 하사한 기록이 있는데⁷⁰⁾, 성종 8년(989) 2월에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내외 문관 5품, 무관 4품 이상 관리들의 질병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적어 보고하면 의료 관원들이 가서 치료하도록 敎를 내리고 있다.⁷¹⁾ 이를 통해 보면 성종 2년까지는 태조대처럼 문무관만 분화된 상태에서 그 서열은 官階를 이용해 구분했지만 성종 8년 이후부터는 품계가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상·대장군의 제도가 완벽하게 제도화되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상장군직제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성종 13년이 주목된다. 성종 12년 12월 거란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군공 자들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시 전공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현종 10년 거란과의 전쟁 이후 거란을 방어하는데 공을 세운 9,472명에게 階職을 높여준 예를 참고할 수 있다.⁷²⁾ 전쟁이 끝난 후인 성종 13년 4월에는 전공자들에게 작을 1~2급씩 올려 주었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3일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⁷³⁾ 이렇게 대대적인 포상이 이루어졌다면, 성종 12년 거란과의 전쟁에 참여해 대장군으로 공을 세운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 상장군 제도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상·대장군의 직제는 품계의 기록이 나타나는 성종 8년에서 13년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에서 상장군은 현종 원년 10월에 검교상서우복야 상장군인 안소

70) 『고려사』 권3, 성종 2년 3월 癸未.

71) 『고려사』 권3, 성종8년 春2월 庚辰.

72) 『고려사』 권81, 兵1 兵制 현종 10년 7월.

73) 『고려사』 권3, 성종 13년 4월.

광을 행영도병마사로 삼았다고 하여 처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995(성종 14)년에 掌衛府를 衛尉寺로 고쳤다.⁷⁴⁾ 위 위시는 泰封에서 왕의 시위군으로 설치되었던 內軍에서 비롯되었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960년(광종 11) 시위군의 수를 크게 늘리면서 掌衛府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뒤 司衛寺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995년(성종 14)부터 衛尉寺라고 하였으며, 왕의 행차를 호위하는 데 필요한 儀仗과 器物 등의 관리를 맡았다. 즉 성종은 거란 침략을 통해 시위군을 중심으로 한 군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위시로의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거란 침략 이후 성종은 4년여에 걸쳐 대대적인 군사제도 개편을 모색하였다. 우선 북쪽의 축성을 활발히 하여 안정적인 국경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지방제도를 10도로 개편하고 12목에 절도사를 파견하여 지방행정에 군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의 징발과 동원에 관계된 절충부에 절충도위, 과의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앙군인 6위의 조직에도 박차를 가했으며, 무직에서도 상장군 이하 산원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10도와 절도사체제, 절충부 등은 이후 현종대에 들어 크게 변화하지만 중앙군의 조직과 무직의 체계 등은 고려전기의 골격을 이루었다. 거란 침략 이전 군사제도 정비의 방향이 군사의 운영을 위한 틀을 짜기 위한 것이었다면 거란 침략 이후의 방향은 그 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용을 채우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74) 『고려사』 권76, 백관1 위위시.

4. 맺음말

이상으로 성종대 거란침입을 통해 고려전기 군사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성종은 집권 후 崔承老의 상소를 받아들여 국정 전반을 개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사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최승로가 제시한 군제개혁의 방안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군비의 축소와 그를 통한 국가 재정의 확보, 나아가 왕권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국경을 확실히 정하고, 정예병을 중심으로 군대를 재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성종은 거란의 침략이 있기 전까지 거의 매년 군사제도를 정비하였다. 2년에는 州府郡縣의 鄉職을 개편하면서 兵部를 司兵으로 개편하여 중앙과 지방의 군조직의 위계질서를 정리하였다. 3년에는 군인의 복색을 정하였고, 6년에는 州郡의 병기를 몰수하여 농기구로 만들었고, 7년에는 새로운 군적을 작성하였다. 8년에는 양계병마사를 설치하여 양계의 국경 관리를 충실히 하였고, 9년에는 折衝府가 확인되며, 군영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10년에는 중추원을 설치하는 등 여러 군사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성종이 추구했던 군사제도 개혁의 목적은 실질적인 전쟁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었다. 후삼국통일기 이후로 계속해서 왕권을 견제하던 요소였던 지방호족들의 군사력의 최소화하면서 유교적 국가체제 확립이라는 거대 틀 속에 중국식 군사제도로의 형식적 완비를 추구했다고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호족 및 호족 성향을 가진 관료층들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거란의 침입이 전면적인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 군조직을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 거란 침입 초반 군대 동원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성종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참전했던 상황,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할지론이 대두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군사제도가 아직 제대로 운영될 만큼 정착하지 못했고, 중앙군과 지방군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거란 침략 이후 성종은 대대적인 군사제도 개편을 모색하였다. 우선 북쪽의 축성을 활발히 하여 안정적인 국경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지방제도를 10道로 개편하고 12牧에 節度使를 파견하여 지방행정에 군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의 징발과 동원에 관계된 절충부에 折衝都尉, 果毅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앙군인 6위의 조직에도 박차를 가했으며, 武職에서도 上將軍 이하 散員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10도와 절도사체제, 절충부 등은 이후 현종대에 들어 크게 변화하지만 중앙군의 조직과 무직의 체계 등은 고려전기의 골격을 이루었다.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 성종, 거란, 거란침입, 서희, 최승로, 절도사, 10도, 군사제도

<ABSTRACT>

The invasion of the Kitan at the reign of King Seongjong in Goryeo dynas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ystem

Jeon, Gyung-Sook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ystem in early Goryeo dynasty after the invasion of the Kitan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King Seongjong reformed the overall government system after seizing the power by accepting the appeal of Choe Seung-ro. In this process, the reformation of the military system was carried out. The plan of the military reform suggested by Choe Seung-ro was to secure national finance by reducing any unnecessary military expenditure, and to reinforce the royal authority. For this purpose, he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was to clarify the border and to reshuffle the military force with elite corps at its center.

However, the purpose of the military system improvement sought by King Seongjong did not focus on the actual capability of war execution. It seems that he sought to establish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military system in a grand frame for minimizing the military force of the local nobles who contained the royal authority since the unification of the Post Three Kingdom period, and also for securing Confucian nationa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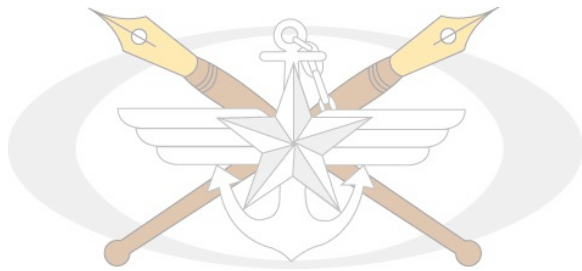
As the invasion of the Kitan was not full-stretch war, it was not clear what type of the military system for engaging in the war. However, considering the facts that the King took part in the war directly, and that the discussion of parcel the country was raised without any engagement of the war, the military system seems not to be developed in balance between the Central Military Forces and the Local Military

Forces.

After the invasion of the Kitan, King Seongjong attempted to reshuffle the military system to a full stretch. First of all, he developed fortresses in the north to secure stable border defense line, reorganized the local system with 10 provinces (Dos) and dispatched military governors to 12 Counties (Moks) which reinforced the military character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he installed Jeolchungdowi and Gwaui at Jeolchungbu, a department for military recruitment and mobilization for systematic operation. And, he also promoted to reshuffle 6 Wi (the Six Divisions) and developed a rank system in the military section from General (Sangjanggun) to the private (Sanwon). While those changes mentioned above such as 10 provinces (Dos), military governor(Jeoldosa) system and Jeolchungbu were executed under the reign of King Hyeonjong, th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military force and the military hierarchical system remained as the backbone in the early Goryeo period.



Key Words : the invasion of the Kitan, King Seongjong, 6 Wi(the Six Divisions), Jeolchungbu, 10 Do, Jeoldosa, the military system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의 유형 전투력 분석

정완희 · 민승식*

1. 서론
2. 적용 이론
3. 칠천량해전 분석
4. 명량해전 분석
5.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
6. 결론

1. 서론

칠천량해전(漆川梁海戰)과 명량해전(鳴梁海戰)은 우리나라의 해전사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해전이다. 정유재란 중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은 전승을 거두었지만, 원균의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였다. 이렇게 패배한 조선 수군의 잔여 전력 10여 척을 이끌고 극적인 승리를 이룩한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이다. 두 해전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적에 대해서 같은 조선

* 해군사관학교 조교수

수군이 전투를 수행했으며, 조선 수군 전력의 양은 칠천량해전이 명량해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전과를 보여준 것일까? 이에 대해 많은 역사학자와 전술연구가는 의문을 가졌다.

양 해전의 승패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칠천량해전의 패배 원인으로는 전투준비태세 소홀, 부대원의 단결 및 사기 저하, 교육훈련 수준 저하, 부대의 피로누적, 군기군법 및 질서의 이완이 지목되었다.¹⁾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언급된 패인은 원군 장군의 전술(해로차단 전술)과 조선의 지휘부 선조의 전략[水陸合政] 불일치로 인한 혼선이다.²⁾ 이런 혼선이 야기된 배경에는 이순신과 원군의 악화된 관계와 선조의 오해로 인한 지휘관의 교체가 있었다. 반면에 명량해전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는 불굴의 정신력이 많이 언급된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신에게는 아직 전선 12척이 남았나이다.[今臣戰船尙有十二]” 등은 강한 정신력과 전투의지를 강조하는 문구이다. 이런 정신력을 기반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명량해전의 전장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전투력은 전장에서 부대가 전투를 수행하여 군사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능력이다.³⁾ 이러한 전투력은 무형 전투력과 유형 전투력으로 구성된다. 무형 전투력은 통솔력, 군기, 사기, 전투기술로 세분할 수 있다.⁴⁾ 위에 언급된 두 해전 승패의 원인은 무형 전투력에 해당된다. 무형 전투력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다소 소홀했던 유형 전투력 측면에서 양 해전의 승패 원인을 분석하고자

1) 김정운, 「정유재란시 칠천량해전의 패인과 영향 분석」, 『해양전략』 제141호, 2009, 158~160쪽.

2) 이민웅, 「정유재란시 칠천량해전의 배경과 원군 함대의 패전 경위」, 『한국문화』 제29호, 2002, 175쪽.

3) 해군본부, 『군사용어사전』, 2011, 486쪽.

4)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2006, 5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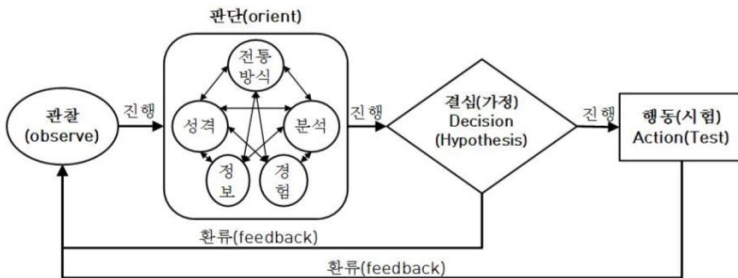
한다. 유형 전투력은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부대조직 등으로 구성되며,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형 전투력에 근거한 두 해전의 분석 결과는 사료 분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적용 이론

가. OODA 이론

물리적인 유형의 요소는 무형의 요소에서 나온다. 유형 전투력이 전투상황에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형의 요소가 물리적으로 유형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정립된 이론이 OODA(Observe, Orient, Decide, Act)이며, 유형 전투력은 실행(act)을 통해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투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총알의 발사를 통해 전투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의한 것이 OODA 이론이다.

〈그림 1〉 OODA 이론 개념도



※ 출처 : John R. Boyd, “The essence of winning and losing”,
www.dnipogo.org, 1996, p.3을 저자가 재구성

전투력이 발휘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되는 것은 관찰(observe)이다. 전장 환경과 적에 대한 정보를 관찰해야 다음 전투 단계 진행이 가능하며, 관찰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반으로 판단(orient)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판단할 때 기존 경험, 새로운 정보, 전통 방식을 상호 관련지어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전장 상황의 변화를 예상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전투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결심(decide)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결심에 따른 지시에 의해 전력이 행동(act)을 하게 되면 비로소 전투력이 발휘된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연쇄적으로 진행되면서 전투력이 발휘되며, 각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호 작용하며 보완하는 과정이 OODA 이론의 세부내용이다.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투가 수행되었다. OODA 이론에 의하면 객관적인 함선의 숫자는 실제 발휘된 전투력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함선에 미칠 영향을 미쳐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우리가 보유한 함선은 전투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전의 경과를 근거로 실제 OODA 이론에서 언급된 각 단계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발휘된 전투력을 도출하였다.

나. 란체스터 방정식(Lanchester's law)

란체스터 방정식은 1956년 발행된 James R. Newman의 저서 『The World of Mathematics』에 처음 소개된 모형이다.⁵⁾ 각 군의 전력이 $B(t)$ 및 $R(t)$ 로 표기되는 블루군과 레드군의 대결을 가정할 때, 각 군의 단위시간 당 전력 손실 $\dot{B}(t)$ 및 $\dot{R}(t)$ 는 상대의

5) Lanchester, "Mathematics in Warfare", *The World of Mathematics*, Vol.4 (Simon and Schuster, 1956), pp.2138~2157.

전력 $R(t)$ 및 $B(t)$ 에 비례한다는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dot{B}(t) = -\beta R(t) \quad (1)$$

$$\dot{R}(t) = -\rho B(t) \quad (2)$$

; β 는 블루군의 전력 손실률,

ρ 는 레드군의 전력 손실률,

$$B(0) = B_0, R(0) = R_0$$

이때 $\dot{B}(t)$ 와 $\dot{R}(t)$ 는 $B(t)$ 와 $R(t)$ 를 시간에 대해 한 번 미분한 항이다. 또한 β 와 ρ 는 해전의 경우 개별 함선의 전투역량과 관계되는 전력 손실률이다. 본문에서는 판옥선과 세키부네 간의 전력 비를 5~8:1의 범위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판옥선과 세키부네 간의 전력 손실률의 비는 그 반대인 1:5~8의 범위로 설정된다.

식 (1)을 시간에 대해 한 번 더 미분하여 식 (2)에 대입하면 레드군과 관계없는 블루군 자체에 관한 다음의 미분방정식이 도출된다. 이때 $\ddot{B}(t)$ 는 $B(t)$ 를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했다는 뜻이다.

$$\ddot{B}(t) = -\beta \dot{R}(t) = \beta \rho B(t) \quad (3)$$

미분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을 통한 식 (3)의 해는 다음과 같다.

$$B(t) = c_1 e^{\sqrt{\beta\rho}t} + c_2 e^{-\sqrt{\beta\rho}t} \quad (4)$$

; c_1, c_2 는 초기조건 $B(0) = B_0, R(0) = R_0$ 에 의해 결정됨

식 (4)를 식 (1)에 대입하면 레드군에 관한 식도 구할 수 있다.

$$R(t) = -c_1 \sqrt{\frac{\rho}{\beta}} e^{\sqrt{\beta\rho}t} + c_2 \sqrt{\frac{\rho}{\beta}} e^{-\sqrt{\beta\rho}t} \quad (5)$$

식 (4)와 (5)에 블루군과 레드군의 초기 전력 $B(0) = B_0$ 와 $R(0) = R_0$ 를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가 도출된다.

$$B(t) = \frac{1}{2} \left(B_0 - \sqrt{\frac{\beta}{\rho}} R_0 \right) e^{\sqrt{\beta\rho}t} + \frac{1}{2} \left(B_0 + \sqrt{\frac{\beta}{\rho}} R_0 \right) e^{-\sqrt{\beta\rho}t} \quad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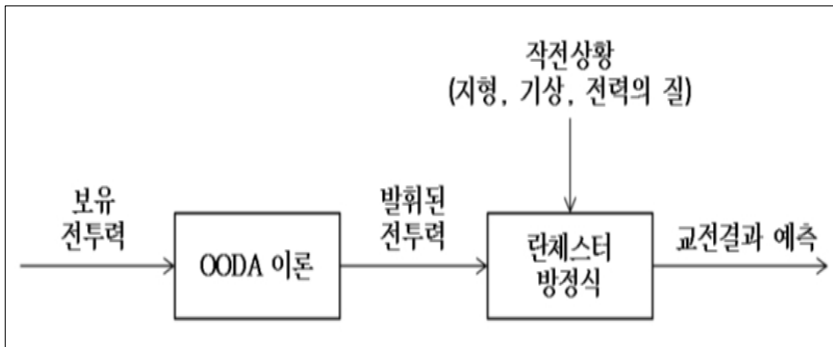
$$R(t) = \frac{1}{2} \left(R_0 - \sqrt{\frac{\rho}{\beta}} B_0 \right) e^{\sqrt{\beta\rho}t} + \frac{1}{2} \left(R_0 + \sqrt{\frac{\rho}{\beta}} B_0 \right) e^{-\sqrt{\beta\rho}t} \quad (7)$$

다. 적용 방법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에서 발휘된 유형 전투력은 OODA 이론을 통하여 도출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단순히 전장에 있던 함선의 수가 유형 전투력과 같지는 않다. 전투지에 있었지만 적과 교전을 하지 않았다면 유형 전투력이 되지 못하며 OODA 과정을 거쳐 적에 대해 행동(act)을 실시한 전투력만이 비로소 유형 전투력이 되는 것이다.

OODA를 통해 유형 전투력을 도출하면 란체스터 방정식을 통해 교전 결과를 예측하는데, 분류된 유형 전투규모와 당시 작전상황에 따른 상대군에 대한 전투력의 질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란체스터 방정식에 적용한다. 적용을 통해서 어떤 군이 승리하고, 잔존한 전력의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도출하며, 도출된 결과를 실제 역사적 기록과 대조하여 검증한다.

〈그림 2〉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 분석 틀



추가적으로 유형 전투력이 되지 못한 전력에 대한 변수 조정을 통해 무형 전투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경계 작전에 실패하여 패배한 해전에 대해서 경계 작전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지 추정할 수 있다. 란체스터 방정식의 입력값이자 OODA 이론의 결과값인 유형 전투력의 변화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OODA의 시작점인 관찰(observe) - 즉, 경계작전의 실패가 전쟁의 결과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3. 칠천량해전 분석

가. 해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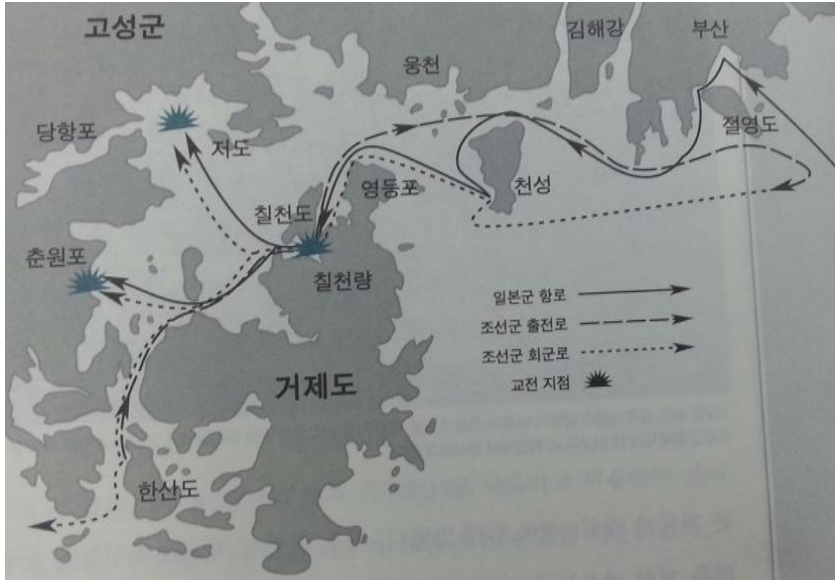
1597년 음력 7월 15일 원균의 함대는 남해 일대를 장악한 일본 육군을 피해 나쁜 해상 상태에도 불구하고 칠천량으로 함대를 이동시켰다. 조선 수군의 이동 상황을 알고 있던 일본 수군은 이때 야간에 출동하여 칠천량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최초 15일 밤 10시쯤 일본함대가 습격하여 우리 전선 4척이 완전히 불타 침몰하였다.⁶⁾

일본군은 다음날 16일 새벽 4시쯤 총공격을 시작하였고, 이때까지 원균의 함대 지휘부는 접근해오고 있는 적을 모르고 있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조선 함선에 배를 붙이고 사다리를 통해 전투원이 이동하여 육박전을 벌이는 ‘등선백병전(登船白兵戰)’을 구사했다. 16일 새벽 4시까지 조선 수군은 접근하는 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자신의 전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당시 이러한 상황은

6) 『선조실록』 권90, 1597년(선조 30년) 7월 22일.

조경남이 남긴 아래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⁷⁾

〈그림 3〉 칠천량해전도



※ 출처 :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206쪽.

“밤중에 적이 가만히 비거도 10여 척으로 우리 전선 사이를 뚫어 형세를 정탐하고 또 병선 5~6척으로 우리 진을 둘러쌌는데, 우리 복병선의 장수와 군사들은 모두 모르고 있었다. 이날 이른 아침에 복병선이 이미 적에게 불태워져 없어졌다. 원군이 크게 놀라 북을 치고 배를 울리고 불화살을 쏘아 변을 알리는데, 문득 각배의 옆에서 적의 배가 충돌하며 총탄이 발사되니 군사들이 크게 놀라서 실색하였다.”

일방적인 전세는 오전 8시경에 이르러 칠천량 남단 근처에서 탈출하려는 조선 함대와 이를 막으려는 일본 함대간의 격전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조선 함대는 두 방향으로 나누어 탈출했는데, 하나는

7) 조경남, 『난중잡록』 3권, 1597년(정유년).

진해만 쪽으로 향했고 다른 하나는 거제도 해안을 타고 서남쪽으로 한산도를 향해 나아갔다. 진해만 쪽으로 향한 함대 세력은 일본 수군의 추격을 받아 참패하였고, 거제도 해안을 타고 도망간 함대는 일부만이 생존하였다.⁸⁾

나. 유형 전투력 분석

칠천량해전의 경과에서 주요 교전이 일어난 시점을 15일 10시, 16일 04시, 16일 08시로 구분하였다. 15일 10시는 일본 수군의 포위과정에서 접촉한 조선 함선 4척이 습격을 당해 침몰한 시점이다. 16일 04시는 일본 함대가 총공격을 시작한 시점이며, 08시는 조선 함대가 전세 역전의 불가를 예측하고 후퇴작전을 실시한 시점이다. 칠천량해전은 주요한 3가지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점을 OODA 이론으로 분석했다.

15일 10시 시점에 일본함대는 OODA 사이클이 완전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모든 함대의 행동은 지휘부의 계획된 작전에 따라 움직였으며, 보유한 전력 1,000척(추정)은 모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였다. 조선 함대가 칠천량으로 이동했음을 관측(observe)하였고, 그 위치까지 알고 있었다. 조선함대를 공격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 선정을 위해서 포위를 하여 등선백병전을 구사하겠다는 판단(orient), 결심(decision), 행동(act)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조선함대는 OODA 사이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함선 4척이 침몰하였지만,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원군의 지휘부는 일본군의 포위 총공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관측(observe)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후과정은 진행할 수 없다.

8) 『선조실록』 권90, 1597년(선조 30년) 7월 22일.

〈표 1〉 칠천량해전 OODA 분석 결과(1597.7.15.~7.16.)

(O : observe, O : orient, D : decision, A : act, ○ : 완전수행, △ : 불완전 수행, × : 미수행)

일 시	일본 함대						조선 함대					
	O	O	D	A	전력량	전투력	O	O	D	A	전력량	전투력
15일 10시	○	○	○	○	1,000척	1,000척	△	×	×	×	268척	0척
16일 04시	○	○	○	○	1,000척	1,000척	○	△	△	△	264척	0척
16일 08시	○	○	○	○	1,000척	1,000척	○	○	○	○	20~40척	0척

16일 04시의 총공격 상황은 더욱 참담했다.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OODA 순환을 형성한 일본 함대는 총공격을 시작했지만, 조선함대는 일본 함대가 포위하여 등선백병전을 실시해서 많은 수군이 전사하고 있을 때 뒤늦게 지휘부의 관찰이 이루어졌다. 앞의 작전경과에서 원군이 적의 총공격을 알고 불화살을 쏘아 알리고 있을 때 적의 배가 충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적의 등선백병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전혀 관측(observe)이 되지 않았고, 전사자가 발생하자 뒤늦게 관측하여 다급하게 불완전한 판단(orient) 및 결심(decision)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는 조선 함대의 주요한 전술인 함포에 의한 원거리 공격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16일 08시에 이르러 조선 수군은 4시간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고, 가용한 작전을 펼치게 된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회피 기동이었으며,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전투력은 없었다. 당시 승리를 위한 전술은 아니었지만, 역전이 불가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여 전력을 분산시켜서 도주하고자 했다. 다행히 한산도 쪽으로 도주한 전선 10여 척이 생존하여 명량해전의 승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 분석결과 해석

칠천량해전은 조선 수군의 유형 전투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한 해전이었다. 전쟁 경과의 주요 시점에서 OODA 사이클은 작동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했다. 실제 200여 척의 전력이 전장에 있었으나 전투력이 발휘되지 않아서 무의미했다. 관찰, 판단, 결심, 행동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전력이 있더라도 승리를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결과도 분석 결과를 증명하고 있다. 조선 수군 256척은 침몰하였고, 단지 10척만이 도주하여 생존했다. 이순신 함대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보여주었던 판옥선이 칠천량해전에서는 이렇게 참담하게 전멸하다시피 했다. 막강한 유형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옥선이었지만, 칠천량해전에서는 OODA 사이클 부재로 전투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표 2〉 칠천량해전 결과

일 자	조선 수군 전력	일본 수군 전력	교전결과
1597.7.16.	삼도수군 268척 (협선 134척)	1,000여 척 (추정)	조선 수군 256척 침몰 원균·이억기 전사 배설 10척 도주

※ 출처 : 최두환, 『충무공 이순신 전집』 4권, 우석, 1999, 327쪽을 필자가 재구성.

4. 명량해전 분석

가. 해전 경과

이순신 장군은 칠천량해전에서 살아남은 잔여 전력을 정비하여 반격을 계획한다. 13척뿐인 전력으로 300척이 넘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수로 폭이 좁은 명량해협에서의 교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빠른 조류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최대 11.5노트로 매우 빠른 조류가 흘러서 20리 밖에서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해서 ‘울돌목’이라 불릴 정도였다. 그만큼 수심이 얇고 수로폭이 좁으며, 조류가 빨라 항해하기 위험한 협수로였다.⁹⁾

1597년 9월 16일 07시 일본 함대는 명량 해협 인근에 있는 조선 수군의 잔여전력을 격파하기 위해서 어란진에서 출진을 한다. 이러한 사항은 탐망군에 의해 즉시 이순신에게 보고되었고, 결전준비를 하게 된다. 조선수군은 오전 9~10시경에 전투 준비를 마치고 진형을 갖추어 일본 함대를 기다렸다.¹⁰⁾

9월 16일 11시 전후 일본함대는 명량해협을 통과한다. 그런데 300척이 넘는 전력 중에 대형 함선인 아다케는 좁은 수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소형 함선인 세키부네 133척만 명량해협을 통과하였다. 작전 환경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전력이 교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12시를 지나면서 조류의 방향은 일본 함대에게 불리한 역 조류로 흐르게 된다. 결국 오후 2시가 될 때까지 일본해군은 군선 31척을 잃게 된다. 조류의 세기는 더욱 강해져 결국 많은 전력을 보유했던 일본 함대는 명량해전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후퇴하고 만다.¹¹⁾

9)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226쪽.

10) 이순신, 『난중일기』, 1597년(정유년) 9월 16일.

11) 위의 책.

나. 유형 전투력 분석

명량해전은 철저하게 조선 함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부족한 전력으로 조선 함대는 명량해협에서 반드시 교전을 해야만 했고 일본 함대를 유인했다. 일본 함대는 월등한 함선 수를 믿고 조선 함대 격파를 위해 16일 07시 출전을 결심한다. 이는 조선 함대에 관측(observe)되어 이전에 판단(orient)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에 전투력을 과신하고 있던 일본 함대는 명량해협의 좁은 수로와 빠른 유속이라는 환경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불완전한 판단(orient)과 결심(decision)을 한다.

16일 10시 일본 함대는 자신들의 불완전한 판단에 당황했을 것이다. 300척이 넘는 전력에서 대형함선인 아다케를 전투에서 제외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명량해협은 소형함선인 세키부네 133척만 통과하게 된다. 일본 함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력의 반 이상을 교전에서 제외시키는, 전투력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이었다. 반면에 조선 수군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교전 장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16일 12시 양군은 보유한 전력을 가지고 각자의 관측, 판단, 결심한 계획에 따라 총력전을 진행했다. 양군 모두 충분한 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었고,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판단과 결심을 통해 전투력을 구사했다. 교전 직전상황에서 투입된 전투력은 일본 함대 세키부네 133척과 조선 함대 판옥선 13척이었다. 칠천량해전과 같이 기습작전으로 진행된 교전이 아니고, 각자의 OODA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순환하는 교전이었다.

〈표 3〉 명량해전 OODA 분석 결과

(O : observe, O : orient, D : decision, A : act, ○ : 완전수행, △ : 불완전 수행, × : 미수행)

일시	일본 함대						조선 함대					
	O	O	D	A	전력량	전투력	O	O	D	A	전력량	전투력
16일 07시	○	△	△	×	300척	0척	○	○	○	×	13척	0척
16일 10시	○	△	△	△	300척	133척	○	○	○	○	13척	13척
16일 12시	○	○	○	○	133척	133척	○	○	○	○	13척	13척

임진왜란에 해전을 벌인 조선 수군의 함선과 일본 수군의 함선은 기본 전투력의 차이가 있었다. 일본군이 조선 수군에 대항하기 위해 작성한 비밀문서의 내용을 보면 조선의 큰 배 한 척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작은 배 5~6척 내지 7~8척으로 대적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¹²⁾ 따라서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과 명량해전에 교전을 했던 일본 수군의 세키부네 간의 전력 차이는 5~8:1로 예상할 수 있다.

조선수군의 판옥선은 함포에 의한 화공전을 장점으로 하는 함선이다. 복원한 함포를 이용한 사격한 실험결과 사거리가 550~1,590m에 이른다.¹³⁾

〈표 4〉 판옥선 보유함포(천지총통) 사거리

발사각	사거리	비행 중 최고 고도
0도	134m	-
5도	152m	3.2m
10도	289m	13m
20도	525m	49.5m
30도	693m	102.6m
44도	786m	196.3m

※ 출처 : 박혜일, 이유찬, 「천지총통에서 쓴 대장군전의 탄도와 귀선에 있어서의 유효사거리 추정」, 『한국과학사학회지』 11권 1호, 1989, 8~9쪽.

12) 『선조실록』 권83, 1596년(선조 29년) 12월

13) 최두환, 「임란 시 화기의 성능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4호, 2000, 33쪽.

특히, 천자총통에서 대장군전 발사 모델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거리 약 70m에서는 높은 명중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¹⁴⁾ 일본함선의 화공무기인 조총의 유효사거리가 50m인 점을 고려하면 조선수군의 화공전력이 막강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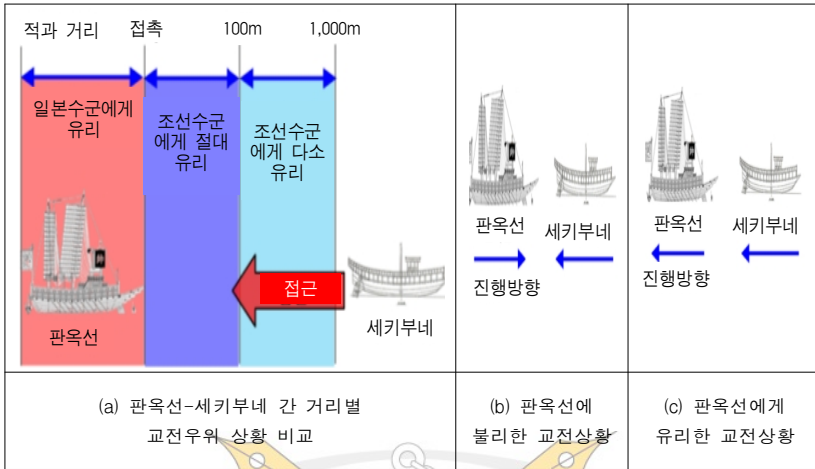
그림 4.(a)를 보면 판옥선-세키부네 간 거리가 100~1,000m 인 경우에 조선수군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일본 수군은 조총의 사거리 밖이어서 전투력을 투사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 수군은 최대 사거리를 이용해서 위협사격을 할 수 있다. 물론 함포의 명중률이 저조하여 격파를 통한 무력화는 매우 제한될 것이다. 하지만, 위협사격을 통해서 다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만약 판옥선-세키부네 간 거리가 100m 미만에서 접촉 직전까지는 판옥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판옥선 함포의 유효사격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 수군은 조총을 이용해서 화력과 명중률이 약한 공격만 가능하다. 따라서 조선수군의 입장에서는 이 거리 간격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전투의 승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판옥선과 세키부네가 접촉한 이후에는 일본수군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일본군의 기본전술은 ‘등선백병전’으로 배를 붙이고, 상대함정의 배위에서 백병전을 벌이는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검을 이용한 백병전에 높은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판옥선의 많은 승조원은 노를 젓고 함포를 운용하는 임무에 할당되었기 때문에 백병전을 벌이면 열세의 상황이 전개된다.

14) 김병륜, 「조선시대 수군 진형과 함재 무기 운용」, 『군사』 제74호, 2010, 169쪽.

〈그림 4〉 판옥선에게 불리한 교전상황과 유리한 교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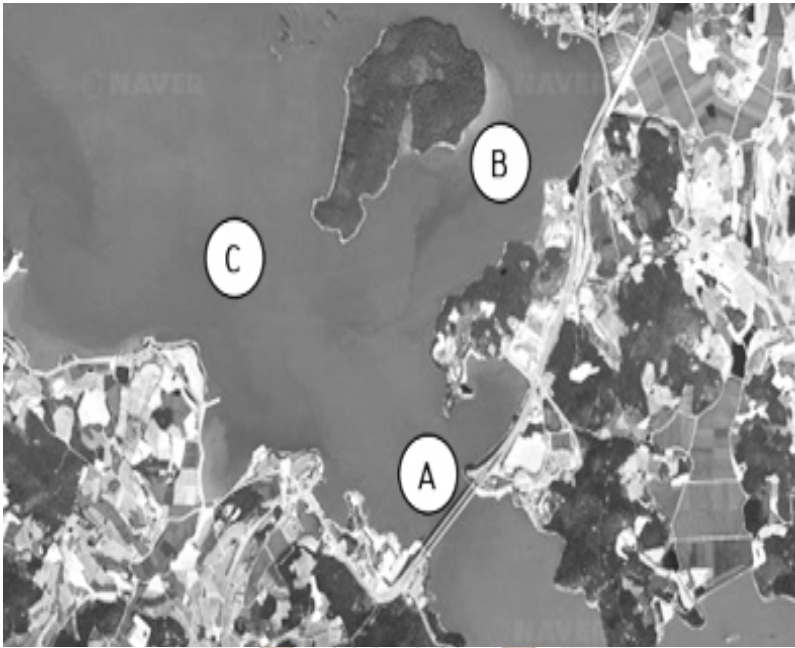


앞서 확인되었듯이 화공전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판옥선과 세키부네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오래 유지해야 한다. 당시 일본 수군이 역조류를 받으며 판옥선에 접근했음을 고려하면, 작전환경은 조선수군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판옥선과 세키부대의 전력차이는 일반적인 차이에서 판옥선에게 가장 유리한 8:1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교전에 참가한 전력의 양은 조선 수군이 13척, 일본 수군이 133척으로 일본 수군이 10배가량 많지만 명량해협이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동시 교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 수는 그에 훨씬 못미쳤을 것이다. 교전지의 수로 폭에 따라서 동시 교전할 수 있는 함선의 숫자가 정해지게 된다. 명량해전의 교전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헌을 통해서 3개의 교전위치 〈그림 5〉가 예상된다.¹⁵⁾

15) 제장명, 「정유재란기 명량해전의 주요쟁점과 승리요인 재검토」, 『동방학지』 제144권, 2008, 217쪽.

〈그림 5〉 명량해전 교전 예상위치(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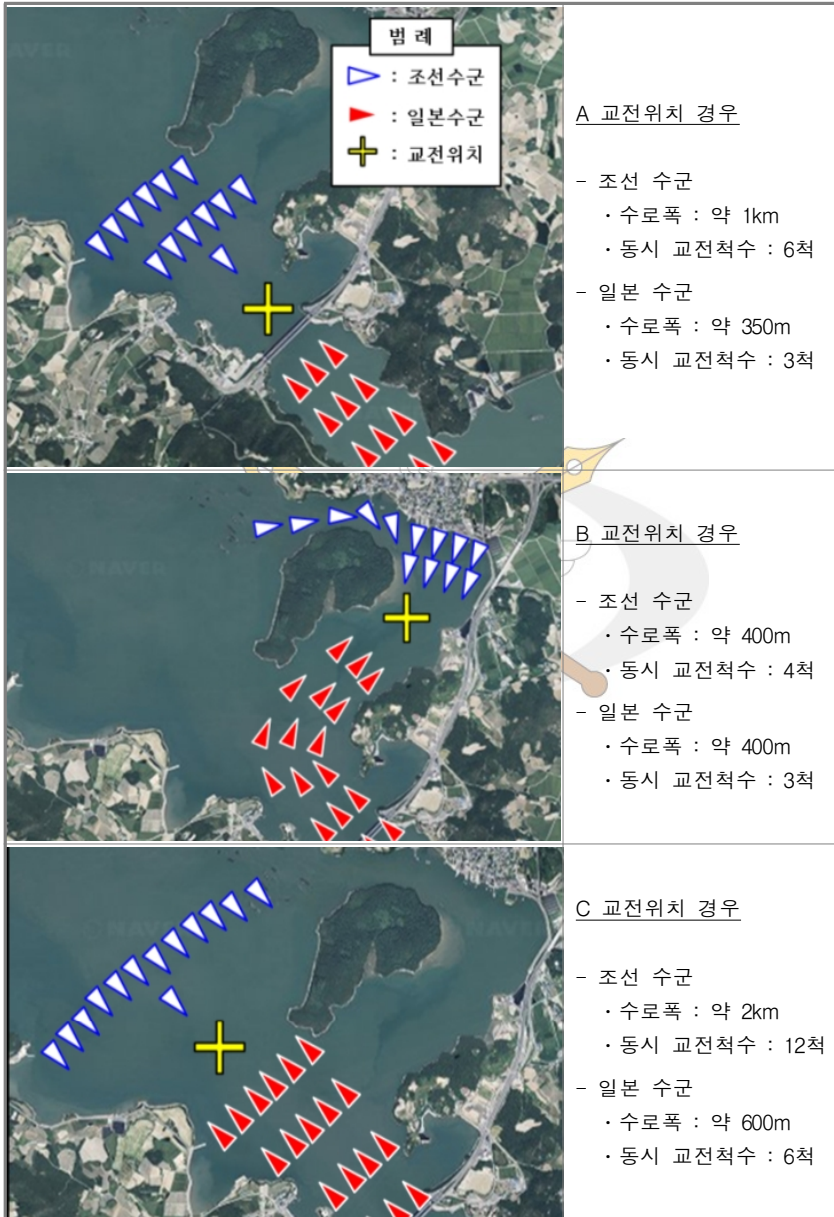
란체스터 방정식을 이용하여 전투양상을 예측하기에 앞서 양군의 전력 양을 대입하기 위하여 3개의 예상위치별로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A위치에서 교전이 발생했을 경우 조선 수군은 수로 폭 1km에서 최대 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횡렬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판옥선의 전폭이 34m임을 고려하여 함선별 이동의 자유를 위해 최소한 100m 이상의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 100~200m의 함선별 거리를 계산하면 조선 수군은 최대 6척이 횡렬진을 형성할 수 있다. 일본 수군은 명량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최대 3척의 횡렬진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수로 폭과 지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대 3척 이상이 명량해협을 통과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B의 위치에서 교전했을 경우 조선 수군은 4척, 일본 수군은 3척 정도가 동시 교전했을 것이다. 같은 수로 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과 동시 교전할 수 있는 척수가 1척 적다. 그 이유는 명량해협을 통과한 함선이 급격한 변침(90도)을 하기 때문에 조선 수군과 같은 4척을 배열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함선이 10노트 미만의 속력이었고, 조류가 강했음을 고려하면 3척 정도가 횡렬진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변침을 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C의 위치에서 교전했을 경우 조선 수군은 12척, 일본 수군은 6척 정도가 교전했을 것이다. C의 교전위치는 세 군데 예상위치 중에서 가장 넓은 해역이다. 조선 수군은 2km의 수로 폭에서 전 전력으로 횡렬진은 형성할 수 있다. 일본수군 역시 3척으로 명량해협을 통과하고, 진행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넓어지는 수로 폭을 이용하여 6척까지 진형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위치에서는 일본 수군의 진입방향이 한 군데인데 반해 B나 C위치에서는 일본 수군의 진입이 두 방향에서 가능하므로 양쪽에서 협공, 또는 포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A위치가 선호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예상 교전위치별 양군의 동시 교전 척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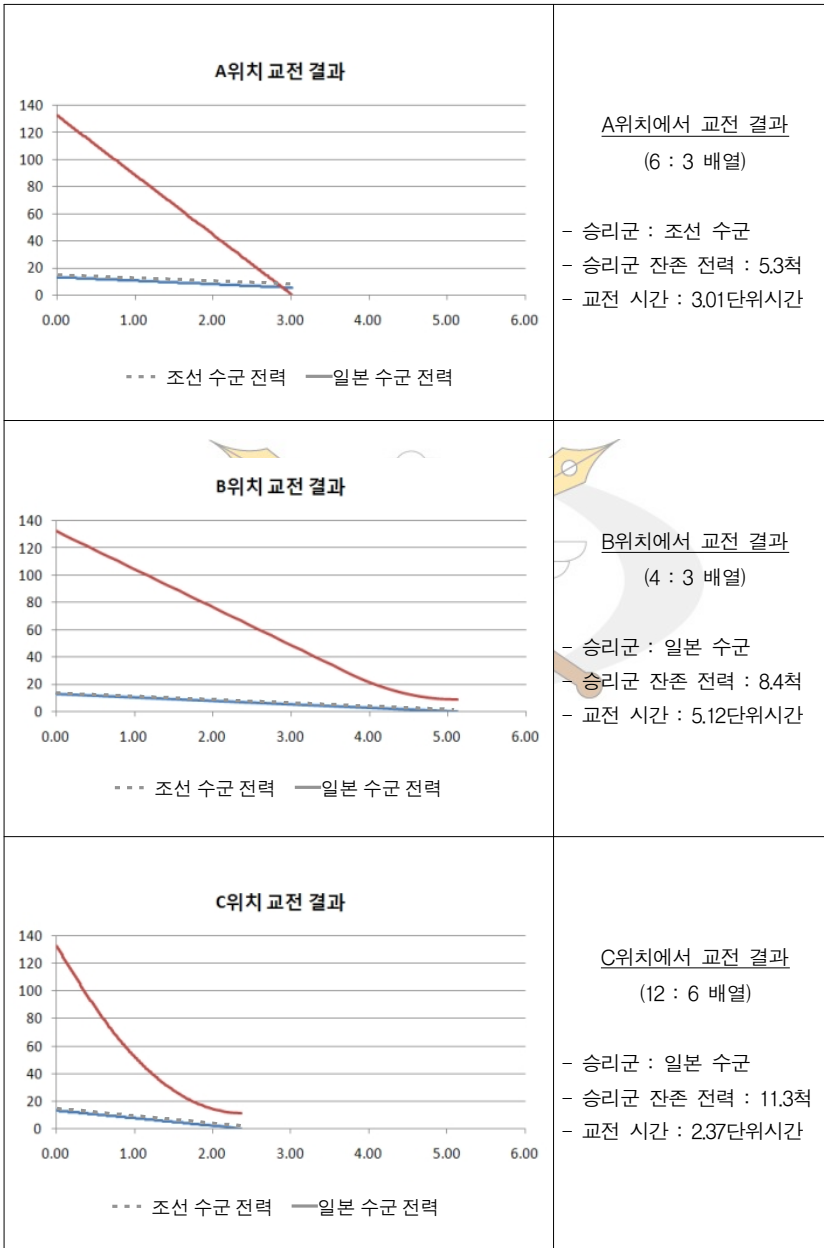


양쪽 군의 단위 전력별 전투력 차이와 동시교전 척수를 식 (6)과 (7)에 대입하면 실시간 교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조선 수군(블루군)과 일본 수군(레드군)의 전력손실률은 1:8이다. 즉, $\beta = 1$, $\rho = 8$ 이다.
- 수로에서 동시 교전하는 전력 수를 란체스터 방정식의 초기값 B_0 및 R_0 에 대입한다.
- $B(t)$ 또는 $R(t)$ 가 1만큼 손실되는 시간을 구한다.
- $B(t)$ 또는 $R(t)$ 가 1만큼 손실되는 순간, 전력은 1만큼 보충되어 원래 상태를 회복하며, 상대군은 전력 보충 없이 $B(t)$ 또는 $R(t)$ 를 유지한다.
-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 더 이상 보충될 전력이 없으면 패배군의 전력이 완전히 0이 될 때까지 교전은 계속된다.
- 패배군의 전력이 완전히 0이 되는 순간 전쟁은 종료되며, 이때 승리군의 잔존전력 및 교전시간을 구한다.

란체스터 방정식 계산 결과 A위치에서는 조선 수군이 승리하는 반면, B, C위치에서는 일본 수군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위치에서 교전 시 조선 수군의 잔존전력은 5.3척으로 개별 함선의 전력비가 8:1임에도 불구하고 판옥선 1척이 세키부네 17척을 상대하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결과다. 반면 B위치에서 교전 시 일본 수군의 잔존전력은 8.6척으로 판옥선 1척이 세키부네 9.6척을 상대하여 A위치에 비해 절반 정도의 성과만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C위치에서 교전 시 일본 수군의 잔존 전력은 11.7척으로 판옥선 1척이 세키부네 9.4척을 상대하여 역시 A위치의 절반 정도의 성과에 불과했다.

〈그림 7〉 예상 교전위치별 교전 결과 비교



다. 분석결과 해석

실제 명량해전 결과 일본 수군은 전선 31척을 잃고 후퇴하였고 조선 수군의 전력 손실은 없었다.¹⁶⁾ 란체스터 방정식을 이용해서 예상 위치별로 일본 함선 31척을 침몰시키는데 소요되는 조선 수군의 전력을 산출했을 때, A, B, C위치에서 각각 1.78척, 2.78척 및 1.83척의 전력 손실이 있었으며 교전 시간은 각각 0.70, 1.10, 0.34단위시간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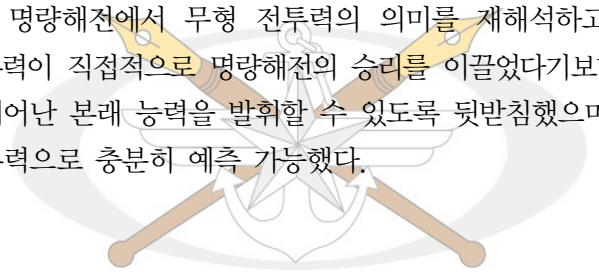
란체스터 방정식에 입각하여 해석했을 때 역사적 기록과 가장 유사한 교전 결과는 A위치에서의 교전이였다. 명량해전의 정확한 교전 위치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서 의견이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란체스터 방정식에 입각한 분석결과만 보면 A위치에서 주 교전이 일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일대일 교전 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전력 손실률을 1:8로 잡았는데(전력비 8:1과 반대), 조류와 교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50m 이상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다면 각 군의 전력 손실률은 1:10 이상이 될 것이므로 A, B, C위치 모두에서 조선 수군이 승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일본 수군이 후퇴하지 않고 계속 전투를 벌였다면,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을 것이다. 산출된 교전 결과를 보면 조선 수군이 승리한 A위치뿐만 아니라 B, C위치의 교전에서도 일본 수군의 잔존 전력은 10여 척에 불과할 정도로 전멸에 가깝다. 이런 결과를 전투 중에 인지하였을 것이고, 역조류의 세기도 더 강해져서 일본 수군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OODA 사이클에서 최초 총공격을 결심(decision) 했지만 환류(feedback)되어 새로운 관찰(observe)을 발생시켜서 판단(orient) 결과 처음과는 다른 후퇴라는 결심(decision) 및 행동(act)을 한 것이다.

16) 이순신, 『난중일기』, 1597년(정유년) 9월 16일.

그동안 명량해전이 유명한 해전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강인한 무형 전투력이었다. ‘신에게는 아직 전선 12척이 남았나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등과 같은 강한 정신력과 전투의지가 있어서 승리가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형 전투력 분석결과를 보면 충분히 예고된 승리였다. 당시 작전환경과 전투를 수행하는 함선의 전투력 차이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투원에게 10배가 넘는 전력의 차이는 분명한 부담이었다. 교전 시 우리에게 아무리 승산이 있다고 설명을 해도 눈앞에 보이는 많은 전력은 전투원을 긴장시켰을 것이다. 무형 전투력은 이러한 긴장감을 해소하고 본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서 명량해전에서 무형 전투력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무형 전투력이 직접적으로 명량해전의 승리를 이끌었다기보다는 조선 수군의 뛰어난 본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으며, 승리는 유형 전투력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5.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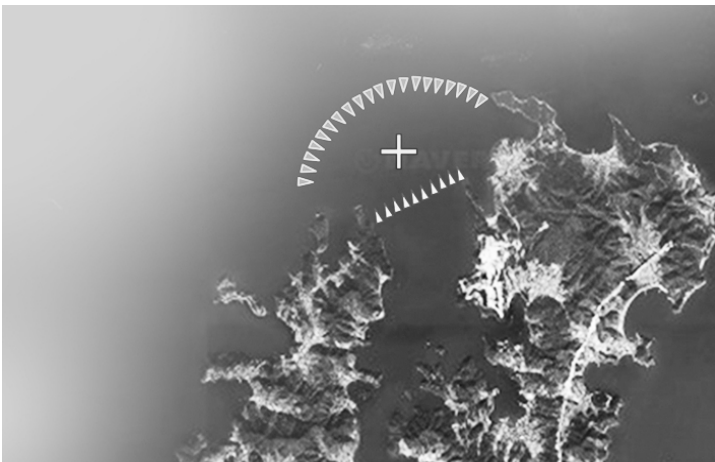
가. 가정에 의한 칠천량해전 양상 재해석

전쟁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삶과 죽음을 오가는 전쟁터에서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냉혹함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칠천량의 교전 결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일본 수군에 비해서 5~8배 우수한 판옥선을 200척 이상 보유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OODA 분석 결과 전투력을 발휘한 함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조선 수군이 경계 작전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교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란체스터 방정식을 이용해 교전결과를 예측해 보았다.

식 (6), (7)과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쟁의 승패는 전쟁 개시 순간의 유형 전투력(B_0, R_0)과 전투 손실률(β, 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때 전투 손실률은 함선 고유의 능력이므로 단기에 변화시키기는 힘들다. 하지만 유형 전투력은 OODA 사이클의 결과 값으로 통솔력, 군기, 사기 등의 무형 전투력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한 OODA 사이클의 시작점에 관찰(observe) - 즉, 경계작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칠천량해전에서 경계작전이 실패하지 않았을 경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추정하고자 한다.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정상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15일 밤 10시 아군 함정 4척이 침몰했을 때 지휘부에게 이 상황이 보고되었을 것이다. 직접적인 공격이 있고, 아군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휘부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야간 일전을 준비하였을 것이다. 최초 공격 밤 10시에서 일본 수군의 총공격이 시작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6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수군이 전열을 가다듬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 가능했다.

〈그림 8〉 칠천량해전 교전 예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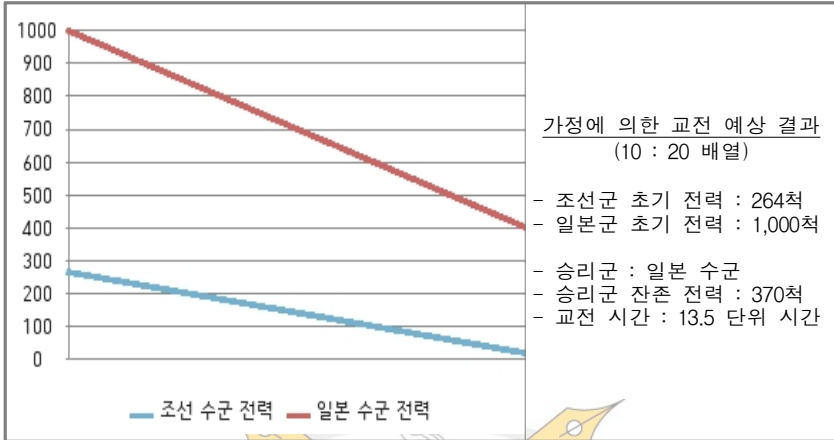


16일 새벽 4시에는 칠천량을 포위한 일본 함선 1,000여 척과 전투태세가 완비된 조선 수군 264척의 교전이 실시되었을 것이다. 예상되는 교전위치는 실제 교전 시 칠천량 북쪽에서 아래로 진격했던 일본 수군과 칠천량 내해에 있던 조선 수군의 위치를 고려하여 그림 8의 위치가 예상되며, 조선 수군이 위치한 곳의 수로 폭은 약 2km로서 약 10척이 횡렬진 형태로 위치할 수 있었다. 반면에 외해를 포위하고 있던 일본 수군은 약 4k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약 20척이 위치할 수 있었다.

양군 단위 함정의 상대적 전투력은 명량해전의 양상과 약간 다르다. 양군의 전술적 이익을 고려해서 명량해전 시 조선 수군은 매우 유리한 상황(그림 6)이었지만, 칠천량에서 예상되는 교전 양상은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뚫고 나가야 하는 상황(그림 8)이었다. 다만, 함선의 견고함, 화공전 우세 등으로 판옥선이 일본 수군의 함선보다 우수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상대적인 전투 손실률은 1:5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상기에서 확인된 변수를 란체스터 방정식에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여전히 일본 수군의 승리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 한 척의 배도 파괴시키지 못하고 도주에만 급급했던 역사적 사실에 반해 가정에 의한 교전에서는 무려 630척의 함선을 대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옥선 1척당 세키부네 2.4척 정도를 상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판옥선과 세키부네의 전투 손실률이 1:5임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판옥선 1척이 대적한 세키부네가 2.4척으로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횡렬진 양상에 의한 것이다. 즉, 조선과 일본의 배열이 10:20으로 한꺼번에 많은 수의 함선을 대적해야 하는 조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만일 조선과 일본의 횡렬진이 10:20이 아니라 20:10이었다면 결과는 조선의 승리로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9> OODA 이론과 란체스터 방정식을 이용한 칠천량해전의 결과 예측 :
 OODA를 만족하여 조선 수군 264척이 일본 수군 1,000척과 대결했다고 가정



예측되는 교전결과를 보고 지형지물과 경계작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형지물로 인한 배열은 1척의 판옥선이 17척의 세키부네를 상대할 수도(조선:일본 = 4:3 횡렬진 추정 시) 있고, 2.4척의 세키부네를 상대할 수도(조선:일본 = 10:20 횡렬진 추정 시) 있는 것이다. 또한 경계작전의 부재는 과반수의 전함을 파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전혀 타격을 입히지 못한 채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안겨준 원인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천량해전은 불리한 지형지물, 조선의 경계작전 실패와 안일함, 이를 감지한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인한 불운의 해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화공전 효과 극대화 전술

13:133의 전력 차를 극복한 명량해전은 막강한 화공전을 구사할 수 있는 판옥선이 있어서 가능했으며, 이런 면에서 명량해전은 화공전의 효과를 극대화한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큰 전력차이

에도 불구하고 조선수군의 함선을 보존하고, 적 함선 30여 척을 침몰시킬 수 있었다. 어떻게 화공전의 효과가 극대화되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적을 조선수군의 함포 사정권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기동이 화공전의 효과를 높였다. 일본 함선이 조선 수군의 함포 사정권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은 공격받을 기회를 높이게 된다. 보다 많은 함포 공격을 일본 수군에게 가할 수 있다. 함포 명중률이 일정하다고 했을 경우 공격받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침몰하는 일본 함선이 많아지고, 전과가 올라감을 의미한다. 명량해전에서 판옥선은 세키부네와 멀어지는 기동을 하였고, 조류가 세키부네의 속도를 늦추었다. 이를 통해 세키부네는 판옥선의 함포 사정권에 오래 머물게 되었고, 30여 척의 함선이 침몰했다.

둘째, 화력 집중은 화공전의 효과를 높인다. 명량해협의 좁은 수로는 많은 일본함선을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만들었다. 반면에 조선 수군은 상대적으로 넓은 해역에 위치함으로써 많은 함선을 전투에 참가시킬 수 있었다. 명량해전에서 적보다 한 척이라도 더 많이 교전에 참가시켜 전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 반대로 명량 해협이 아니라 넓은 해역에서 양군이 전투를 벌였다면 일본 수군이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6. 결론

명량해전과 칠천량해전 사례의 유형 전투력 분석결과는 역사적 기록과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명량해전의 조선 수군 승리요인은 ‘란체스터 방정식’을 통해 작전환경과 개별 전투함선의 전투력 차이로

확인되었다. 칠천량해전의 조선 수군 패배요인은 불리한 지형지물과, 보유한 전력을 실제 전투력으로 발휘하지 못한 'OODA' 사이클의 부재였다. 일부 사람들은 명량해전과 같은 극적인 결과는 이순신 장군의 신과 같은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명량해전과 같은 작전환경에서 판옥선의 승조원이 제 능력을 발휘한다면 원균 장군이 지휘를 했어도 결과는 비슷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입각하여 해석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실제 전장에서 전투를 하면서 발휘된 것이라기보다 유형 전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안을 가지고 지휘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격전지를 명량해협으로 유인한 점, 10배가 넘는 적이 다가오고 있을 때 두려워하는 전투원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한 점을 들 수 있다. 칠천량해전에서도 기습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기습공격을 당했다하더라도 신속히 전열을 가다듬고 싸웠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전투였을 것이다.

정유재란뿐만 아니라 과거 전쟁사의 분석에 있어서 유형 전투력과 무형 전투력 모두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형 전투력 분석을 통하여 전투원의 리더십과 정신전력에 대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유형 전투력 분석을 통해서도 전쟁사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가능하며,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정량적인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 해상에서 벌어진 전투사례뿐만 아니라 지상과 공중의 많은 전투사례에 대해서도 유형 전투력 측면에서 활발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OODA이론, 란체스터 방정식, 칠천량해전, 명량해전, 유형전투력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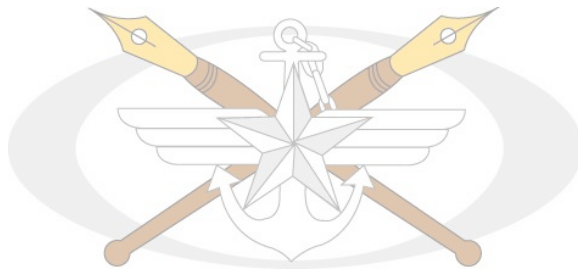
An Analysis on the Physical Combat Power of the 'Chilchunlyang' and 'Myunglyang' naval warfare

Jeong, wan-hee·Min, seung-sik

This study is on the analysis of the physical combat strength for the sea battle of 'Chilchunlyang' and 'Myunglyang' occurred between Chosun and Japan naval forces in Jung-Yu-Jaeran(1597). We used the OODA (Observe, Orient, Decision, Act) theory and the Lancaster's law for the analysis of the physical combat power, and then figured out the accomplished battle power from original physical combat power through OODA theory. Also, we estimated the results of these two sea battles through the Lanchester's law by applying the accomplished battle power of two naval forces to the operational circumstances. Considering the analysis of the sea battle of 'Chilchunlyang', the main reason for the Chosun navy's defeat was because it did not demonstrate its combat power in an effective way. However, during the 'Myunglyang' sea fight, both Chosun and Japan naval forces displayed their own battle power. In this combat, the Chosun naval forces estimated to be get the victory through the analysis of Lanchester's law. On the other hand, this analysis may offer a basis to presume the spot of the engagement for the naval battle of 'Myunglyang'. Moreover, the Chosun navy's overwhelming victory was estimated from the Lanchester's law assuming that the OODA was sufficiently satisfied by the stages when the conditions were set. Considering the analysis of these two sea battles, we can draw a inference that the reason for Chosun navy's losing the 'Chilchunlyang' sea fight caused by the failure of security operations. In a sense, it is expected to lay the ground work to estimate the aspect of the past battle and

the result of future warfare that possibly happen by analyzing the physical combat power.

Key Words : OODA theory, Lanchester's law, 'Myunglyang' sea fight, 'Chilchunlyang' sea fight, Physical(concrete) power



1620년대 유럽의 국제정세와 북부 이탈리아

- 그리종(Grisons) 사태와 만토바 계승전쟁을 중심으로 -

임 승 휘*

1. 들어가며
2. 전쟁인가 평화인가? : 17세기 초의 국제정세
3. 그리종¹⁾ 주와 발텔리나(Valtellina) 사태
4. 만토바 계승 전쟁
5. 나오며

1. 들어가며

1624년 이후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는 시기까지 스위스 동부의 그리종 주와 그 남쪽에 위치한 발텔리나²⁾ 협곡, 그리고

* 선문대 역사학과 부교수

- 1) 독일어로 그라우빈덴(Graubünden), 이탈리아어로는 그리조니(Grigioni). 본래 로마 가톨릭 주교가 지배하던 곳으로, 종교개혁 이후 주교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개신교 주민들의 동맹이 형성되었다. 그리종이란 명칭은 이 지역주민들이 회색 옷을 주로 입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 2) 롬바르디아 지방에 속한 발텔리나는 이탈리아 북단에 위치하며 스위스 국경에 접해

이탈리아 북부의 만토바-몽페라토(Monferrato)는 프랑스의 부르봉가와 오스트리아/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 왕가 모두에게 일종의 뜨거운 감자였다. 발텔리나를 무대로 1624년부터 벌어진 양국의 군사적 갈등은 1626년 3월 초 마드리드에서 체결된 몽종(Monzon) 조약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불과 1년 후, 이 지역은 만토바 공국의 계승 문제로 인해 재차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유럽의 주요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오늘날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알프스 산악지대에 대한 부르봉과 합스부르크 두 왕가의 관심과 그로 인한 군사적 갈등은 느닷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1618년 발발한 30년 전쟁으로 인해 당시 합스부르크의 신성로마제국은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의 독일 침공에 맞서야 했고, 마찬가지로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한 에스파냐는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을 저지하는데 골몰해야 했으며, 프랑스는 절대왕권의 확립과 더불어 국내 신교도들의 반란과 영국의 개입이 야기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정세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유럽대륙의 양대 세력인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가가 발텔리나와 만토바(Mantova)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일까? 15세기 이후 프랑스의 발루아 왕가가 추구해온 이탈리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다시 표출된 것일까, 아니면 군사적 영광을 추구하던 두 왕조 사이에 벌어진 전근대적 성격의 자존심 경쟁인가?

이 시기의 유럽의 전쟁사, 특히 30년 전쟁에 대한 연구들은 이 복잡한 국제적 무력충돌이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나 영토적 야심의

있는 지역. 14세기 이후 발텔리나는 밀라노 공국에 속했으나, 1512년 그리종 주에 부속되었다.

차원을 넘어서며 근대적인 국가간체제로의 이행을 담보하는 단계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막상 독일 지역에서 벌어진 무력투쟁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군사적 개입과 뒤이은 스웨덴의 침입은 영토적 야심과 왕조적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종교적 갈등이라는 원인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시기의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무력충돌 또한 이러한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19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위를 두고 일어난 합스부르크가의 카를 5세와 발루아(Valois) 왕가의 프랑수아 1세의 투쟁도 대립구도 면에서는 1620년대의 투쟁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케케묵은 갈등의 불씨가 17세기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발텔리나와 만토바를 무대로 벌어진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외교전과 무력충돌은 단순히 왕조적 야심과 대결이라는 시각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17세기를 장식한 두 세력 간의 전쟁과 외교는 16세기에 벌어진 발루아왕가와 합스부르크 사이의 갈등과는 성격이 사뭇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마드리드와 파리는 명확히 국가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전쟁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국의 재정·군사 국가 형성과정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유럽의 패권 투쟁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17세기 유럽의 복잡한 정세와 이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먼저 1620~30년대 유럽의 국제정세의 성격과 프랑스 국제정치적 방향을 둘러싸고 벌어진 조정 내부의 논쟁과 갈등을 살펴보고, 이 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치적·외교적 사태, 즉 발텔리나와 만토바를 무대로 벌어진 프랑스

부르봉 왕가와 독일/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무력 충돌의 내용과 그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이 전쟁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전쟁인가 평화인가? : 17세기 초의 국제정세

프랑스의 왕가와 합스부르크(Habsbourg)가의 갈등은 1519년 발루아(Valois) 왕조의 프랑수아 1세와 카를 5세가 서유럽 기독교세계의 최고 직위를 두고 경합했던 황제 선출문제를 발단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1493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즉위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 1세(1459~1519)는 부르고뉴의 용담공 샤를(Charles Ier le Téméraire; 1433~1477)의 딸 마리와와 혼인을 통해 부르고뉴를 차지하는 한편, 오스트리아의 옛 영토를 회복하는데 성공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팽창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었다. 막시밀리안의 아들 필립은 1496년 카스티야의 여왕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의 딸 후아나와 혼인을 통해 카스티야를 차지했고, 펠리페 1세로 왕위에 올라 이베리아 반도를 통치하게 되었다. 펠리페 1세와 후아나의 사망(1516) 이후 이들의 아들인 카를로스 1세가 에스파냐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 뒤, 카를로스 1세의 조부인 막시밀리안은 손자에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위를 물려주게 되면서, 카를로스 1세는 에스파냐의 지배자인 동시에 카를 5세(1519~1558)라는 이름으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되어 명실상부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군주로 발돋움했다.³⁾ 훗날 카를 5세가

3) 잉글랜드의 헨리 8세의 첫 번째 왕비인 아라곤의 캐서린이 그의 이모이고, 나중에 그의 아들 펠리페 2세와 결혼하게 되는 잉글랜드의 메리 1세는 그의 사촌이다.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위를, 아들 펠리페에게 에스파냐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합스부르크 가문은 표면상 오스트리아 계와 에스파냐계 가문을 분리되었지만, 합스부르크라는 이름은 유럽 최대의 왕실가문으로 부상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⁴⁾

펠리페 2세가 1555년 합스부르크가의 자산을 물려받고 선왕의 이른바 보편왕국을 에스파냐 왕국으로 변화시켰을 때, 두 가문의 갈등은 이제 프랑스-에스파냐의 갈등이란 양상을 띠게 되었다. 카토캄브레지(Cateau-Cambresis) 조약(1559)⁵⁾과 베르벵(Vervins) 조약(1598)⁶⁾은 단순한 휴전 협정에 불과했다. 앙리 4세가 암살당하고 루이 13세가 즉위한 후에도 프랑스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대립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왕조적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그 양상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루돌프 2세(재위 1576~1612)를 계승한 마티아스(Mathias) 황제가 1619년 사망하고,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국왕이자 마티아스의 조카인 페르디난트가 1619년 8월 28일 황제로 선출되었다. 페르디난트 1세의 손자인 그는 잉골슈타트 예수회에서 교육을 받은 완고한 가톨릭교도였고, 슈타이어마르크 주의 신교 세력을 붕괴시킨 인물

4) 합스부르크 왕가의 팽창에 관해서는 Jean Bérenger, *Histoire de l'Empire des Habsbourg : 1273-1918*(Paris, Fayard, 1990).

5) 1559년 4월 3일 프랑스의 앙리 2세와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프랑스 북동부 노르(Nord) 도에 소재한 작은 마을인 카토캄브레지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양국의 이탈리아 패권전쟁을 종결지었다. 프랑스는 피에몬테와 사보이를 사보이 공작에게 반환했지만, 살로초(Saluzzo)와 칼레(Calais), 메츠(Metz), 툴(Toul), 베르벵(Verdun)을 확보했다. 에스파냐는 프랑슈콩테(Franche-Comté)를 차지하고, 밀라노와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데니아에 대한 직접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6) 1598년 5월 2일 앙리 4세는 베르벵에서 에스파냐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 종교내전에 개입한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종결지었다. 에스파냐는 신교도 출신 국왕인 앙리 4세를 공식 인정하고 프랑스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었다. 그 때문에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들은 페르디난트의 황제 즉위 직전 그를 보헤미아의 왕에서 폐위시키고, 대신 영국왕 제임스 1세의 사위이자 신교도인 팔츠(Pfalz) 선제후(選帝侯) 프리드리히 5세를 왕으로 옹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독일 내부에서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소용돌이치게 한 30년 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이 전쟁에서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교황과 토스카나 대공 그리고 에스파냐 공왕으로부터 자금과 군사를 지원받았다. 1619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된 페르디난트 2세는 내외의 가톨릭 세력의 원조를 얻어 1620년 바이센베르크(Weißenberg)에서 팔츠 선제후를 격파하고, 보헤미아에 대한 합스부르크의 지배권을 재확립하였다. 또한 1625년에는 보헤미아 출신의 유명한 용병대장 발렌슈타인⁷⁾을 기용하여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의 침공을 패퇴시키면서 한때 전 독일을 제패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 페르디난트 2세는 프랑스 왕에게도 지원을 요청하면서 프랑스의 협조 내지는 중립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일 루이 13세가 프랑스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에 따라 신교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전쟁의 향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었다.⁸⁾ 하지만 프랑스의 반응은 황제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독일에서 페르디난트 2세의 패권이 확립되는 과정을 주시하면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력 확대를 우려하고 이에 제동을 걸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1620년대 중반, 리슐리외 추기경이 프랑스 정부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 프랑스는 네덜란드

7) Albrecht Wenzel Eusebius von Wallenstein(1583-1634). 보헤미아의 군인이자 정치가로서, 30년 전쟁기간 중 신성로마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2세를 위해 독립적인 황제군을 편성했으며 한때 7만에 달하는 황제군의 총지휘관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훗날 황제가 그에게 등을 돌리자, 반황제 음모를 피하다가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8) E. Lavisse, *Histoire de France depuis les origines jusqu'à la Révolution*, Tome XI, ii, Henri IV et Louis XIII(1598-1643)(Paris, Hachette, 1905), p.210.

와의 동맹을 재개하고 영국 왕실과의 정략적인 혼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종교적 이해관계와는 관계없는 대외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반 합스부르크 정책기조는 1624년 리슐리외 추기경이 국무대신으로 복귀한 이후 프랑스의 대외 정책은 1642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마자랭 추기경의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재상의 위치에 오른 리슐리외는 곧바로 “진정한 프랑스인(Bons Français)” 또는 “국가주의 가톨릭교도(Catholique d'Etat)”의 정치를 대변하는 인물로 간주되었고, 이는 프랑스 궁정 내부에서 벌어진 친 에스파냐적 경건파(parti dévot)와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했다. 리슐리외의 이러한 반 합스부르크 노선은 국내의 종교적 통일, 즉 프랑스 신교세력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친 에스파냐적 노선을 추구한 경건파의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⁹⁾ 리슐리외는 자신의 반 에스파냐 정책이 반 가톨릭정책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그는 에스파냐가 보편왕국을 꿈꾸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단과 이슬람 세력과 연합하고 마키아벨리의 가르침대로 종교를 구실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즈 드 발자크 역시 에스파냐의 이러한 팽창 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위선적인 에스파냐에 맞서 서유럽 기독교 세계를 해방하고 중재하는 역할이야말로 프랑스 왕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¹⁰⁾

리슐리외의 『회고록』에 따르면, 1626년 초부터 국왕참사회에서는 에스파냐와의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에는 당시 국왕 모후인 마리 드 메디치와 그녀의 입장을 대변하던 재무총관 미셸 드 마리아크(Michel de Marillac)가 리슐리외의

9) 리슐리외와 경건파의 대립에 대해서는 즐고, 「‘속은 자의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프랑스 절대왕정의 문제적 ‘근대성’」, 『프랑스사연구』 25호(2011), pp.29~57; Georges Pagès, “Autour du Grand Orage. Richelieu et Marillac : deux politiques”, in *Revue historique*, n° 179(1937), pp.63~97 참조.

10) 리슐리외의 입각에서부터 북부 이탈리아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Michel Carmona, *Richelieu*(Paris, Fayard, 1983), pp.485~519를 참조.

반(反) 에스파냐 정책에 맞서 합스부르크와의 전쟁의 무용론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정 내 경건파의 우두머리였던 마리아크는 국새상서가 된 이후에도 에스파냐와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의 대외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세계의 평화론에 입각한 것이었지만, 나아가 위그노의 반란과 행정개혁이라는 국내문제의 해결과 대외전쟁을 저울질하며 내부적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그는 “고작 한줌의 땅을 스위스인들에게 돌려주려는”¹¹⁾ 발텔리나 사태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북부 이탈리아에서 벌어질 에스파냐와의 무력충돌로 인해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가 야기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전직 재무총관으로서 마리아크는 전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야기될 과도한 지출과 그로인한 재정적 문제,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편법들이 야기할 국내적 무질서를 경고했다. 그는 이 전쟁이 불가피하게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전쟁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이는 국내의 여러 당파들이 기세를 떨칠 기회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결국 전쟁으로 인해 루이 13세는 “자신의 국가를 지배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몇 달 후 국새상서로 임명된 그는 국내 불안을 한층 더 우려하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전쟁이고, 결국 전쟁은 국왕의 권위를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우선 프랑스가 직면한 전쟁의 상황을 우려했다. 프랑스는 결코 위그노의 반란과 에스파냐와의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확신한 그는 다시 한 번 국내 위그노 반란 세력을 먼저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외전쟁은 보다 심각한 문제를 수반한다.

11) 마리아크가 했다고 전해지는 이 표현은 리슐리외의 『회고록』에 등장한다. Mémoires du cardinal de Richelieu, éd. S.H.F.(Paris, SHF, 1907-1931), t. V, p.320.

“국왕은 전쟁을 수행하다가 결국 자금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는 결코 적들에게 평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를 요구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방에서 전쟁을 지속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방에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세금을 사용하고, 담보도 지불하지 않고, 연금이나 봉급도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도 모자라 결국에 폭력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에 의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왕이 자금부족으로 항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¹²⁾

국새상서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전쟁 수행을 위해 그는 새로운 관직 창설을 명하는 칙령 반포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관직을 창설하고 이를 매각하는 것은 국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속하고 손쉬운 자금동원 방식이었던 것이다.

“작금의 사태로 인해 우리가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피하며 도저히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¹³⁾

반대로 리슐리외는 국왕에게 국제정세에 대한 상황보고를 통해 국왕의 결단을 요청했다. 엄밀히 말해서 리슐리외가 남긴 국정 보고서에는 에스파냐에 대한 주전론이 담겨있지는 않다. 그는 최종적인 결정을 국왕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리슐리외는 루이 13세의 속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1629년 만토바 계승전쟁 중 프랑스 정복한 피네롤로의 반환 문제에 대해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12) Michel de Marillac à Mathieu Molé, Nantes, 22 juillet 1626(Mathieu Molé, Mémoires, t. I. p.324).

13) Michel de Marillac au cardinal de Richelieu, Paris, 15 février 1629. Grillon, IV, pièce 72. Cité par G. Pagès, p.77.

“피네롤로를 반환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소인은 이 정복이 전하에게 최고의 업적이며, 이를 통해 전하가 향후 이탈리아의 주인이자 조정자가 될 수 있다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전하가 전쟁을 결정한다면, 왕국의 안정과 재정 그리고 모든 국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평화를 원하신다면 장차 이탈리아에 대한 어떠한 야심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¹⁴⁾

국내상서 미셸 드 마리아크는 크리스티교 세계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에스파냐와의 평화조약 준수를 강력히 주장했다. 신교도의 반란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에스파냐와의 전쟁은 “진정 크리스티교적인 국왕”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일로 여겨졌다. 마리아크는 전쟁 대신 국내 행정개혁을 주장하면서 일명 코드 미쇼(Code Mich명)로 불리게 될 법제개혁을 준비했다. 결국 프랑스의 대외정책, 특히 북부 이탈리아를 무대로 벌어진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쟁을 둘러싼 리슐리외와 경건파 사이의 대립은 1630년 10월 이른바 “속은 자의 날”¹⁵⁾ 사건을 통해 파국으로 치달았다. 1630년 5월 실각하여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모후 마리 드 메디치 역시 해외 망명길에 올랐다. 반대로 루이 13세의 신임을 재확인한 리슐리외는 이후 궁정에서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 “국가이성”에 입각한 현실정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었다. “속은 자의 날”은 프랑스가 향후 철저한 현실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합리적인 국가이성의 정치를 추구하면서 절대왕정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게 된 중요한 전기로 평가된다.¹⁶⁾ 그렇다면 국왕 모후의 추방이라는

14) Aff. étr., Corr. pol., Turin, to. XI, fol. 413. G. Pagès, “Autour du Grand Orage”, pp.82~83 재인용.

15) “속은 자의 날”에 관해서는 Georges Mongrédien, *10 novembre 1630 La journée des Dupes*, coll. Trente Journées qui ont fait la France(Paris, Gallimard, 1961); 임승휘, 「‘속은 자의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프랑스 절대왕정의 문제적 ‘근대성’」, pp.32~37.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한 이 사건의 진정한 관건은 무엇인가? 궁정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는 특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은 프랑스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과 입장, 특히 1620년대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발텔리나 사태와 만토바 계승전쟁에 대한 두 견해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1624년 이후 이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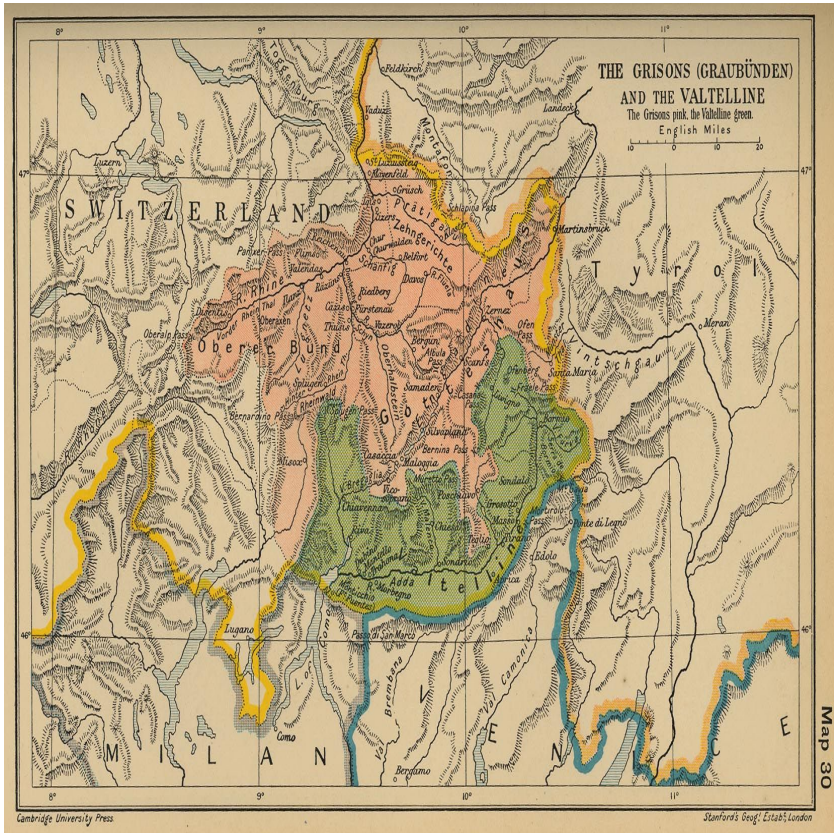
3. 그리종 주와 발텔리나 사태

1624년 4월 29일 수석국무대신으로 임명된 리슐리외 추기경은 밀라노 북쪽 발텔리나 지역으로 병력 이동을 명하였다. 사보이 공국과의 사전 동의하에 안니발 데스트레(Annibal d'Estrées) 코브르(Coeuvres)¹⁷⁾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는 스위스 동부의 그리종 주를 거쳐 발텔리나로 진군하는 한편, 사보이 공작 카를로 엠마누엘레는 몽페라토를 정복하고 에스파냐의 연합세력인 제노바 공격을 개시했다. 이듬해 밀라노 총독 페리아(Feria) 공작은 베네치아의 외교적 지원을 받으며 반격에 나서 프랑스-사보이 군대를 공격했다. 1626년 3월 프랑스·사보이 vs. 에스파냐·밀라노 사이의 전쟁은 다소 싱겁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프랑스와 에스파냐는 빠른 속도로 화평에 동의하며, 발텔리나에 대한 그리종 주의 종주권을 재확인한 몽중 조약을 체결했다.

16) Etienne Thuau, *Raison d'Etat et pensée politique à l'époque de Richelieu* (Paris, Athènes, 1966), pp.226~232; Françoise Hildesheimer, *Richelieu. Une certaine idée de l'Etat*(Paris, Publisud, 1985), pp.99~111.

17) François Annibal d'Estrées, marquis de Coeuvres(1573-1670). 프랑스 군지휘관이자 외교관. 1626년 사복감(司僕監; maréchal de France) 직에 올랐다.

〈그림 1〉 그리종과 발텔리나



사실 발텔리나에서 발생한 이 전쟁의 발단은 1624년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스위스 동남부 끝자락, 험준한 산악지역에 위치한 그리종 주는 지리적으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 인접해있었다. 그리고 그리종과 롬바르디아 북부의 밀라노 공국 사이에 발텔리나가 있었다. 발텔리나는 14세기 이후 밀라노 공국의 영토였지만, 1512년 그리종의 3동맹은 지난한 투쟁 끝에 발텔리나에 대한 중주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450년 그리종 지역의 10관구동맹(Ligue des Dix-Juridictions)과 신전동맹(Ligue de la Maison-Dieu)의

연합, 그리고 다시 1471년 이 두 동맹과 회색동맹(Ligue Grise)의 연합하면서 이른바 ‘3동맹’¹⁸⁾ 체제를 구축한 그리종은 1496년 토겐부르크(Toggenburg)가의 단절되면서 발텔리나를 차지한 합스부르크가에 맞서 싸웠고, 칼벤(Calven) 전투와 도르나흐(Dornach)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1512년 3동맹은 발텔리나와 치아베나(Chiavenna)와 보르미오(Bormio) 계곡 등 알프스 남부지역을 정복하고 그들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였다.

1559년 카토캉브레지(Cateau-Cambrésis) 조약¹⁹⁾으로 카를 5세의 아들이자 에스파냐 국왕인 펠리페 2세가 밀라노를 지배하게 되면서 발텔리나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밀라노를 차지하게 된 합스부르크가에게 발텔리나는 그들의 본거지인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잇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리종 주와 발텔리나는 그것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베니스, 다른 한편으로는 오스트리아와 에스파냐 세력의 군사적 각축장이 되었다. 두 세력권은 그리종에게 용병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군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때로는 동맹을 제안하고, 때로는 군사행동에 나섰다. 이 시기에 발생한 그리종 주 내부의 당파 분열은 이러한 긴장

18) 중세 말, 특히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까지 이 지역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코이레(Coire) 주교의 지배에 맞서기 위해 1367년 남동부와 중부에서 ‘신전동맹’, 1395년 서부지역 ‘회색동맹’, 그리고 1436년 북부에서 ‘10관구 동맹’(Ligue des Dix-Jurisdictions)이 차례로 형성되었다.

19) 프랑스의 앙리 2세와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사이에 벌어진 이탈리아전쟁(1551~1559)이 종결되면서 체결된 화약. 이 화약에 따라 프랑스는 피에몬테와 사보이를 사보이 공작에게 반환하고 대신 살루초(Saluzzo), 칼레, 메츠, 툴, 베르됭을 보유하게 되었다. 반대로 에스파냐는 프랑쉬콩테(Franche-Comté)만이 아니라 밀라노,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데니아 등 이탈리아 주요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곳은 사보이와 베네치아 공화국뿐이었다. 이탈리아에 대한 에스파냐의 지배권은 18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이 조약으로 1494년 샤를 8세에 의해 시작된 발루아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투쟁이 막을 내렸다.

감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했다.²⁰⁾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종교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리종 주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발텔레나가 가진 지정학적 입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1600년 프랑스와 사보이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였다. 앙리 3세의 암살(1589) 이후, 사보이 공작은 프로방스와 마르세유, 그리고 리옹을 차지하기 위해 프랑스로부터 분리를 시도했다. 사보이와 프랑스의 갈등은 약 9년간 지속되었고, 1597년 에스파냐의 군대가 개입하면서 이 갈등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했다. 하지만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1598년 베르벵(Vervins) 조약을 체결하자, 사보이 공작은 살루초(Saluzzo)²¹⁾ 후작령의 획득을 협상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이 제안에 대한 보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앙리 4세는 살루초를 양보하는 대신 브레스(Bresse)²²⁾와 뷔제(Bugey)²³⁾를 요구했다. 1600년 앙리 4세는 사보이 공작 카를로 엠마누엘레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사보이를 공격하면서, 모리엔(Maurienne)을 정복하고 몽멜리앙(Montmélián) 시를 포위했다. 공세에 밀린 사보이 공작은 항복을 선언하고 1601년 1월 17일 리옹에서 평화조약에 조인했다. 이 조약에 따라 사보이는 브레스와 뷔제, 쾅크 등을 상실했고, 대신 살루초 후작령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보이는 알프스 서쪽 지방을 상실하면서 전력이 약화되었고, 상베리에서 토리노로 수도를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에스파냐에게 리옹 조약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했다. 프랑스의 영향력이 확대된 탓에 사보이를 통한 유럽 북부로의 연결로가 더 이상 안전

20) *Dictionnaire historique de la Suisse en linge*,
<http://www.hls-dhs-dss.ch/textes/f/F7391.php>

21) 1125년부터 1548년까지 피에몬테 지방에 존속했던 도시국가. 1548년 후작 가브리엘레 1세가 폐위되고 프랑스에 합병되었다가, 1601년 사보이의 영토가 되었다. 이 시기 살루초 후작령은 지리적으로 사보이 공국 안에 위치했다.

22) 프랑스 동부 부르고뉴와 프랑슈콩테에 걸쳐 있던 지방.

23) 리옹과 제네바 사이에 위치한 지역. 현재 프랑스의 앵(Ain) 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발텔리나는 밀라노와 오스트리아, 나아가 프랑쉬콩테, 네덜란드를 연결해주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1603년 그리종의 3동맹은 베니스와의 동맹을 결정하고 이듬해에는 다시 에스파냐 국왕의 지배하에 있던 밀라노 공작령의 동맹 제의를 거부하게 되면서, 상황은 극단적으로 발전하였다. 밀라노의 페드로 데 푸엔테스(Pedro de Fuentes) 총독은 그리종에 대한 상업적 봉쇄령을 내리고 발텔리나 입구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게 하였다. 이러한 에스파냐의 압력은 발텔리나 지역의 내부적 분열을 야기하였다. 1620년에 접어들면서 그리종의 정치적·종교적 분란은 절정에 달했다.

그리종 주의 3동맹(Trois Ligues)이 합스부르크 세력에 맞서 연대했고 발텔리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발텔리나와 그리종 주가 하나로 통합되기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종교였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그리종과 엔가딘(Engadine)²⁴ 지역은 개신교를 선택한 반면, 발텔리나는 가톨릭으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발텔리나의 가톨릭 영주들과 그리종의 신교도들 사이에 교파간 갈등이 빚어졌다. 발텔리나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에스파냐는 이러한 갈등구도를 그들의 목적을 이해 이용하고자 했다. 페드로 드 툴레도의 후임으로 밀라노 총독에 부임한 페리아(Feria) 공작은 곧바로 그리종에 주목했다. 독일 지역의 종교분쟁과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비엔나와 마드리드의 두 합스부르크 세력을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사보이로부터 프랑쉬콩테로 향하는 군사로가 막힐 경우, 비엔나와 마드리드를 연결하는 데 발텔리나와 그리종이 가장 빠른 직결로를 제공했다.

24) 그리종 주 동부, 인(Inn) 강 상류에 위치한 저지 지역.

이러한 에스파냐의 정책은 가톨릭교의 수호라는 대의명분과 중첩된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페리아 공작은 프로테스탄트 그리종주의 지배를 받지만 가톨릭교도들이 다수인 발텔리나로 진입했다. 그리하여 1618년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그리종의 신교파와 발텔리나의 가톨릭 세력간의 대립은 1620년 여름 잔인한 학살극으로 폭발하였다. 에스파냐 군대에 고무된 발텔리나인들은 7월 18일 밤, 티라노(Tirano)를 기점으로 테글리오(Teglio)와 손드리오(Sondrio)로 진군하면서 신교도들을 대량학살한 것이다. 일명 ‘사크로 마첼로’(Sacro Macello) 사건, 즉 성스런 학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약 600여 명의 신교도가 학살당하였고²⁵⁾, 밀라노의 총독 페리아(Feria) 공작은 그리종에 반기를 든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발텔리나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1621년 2월 에스파냐에 대사를 파견하였고, 4월 15일 펠리페 4세와 마드리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에스파냐는 그들이 차지했던 지역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는 프랑스 국왕을 보증인으로 삼고 그리종과 스위스인들의 협약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해결하기 힘든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었다. 에스파냐의 사주를 받은 스위스 가톨릭교도들은 이 협약에 동의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페리아 공작은 발텔리나에 계속 주둔하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을 갖게 되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는 티롤 지방을 통해 그리종 주를 공격했다.

1623년 2월 7일 파리에서 프랑스와 사보이, 베니스 간에 발텔리나를 그리종인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군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에스파냐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에스파냐군의 철수를 약속하며 발텔리나의

25) Collectif, *Nouvelle histoire de la Suisse et des suisses*, t. II(Lausanne, Payot, 1983), p.83.

요새들에 대한 관리를 교황에게 일임하겠다고 제안했다. 프랑스도 망설임 끝에 이 제안에 동의했지만, 이는 로마와 에스파냐의 술책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페리아 공작은 모든 요새를 넘기지 않았고 리파(Ripa)와 치아베나(Chiavenna)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켰다. 한편 교황은 그리종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발텔리나가 다른 3동맹과 같은 권리를 지닌 네 번째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리조약은 죽어버린 문서가 되었다.²⁶⁾

1624년 프랑스의 발텔리나 침공 결정은 이러한 군사적·외교적 상황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루이 13세와 수석국무대신이 이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했던 논지는 사실 카를 5세와 프랑수아 1세의 대립 이후 널리 잘 알려진 내용이었다. 리솔리외는 이탈리아 영토와 오스트리아, 나아가 네덜란드를 잇는 연결로로써 발텔리나의 전략적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교황 우르바누스 8세가 지휘하는 교황군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전혀 환상을 품지 않았다. 교황군은 이 지역의 종교적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둔했지만,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티롤 지방으로 이동하는 에스파냐 군사력을 기꺼이 용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솔리외의 의도는 가톨릭 지역인 발텔리나의 종주권을 프로테스탄트인 그리종인들에게 반환하고, 이로써 라인강으로 향하는 에스파냐의 출구를 결정적으로 닫아버리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리솔리외가 수석국무대신으로 등용될 무렵 합스부르크의 세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황제는 팔츠(Pfalz)를 붕괴시키고 선제후 자격을 바이에른으로 이전시켰다. 그는 가톨릭 동맹군을 휘하에 두고 독일 북서부를 장악했다. 에스파냐는 네덜란드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에스파냐의 영향력을 막강해서 독립을 유지

26) 1639년 그리종은 에스파냐-밀라노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발텔리나를 회복하였지만, 이는 발텔리나에서 신교의 금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으로 확인되었다.

하고 있던 곳은 베니치아와 사보이뿐이었다. 에스파냐 국왕과 황제의 이해관계는 너무도 얽혀있어서, 양자는 서로를 강력히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 에스파냐 없이 황제는 이탈리아에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황제가 없이는 프랑쉬콩테와 네덜란드의 에스파냐 세력이 위협해질 수 있었다. 에스파냐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는 두 왕국을 연결해주는 안정적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발텔레나가 그리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다. 그런 점에서 발텔리나는 리슐리외가 강조했듯이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1624년 여름 루이 12세는 교황에게 에스파냐의 마드리드 조약 이행에 대한 약속을 요구했다. 교황이 발텔리나를 떠나지 않은 채 프랑스의 요구를 묵살하자 루이 13세는 자신의 동맹세력이 절망에 빠져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처한을 재차 발송하며 군사적 행동을 예고했다. 퀴브르(Coeuvres) 후작의 지휘하에 500의 기병과 3,000의 보병으로 구성된 프랑스 군대는 12월 26일 쿠어(Chur)를 출발하여 발텔리나로 남하하였다. 그리고 차례로 티라노와 손드리오를 정복하고, 에스파냐가 주둔하고 있던 치아베나로 진격하여 이듬해 1월에는 리파(Ripa)를 포위하였다.

리슐리외는 1624년 9월 베네치아와 사보이와의 군사동맹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사보이 공작 카를로 엠마누엘레는 밀라노와 나폴리 왕국을 정복하여 루이 13세의 동생인 가스통 도를레앙(Gaston d'Orléans)에게 선사하겠다고 호언했지만, 리슐리외가 원한 것은 에스파냐 군사력을 교란시키려는 것이었다.²⁷⁾

한편 교황 우르바누스 8세는 1625년 2월 사절을 파견하여 프랑스 왕과의 협상을 추진하였다. 교황 사절인 프란체스코 바르베리니²⁸⁾는 발텔리나의 독립과 프랑스의 퇴각을 요구한 반면, 리슐리외는

27) E. Lavisse, *Histoire de France*, p.238.

28) Francesco Barberini(1597 - 1679). 교황 우르바누스 8세의 조카이자 추기경. 1625년에는 교황 특사로 파리에 파견되어 리슐리외와 외교적인 협상을 전담했다.

발텔리나의 종교적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리종의 종주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같은 시기 리슐리외는 앙리 드 로앙(Henri de Rohan)과 수비즈(Soubise) 공작이 일으킨 위그노 반란에 직면했다. 국내와 국외 두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리슐리외는 1625년 11월 위그노 반란세력과의 협상에 돌입했고, 라로셴의 위그노 반란 세력을 지원하던 영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프랑스 조정 또한 내부적인 분열에 직면했다. 조정 내 가톨릭 당파는 교황사절과의 협상을 기다리는 동안 에스파냐와의 직접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국왕 모후 마리 드 메디치는 마드리드에 파견된 대사에게 에스파냐의 수석국무대신인 올리바레스²⁹⁾와의 협상을 종용했고, 대사 파르지(Fargis)는 리슐리외와 루이 13세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1626년 1월 1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프랑스가 알프스로 향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리종의 종주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조약을 어길 시 이러한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단서를 갖고 있었다. 루이 13세와 리슐리외는 조약의 수용을 거부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5월 2일 몽종 조약이 최종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그리종의 종주권과 알프스 통로에 대한 프랑스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발텔리나에 종교적 자유와 행정관 선출권을 인정하였다.³⁰⁾ 그러나 몽종 조약은 그리종의 3동맹은 물론 이저니와 사보이와 베네치아 등 프랑스의 동맹세력 모두 자신들의

29) 가스파르 구즈만, 올리바레스 백작(Gaspar de Guzmán, Count of Olivares). 에스파냐 펠리페 4세의 총애를 받던 올리바레스는 1621년 수석국무대신에 올라 1643년까지 에스파냐의 국정을 책임졌다. Cf. John Elliott, *Richelieu et Olivares* (Paris, PUF, 1991). 만토바 계승전쟁에서 올리바레스의 활동에 대해서는 Roland Mousnier, *Homme Rouge ou la vie du cardinal de Richelieu*(1585-1642) (Paris, Robert Laffont, 1992), pp.355~358 참조.

30) Lucien Bély, Jean Bérenger, André Corvisier, *Guerre et paix dans l'Europe du XVII^e siècle*(Paris, Sedes, 1991), t. I, p.312.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4. 만토바 계승 전쟁(1628~1631)

북부 이탈리아를 둘러싼 분쟁은 몽중 조약으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결코 지속적이지도 결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유럽의 강대국 질서와 이해관계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북부 이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강대국들의 긴장관계는 매우 단순한 정치적 사건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의 이해관계는 전근대적인 왕조적 이해관계와 교차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전쟁을 예고했다.

북부 이탈리아에 전운이 다시 감돌기 시작한 것은 몽중 조약이 체결된 지 18개월 후인 1627년 말, 지리적으로 발텔리나 지역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만토바(Mantova) 공국에서였다. 공식적으로 신성로마황제의 봉토였던 만토바는 1328년부터 곤자가(Gonzaga) 가문의 남성들에 의해 세습된 유서 깊은 고장이었다. 영토의 3면이 민치오(Mincio) 강에 둘러싸인 만토바 시는 군사적으로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³¹⁾ 만토바 공작령은 비옥한 롬바르디아 평원을 가로지르고

31) 역동적인 유대인 공동체를 포함한 이 도시에는 1550년경 대략 4만 명, 1600년경에는 약 3만 1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만토바는 부유하고 융성한 지방이었으며, 그 수도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을 자랑했다. 특히 빈첸조 1세는 문예부흥에 적극적이어서, 만토바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산실이기도 했다. 1627년과 1630년의 흑사병과 공성전은 도시를 황폐화시켜, 1650년 그 인구는 1만 4천 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작령 전체로 보자면, 그 인구는 1600년경 대략 30만 명에 이르렀다.

있었고, 도시는 직물공업으로 크게 융성했다. 이탈리아의 주요 제후 가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온 곤자가 가문은 1530년 서쪽의 밀라노를 가로질러 약 200km 떨어진 피에몬테 지방의 몽페라토(Monferrato) 후작령을 획득했다.

〈그림 2〉 만토바와 몽페라토



만토바 계승전쟁은 그 이름이 암시하듯 공작령의 합법적인 계승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612년 9월 22일, 만토바·몽페라토 공작 프란체스코 4세가 3살배기 딸 마리아 곤자가를 남기고 2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만토바는 여성의 승계가 금지된 영지였고, 결국 프란체스코 4세의 어린 형제들인 페르디난도(1612~1626)와 빈첸조 2세(1626~1627)가 차례로 공작령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후사를 보지 못했고, 빈첸조 2세가 1627년 12월 사망하면서 공작령의 계승구도에 위기가 찾아왔다. 공작령의 계승자로 부상한 것은 빈첸조의 당숙인 느베르(Nevers) 공작, 카를로 곤자가(프랑스어로 샤를 곤자그Charles Gonzague)였다.³²⁾ 곤자가 가문의

32) 카를로 곤자가의 부친인 루이기(Luigi)와 빈첸조 2세의 조부는 형제지간이다. 루

분가 출신이지만 계승 서열상 빈첸조 2세 다음 순위에 있었던 카를로 곤자가는 느베르와 레텔(Rethel) 그리고 마옌느(Mayenne) 공작령의 주인이었으며 프랑스 궁정에서 “외국 왕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빈사상태에 빠진 빈첸조 2세는 사망 직전 느베르 공작을 후계자로 정하고, 자신의 질녀인 마리아 곤자가를 느베르 공작의 아들과 혼인시켰다.

느베르 공작은 1628년 1월 만토바에 당도했고, 자신이 그곳의 주권자임을 선포했다. 프랑스 국왕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력에도 불구하고, 당대인들은 카를로 곤자가의 만토바 계승이 이탈리아 북부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 왕실의 입장에서 이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에스파냐의 펠리페 4세에게는 당혹스런 상황이었다. 기존의 만토바 공작 가문은 16세기 동안 합스부르크 왕가에 우호적이었고 종종 종종 군지휘관이나 관료로서 신성로마제국을 위해 봉사했기에, 친 프랑스적인 느베르 공작의 만토바 계승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쥐고 있던 북부 이탈리아의 패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한편 느베르 공작은 만토바에서 곤자가 가문의 또 다른 인척으로 만토바의 계승권을 주장한 구아스탈라(Guastalla) 공작 페란테(Ferrante)를 상대해야 했다. 그는 공작령의 계승권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당장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은 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사실 황제는 당시 자신의 아내를 내세워 만토바 공작령을 신성로마제국으로 편입시키고자 했기에 곧바로 지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의 아내 엘레아노르는 만토바의 마지막 3형제의 누이였기에, 황제의 입장에서 구아스탈라 공작의 야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유용한 도구로 여겨졌다. 비엔나에서

이기는 1550년경 프랑스로 귀화했고, 1566년 느베르와 레텔의 공작의 딸과 혼인했다.

구아스탈라는 느베르 공작의 계승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토바는 공식적으로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봉토였기에 공작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서임을 필요로 했다.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카를로 곤자가의 서임을 거부했고 1628년 3월 20일 만토바 공작령의 압류를 명했다. 이에 느베르 공작은 프랑스의 지원을 요청했고, 단순한 공작령 계승문제는 1628년부터 부르봉과 합스부르크, 두 왕가 사이의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했다.³³⁾

다른 한편, 느베르 공작의 계승은 몽페라토에 눈독을 들이던 사보이 공작 카를로 엠마누엘레 1세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느베르 공작과 혼인한 마리아 곤자가의 외조부이기도 한 카를로 엠마누엘레 1세는 곤자가 영토의 일부인 몽페라토 공작령에 대한 딸의 계승권을 주장했다. 몽페라토는 만토바와 달리 아들이 아닌 딸에게도 상속이 가능한 영지였기 때문이다. 카를로 엠마누엘레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먼저 프랑스와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고 에스파냐와 몽페라토의 분할과 카잘레(Casale) 양도를 약속한 후 침공을 개시하였다. 에스파냐는 곧바로 밀라노의 병력을 몽페라토로 이동시켰고, 전략적 요충지인 카잘레(Casale)를 포위하였다.³⁴⁾

북부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프랑스는 신중하게 반응했다. 당시 루이 13세와 리슐리외는 대서양 연안의 항구도시 라로셴(La Rochelle)에서 발생한 위그노 반란과 이에 개입한 영국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루이 13세는 느베르 공작에게 사병의 동원을 인가하는 동시에 베네치아와 마드리드와의 외교를 통해 느베르 공작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33) François Bluche, *Dictionnaire du Grand Siècle*(Paris, Fayard, 1990), p.959.

34) 이 시기의 전쟁이 흔히 그렇듯이, 만토바와 몽페라토를 침공한 외국의 군대는 또 다른 불청객을 초대했다. 바로 페스트였다. 1629년부터 2년간 공작령의 인구는 1/3가량 감소하였다. 알레산드로 만조니(Alessandro Manzoni, 1785~1873)의 소설 『약혼자들』은 이탈리아 북부의 사회적 고립과 재앙을 극적으로 묘사했다.

선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했다. 그러나 사보이 공작과 에스파냐가 몽페라토로 군대를 진군시키고 카잘레를 공격하자, 루이 13세는 국내 문제를 잠시 미루고 1629년 2월 카잘레 지원하기 위한 군사 개입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만토바 사태는 일약 유럽적인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루이 13세는 군대를 직접 지휘하기를 원했고, 한겨울의 알프스 행군을 감행했다. 그는 3,000의 기병, 23,000의 보병을 세 부대로 나누어 피에몬테로 진군시켰다. 동시에 조정 또한 인근의 그르노블(Grenoble)로 이동했다. 2월 28일 전위부대는 제네바 인근에 당도했다. 바송피에르(Bassompierre)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군은 국경을 넘으면서 3,000명의 사보이와 밀라노 병사들을 물리치고 이들이 지키고 있는 수세(Suse) 협로³⁵⁾를 통과했다. 사보이 공작은 수세 협로를 프랑스에 양도하고 몽페라토에 대한 야심을 포기했다. 그리고 3월 16일 프랑스군은 카잘레에 당도하여 에스파냐의 포위를 풀고, 30일에는 다시 피네롤로(Pinerolo) 요새를 점령하였다.

프랑스의 이러한 군사행동에 맞서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콜랄토 백작 람볼도(Rombaldo, comte de Collalto)³⁶⁾가 이끄는 용병대를 이탈리아로 파병하여 그리종과 발텔리나를 공격하게 하였다. 동시에 그는 밀라노 총독을 스피놀라 후작(Ambrogio, marques di Spinola)³⁷⁾으로 대체하였다. 1629년 9월 에스파냐군과 황제군은

35)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옛 경계선에 위치한 알프스 지역의 협로.

36) 베네치아의 오랜 귀족 가문 출신으로 만토바에서 태어난 콜랄토 백작(1575~1630)은 베니스에서 추방된 후, 황제군을 위해 봉사했다. 로마와 마드리드에서 교황 사절과 킬리 장군의 휘하에서 활약한 후, 야전사령관에 임명되어 만토바 계승전쟁에서 느베르 공작과의 전투를 지휘했다.

37) 암브로기오 스피놀라(Ambrogio Spinola Doria, 1st Marquis of the Balbases; 1569~1630). 에스파냐 장군으로 활동한 제노아의 귀족인 스피놀라는 당대뿐 아니라 에스파냐 역사에서도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Cf. Cust, Sir Edward, *Lives of the warriors of the Thirty Years' War. Warriors of the 17th century*, vol.I(London, J. Murray, 1865).

각각 만토바와 몽페라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에스파냐군을 이끄는 스피놀라(Spinola)는 카잘레를 공격했고, 콜랄토는 만토바 공작령을 점령했다. 12월 느베르 공작은 만토바 시를 지키며 지루한 공성전을 견뎌내고 있었다. 만토바 시의 공성전은 이 전쟁에서 가장 비극적인 에피소드로 기억된다. 1629년 12월에 한 차례, 그리고 다시 1630년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공성전 기간 동안 도시는 폐스트로 인해 주민의 1/4을 잃었다. 결국 7월 18일 황제군의 공격 앞에 만토바 시는 항복했고, 약탈과 학살을 감내해야 했고, 느베르 공작 일가는 페라라(Ferrara)로 피신했다.

프랑스는 퀴브르 장군의 부대를 급히 파병했지만, 만토바 시의 약탈과 함께 전세는 에스파냐와 황제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황제의 군사적 성공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구스타브 아돌프의 30년 전쟁 개입으로 인해 포메라니아(Pomerania)를 침공한 스웨덴 군대를 상대하는 것이 페르디난트 2세에게 더 시급한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황제는 프랑스와의 화평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1630년 10월 13일 조세프 신부와 니콜라 브뤼라르 드 실리리(Nicholas Brûlart de Sillery)를 포함한 프랑스 대표단과 라티스본느(Ratisbonne) 평화조약이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이전의 조약들만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조약은 일면 프랑스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였다. 프랑스는 그리중주에 수비대를 주둔시킬 권리를 갖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느베르 공작의 만토바 공작 서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 조약은 에스파냐에 너무도 불리한 것으로 보였기에, 에스파냐의 재상 올리바레스(Olivares)는 이를 항복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루이 13세는 이 조약을 수용하기를 거부했는데, 이는 향후 프랑스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적대시하는 동맹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만토바 공작령의 계승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북부 이탈리아의 국제분쟁은 교황청의 개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교황 우르바누스 8세는 전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북부 이탈리아의 평화를 간절한 열망을 선포하면서 교황의 칙사를 파견했다. 28세의 젊은 교황사절 쥘 마자랭은 1630년 10월 26일 카잘레 성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중인 양국의 전투를 중단시키면서 이탈리아의 평화를 가져온 인물로 전유럽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놀라운 수완을 발휘하며 프랑스와 에스파냐 사이를 중재했고, 그 결과 이듬해 4월 체라스코³⁸⁾ 조약이 체결되었다.

체라스코 조약은 사보이와 구아스탈라 모두에게 영토 보상을 약속하긴 했지만, 느베르의 공작령 상속을 승인했다. 카잘레는 만토바 공작에게 반환되었고³⁹⁾, 루이 13세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관문인 피네렐로를 획득했다. 이는 프랑스의 외교적·군사적 승리로 평가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성공과 에스파냐의 억울함은 1635년 두 세력 간의 공개적인 전쟁의 재개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5. 나오며

17세기 프랑스사에서 그리종(Grisons)-발텔리나(Valtellina) 사태(1624~27)와 만토바(Mantova) 계승전쟁은 영토적 야심과 종교적 갈등, 그리고 왕조의 이해관계로 얼룩진 근대 초 유럽의 국제정세의

38)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 토리노 남동부에 위치한 소도시.

39) 1707년 합스부르크 왕가는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1701~1714)에서 프랑스를 도왔다는 이유로 마지막 곧자가 공작인 페르디난도 카를로(Ferdinando Carlo) (1652~1708; ruled 1665~1708)를 유배형에 처하고 공작령을 오스트리아에 합병했다.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북부에서 물러난 후, 1866년 만토바는 이탈리아 왕국에 합병되었다.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지역적으로 북부 이탈리아, 특히 발텔리나는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제국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태풍의 눈이었다.

이 사건은 17세기 유럽이 경험한 최대 규모의 전쟁인 3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취할 정치적 입장을 예고하는 사건인 동시에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대외정책의 향배를 둘러싸고 벌어질 대규모 논쟁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종교적·왕조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던 17세기 초 유럽의 정세 속에서 외교와 전쟁이 클라우제비츠가 지적한 대로 궁극적으로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특히 리슐리외의 국가이성 정치는 국제정세의 여러 변수들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면서 최선의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중·발텔리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보이 공작과 영국왕, 네덜란드의 나사우 모리스 등은 프랑스가 국내 위그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종결짓고, 에스파냐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했다. 심지어 그들은 프랑스의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영국은 1625년 말 버킹검 공작을 파견하여 루이 13세로 하여금 영국과 네덜란드 덴마크와의 연합을 중용했다. 영국인들에게 리슐리외는 국내 신교도 반란을 해결하기 전에는 에스파냐와의 전쟁에 나설 수 없다고 대답했고, 이에 영국은 프랑스가 국내문제에서 해방되어야 에스파냐에 대한 영·프 공동전선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란을 지원하고 있던 프랑스 신교도에게 양보를 중용했다. 반대로 파르지와 의 평화 협상에 나섰던 올리바레스 역시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프랑스의 위그노 반란을 해상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에스파냐에 맞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올리바레스는 발텔리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프랑스가 발텔리나 사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연계 되면, 프랑스는 다시 국내 신교도 반란 문제에 집중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영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⁴⁰⁾

그러나 1626년 5월 몽종 조약,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위그노 반란세력과의 협정이 공표되자, 에스파냐와 영국 모두는 자신들이 프랑스 정부의 외교술에 놀아났음을 깨달았다. 리슐리외 스스로도 프랑스의 외교적 승리를 자찬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기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국내의] 신교도는 에스파냐와의 평화가 두려워, 에스파냐는 신교도와의 평화가 두려워 우리의 평화를 받아들인 것이다.”⁴¹⁾ 수석국무대신 재직 초기에 리슐리외는 일련의 영리한 조약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덜면서 프랑스가 당면한 국내의 문제를 외교적 수완을 훌륭히 해결한 셈이다.

발텔리나 사태와 만토바 계승전쟁은 친구교간의 갈등, 특정 가문의 영토적 야심과 같은 전통적인 - 또는 ‘근근대적’인 - 전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국지적인 종교전쟁이나 봉건 제후들 간의 봉건적 영토분쟁에서 그치지 않고 전유럽적 성격의 전쟁으로 발전했다. 이는 17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국가간 체제와 유럽 왕조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중첩되는 ‘근대적인’ 국가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과 종교적 대의명분을 분리시킨 루이 13세의 프랑스와 리슐리외가 추구한 국가이성의 정치는 유럽의 전통적인 왕조 전쟁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 부르봉, 합스부르크, 리슐리외, 올리바레스, 그리종, 발텔리나, 만토바, 느베르 공작, 사보이 공작

40) E. Lavissee, *Histoire de France*, Tome XI, ii, p.256.

41) E. Lavissee, *Histoire de France*, Tome XI, ii, p.247 재인용.

<ABSTRAC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Europe in 1620's and the
 status in northern part of Italy
 - Grisons Affairs and War of Mantova Success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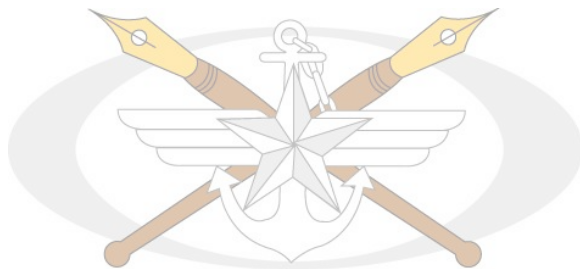
Lim, Seung-hwi

In the 1620s, France and the Habsbourg fought fiercely for the supremacy of the northern Italy, especially in the Grisons-Valtellina area and the duchy of Mantova-Monferrato. The animosity and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se two powers were not completely new at that time. But these wars could hardly be explained as an extension of the traditional animosity of 16th century. Beyond the pre-modern dynastic war seeking territorial expansion, they strongly revealed a kind of political modernity pursuing a rational state interest and proper strategy. These wars broken out when the fiscal-military states of France and Spain were in formation appear as a part of a series of conflict inter-states. But at the same time, they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politics and diplomacy in the application of war as instrument.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considers the nature of European international relation in 1620~1630's and the sinew of the political conflict inside the French royal court, in which the warfare in Valtellina and Mantova, between Bourbon's France and Habsbourg's Spain, formed a nucleus. So this study has the explanation of the nature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se wars as purpose. In terms of political history, these wars cut by multiple dynastic and religious interests would be an excellent example of Clausewitz's thesis of war as an instrument of politics. The Richelieu's political stance and his Reason of state

demonstrate how to use multiple interests and warfare as instrument to realize the best profit for the state.

Key Words : Bourbons, Habsbourg, Richelieu, Olivares, Grisons, Valtellina, Mantova, Duke of Nevers, Duke of Savoy



자연법과 전쟁*

- 후고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을 중심으로 -

김 응 종**

1. 머리말
2. 근대 자연법의 등장
3. 정당한 전쟁론
4. 전쟁의 권리에서 전쟁의 법으로
5. 맺음말

1. 머리말

1956년 영국 역사가인 마이클 로버츠는 1560~1660년에 유럽에서 일어난 군사전술과 전략상의 급격한 변화가 정치, 경제적인 변화를 추동했다는 ‘군사혁명론’(Military Revolution)을 제창했다. 그는 주로 스웨덴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238).

** 충남대 사학과(서양사) 교수.

주장을 동시대의 네덜란드에 적용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근대 초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전쟁과 식민지쟁탈전쟁을 동시에 수행한, 그야말로 선도적인 전쟁국가였기 때문이다. 찰스 틸리의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1566년부터 1697년까지 무려 27차례나 전쟁을 벌였다.¹⁾ 주요 상대는 에스파냐, 포르투갈, 잉글랜드였다. 에스파냐와의 전쟁은 독립전쟁이었고, 포르투갈과의 전쟁은 신생국 네덜란드가 해상제국 포르투갈에 맞선 전쟁이었으며, 잉글랜드와의 전쟁은 신흥강국 잉글랜드의 도전을 받아 일어난 전쟁이었다. 물론, 유럽국가들에게 있어서 전쟁이 새삼스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 시기의 전쟁은 특히 해상 무역 및 식민지 쟁탈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혁명론을 확대하면, 전쟁은 정치적, 경제적 변화만이 아니라 사상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근대 초의 빈번한 전쟁과 근대 초에 만개한 자연법 사상이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이다. 본 논문은 근대 자연법의 창시자이자 국제법의 아버지로 알려진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²⁾를 통해 그 관계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로티우스의 삶 역시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로티우스는 홀란드의 도시 델프트의 부유한 지배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네덜란드 북부 주들이 에스파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벌인 투쟁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해외 무역과 군사행동에도 참가했다. 그로티우스는 15살 때 저명한 정치가인 올든바르너 벨트를 따라 프랑스를 방문했으며³⁾, 1601년에는 홀란드의 독립을

1) 찰스 틸리, 윤승준 옮김, 『유럽혁명 1492~1992. 지배와 정복의 역사』, 새물결, 2000, 125쪽.

2) 네덜란드어 이름은 하위흐 더 흐로트(Huig de Groot)이다. 그러나 그로티우스는 라틴어를 사용하여 책을 썼으며, Grotius라는 라틴어 이름을 사용하였다.

3) 이때 앙리 4세는 그를 “홀란드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과시하기 위해 신설된 공식 라틴어 역사가로 임명되었다. 변호사로도 활동했는데, 올든바르너벨트, 동인도회사, 나사우의 마우리츠공(公) 같은 유력인사들이 주요 고객이었다. 그로티우스는 1602년에 사촌인 헤임스케르크가 일본에서 구리를, 중국에서 비단과 자기를, 그리고 멕시코와 페루에서 금을 싣고 오던 포르투갈의 대형선박을 나포한 사건을 담당했으며, 1613년에는 영국 선박이 그린랜드 부근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선박을 나포하자 항의단을 이끌고 런던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현실 정치상의 경험이 그의 저작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

그로티우스는 네덜란드의 국내정치에도 관여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 내의 종교적인 대립은 내란 수준으로 심해졌다.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인 홀란드의 주의회 의장(Grand Pensionary)인 올든바르너벨트와 그로티우스를 위시한 소위 ‘청원파’는 에스파냐의 전제정을 몰아내도 그것이 불관용적인 칼뱅파의 지배로 대체된다면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종교적인 관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독((Statholder)에게 군사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⁴⁾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실패로 끝났다. 올든바르너벨트는 사형당했고, 그로티우스는 종신형을 언도받아 1618년에 남부의 루베슈타인성에 수감되었으나, 3년 후에 탈출하여 파리에 정착했다.⁵⁾

이 시대의 감옥은 학교였다. 그로티우스는 1603년에 동인도회사의

4) Statholder란 ‘대리인’이라는 뜻이다. 네덜란드는 원래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에스파냐 왕의 대리인(Statholder)이 통치했다. 그후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했지만 Statholder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원칙적으로 각 주마다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주마다 Statholder를 뽑았으나, 실제로는 오란예 가문에서 모든 주의 Statholder 독차지했다.

5) 그의 탈출 이야기는 매우 낭만적이다. 그로티우스의 부인은 책을 잔뜩 담은 큰 통을 가지고 면회를 왔고, 그 통에 체구가 작은 그로티우스를 담아 성 밖으로 탈출했다.

의뢰로 작성한 필사본⁶⁾을 토대로 『전쟁과 평화의 법』(De Iure Belli ac Pacis)을 썼고, 1625년에 파리에서 출판했다. 이 책은 17세기에만 26개의 라틴어 판본이 출판되었고, 네덜란드어, 영어, 불어 등으로 번역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스웨덴 국왕인 구스타프 아돌푸스는 베개 밑에 성서와 이 책을 놓고 읽었으며, 팔츠 선제후는 이 책의 주석서를 출판하기 위해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특별 강좌를 마련할 정도였다. 18세기에도 이 책의 인기는 계속되어 라틴어판, 영어판, 불어판, 독일어판, 이탈리아어판이 계속 출판되었다. 그 가운데 18세기 독자들에게 결정적인 판본은 1706년에 사무엘 푸펜도르프의 『자연법과 만민법』을 펴낸 장 바르베라크가 1720년에 펴낸 라틴어 판본이었다. 이 두 책은 계몽주의 시대에 정치사상의 백과사전이 되었다.⁷⁾

1631년, 그로티우스는 마우리츠의 후임 총독인 빌렘(프레데릭 윌리엄)이 복권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귀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635년 당시 북유럽의 초강대국이었던 스웨덴 정부는 그를 주(駐)프랑스 대사로 임명했고, 그로티우스는 30년 전쟁 후반기의 복잡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1644년 왕위에 오른 크리스티나가 그를 대사가 아닌 다른 직에 임명하려 하자 그로티우스는 재임용을 요구하기 위해 스톡홀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난파를 당하여 1년 후 사망했다. “나는 많은 것을 시도했으나

6) 이 필사본의 제12장은 『자유로운 바다』(Mare Liberum)라는 제목으로 1609년에 출판되었고, 나머지는 1864년에 발견되어 『노획의 권리』(De Iure Praedas Commentarius)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7)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Book 1,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Richard Tuck from the Edition by Jean Barbeyrac,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5, “Introduction”, p.x. 이 책은 3권으로 출판되었다. 라틴어 Jus는 ‘법’이라는 뜻과 ‘권리’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책을 어떤 사람은 『전쟁과 평화의 법』으로, 어떤 사람은 『전쟁과 평화의 권리』라고 번역한다. Jus를 ‘법’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권리’로 보는 것이 옳은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논의하였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가 최후의 말이었다.

그로티우스는 변호사, 정치가, 외교관으로서 ‘전쟁의 시대’를 겪었고, 50여 권의 책과 수많은 글을 남겼는데, 특히 『노획의 권리』와 『전쟁과 평화의 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획의 권리』는 1864년에야 발견되었기 때문에 17세기와 18세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은 『전쟁과 평화의 법』이다. 어린 루소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고전 역시 『전쟁과 평화의 법』이었다. 이 책은 그로티우스의 모든 사상이 종합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전쟁과 평화의 법』을 중심으로 그로티우스의 전쟁관을 분석한 것이다. 리차드 퉁은 그로티우스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상당히 호전적이었다고 말하는데⁸⁾, 왜 그런가? 과연 그러한가?

2. 근대 자연법의 등장

자연법(natural law, *lex naturalis*)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nature)이나 물리적 본성(nature)로부터 자연적으로(naturally) 도출되는 법이다. 또는 더 간단히 정의하면, 자연(nature)이 가르쳐주는 법이다. 그러하기에 자연법은 불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실정법(positive law)에 선행하는 근본적이고 확실한 법이다.⁹⁾ 자연법사상이 언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스토아

8)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95. “그는 헤이그에 있는 평화 궁전의 수호성인이 되기에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9) Lorraine Daston, Michael Stolleis(ed.), *Natural Law and Laws of Nature in Early Modern Europe*, Ashgate Publishing Company, Burlington, 2008, 서문, pp.5~6.

철학자들의 논의에서 최초의 체계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갈 때 덕(virtue)이라는 고귀한 가치에 도달한다. 합리적인 존재인 인간이 이러한 질서에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자연법 이론은 중세의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 그리스도교 체계 속으로 흡수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fall) 이전에는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가능했으나 타락 이후에는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법과 은총에 의해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자연법과 신법을 구분했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지만, 신의 존재, 신의 의지, 신과 인간의 합일 등은 이성이 아니라 계시와 초자연적인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신법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능동적인 존재이기에, 자연법을 통해 신의 영원한 법에 참여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법의 원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반면, 스콜라 철학자들은 자연법과는 별도로 신법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신법을 자연법의 상위법이자 그 원천으로 이해했다. 근대에 들어 자연법에 대한 논의가 만개한다.¹⁰⁾ 근대의 자연법사상은 크게 보아 스콜라적인 자연법에서 스토아적인 자연법으로의 복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건이 된 것은 당연히 자연법과 신법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자연법을 신법의 후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연법의 세속화는 그로티우스의

10) *ibid.*, 3. 필자들은 근대에 들어 자연법 논의가 만개한 배경으로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논쟁, 절대군주의 등장, 아카데미 회의주의의 충격, 주의주의 신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자연법사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과감하게 말한다.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신이 없으며 신은 인간사에 관심이 없다고 감히 가정해도 - 이것이야말로 극도로 사악하지 않고서야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 일어날 것이다.¹¹⁾

그로티우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 과감한 가정으로 인해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의 역사에서 근대적이며 세속적인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무엘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스는 스킨라 철학의 그림자로부터 자연법을 떼어낸 위대한 선구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신은 무관심하다는 가정이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적어도 14세기 중엽 이래 스킨라 신학자들의 신학 논쟁에서 자주 등장했으며¹²⁾, 가브리엘 바스케즈나 프란시스코 수아레즈 같은 근대의 사상가들에게서도 나타난다.¹³⁾

그로티우스 가설의 독창성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자연법사상이 세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로티우스는 자신의 과감한 가설에 뒤이어 곧바로 신의 존재와 섭리를 인정하고 자연법은 신이 인간에게 만들어준 법이라고 덧붙이지만, 이러한 식의 글쓰기는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안전

11)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pp.89~90. 그로티우스는 이 진술에 뒤이어 다음과 같이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과감성을 포기하지만, 그렇다고 그 진술의 역사적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것 [신이 없으며 인간사에 관심이 없다]의 반대가 한편으로는 이성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진통에 의해 우리에게 나타나며, 모든 시대를 통해 입증된 논지들과 기적들이 그것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존재와 소유물의 원천이신 신을 모든 것에서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

12)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Oxford UP, 1980, p.43.

13) Francis Oakley, *Natural Law, Laws of Nature, Natural Rights.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the History of Ideas*, Continuum, New York, 2005, p.65.

장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로티우스는 “서문”에 뒤이어 본문 제 1장에서는 더 과감하게 말한다.

자연법은 불변이기 때문에 신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 힘이 무한하다고 해도 이 무한한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예컨대, 그로티우스에 의하면,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2 더하기 2가 4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악한 것을 악하지 않게 할 수 없다. 신도 자연법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자연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신법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자연법의 하위법이 된다. 신이란 본래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신의 존재와 신의 자의적인 개입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그로티우스의 과감한 진술은 ‘근대의 탄생’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로티우스의 근대적 자연법은 스콜라적 자연법과 달리 더 이상 신에게서 기원하지 않는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의 어머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한다.¹⁵⁾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사상이 지니는 근대성은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로티우스를 국제법 사상가로 자리매김해 준 책은 1609년에 출판한 『자유로운 바다』(Mare Liberum)이다. 그로티우스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1602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포르투갈 상선 산타카타리나호를 나포한 사건이었다. 국가가 아닌 동인도 회사의 무력사용이 정당한지, 강제 노획이 정당한지를 둘러싸고 네덜란드 안팎에서 법적 도덕적 논란이 일어나자, 동인도회사는 변호사 그로티우스에게 나포와 노획을 정당화시켜줄 것을 의뢰했고, 그로티우스는 “정의의 자연적인

14)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p.155.

15) *ibid.*, 서문, 제17장.

원칙” 즉 자연법에 근거하여 동인도회사의 행동을 정당화시켰다. 이러한 주장이 들어 있는 책이 바로 『노획의 권리』이며 그 일부가 『자유로운 바다』이다. 이 책에서 그로티우스는 바다는 국제적인 영토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무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⁶⁾ 그로티우스의 주장은 “항해의 자유에 대한 최초의 고전적인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¹⁷⁾ 이러한 논리는 네덜란드가 막강한 해군력을 이용하여 각국의 무역 독점을 깨뜨리고 자기의 독점을 세우는 데 기여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국제법의 등장을 알린 책은 『전쟁과 평화의 법』이다. 아담 스미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이 당시로서는 가장 완벽한 국제법 저술이었다고 평가했다.¹⁸⁾ 사실, 책 제목이 시사하듯이, 국제 관계라는 것은 국가간의 전쟁과 평화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국제법의 핵심 문제인 것이다. 그로티우스가 『전쟁과 평화의 법』을 쓴 동기는 전쟁의 ‘권리’를 인정하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의 ‘법’을 정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을 『전쟁과 평화의 권리』가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법』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유이다.¹⁹⁾

해상 무역과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던 17세기의 세계는 홉스가 정의한 ‘자연상태’와 다르지 않았다. 열강들은 전쟁에 대한 ‘자연권’을

16) 당시 세계무역의 지배권을 놓고 네덜란드와 경쟁하던 잉글랜드는 이러한 관념에 반대하고 바다도 땅과 마찬가지로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후 바다의 소유권은 대포의 사거리인 3해리로 결정되었다.

17) Wikipedia의 “Grotius”. 그로티우스가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이미 모든 나라는 인도양과 그밖의 다른 아시아 바다에서 자유로운 항해권을 받아들였지만 항해자유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그로티우스다. 그로티우스의 바다의 자유 개념은 대체로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다.

18) *ibid*.

19) 이 글에서 참고한 리차드 톡은 “권리”라고 번역한 반면, Francis Kelsey (Carnegie edition, 1925), A. C. Campbell(London, 1814), John Miller(*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1) 등은 “법”이라고 번역하였다.

가지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전쟁의 ‘자연법’,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의 서문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는 야만인들조차 부끄러워할 정도로 무질서하고 무자비한 전쟁이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본다. 사람들은 하찮은 이유나 있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성급하게 무기를 찾는다. 일단 무기를 잡으면, 신의 법에 대해서건 인간의 법에 대해서건 아무런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는다. 마치 그 순간부터는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도 되다는 허가를 받은 듯이 말이다.²⁰⁾

이렇게 국가이익과 힘이 법인 약육강식의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과 용서의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주의를 외칠 것인가? 그로티우스는 요하네스 페루스와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평화주의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한다.²¹⁾ 역사와 관습과 문화가 상이한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스도교 세계의 법을 이슬람 세계에 강요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 세계의 법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나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 당시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힘’이 정의요 ‘전쟁’이 유일한 중재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전쟁’의 수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범이 없었다. 그로티우스는 프랑스의 리슐리외 추기경이 “국가간의 문제에서는 약자가 언제나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²²⁾ 작금의 무질서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질서, 달리 말하면,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로티우스는 그것이

20)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p.106.

21) *ibid.*, pp.106~107.

22) John Miller, “Hugo Grotiu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1.

자기의 과제임을 책의 첫머리에서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다.

로마인들의 시민법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시민법이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석서나 요람의 형태로 사용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나 나라들의 지배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은, 그것이 자연으로부터 유래했건, 신의 명령으로 제정되었건, 관습과 묵시적인 동의로 도입되었건, 인류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보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²³⁾

이제 그로티우스의 과제는 분명해진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특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아시아인들과 같은 비그리스도교인들과 접촉하면서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자연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던 상황에서, 그로티우스의 세속적 자연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인 자연법사상은 자연법은 신법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은 비그리스도교인들을 도덕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로티우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자연법은 모든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에게,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²⁴⁾ 그로티우스의 세속적 자연법은, 말 그대로, 보편적이었다.

그로티우스에 의하면, 국제 관계는 신중함과 편의주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도덕과 법에 의해서도 지배된다. 그로티우스는 전쟁이나 무력이 아니라 법과 동의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 관계를 정립한 최초의 인물이다. 후일 “그로티우스적 전통”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23)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p.75.

24) *ibid*.

합리주의적 관념은 베스트팔렌 평화에서 구체화되었다.²⁵⁾

3. 정당한 전쟁론

그리스도교는 평화의 종교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칙이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내밀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종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전쟁의 문제는 양심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에는 “나는 그리스도교인이다. 따라서 군인이 될 수 없다”는 평화주의를 택하며 군대를 떠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신학자들은 전쟁의 불가피함을 변호하기 위해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방어적이며 불의를 바로잡는 전쟁, 공적인 인물이 수행하는 전쟁, 참된 정의가 구현되는 평화를 세우기 위한 전쟁, 세속의 왕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신의 왕국을 위한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규정했다. 정당한 전쟁론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전쟁으로 한정되는 것이었지만, “정의로운 전쟁”,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가미되면서 공격적인 전쟁을 정당화시켜 주기도 했다. 특히 이교도들이 그러한 정의로운 전쟁의 특권적 대상이었다. 12세기의 성인인 베르나르두스는 “이교도를 없애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죽이는 것”이라며 전쟁을 부추길 정도였다.²⁶⁾ 토마스 아퀴나스는 필요하다면 가장

25) *Wikipedia*의 “Grotius”

26) Franco Cardini, “Guerre et Croisade”, in Jacques Le Goff, Jean-Claude Schmitt(ed.), *Dictionnaire raisonné de l'Occident médiéval*, Fayard, 1999, p.439.

성스러운 날에도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²⁷⁾

그로티우스는 전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 그로티우스는 그리스도교가 전쟁을 금하지 않았음을 온갖 자료와 논리를 동원하여 증명한다. 예컨대, 모세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동족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지 이민족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며,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내밀어라” 하는 말은 얻어맞은 당사자에게 한 말이지 행정관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²⁸⁾ 그로티우스는 에라스무스 같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었다.²⁹⁾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보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라면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로티우스에게 중요한 문제는 전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고 야만적인 전쟁을 없애는 것이었다. 『전쟁과 평화의 법』은 전반부는 ‘정당한 전쟁’을, 후반부는 ‘부당한 전쟁’을 다룬다. 제1권에서는 “전쟁은 무엇인가, 법은 무엇인가” “전쟁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사적인 전쟁과 공적인 전쟁”, “신하의 군주에 대한 전쟁” 등을 다룬 다음, 제2권의 제1장 “전쟁의 원인들”에서, “방어, 회복, 처벌”의 세 가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여기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래의 전쟁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로티우스의 전쟁관은 제20장 “처벌”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왕, 그리고 왕의 권력에 상응하는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나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가해진 위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자연법이나

27) Philippe Contamine, *War in the Middle Ages*, translated by Michael Jones, Basil Blackwell, 1984, p.273.

28)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pp.196, 209.

29) 그로티우스는 에라스무스를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로 보았지만,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의 전쟁은 반대하면서도 터키와의 전쟁은 반대하지 않았다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p.30~31).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할 권리를 가진다. 왜냐하면, 처벌권은 처음에는 사람들 각자에게 있었지만 시민사회와 법정이 설치된 이후에는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알렉산드로스가 야수성을 포기하려고 설득했던 소그디안 같이 부모들에게 비인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디오도루스가 전하는 대로 헤라클레스가 고대 갈리아인들에게 포기하라고 강요했던 관습인 인육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적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 여기까지 우리는 자연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인노켄티우스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른다. 이러한 생각은 비토리아, 바스케즈, 아조리우스, 몰리나의 생각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들은 전쟁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는 사람 본인이나 그의 나라가 피해를 입었거나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처벌권은 본래 시민적 사법권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의 생각은 처벌권은 자연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³⁰⁾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사실, 전통적으로 인정된 정당한 전쟁이란 약탈을 위해서건 영광을 위해서건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방어하는 전쟁이며,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가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그의 행위가 자연법에 어긋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법을 어긴 사람들, 예컨대, 독재자, 식인종, 해적, 양민학살자, 반인륜적인 자식들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근대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나 아시아의 토착민들을 상대로 벌인 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었다.

30)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2권, pp.1021~1024.

그로티우스의 호전성은 정당한 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계보 위에서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인노첸티우스 4세는 남색이나 우상숭배는 신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대리인인 교황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반면에 비토리아, 바스케즈, 아조리우스, 몰리나는 영광을 추구하는 전쟁, 불안에 기인한 예방전쟁, 야만인들에 대한 전쟁 등을 부당한 전쟁으로 구분한 인물이다.³¹⁾ 리처드 퉁에 의하면, 근대초 유럽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념은 인문주의 전통과 스콜라철학 전통으로 구분된다. 인문주의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시민법 교수였던 알베리코 젠틸리이고, 스콜라 철학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은 포르투갈 에보라 대학의 신학과 철학 교수였던 몰리나이다. 스콜라 철학 전통에 비해 인문주의 전통은 방어적인 정당한 전쟁을 넘어, 선제타격, 영광을 추구하는 전쟁, 인간사회의 이익을 위한 전쟁, 자연법을 지키는 전쟁 같은 공격 전쟁을 지지하는 호전적인 성향을 보였다.³²⁾ 그로티우스는 자신이 이러한 호전적인 인문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자연법이란 막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래, 자연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자기보존을 위해서이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그로티우스는 원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이방인들이 우리의 소유지 안에 있는 황무지나 불모지를 요구하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작되지 않고 있는 땅은 소유지라고 인정될 수 없기

31)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p.52~60.

32) *ibid.*

때문이다.³³⁾

마찬가지 논리로 아메리카나 아시아의 원주민이 소유하고는 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땅이 있으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티우스는 감옥에 있을 때 작성한 『그리스도교의 진리』(De Veritate Religionis Christianae)(1622)에서 이미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다.

우리의 자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 없다. 많은 노동이나 비용 없이도 쉽게 이루어진다. 신이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허용하신 것들을 우리는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몇몇 철학자들이 어리석게 주장하듯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빌려줌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³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경작하지 않고 놀리면서 다른 사람의 경작을 방해하는 것은 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이니, 이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로티우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은 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구실로 작용하였다. 막스 베버도 지적했듯이, 근대자연법 사상이 유럽국가들이 세계 지배를 위해 경쟁을 벌이던 시대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³⁵⁾ 아우구스티누스의 종교적인 “정당한 전쟁” 개념은 근대에 이르러서는 “합법적인 전쟁”에 의해 대체된다. 근대에 들어, 전쟁의 정당성 여부는 교회의 뜻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³⁶⁾

33)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2권, p.448.

34)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106에서 재인용.

35) *ibid.*, p.14.

36) Franco Cardini, “Guerre et Croisade”, p.448.

4. 전쟁의 권리에서 전쟁의 법으로

그로티우스에게 이르러 정당한 전쟁의 ‘권리’가 비로소 인정된 것은 물론 아니다. 정당한 전쟁의 역사에서 그로티우스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³⁷⁾ 그로티우스는 제1권, 제1장에서 jus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논리를 전개한다. 그로티우스는 jus의 의미를 여럿으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하도록 해주는 도덕적 자질”이다. 그로티우스에게 있어서 jus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 권리이다. 예컨대, jus를 가진다는 것은 도덕적이나 법적인 제재 없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기보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다른 권위 기관의 허가나 도움이 없이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세적 개념과 대조를 이룬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jus는 “정당한 사물 그 자체”를 가리킨다. jus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동은 자연법과 합치할 때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로티우스의 jus가 주관적인데 반해 아퀴나스의 jus는 객관적이다. 그로티우스의 jus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아퀴나스의 jus는 개인이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이다.³⁸⁾

37) Draper, G.I.A.D., “Grotius’ Place in the Development of Legal Ideas about War”, in Bull Hedley(eds.) *Hugo Grotiu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90, p.194. Kingsbury, Benedict, and Roberts, Adam, “Introduction : Grotian Though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ibid*, pp.3~4.

38) John Miller, “Hugo Grotiu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1;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pp.207~208; Francis Oakley, *Natural Law, Laws of Nature, Natural Rights.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the History of Ideas*, p.181. 오클리는 이러한 의무에서 권리로의 이행이 홉스와 그로티우스를 넘어 14세기의 오캄에게서 엿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로티우스의 근대적 개념은 ‘개인’과 ‘권리’의 탄생 선언이다.

그로티우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에서 전쟁의 권리를 이끌어낸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로티우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의 근원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그로티우스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자기 보존 욕구”와 “사회성의 요구”라는 두 개의 본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³⁹⁾ 인간은 자기보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정당하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자기의 권리이며 자유이다. 심지어 인간은 자신을 노예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노예제 역시 정당하다. 어쨌든 인간의 자기보존 권리는 자연이 준 권리, 즉 자연권이다. 전쟁은 자연권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이러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하여 자기보존을 위해 ‘전쟁’을 벌인다면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기보존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인간의 두 번째 본성인 “사회성의 요구”이다. 자연권을 통제하는 자연법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짐작하듯이 그로티우스의 사상은 홉스의 사상과 대단히 비슷하다.⁴⁰⁾ 루소는 그로티우스와 홉스가 동일한 사상을 공유했음을 정확히 지적했다.⁴¹⁾

중세의 자연법 이론이 자연법에서 자연권을 도출한데 반해, 그로

39)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1권, 서문, 제6장-제7장.

40) 홉스는 그로티우스를 읽었으며, 그로티우스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p.96~98, 135.

41) 루소의 다음 구절을 유명하다. “정치법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생겨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서 우리 모든 학자들의 스승인 그로티우스는 한낱 어린아이에게 게다가 더 나쁘게도 정직하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불과하다. 그로티우스를 하늘 높이 떠받들고 홉스에게 저주를 퍼붓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두 작가를 읽거나 또는 이해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된다. 사실인즉 두 작가의 원리는 정확히 일치하나, 오직 그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다. 방법론에서도 다르기는 하다. 홉스는 퀘변에 그로티우스는 시인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머지에서 같은다”(『에밀 또는 교육론』, 제2권, 476쪽).

티우스는 자연권에서 자연법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전쟁과 평화의 법』의 구성 자체가 그러하다. 그로티우스는 책의 전반부에서는 전쟁의 ‘자연권’에 대해, 책의 후반부에서는 전쟁의 ‘자연법’에 대해 논의한다. 따라서 책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그로티우스는 호전적인 인문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호전주의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책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로티우스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구하려는 평화주의자이다.

그로티우스에 대한 평가에 앞서 기억할 것은 근대의 많은 인문주의자들, 예컨대, 프랜시스 베이컨, 토마스 모어, 존 로크, 임마누엘 칸트도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예찬했다는 사실이다.⁴²⁾ 나아가, 그로티우스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교도들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시키지 않았다. 어떤 종교든 최소한의 자연법을 지키는 한 관용되어야 한다.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교를 강제하는 것은 안된다. 그리스도교 역시 이교도들에 의해 관용되어야 한다.⁴³⁾ 이러한 이야기는 인노켄티우스 4세의 이교도 징벌론과 분명히 다르다.⁴⁴⁾

42)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칸트는 문명사적 관점에서 전쟁을 옹호한다. “우리는 문명화된 국가를 억압하는 가장 큰 악은 전쟁 - 과거나 현재에 벌어진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전쟁을 위해 끊임없이 늘어나는 준비 - 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전쟁에 상존하는 두려움이 국가의 수반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국가 내에서의 동일한 문화 혹은 계급들의 긴밀한 유대를 여전히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매우 억압적인 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그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간헐적으로 예상치 못한 침입만 받을 뿐 강력한 적의 공격을 받지 않는 중국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인간의 문화가 현 단계에 머무는 한, 전쟁은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오직 문화가 충분히 발전했을 때에만 - 그때가 언제인지는 신만이 안다 - 영원한 평화가 가능해지고 우리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ibid.*, 217-8에서 재인용) 헤겔 역시 칸트의 뒤를 이어 전쟁의 문명사적 기능을 찬양한다. “전쟁과 용기는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더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André Corvisier, *La Guerre. Essais historiques*, PUF, 1995, p.315).

43)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제3권, pp.1041~1050.

『전쟁과 평화의 법』을 쓴 근본적인 목적은 전쟁권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야만적인 전쟁을 바로잡으려는 데 있었다. 제2권의 제22장 “전쟁의 부당한 이유에 대하여”와 제23장 “전쟁의 의심스러운 이유에 대하여”에서의 그로티우스는 평화주의자이다. 그로티우스는 오로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벌이는 전쟁,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벌이는 예방전쟁이나 선제타격 등을 정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로티우스가 전쟁의 인문주의적 계보에 속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그는, 앞에서 자연법을 근거로 전쟁을 정당화했을 때와는 달리,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거나 이미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들이 악하다거나 잘못된 신을 섬긴다거나 어리석다거나 하는 이유로 전쟁을 벌이고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너그러움, 보은, 동정심, 자비심 등이 없다는 이유로 전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전쟁의 이유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수단이다. 제24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성급하게 전쟁에 뛰어들지 말 것”을 권한다. 전쟁에서 허용되는 수단과 허용되지 않는 수단의 기준 역시 자연법과 국제법으로 정해진다.

제3권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절제’를 권한다. 제11장 “정당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권리의 절제”에서는, 여성, 어린이, 비무장인, 농민, 상인, 포로 등을 보호하라고 말한다. 제12장 “적의 국가를 파괴하는 데에 있어서의 절제”에서는, 특히 그리스도교인들은 무자비한 파괴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 제13장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에 대한 절제”에서는 정당한 전쟁이라 해도 물건을 빼앗는 것은

44) 인노첸티우스는 이교도들이 신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고, 그리스도교 선교사의 입국을 막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교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도들은 옳지만 이교도들은 그르기 때문이다(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p.60~61).

죄악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비의 규칙은 법의 규칙보다 더 멀리 미치기 때문이다. 행복한 도시는 약탈하지 말고, 농민의 목숨과 재산은 보호해야 하며 상인들의 상거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 14장 “포로에 대한 절제”에서는 포로를 노예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예에게도 공평함과 자비를 보여줘야 한다. 제15장 “제국을 획득하는 데 절제”에서는 전쟁으로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이웃을 가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로티우스는 정당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사람과 재산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주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신하의 군주에 대한 저항은 절대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군주가 자연법이나 신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하면 복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군주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군주에게 무력으로 저항해서는 안된다. “부모가 정당하면 사랑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참아라”라는 성서 말씀처럼, 군주의 행위를 참아야 한다.⁴⁵⁾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군주에게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안된다.⁴⁶⁾ 이러한 절대군주론 역시 홉스에게 계승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용서하는 것이다. 그로티우스는 그리스의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는 적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나 3년 동안 파문당했다는 이야기를 한다.⁴⁷⁾ 평화를 위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와 ‘휴머니티’에 위배되는 것이다.⁴⁸⁾ 싸우는 것이 합법적이라 해도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신성하다.⁴⁹⁾ ‘결론’(“신의를

45) *ibid.*, 제1권, p.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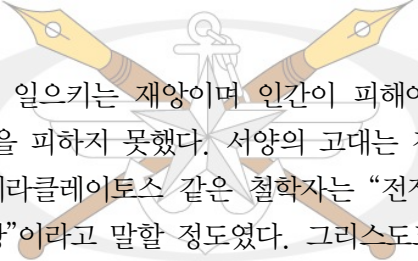
46) *ibid.*, 제3권, p.1539.

47) *ibid.*, 제3권, p.1150.

48) *ibid.*, 제3권, p.1456.

유지하고 평화를 모색할 것을 권함”)은 완전한 평화의 메시지이다. 폭력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동물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자비와 휴머니즘”으로 무장해야 한다. 전쟁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는 승리보다 낫다! 이 지점에서 그로티우스는 “악한 평화는 선한 전쟁보다 낫다”라고 말한 에라스무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이상주의자라고 비판했던 그 에라스무스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5. 맺음말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는 재앙이며 인간이 피해야 하는 재앙이지만, 인간은 전쟁을 피하지 못했다. 서양의 고대는 전쟁이 얼마나 일상화되었던지,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철학자는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이며 만물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스도교의 도래와 함께 전쟁 자체에 대해 회의심이 일어났다.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 그리스도교와 전쟁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정당한 전쟁’ 개념을 만들어 전쟁을 방어전쟁으로만 국한하였으나, 이교도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의 전쟁도 줄이거나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교도와 이단들에 대한 공격전쟁을 부추기도 했다.

그로티우스의 시대는 그야말로 전쟁이 빈번했고 또 전쟁이 사회 변혁의 추동력이었던 소위 “군사혁명”의 시대였다. 그로티우스는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의, 그리고 그리스도교인들과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토착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야만적인 전쟁을 목격하면서, 전쟁과

49) *ibid.*, 제3권, p.1182.

평화의 ‘법’을 만들려고 했다. 그로티우스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자연법에 근거에서 정당한 전쟁을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정당한 전쟁은 전쟁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할 때에만 정당했다. 그로티우스는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 전쟁의 정당한 수단과 부당한 수단 등을 구분함으로써 전쟁의 야만성과 참혹함을 줄이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리차드 퉁이 그로티우스를 호전주의자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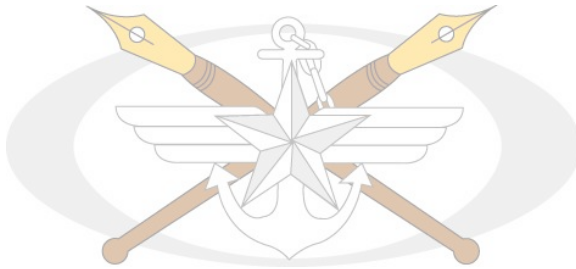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에 근거해서 부당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자연법은 오히려 식민지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다. 국가간의 문제에 있어서 자연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1795년의 「영구평화를 위하여」에서 그로티우스를 성서에 나오는 욱의 불행을 위로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실패한 위무자”(sorry comforter)라고 평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전쟁과 나폴레옹에 열광한 칸트 역시 실패한 위무자라는 평을 면하기 힘들다.⁵⁰⁾ 자연법이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고 오히려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해서 그로티우스의 평화주의적인 의도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로티우스의 시대는 종교가 지배력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 가던 시대이다. 기독교인들 사이의 야만적인 종교전쟁에 실망한 지식인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다. 그로티우스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한 사람이며, 신이라도 자연법을 어길 수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한 사람이다.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은 종교가 아니라 자연법으로 평화를 구하려는 ‘신’없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50) Richard Tuck, *The Rights of War and Peace. Political Thought and the International Order from Grotius to Kant*, pp.221~222.

(원고투고일: 2014.4.1, 심사수정일: 2014.5.14, 게재확정일: 2014.5.20)

주제어 : 그로티우스, 전쟁, 평화, 정당한 전쟁, 자연법, 자연권



<ABSTRACT>

Natural Law and War

Focusing on the Law of War and Peace by Hugo Grotius

Kim, Eung-j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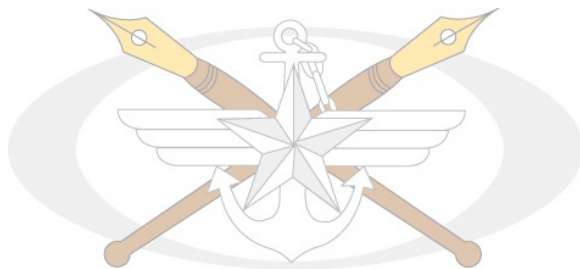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idea of Hugo Grotius. In the history of the natural law, he is considered as the father of the modern natural law, for he liberated the natural law from the shadow of the medieval theology. As the medieval natural law theorists thought the origin of the natural law to be the divine law, they didn't apply the natural law to the American Indians and the Asians who were non-Christians. But the modern natural law of Hugo Grotius applied it to these kinds of people.

Grotius inherited the traditional 'just war' theories, and extended them by the natural law theory. It was not the Christianity but the natural law that justified the frequent wars in the modern era. Focusing on this side, some scholars judge Grotius to be belligerent. This judgment is the result of stressing the "natural right" of the war described in the first part of the Law of War and Peace. The second part of this book is focused on the "natural law" of the war, which controls the natural rights and keeps strict guard over the unjust wars and the unjust means of war. The intention of Grotius being i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this article regards him not as a belligerent natural law theorist but as a pacifistic natural law theorist.

Grotius sought to control the unjust wars by means of the natural law, but contrary to his intention, the natural law was used to justify the contemporary colonial wars. For the natural law didn't have any legal power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Emmanuel Kant denounced

him as “a sorry comforter” in his “Toward the eternal peace” in 1795. But it is undeniable that Kant who was enthusiastic about the French Revolutionary war and Napoleon was another sorry comforter. Even though the natural law failed to bring peace, the pacifistic intention of Hugo Grotius should not be neglected.

Key Words : Grotius, War, Peace, Just War, Natural Law, Natural Right




이라크 전쟁 중 미군의 군사혁신*

-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타당성 검증을 중심으로 -

이 병 구**

1. 문제 제기
2. 군사혁신 이론과 연구가설
3. 변수의 조작화와 방법론적 논의
4. 사례연구 : 경험적 분석
5. 결과 및 함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고, 새로운 도전과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부대와 능력 같은 것들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기습과 불확실성이 우리의 새로운 안보환경의 특성을 결정짓는 세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2002년 1월 31일 미 국방대학교 연설, 럼즈펠드¹⁾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8024910)

** 국방대학교 조교수

1) Donald Rumsfeld, “21st Century Transformation of U.S. Armed Forc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Fort McNair, Washington, D.C., January 31, 2002. <http://www.defense.gov/speeches/speech.aspx?speechid=183>(접속일 : 2013. 1.20).

1. 문제 제기

미국은 2003년 3월 이라크 정권과 알카에다와의 연계성 및 이로 인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가능성을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2003년 초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미군은 정규전 중심의 교리를 적용하였다. 사실 정규전 교리는 미군, 특히 각 군의 정체성을 오랫동안 규정해 온 핵심 교리였다.

그러나 2003년 중반 이후 이라크 내 반군 활동이 증가하면서 미군이 잠재적으로 안고 있었던 심각한 전략적·작전적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그 문제는 바로 미군이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²⁾과 안정화작전(Stability Operation)³⁾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⁴⁾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의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미군은 이미 월남전과 1990년대 전반에 걸친 평화유지 및 평화강제 활동을 전개하면서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었다.⁵⁾ 그러나 미군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교훈을

2) 미 합참은 대반란전을 “반군의 활동을 분쇄하는 동시에 차단하고 반군 활동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민간과 군의 포괄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JCS,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Joint Publication 1-02), 8 November 2010(As Amended Through 15 March 2014), p.59.

3) 미 합참은 안정화작전을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확립 및 유지하고, 필수적 정부 서비스·비상 기반시설 재건축·인도주의적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른 국력요소와의 조율 하에 실시되는 다양한 군사적 임무, 과업 그리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JCS,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Joint Publication 1-02), pp.247~248.

4) David. H. Ucko, *The New Counterinsurgency Era : Transforming the U.S. Military for Modern Wars*(Washington D.C.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9), p.vii.

5) John A. Nagl, *Learning to Eat Soup with a Knife :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Malaya and Vietnam*(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제도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규전 중심의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2003년의 미군은 과거의 역사적 실책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급조폭발물(IED : Improvised Explosive Devices)로 대표되는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미군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라크 전쟁이 제2의 월남전이 될 것이며 미국은 전쟁의 수렁에 더 깊숙이 빠지기 전에 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군의 작전 양상은 2007년부터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라크 내 반군활동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 감소라는 전략적 성과로 이어졌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미국은 2011년 12월 15일 바그다드의 미군기지에서 전쟁 종결기념식을 통해 공식적인 전쟁 종결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성과는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 교리의 개념적 정립 및 제도적 확산이라는 군사혁신의 결과였다. 특히,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정립된 새로운 군사교리가 2007년 1월 결정된 이라크 증파로 인해 전면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라크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군사혁신의 개념적 정립과 제도적 확산이 미국을 이라크 전쟁의 수렁으로부터 구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에 있어서의 미군 군사교리 혁신은 ‘전쟁 중’ 목도된 매우 드문 형태의 군사혁신 사례로서,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군사혁신이라는 현상은 주로 ‘전쟁 후’에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패전을 경험한 국가에서 ‘전쟁 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⁶⁾ 전쟁에서 실패한 국가는 리더십의 교체, 패배 원인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군사력 운용 개념 도입이 용이해진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이러한 군사혁신의 동력을 찾기 어렵다. 연구자들은 ‘전쟁 중’ 군사혁신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

6) Stephen P. Rosen, “New Ways of War : Understanding Military Innov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13, No.1(Summer 1988), pp.134~168.

발생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⁷⁾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진된 미군의 군사교리 혁신은 전쟁 중 군사혁신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군사혁신의 발생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 즉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을 적용하여 이라크 전쟁 중 미국의 대반란전 교리 혁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내부적 군사혁신 이론이란 간단히 말해 군사혁신의 동력을 군 내부에서 찾는 이론적 시각이다. 다시 말해서, 군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거나 외부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의 조직, 교리, 무기체계 등을 스스로 변형시켜 나간다는 주장이다.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이란 군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타성 혹은 관성(inertia)으로 인해 군사혁신은 군 내부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외부적 개입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말한다.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의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군사혁신 또는 군사개혁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구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혁신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 중 공고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사혁신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이론적으로 명확한 인과적 기제(causal mechanism)를 구축하여 변수를 식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미국 등 주요국가가 경험한 군사혁신의

7) 스테판 로젠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 육군의 탱크 도입,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공군의 전략폭격 교리 도입 등의 사례를 전쟁 중 군사혁신 성공 사례로 들고 있다. Stephen P. Rosen, *Winning the Next War : Innovation and the Modern Military*(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p.109~182.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⁸⁾ 이들 연구는 정책적인 면에서 이들 연구의 효용성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라도, 군사혁신 이론의 발전에 대한 이들 연구의 기여도는 매우 제한된다.

둘째, 특히 군사혁신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즉 군사혁신의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찾기 어렵다. 군사혁신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식별하고자 한 일부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연구는 군사혁신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결여한 상태로 특정 변수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⁹⁾ 이론적 논의가 부재한 상태로 단순히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학문적 결함은 한국 내 군사혁신 연구에서 대체로 쉽게 발견된다.¹⁰⁾

군사혁신의 내·외부적 요인 이론에 근거한 이라크 전쟁 중 미국의 대반란전 교리 혁신 분석은 학문적 기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정규전 중심에서 대반란전 중심의 군사교리 혁신을 경험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장차 한국군의 교리 혁신을 이루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8) 조한승,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평화연구』, Vol.18, No.1(2010년 봄호), 193~232쪽; 박휘락, 『정보화시대 국방개혁의 이론과 실제』(서울: 범문사, 2008), 13~77쪽; 이성만, “미국 군혁신 개념의 발전에 대한 고찰: 변형하는 변혁을 향하여”, 『국제정치논총』 제49집, 제2호(2009), 59~81쪽; 이지은, “미국 군사변환의 변화: 럽스펠드식 군사변환의 쇠퇴와 신군사교리의 등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9) 박휘락, “지도자 주도의 국방개혁 모형: 럽스펠드 장관의 변혁(transformation)”, 『군사논단』 제49호(2007년 봄), 59~75쪽.

10) 조한승,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193~232쪽.

2. 군사혁신 이론과 연구가설

언제 그리고 어떻게 군 조직은 싸우는 방법에 있어 중요한 혁신을 이루어내는가? 군사혁신의 성공 또는 실패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실 군사혁신을 포함한 일반적 형태의 혁신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개혁가들은 기존 질서의 혜택을 받는 이들로부터 저항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지함으로 인해 실제로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새로운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¹¹⁾

관료집단(bureaucracies)의 혁신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개탄스러운 어조의 논평을 한 바가 있다.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미 국무부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관료조직의 혁신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다. 그는 외교정책상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관료조직인 국무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능력 있는 소규모 집단의 개인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¹²⁾ 그러나 국가 정책의 상당부분을 관료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수행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료조직에의 의존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국가정책의 보다 더 효율

11) Niccolo Machiavelli, *The Prince*(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1952), book 6, “Of New Dominations Which Have been Acquired by One’s Own Arms and Ability”, pp.49~50.

12) Henry Kissinger, “Domestic Structure and Foreign Policy”, in Henry Kissinger, *American Foreign Policy*(New York : Norton, 1974), pp.18~23.

적인 집행을 위해 관료조직을 어떻게 혁신시켜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나 관료집단의 본질은 변화와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관료집단 연구의 창시자로 간주되는 막스 베버(Marx Weber)는 관료주의의 핵심은 일상적, 반복적, 질서 있는 행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관료집단은 그 본질상 변화 또는 혁신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시간동안 일상적,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일은 이제 소위 사회적 ‘통념(conventional wisdom)’이 된다. 존 갤브레이스(John. K. Galbraith)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익숙한 것은 사회의 다수가 수용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것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함은 수용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 수용가능하다는 것은 곧 사회와 조직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¹³⁾ 이러한 안정성 유지의 필요성이 관료집단의 혁신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관료조직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관료조직인 군이 혁신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예비역 미 육군중령인 존 네이글(John Nagl)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 말레이 사태(the Malayan Emergency) 기간 동안 영국 육군의 반군에 대한 대응전략 혁신에 성공한 사례를 분석한 바 있다.¹⁴⁾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1948년 말라야연방(Federation of Malaya) 출범 시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좌익세력 말레이 공산당(MCP)은 무장봉기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1948년부터

13) John. K. Galbraith, *The Affluent Society*(New York : Houghton Mifflin Company, 1998), p.442.

14) John A. Nagl, *Learning to Eat Soup with a Knife :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Malaya and Vietnam*(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10여 년에 걸쳐 수행된 말레이 공산당과의 투쟁에서 영국 육군은 결국 이들을 효과적으로 분쇄하였다. 존 네이글은 말레이 사태 전 정규전 중심의 교리를 견지했던 영국 육군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유형의 분쟁에 직면하여 과거의 교리와 전투수행방법, 즉 재래식 전술을 과감히 포기하고 비정규전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한 결과 말레이 공산당의 저항을 분쇄할 수 있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술을 구사하는 적 세력 분쇄를 위해 새로운 전술과 접근전략을 시도하여 스스로를 혁신시킴으로써 영국 육군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존 네이글은 말레이 사태 중 영국 육군의 군사혁신 성공과 베트남 전쟁 중 미 육군의 군사혁신 실패 사례를 대조함으로써 군사혁신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 베트남 전쟁 중 미 육군은 영국 육군과는 대비되는 접근전략을 고수한다. 미 육군은 기존의 정규전적 접근방법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월맹군에 대해 계속 정규전을 고집함으로써 결국 패전하게 된다. 기존의 전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적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전략과 전술의 혁신에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 육군의 군사혁신 성공과 미 육군의 군사혁신 실패를 규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존 네이글은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를 중심으로 영국 육군과 미 육군이 보인 군사혁신 도입의 차이를 설명한다. 영국 육군이 혁신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반면, 미 육군은 이러한 조직문화를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아랍인의 독립을 위해 터키인과 맹렬히 맞서 싸워 아랍인들로부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웅적 칭호를 받은 바 있는 영국군 장교 T. E. 로렌스는 “반군과의 전쟁은 매우 혼란스럽고 더디게 진행된다. 이는 마치 수프를 칼로 먹는 것과 같다”는 말을

남겨 그의 경험을 통해 얻은 대반란전의 어려움을 증언한 바 있다.¹⁵⁾

군사혁신을 통해 반군과의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군은 혁신의 정신(the spirit of innovation)을 조직문화의 일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존 네이글의 분석이다. 비교적 소규모의 영국 육군은 분권화된 지휘체제 그리고 현지의 사회, 정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전술을 고안해 내는 학습과 적응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영국군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미 육군의 경우 매우 큰 규모의 군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혁신적 접근전략을 도입 및 확산시키는데 어려움이 노정되어 있었다. 이보다 큰 걸림돌은 뿌리 깊은 정규전 중심 군사사상 그리고 혁신보다는 기존의 지배적 담론에 대한 순응을 중시한 조직문화였다. 이로 인해 미 육군은 결국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 대한 학습과 적응에 실패하였다는 것이었다.

군사혁신의 동인을 군 내부 또는 외부의 요인에서 찾는 두 가지 중요한 접근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조직문화의 특성을 군사혁신의 성공과 실패 원인으로 분석한 존 네이글의 연구는 내부적 군사혁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은 군사혁신의 동인을 군 외부의 요인에서 찾는 접근방법이며 베리 포젠(Barry Posen)이 대표적인 주창자이다.¹⁶⁾ 포젠은 군사교리의 근원(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라는 유명한 저작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과 조직이론(organizational theories) 중 어떠한 이론이 군사교리 혁신의 발생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종식 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의 전간기

15) *ibid.*, p.xii.

16) Barry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interwar period)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한 군사교리 혁신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포젠은 조직이론보다는 세력균형 이론이 군사교리 혁신의 발생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포젠의 분석 중 본 연구에 긴밀히 관련이 있는 것은 소위 군내 “소수의 개혁세력(mavericks)”의 지원을 받는 외부 민간 지도자가 조직 변화를 외부에서 추진할 때 군사교리 혁신이 통상 발생하였다는 그의 주장이다.¹⁷⁾ 민간 지도자들은 군이 외부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행동을 취한다. 민간개혁가들은 기존의 군 교리가 당면한 안보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¹⁸⁾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은 군 조직이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며 변화에 저항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군사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군은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보 비대칭성상 우위에 있는 군은 민간정책결정자에게 전해지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취사선택함으로써 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민간정책결정자가 군 우위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없게 된다.¹⁹⁾

민간 정책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의 열세를 극복할

17) *ibid.*, pp.220~224.

18) Kurt Lang, “Military Organizations”, in James G. March, ed., *Handbook of Organizations*(Chicago: Rand McNally, 1965), p.857.

19) Gary G. Miller, “The political evolution of principal-agent model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8(June 2005), pp.203~225.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소수의 개혁세력이다. 이들 개혁 세력은 민간 정책결정자들이 선택가능한 대안적 접근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과 군사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군사혁신을 주창하는 이들의 주장은 군내에서 비주류로 치부된다. 소수의 개혁세력은 민간 정책결정자들과 연대함으로써 비로소 군내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들 개혁 세력이 제도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정책결정자들은 이들의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군사혁신의 탄력을 유지한다.²⁰⁾

포젠은 군이 특히 교리의 문제에 있어 자발적으로 혁신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군 조직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혁신을 통한 현상의 외해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 조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위계질서 또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혁신을 어렵게 만든다. 패배의 결과 군이 혁신적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지만 포젠의 연구는 군이 패배의 상황에서 중요한 혁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패배를 서둘러 봉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외부 개입에 의한 군사혁신의 대표적 사례는 1986년 미국의 골드워터-니콜스 법(The Goldwater-Nichols Act of 1986)이다. 골드워터-니콜스 법의 제정으로 인해 군 최선임으로서 합참의장의 법적 지위가 명문화되고, 각 군의 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예하 통합사령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합동직위를 신설하여 이 직위에의 근무를 고급장교 진급의 필수조건으로 정하는 등 미군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²¹⁾

20) 스테판 로젠은 외부 민간지도부의 개입이 군사혁신의 필수조건이라는 베리 포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Stephen P. Rosen, *Winning the Next War : Innovation and the Modern Military*(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p.9~18.

21) Gordon N. Lederman, *Reorganizing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Goldwater-Nichols Act of 1986*(Westport, CT : Greenwood Press, 1999).

이 법 제정이 흥미로운 것은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의 출발부터 법의 제정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회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골드워터-니콜스 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던 것은 1980년 4월 24일 Operation Eagle Claw라고 명명된 이란 인질구출작전과 1983년 그레나다 침공작전이였다. 이 두 작전은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종료되었으며 “각 군이 각 군만의 독특한 훈련방법, 전술교리를 가졌으며 실제 작전에 있어 자군의 방식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임무수행의 전 과정에서 협조가 빈약하였다”는 것이 피해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²²⁾ 의회 주도의 국방개혁 시도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방장관과 각 군 총장은 크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결국 의회는 4년여의 논쟁을 주도한 끝에 1986년 10월 1일 법을 발효시켰다.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의 타당성을 비교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각 모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세부연구가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연구가설이 명시적으로 제시할 때 비로소 양대 군사혁신 모델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먼저, 베리 포젠의 연구를 중심으로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이 제시하는 세부연구가설을 염출하면 다음과 같다.

22) Edward N. Luttwark, *The Pentagon and the Art of War*(New York : Simon & Schuster Publication, 1985), p.45.

〈표 1〉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의 세부연구가설

- 가설 1. 군사혁신 필요성은 군 내부보다는 외부기관(external institutions)에 의해 제기된다. 군 지도부는 군사혁신 필요성에 대해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2. 외부 민간 개혁가는 군 내부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혁세력과 연계하여 군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이들 민간 개혁가들은 소수의 개혁세력이 제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신 군사교리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진로(career path)를 만든다.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은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과는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다.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의 대표적 주창자인 스테판 로젠(Stephen P. Rosen)은 군내 소수의 개혁세력의 도움을 받는 외부 민간 개혁가의 개입이 군사혁신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군사혁신을 설명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²³⁾

내부적 군사혁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군사혁신은 변화되는 외부 전략 환경 또는 작전 환경에 대한 군 내부의 인식 전환과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의 산물이다. 이때 군 내부의 인식 전환은 통상 조직간 경쟁과 갈등의 부산물이다. 외부 전략 환경 또는 작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둘러싼 조직간 경쟁과 갈등을 통해 군사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군사혁신은 군 지도부가 변화될 때보다는 계속 유지될 때 가능하다.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군사혁신의 과정이 외부의 개입이 아닌 군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군 지도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군 지도부는 새로운 승리의 이론을 제시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조직 간 경쟁을 조율하며 각자의 이론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한다. 전장 정보 등

23) Stephen P. Rosen, *Winning the Next War : Innovation and the Modern Military*(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p.19~22.

사용가능한 정보의 수집 그리고 이를 통한 피드백은 매우 중요하다. 통상 사후검토(AAR : After-Action Review)를 통하여 현재의 전략 또는 전술, 교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은 통상 기존의 것과는 다른 군사적 과업과 임무를 창출해 내고 이를 수행할 새로운 세대의 젊은 장교들을 위한 진로가 고위 군 지도부에 의해 마련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소위 혁신 세대가 군 지도부 또는 군의 주요 직위에 오르게 되면 그 결과 조직의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이 제도화된다.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 지도부가 군 지도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개혁세력의 진로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는 군내 진급에 있어서의 민간 지도부의 개입이 통상 “적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²⁴⁾ 특히 전문직업주의가 정착된 군에서 진급은 정치적 고려사항보다는 군 전문지식이나 경험, 군내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민간 지도부가 이러한 군사적 고려사항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일부 군 장교를 진급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외부 민간 지도부는 군내 혁신가들이 내부적 또는 외부적 저항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외부 민간 지도부는 군사혁신에 필요한 정치적 지지와 재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1939년 폴란드 침공 후 독일 육군의 군사혁신은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을 지지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독일군 최고 사령부는 폴란드 침공 후 작성된 사후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전술 개념, 조직, 무기체계가 전쟁 전 예측했던 것과 유사하게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투효율성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전쟁 전 독일 육군이 신속하게 규모를 증강하면서 새로 창설된 부대가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결과였다. 육군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24) *ibid.*, p.21.

당시 얼마만큼의 개선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독일 육군은 기존의 훈련 절차에 추가하여 새로운 훈련방법을 도입, 강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혁신이 기존의 군사제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군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한 것이다. 저명한 군사사학자인 윌리엄슨 뮤레이(Williamson Murray)는 독일 육군의 군사혁신 사례가 군전문직업주의(military professionalism)의 작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²⁵⁾

독일 육군이 폴란드 침공에서 ‘성공’을 거둔 후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한 차원 높은 군사혁신을 이루어내었다면, 세계 제2차대전 중 영국과 미국 육군의 정글전(jungle warfare)은 초기 ‘작전 실패’를 딛고 군 스스로 군사혁신에 성공하여 전세를 뒤집은 사례가 될 수 있다.²⁶⁾

스테판 로젠의 연구를 중심으로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이 제시하는 세부연구가설을 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의 세부연구가설

- | |
|--|
| <p>가설 4. 군사혁신 필요성은 외부 기관(external institutions)보다는 군 내부에서 제기된다.</p> <p>5. 군 지도부는 군사혁신 필요성에 대한 군 내부 의견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군사교리 연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신 군사교리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진로(career path)를 만든다.</p> <p>6. 신 군사교리의 정착(예산 등)은 민간 관료 또는 정치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이는 군 지도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민간 관료 또는 정치인의 적극적 개입에 따른 것은 아니다. 민간 관료 또는 정치인의 군사혁신 참여는 통상 군사혁신의 후반기에 이루어진다.</p> |
|--|

25) Williamson Murray, “The German Response to Victory in Poland : A Case Study in Professionalism”, *Armed Forces and Society* 7(Winter 1981), pp.288~291.

26) F. Spencer Chapman, *The Jungle Is Neutral*(London : Chatto and Windus, 1949), p.29; Field Marshall Sir William Slim, *Defeat into Victory*(London : Cassel, 1954), p.20.

3. 변수의 조작화와 방법론적 논의

가. 변수의 조작화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군사혁신이 군사기획, 군사교리의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²⁷⁾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본 연구는 이라크 전쟁 중 발생한 군사혁신을 군사교리 분야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군사혁신의 발생 유무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종속변수의 값은 이론적으로 0 또는 1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군사혁신이 발생하였다면 종속변수의 값은 1, 발생하지 않았다면 0이 된다. 그러나 군사혁신의 발생 유무는 그 정의의 모호함만큼이나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사혁신이라는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론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보다 객관적 그리고 체계적 연구를 위해 종속변수를 다음의 두 가지 수준으로 지표화 한다.²⁸⁾ 첫 번째 수준에서 본 연구는 군사혁신을 전투 현장에서의 상향식 적응과정(bottom-up adaptation process)으로 본다. 이 수준은 보다 낮은 차원에서의 군사혁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중점을 두고 측정하게 될 것이다.

27)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군사기획면에서 볼 때 럼즈펠트 미 국방장관이 도입한 능력기반기획(Capability Based Planning) 또한 군사혁신으로 볼 수 있다. 럼즈펠트는 기존의 위협기반기획(Threat Based Planning)를 능력기반기획으로 대체함으로써 군사기획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28) Adam Grissom, "The Future of Military Innovation Studies",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29, Issue 6, 2006, pp.905~934.

〈표 3〉 종속변수 지표 1 - 상향식 적응 과정²⁹⁾

지표 1 : 상향식 적응 과정

지표 1-1. 전술상 변화(changes in tactics)가 있었는가?

1-2. 주요 교리 문서(major doctrinal field manuals)가 발표 혹은 개정되었는가?

두 번째 수준에서 군사혁신의 유무는 제도적 수준의 하향식 혁신 과정(top-down innovation process)을 분석함으로써 측정된다. 이 수준은 정치지도자 및 군 지도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 및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institutional changes) 여부를 측정한다. 전술상의 변화 또는 교리의 주요한 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양한 수준의 부대에 확대 적용되는 제도적 차원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혁신의 동력은 구상이나 개념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표 4〉 종속변수 지표 2 - 하향식 혁신 과정

지표 2 : 하향식 혁신 과정

지표 2-1. 새로운 군사교리가 다양한 수준의 부대로 전면적으로 확산되었는가?

지표 2-2. 새로운 군사교리 구현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 체계가 변화했는가?(예, 새로운 병과의 창설 등)

군사혁신의 발생 유무를 두 가지 수준 - 즉 상향식 적응 과정과 하향식 혁신 과정 -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은 top-down식뿐만 아니라 bottom-up의 변화를 동반해야 비로소 군사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달성했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접근전략 하에서 우리는 군사혁신의 정도와 범위를 보다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

29) 이외에도 훈련 체계의 변화(changes in training systems)가 있었는가를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상향식 적응과정 측정을 위해 두 개의 지표만을 선정하였다.

2)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이 이라크 전쟁 중 미군의 군사교리 혁신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표 1>에서 제시한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의 세부연구가설의 성립 여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가설 1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구분해 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부기관’과 ‘군 내부’를 구분하는데 있어 군 내부를 ‘군 수뇌부’로 규정한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외부기관’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및 의회가 포함된다. ‘군 수뇌부’는 합참의장, 각군 총장, 이라크를 관할하는 중부사령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가설 1이 성립된다면 군 수뇌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군사혁신 요구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둘째, 가설 2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잣대는 (1) 소수의 개혁세력의 존재 (2) 외부 개혁세력과 이들 군내 소수의 개혁세력간의 연대이다. 스테판 로젠이 지적하다시피, 소수의 개혁세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³⁰⁾ Mavericks이라는 영어 단어의 원래 뜻은 상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고립되고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군에서 이런 뜻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mavericks을 소수의 개혁세력이라고 해석하며 (1) 일반 장교들보다 개혁을 더 선호하며 (2) 개혁 분야에 대한 군사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교들로 정의한다.³¹⁾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개혁에 대한 강한 선호도와 이를

30) Stephen P. Rosen, *Winning the Next War*, pp.11~14.

31) *ibid.*, p.11.

위한 군사전문 지식을 동시에 구비한 장교들을 소수의 개혁세력으로 규정한다. 소수의 군내 개혁세력과 외부 개혁세력간의 연대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군사혁신의 정치적 동학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따라서 군내 소수 개혁세력의 목소리가 정치적 반향과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군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군 수뇌부 일부의 지지를 얻거나 외부 개혁세력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셋째, 가설 3이 성립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군내 소수의 개혁세력이 진급 등을 통해 군내에서 제도화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개혁가들이 이들을 비호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군내 소수의 개혁세력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나 군의 우선순위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민간 개혁가들의 개입이 없다면 군내에서 군 지도부로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3)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이 이라크 전쟁 중 미군의 교리 변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 2>에서 제시한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의 세부연구가설을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가설 4의 성립여부는 군사혁신의 필요성이 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로 제기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검증된다. 구체적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가설 1의 성립조건과 같다.

둘째, 군사혁신에 있어 군 지도부의 주도적 역할을 가정하는 가설 5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군 지도부가 사후검토, 분석 보고서, 또는 유경험자 들을 통해 군사혁신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한 군 내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 탐색 및 수용해야 하고 (2)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군사교리 연구에 필요한 제도(연구기관, 군사고문단 등)의 설립을 추진하며 (3) 신 군사교리 발전에 기여할 군 인재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가설 6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군 지도부가 신 군사교리의 정착 및 확산에 필요한 자원(예산, 병력 등)을 민간 관료 또는 정치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외부 민간 지도부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이 단계는 통상 군내에서 군사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은 시점이 될 것이다.

나. 방법론적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라크 전쟁 중 발생한 미국의 반전복전 교리 혁신이 내부적 또는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 중 어느 것에 의해 더 적절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에서 보인 군사혁신의 인과적 기제를 규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방법(case study method)이다.

사례연구방법은 질적 방법론의 하나로 정치학 및 역사학에서 널리 쓰여 왔다. 사례연구 방법은 많은 사례(large-n) 속에서 일반화될 수 있는 패턴을 찾는 정량적 방법론으로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사회, 정치적 환경의 특수성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³²⁾ 한국의 국제정치 학문분야에서 집적통계자료(aggregate statistics data)를 활용한 경험분석 연구 비율이

32) Jarol B. Manheim, Richard C. Rich, Lars Willnat, and Craig Leonard Brians, *Empirical Political Analysis : Research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sixth ed.(New York : Pearson Education Inc., 2005), pp.308~309.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례연구 등 질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장점에 대한 연구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³⁾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 기법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 기법에 대한 깊이 있는 방법론적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사례연구를 수행해 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³⁴⁾ 이러한 비판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일부 연구자들은 사례연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³⁵⁾

본 연구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론적 접근전략을 적용함으로써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³⁶⁾ 사례 내 분석기법은 통상 하나의 사례가 몇 개의 대안적 설명 모델 중 어떤 것에 의해 보다 더 타당성 있게 설명되는가를 증명하는데 활용된다. 따라서 이 기법은 사례 선택 편견(case

33) 이상환에 의하면 1963년부터 1997년까지 『국제정치논총』에 발표된 국제정치 관계 논문은 총 513편이다. 이 중 양적연구는 총 30편으로 5.9%에 불과하다. 이상환, “국제정치분야의 경험적 연구에 관한 분석 : 국제정치논총과 한국정치학회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83, No.4(2001), 361~378쪽.

34) John Gerring, “What is a Case Study and What Is It Good F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8, No.2(May 2004), pp.341~354.

35)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Cambridge, Mass. :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2005); Andrew Bennett and Colin Elman, “Qualitative Research : Recent Developments in Case Study Method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9(2006), pp.455~76; Jack S. Levy, “Learning and Foreign Policy: Sweeping a Conceptual Minefie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8(March 1994), pp.279~312.

36)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pp.151~179, 205~232; Andrew Bennett and Colin Elman, “Case Study Method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Subfiel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40(2007), pp.170~195.

selection bias)에 대한 비판에 덜 취약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³⁷⁾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라크 전쟁 중 미군의 군사혁신이라는 한 개의 사례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론적 접근방법 중 어떤 것에 의해 더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 내 분석기법은 ‘구조화되고 집중적인 비교 방법’(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method) 등 대안적 분석기법보다 본 논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³⁸⁾ 한 개의 사례를 가지고 두 개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론적 접근방법은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수 개의 사례를 비교하는 여타의 연구와는 매우 차별적인 가치를 지닌다.³⁹⁾ 데이비드 콜리어 (David Collier)가 강조하듯이 사례 내 비교는 소수 사례 (small-n) 분석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 오고 있다.⁴⁰⁾

둘째, 본 연구는 ‘과정 추적(process tracing)’ 기법을 적용한다.⁴¹⁾ 이 기법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적 기제

37) King, Keohane, and Verba는 사례 연구 등의 질적 연구가 사례 선택 편견에 빠지기 쉬움을 경고하고 있다. Gary King,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94, 108, 135~136.

38)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례연구 기법으로는 ‘구조화되고 집중적인 비교 방법’(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method)이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통상 두 개 이상의 사례를 상호 비교하는데 있어 방법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널리 사용된다.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pp.65~124.

39)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John A. Nagl, *Learning to Eat Soup with a Knife :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Malaya and Vietnam*(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Jeffrey A. Isaacson, Christopher Layne, and John Arquilla, *Predicting Military Innovation*, RAND Corporation, 1999 등이 있다.

40) David Collier, “The Comparative Method : Two Decades of Change”, in Dankwart A. Rustow and Kenneth Paul Erickson, eds., *Comparative Political Dynamics : Global Research Perspectives*(New York : Harper Collins, 1991), pp.8~11.

41)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causal mechanism)에 관련된 절차를 추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과정 추적 기법에 있어 인과성(causation)은 몇 가지 대안적 가설이 제시하는 인과적 기제의 절차가 실제 관찰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군사혁신의 두 가지 주요 가설, 즉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이 가정하는 일련의 인과적 기제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탐색한다. 이는 곧 <표 1>과 <표 2>에서 제시한 세부연구가설이 인과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모델 중 만약 어느 하나의 모델에 있어 인과적 기제의 단절이 있다면 이는 곧 이 모델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4. 사례연구 : 경험적 분석

가. 종속변수의 측정 : 군사혁신의 발생과 영향

이라크 전쟁 동안 발생한 군사혁신의 범위와 정도는 어떠한가? 본 논문의 저자는 앞서 군사혁신의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두 가지 수준의 측정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군사혁신의 측정에 보다 더 방법론적 엄밀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이라크 전쟁 동안 정규전 중심의 기존 교리에서 대반란전 중심의 교리로 전환되는 군사혁신의 발생을 측정하는 첫 번째 지표인 상향식 적응과정을 분석한다. 상향식 적응과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판단은 주요 전술, 주요 교리문서의 발표 또는 개정으로 알 수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pp.151~179, 205~232; Andrew Bennett and Colin Elman, "Case Study Method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Subfield", pp.183~185; David Collier, "Understanding Process Tracing", *PS :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44, No.4(2011), pp.823~830.

있다.

이라크 전쟁 동안 미군은 전술 그리고 교리상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2003년 3월 20일 미군과 영국군의 공습을 시작으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후 약 3주간에 걸친 현대판 전격전 끝에 2003년 4월 9일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가 함락되었고 같은 해 5월 1일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붕괴와 종전을 선언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2003년 미 국방부는 변혁 기획지침(Transformation Planning Guidance)을 공표하고 예하 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문서의 주요한 내용은 향후 미군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군사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전세계 어디든 탐지, 추적, 그리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⁴²⁾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향점이 기존의 재래식 정규전 전술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다.

미군의 예상과는 달리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붕괴 이후 이라크 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며, 미군과 우방국 군대에 대한 과격한 공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미군의 전술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미군은 전쟁 전 그리고 전쟁초기 오로지 재래식 정규전에만 제대로 준비되었을 뿐 전후 안정화작전을 위한 능력이나 준비 면에서는 매우 부족하였다. 소위 말하는 ‘4단계 작전’, 즉 ‘전후 단계’는 매우 낙관적인 가정 하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면밀한 계획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였다. 그 이유는 전쟁 전 미 국방부는 일단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면 망명 중인 이라크인과 일부 이라크 인사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과도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었다.

42) David. H. Ucko, *The New Counterinsurgency Era : Transforming the U.S. Military for Modern Wars*, p.59.

그러나 전후 단계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적 가정만큼이나 이라크 전쟁초기 상황 악화에 기여했던 것은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에 대한 미군의 오래된 거부감 또는 저항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군이 수행한 전쟁 또는 군사작전이 통상 비정규전 또는 전후 안정화를 수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군사교리, 교육 훈련 그리고 군 문화는 재래식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미군은 보다 더 상위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치적 안정의 달성에 군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탐색하기보다는 군사적 차원의 시각에 머물면서 군사적 목표물의 파괴를 우선시 하는 군사교리, 교육 훈련 그리고 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⁴³⁾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의 2003년 5월 이라크 전쟁 임무 완수 선언 이후 이라크 반군의 공격과 이에 따른 사상자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1>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알카에다 등 반군에 의해 행해진 공격횟수를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전 이후 공격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군의 공격은 2006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2>는 이라크 전쟁 중 민간인 전사상자 숫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민간인 전사상자 또한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 내 혼란이 격화된 배경에는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 목표의 표류, 바트당 정권 및 군의 해체로 인한 불안정성 고조, 아부 그레이브 교도소에서 발생한 미군의 이라크 전쟁포로 학대 사건 누설로 인한 중동지역 내 반미 감정의 폭발적 고조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⁴⁴⁾

43) Frederick W. Kagan, *Finding the Target: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Military Policy*(New York : Encounter Books, 2006).

44) 이근욱, 『이라크 전쟁』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11), 116~131, 166~173쪽.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라크 내 반군 활동과 피해 증가라는 예측하지 못한 현상에 대한 미군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 또한 이라크 전쟁의 난항 가속화에 기여하였다. 미군 내에서는 효율적인 군사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라크 전쟁이 제2의 월남전으로 악화되기 전 서둘러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⁴⁵⁾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론이 점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접근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2005년 말부터 조금씩 가시화되었다. 이라크 전쟁 중 군사혁신 움직임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미 국방부는 2005년 11월 28일 국방부 지시(DoD Directive) 3000.05를 예하 부대에 하달하여 전군에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 제도화의 기초를 닦았다.⁴⁶⁾ 이 국방부 지시는 안정화작전이 미군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군사임무 중 하나이며, 전투 작전과 동등한 수준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안정화작전에 대한 미군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국방부 지시 3000.05는 안정화작전이 교리, 조직, 훈련, 교육, 물자, 리더십, 인적 자원, 시설 및 기획을 포함하는 미 국방부의 모든 활동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기초 하에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의 핵심 군사교리를 제정한 FM 3-24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교범이 2006년 12월에 발표되었다. 이 교범은 FM 3-07 안정화작전 및 지원 작전(Stability Operations and Support Operations)을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서 2006년 2월 육군과 해병대간의 합동 세미나로부터 출판한 교범 개정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45) 위의 책.

46) 원 제목은 DoD Directive 3000.05 : Military Support for Stability, Security, Transition, and Reconstruction(SSTR) Operations이다.

결과가 해병대에서는 MCWP 3-33.5 대반란전 교범으로 발표되었다. FM 3-24와 MCWP 3-33.5 교범의 작성과 논의에는 육군, 해병대, 국방부, 학계, 연구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교범에는 이라크 전쟁을 포함하여 미국이 당시까지 경험한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에서 얻은 교훈과 성과가 교리화되었다.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은 미군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 임무가 아니라는 과거의 인식과 거부감이 이라크 전쟁의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 전술/전략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인식 속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었다.

대반란전을 포함한 안정화작전은 이제 공격작전, 방어작전과 더불어 미군이 대비하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작전유형으로 자리매김하였다.⁴⁷⁾ 미군의 핵심 교리가 재래식 탐색 및 섬멸(search and destroy) 중심의 군사교리에서 민심의 회복(winning hearts and minds)이라는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제거-건설-유지(clear-build-hold)”를 중심으로 하는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 교리로 변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라크 전쟁 동안 정규전 중심의 기존 교리에서 대반란전 중심의 교리로 전환되는 군사혁신의 발생을 측정하는 두 번째 지표인 하향식 적응 과정을 분석한다. 하향식 적응 과정의 발생에 대한 판단은 새로운 군사교리의 제도적 확산 및 적용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체계의 변화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사혁신이 개념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으로 전면 확산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 교리가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개념적 차원에서 과거의 인식을 크게 탈피한 군사적 혁신을 이루어 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적 차원에서의

47) William Caldwell IV and Steven M. Leonard, “Field Manual 3-07 Stability Operations: Upshifting the Engine of Change”, *Military Review*(July-August 2008), pp.6~13.

군사적 혁신이 제도적 수준으로 전면 확산되어 전략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는 곧 개념적 차원의 군사적 혁신이 자동적으로 제도적 차원의 군사적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 혁신의 제도적 정착에 기여한 것은 이라크 증파(Iraq Surge)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7년 1월 이라크 전쟁 선언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을 선언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라크에서의 철수가 아닌 이라크 증파였다. 이러한 결정은 2007년 초의 지배적 여론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패했으며, 남은 과제는 신속한 철수를 통해 미국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⁴⁸⁾ 군내 지휘부 또한 이러한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었다.⁴⁹⁾

이라크에 2만 명의 미군을 증파한다는 결정은 단순히 수적 증가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이라크 증파는 미국이 이제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의 교리를 전략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7년 1월 5일 이라크 증파에 회의적인 군 수뇌부를 교체하여 새로운 전략의 이행을 보장하였다. 특히,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 교리의 개념적 정립에 크게 기여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David Petraeus) 중장이 대장으로 승진 후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관으로 보임되어 이라크 내 새로운 교리의 제도적 확산을 주도케 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개념적 차원의 혁신을 거듭해 온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 교리가

48) 2007년 초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 지지 및 반대율은 각각 20% 및 65%였다. “이라크 전쟁에서 선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Victory is no longer an option in Iraq)”라는 제목의 뉴욕 타임스 사설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관론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근욱, 앞의 책, 255쪽.

49) Peter D. Feaver, “The Right to Be Right :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Iraq Surge Decis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35, No.4(Spring 2011), pp.87~125.

이제 본격적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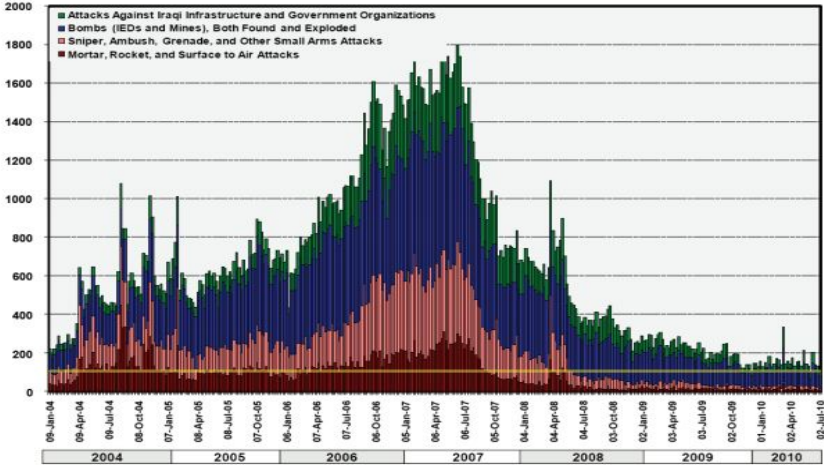
부시 대통령의 증파 결정은 사실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 교리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강한 확신에 근거하고 있기보다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당시의 국내정치적 반대를 새로운 전략적 시도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도 비롯되었다. 전략적 고려사항보다는 국내정치적 고려사항이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 교리의 제도적 확산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이 아닐 수 없다.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 군사교리의 혁신이 군내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미군의 교육 훈련 체계가 큰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기존에는 예비군 부대에 한정되었던 민사(Civil Affairs) 병과를 현역 부대를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의 확보를 제도화하였다.⁵⁰⁾

이라크 전쟁 중 군사혁신의 효과는 분명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이라크 증파 그리고 이와 동반된 교리와 접근전략의 변화로 인해 2007년 이후 이라크 민간인 전사상자, 공격횟수 등 대부분의 전쟁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 결과 2011년 12월 미국은 이라크의 종전을 선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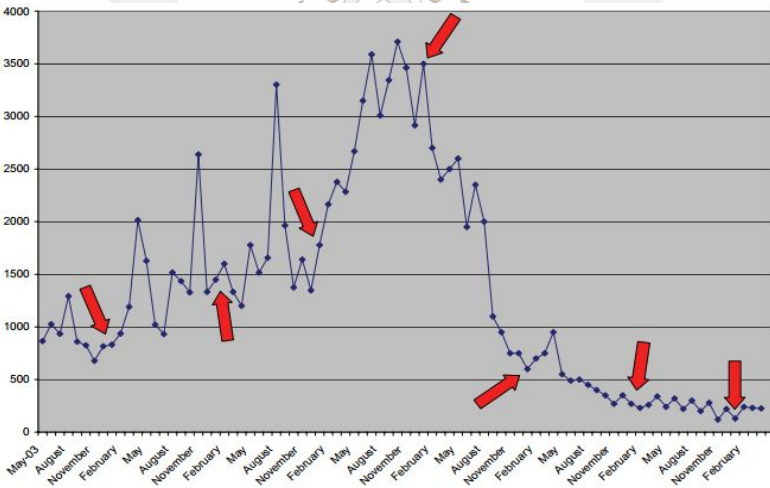
50) 미 육군은 1955년 예비군 부대의 민사 병과를 창설하였다. 최초 병과의 이름은 '민사 및 군정(Civil Affairs and Military Government)'이었다. 이후 1959년 10월, 미 육군은 '군정'을 삭제하고 병과명을 '민사'로 개칭하였다. Kathleen H. Hicks and Christine E. Wormuth, *The Future of U.S. Civil Affairs Forces* (Washington D.C. : CSIS, 2009), p.5.

〈그림 1〉 이라크 전쟁 중 반군의 공격횟수(2004~2010)



※ 출처 : 브루킹스 연구소, Iraq Index : Tracking Variables of Reconstruction & Security in Post-Saddam Iraq(September 30, 2010).⁵¹⁾

〈그림 2〉 이라크 전쟁 중 민간인 전사상자(2004~2010)



※ 출처 : 브루킹스 연구소, Iraq Index : Tracking Variables of Reconstruction & Security in Post-Saddam Iraq(September 30, 2010).⁵²⁾

51) <http://www.brookings.edu/iraqindex>(접속일 : 2013.5.20)

나.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앞의 <표 1>과 <표 2>에서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의 세부연구가설을 제시하고 각각의 가설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화한 바 있다. 가설 성립 조건의 구체화를 통해 우리는 질적 연구에서 때로 결여되는 정교한 경험적 연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적용한 경로 추적(process tracing) 기법에 부합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외부적 또는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의 세부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두 모델 중 어느 것이 이라크 전쟁 중 발생한 군사혁신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먼저,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의 가설 1은 군사혁신 필요성이 군 내부보다는 외부 기관에 의해 제기된다고 본다. 이 가설은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의 가설 4와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가설 1과 가설 4 중 어느 한 쪽의 타당성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군사혁신의 요구가 군 내부 또는 외부기관 중 어느 일방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양측에 의해 제기 되었다. 이는 전쟁 중 군사혁신이 갖는 특징으로 보인다. 이라크 전쟁의 난항이 2003년부터 가시화되고 악화되면서 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도 군사혁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만약 전사가 아닌 평시 군사혁신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평시에는 기존 군사교리 또는 체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거나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군사교리에 입각한 군사전략 변화의 필요성이 외부 기관에 의해 제기된 증거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직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를

들 수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베트남전, 말라야 전역 등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정립하여 2005년 10월 이라크 전쟁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라이스 국무장관은 대반란전 및 안정화 작전 교리의 핵심개념으로 인식된 “제거-유지-건설(Clear-Hold-Build)” 개념을 제시하여 새로운 군사교리 및 전략의 탐색 필요성을 공론화하였다.⁵³⁾

유명한 국방분석가인 앤드류 크레비네비치(Andrew Krepinevich)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5년 10월 Foreign Affairs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크레비네비치 박사는 반군의 살상과 체포가 아닌 이라크 내 치안의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와 유사하게 소위 ‘기름방울(oil-spot)’ 기법의 적용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크레비네비치 박사는 “미군과 이라크군이 이라크 전체의 치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부 핵심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성과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그 이미지는 점점 커지는 기름방울과 유사하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⁵⁴⁾

외부기관과 더불어 군내에서도 군사혁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군 수뇌부 중 특히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피터 슈메이커 (Peter Shoomaker)는 대반란전에 대한 미군의 지속적 학습을 강조하면서 대반란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존 네이글(John Nagl) 중령의 책을 미 육군의 모든 4성 장군에게 배포하고 이를 숙독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⁵⁵⁾ 이러한 노력이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이라는 군사적 혁신의 개념적 정립에 기여하였다. 새로운 군사혁신 필요성에 대해 군 수뇌부는 대체로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가설 1, 4는 어

53) Condoleezza Rice, “Iraq and U.S. Policy”, Opening Remarks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October 19, 2005.

54) Andrew Krepinevich, “How to Win in Iraq”, *Foreign Affairs* 84, no.5 (September/October 2005).

55) John A. Nagl, *Learning to Eat Soup with a Knife :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Malaya and Vietnam*.

는 한쪽의 일방적 타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가설 2, 3은 (1) 소수 개혁세력의 존재, (2) 외부 개혁세력간의 연대 유무, (3) 그리고 이와 동시에 외부 개혁세력의 비호에 의한 군내 소수 개혁세력의 영향력 확대 여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성립 여부가 검증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 2, 3은 성립된다.

본 연구는 앞서 소수의 개혁세력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mavericks을 일반 장교들보다 개혁을 더 선호하며 개혁 분야에 대한 군사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교들로 정의하였다. 이라크 전쟁 중 관찰된 군사혁신의 배경에는 ‘코인 커뮤니티(COIN Community)’로 알려진 일련의 개혁가들이 존재했다. 여기에서 COIN은 Counterinsurgency 즉, 대반란전을 의미한다. 코인 커뮤니티는 대반란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장교들로서 대반란전에 대한 지식을 군내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David Petraeus), 존 네이글(John Nagl), 허버트 맥메스터(H. R. McMaster) 등이 있다.

이들은 군사혁신 이론가들이 말하는 소수의 개혁세력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와 존 네이글은 대반란전에 대한 박사논문을 작성하는 등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는 2006년 미 캔사스 주 레번워쓰(Fort Leavenworth)에 위치하고 있는 지휘참모대 총장으로 임명되어 대반란전 교리의 정립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존 네이글 또한 중령으로 국방부 부장관의 군사고문직을 수행하면서 코인 커뮤니티의 지식과 경험이 국방부에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허버트 맥메스터는 베트남 전쟁의 악화 원인에 대한 박사논문으로 유명해졌는데,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제3기갑수색연대장으로 이라크 탈 아파(Tal Afar)에서 대반란전을 시험 적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⁵⁶⁾ 부시 대통령은 공개적 석상에서 맥메스터가 도입한 새로운 대반란전 전술 그리고 이 전술이 가져온 군사적 승리에 대해 칭찬하기도 하였다.⁵⁷⁾ 또한 뉴요커(New Yorker), CBS의 60분(60 Minutes) 등 유수의 언론에서도 맥메스터 대령이 시도한 새로운 전술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었다. 코인 커뮤니티는 2005년 후반부터 미군의 대이라크 전략 및 대반군 전술의 전환 추진력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였다.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 군사교리의 정립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코인 커뮤니티는 외부 개혁세력과의 연대 및 후원에 의해 고위직으로 진급하면서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 교리의 군내 확산 및 제도화를 기할 수 있었다. 코인 커뮤니티의 멤버들은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의 중요성에 대한 미 국방부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전군에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 제도화의 기초를 닦았던 2005년 말 국방부 지시 3000.05(DoD Directive 3000.05)의 작성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반란전과 안정화작전의 핵심 군사교리를 제공한 야전교범 3-24(대반란전)의 작성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다.⁵⁸⁾ 재래식 중심의 군사교리에서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 중심교리로 변화한 것이다.

코인 커뮤니티의 영향력 증대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군 외부에 존재하는 민간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2006년까지 이라크에서의 상황이 내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이라크에서

56) Krepinevich, "How to Win in Iraq", p.89.

57) White House, "President Discusses War on Terror", March 20, 2006.

58) William Caldwell IV and Steven M. Leonard, "Field Manual 3-07 Stability Operations : Upshifting the Engine of Change", *Military Review*(July-August 2008), pp.6~13.

의 조기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 합참의장, 중부사령관 등 군 지도부의 대부분은 이라크에서의 조기 철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코인 커뮤니티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맥메스터 육군대령의 경우 2006, 2007년 연속으로 장군 진급에 누락되었다.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2년 연속 장군진급에 실패한 맥메스터는 3수 끝에 2008년 장군으로 진급하였다. 코인 커뮤니티의 수장으로 인식된 퍼트레이어스 장군이 이라크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장군 진급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맥메스터의 진급과 관련된 논란은 군내 코인 커뮤니티의 부상과 영향력 증대 그리고 대반란전 교리의 제도적 확산이 기존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쉽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만약 외부 개혁세력의 후원이 없었다면 코인 커뮤니티는 기존 세력의 견제 속에 군사적 혁신의 제도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이 제시하는 가설 2, 3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이 제시하는 가설 5, 6은 모두 성립하지 못한다. 이라크 전쟁 중 군사혁신의 발생에 있어 군 수뇌부는 대체로 개념적 차원의 발전에는 동의하였으나 제도적 차원의 확산에는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도적 차원의 군사혁신 확산에 크게 기여한 이라크 증파의 결정에 있어 군 수뇌부는 백악관 및 국방부와는 달리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였다. 당시 합참의장 피터 페이스(Peter Pace),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관 조지 케이스(George W. Casey), 중부사령관 존 아비자이드(John Abizaid) 장군 등은 미군의 이라크 증파가 이라크에서의 성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⁵⁹⁾ 코인 커뮤니티의 수장격인 이라크 다국적

59) John A. Nagl, *Learning to Eat Soup with a Knife :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Malaya and Vietnam*, pp.119~125.

군 사령관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은 이라크 증파 및 대반란전 교리의 본격적인 적용을 통해 이라크 전쟁의 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본 거의 유일한 군 주요인사라고 할 수 있었다. 만약 부시 대통령의 재가 하에 단행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군 지도부 교체가 없었더라면 퍼트레이어스 장군을 중심으로 정립된 군사혁신이 제도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을 것이다.

코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 개혁세력은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 교리의 정립에 크게 기여하고 실제 이를 이행에 옮겨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에 있어 시련을 겪었다. 허버트 맥메스터와 존 네이글이 대표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버트 맥메스터는 뛰어난 전략적 혜안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 되어서야 진급할 수 있었으며 준장으로 군 경력을 마무리해야 했다. 존 네이글 또한 대반란전 교리 정립에의 기여 그리고 국방부 장관 군사고문으로서의 큰 활약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령으로 진급하지 못하였다. 이는 신군사교리의 정립이라는 군사혁신의 발생이 군 지도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 추진되고 제도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가설 5, 6이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5〉는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의 가설검증 결과는 요약하고 있다. 검증 결과 이라크 전쟁 중 발생한 군사혁신은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에 의해 더 타당성 있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표 5〉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 가설검증 결과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
가설 1 : ○	가설 4 : ○
가설 2 : ○	가설 5 : X
가설 3 : ○	가설 6 : X

※ 범례 : ○ - 가설 성립, X - 가설 기각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라크 전쟁 중 발생한 미군의 반전복전 교리 혁신이 내부적 또는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 중 어느 것에 의해 더 적절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실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의 반전복전 교리 혁신이 내부적 군사혁신 모델보다는 외부적 군사혁신 모델에 의해 보다 더 타당성 있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소위 군내 소수의 개혁세력의 지원을 받는 외부 민간 지도자가 조직 변화를 외부에서 추진할 때 군사교리 혁신이 통상 발생하였다는 포젠의 이론이 이라크 전쟁 동안 발생한 미군의 군사혁신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가 한국의 군사혁신에 있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차원의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에서 군사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군사적 지식이 축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군사혁신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군이 현재 중시하는 임무와 과업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학문적·군사적 지식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군이 중시하는 임무와 과업의 우선순위는 군의 문화와 전통, 현재의 위협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학문적·군사적 지식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일부 영역으로 제한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너무 강하면 핵심 임무영역 밖의 학문적·군사적 지식의 축적이 제도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이라크 전쟁 중 발생한 군사혁신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코인 커뮤니티의 일원들은 군 외부 대학에서의 전문학위 취득을 통해 대반란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군외 위탁교육을 활성화한 미군의 교육정책 때문이었다. 군이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군사적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군사혁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이라크의 사례는 군사혁신이 때로는 적절한 문민통제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전쟁에 있어 군은 국가정책 이행의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나, 때때로 군이 국가가 당면한 전략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정책의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문민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해법을 찾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문민통제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수단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안보의 달성이다. 군사적 수단의 효율적 활용은 문민 지도부와 군 간의 건설적 상호작용과 문민통제에 의해 가능해진다. 문민 지도부는 군이 갖는 자율성의 범위와 개입의 정도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군사혁신 잠재력을 가진 영역에 대한 과감한 재원투자와 인적 자원의 육성 및 진급 등 군사혁신의 제도적 확장에는 문민 지도부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물론, 군 지도부 또한 이러한 영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향후 북한 불안정사태가 실제 발생했을 경우 한국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시사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양상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여전히 북한의 정규전, 비대칭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두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급변사태의 위험성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잠잠해졌던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군사교리는 국가의 대전략상 정치적 목표와 통합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안보이익을 해칠 수 있다. 또한 군사교리는 정치적 상황, 적의 능력 그리고 가용한 군사기술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도 국가의

안보이익을 해할 수 있다.⁶⁰⁾

만약 북한 급변사태 등으로 인해 외부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때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군의 중심 교리가 기존의 정규전 중심에서 대반란전 및 안정화작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경우 한국군은 많은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한국군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여 효과적인 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교리 및 훈련 개선 등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나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전환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교리의 변화는 생각과 습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 불안정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군이 많은 계획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계획이 실제 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라크 전쟁의 사례는 변화된 전략상황 대처를 위한 군사혁신의 발전 및 이행이 얼마나 지난한 과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 불안정사태 발생 시 한국군의 교리와 행동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탐색 및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더 정교한 경험적 연구를 위해 본 연구가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혁신의 연구에 있어 여전히 남아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점 또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⁶¹⁾ 첫째, 군사혁신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군사혁신 연구자들은 군사혁신을 다른 유사한 개념(예, RMA 또는 군사변혁)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군사혁신의 영역 또는 범위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예, 군사기획, 군사교리, 신무기의 도입 등), 군사혁신이 발생했는지를 경험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분석기준이 무엇인가 등의

60) Barry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15.

61)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함으로써 군사혁신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007년 이후 반군의 공격 횟수 및 민간인 전사상자 감소가 군사교리 혁신의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다 더 엄밀한 분석을 통해 이 주장의 타당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군사교리의 혁신이 2007년 이후 반군의 공격 횟수 및 민간인 전사상자 감소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라크 국회의 활동 증대 등 정치적 상황의 안정이 이들 지표의 변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군사교리의 혁신에 의한 영향과 다른 정치적·사회적 변수에 의한 영향을 분리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군사교리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결과를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 이라크 전쟁, 군사혁신, 대반란전, 안정화작전, 문민통제, 사례연구, 과정 추적 기법, 사례 내 분석 기법

<ABSTRACT>

Military Innovation During the Iraq War
 - An analysis on the Validity of Internal and
 External Military Innovation Theories -

Lee, Byeong-gu

The U.S. invaded Iraq in March 2003 out of the concerns for the possibility that it might deliver the WMDs to Al-Qaeda, a terrorist group responsible for 9/11 attacks. The U.S. forces employing a conventional military doctrine soon had to face serious strategic and operational challenges as the insurgent activities grew in Iraq. The lack of knowledge and preparation for counterinsurgency and stability operations was the main cause of the problems.

The situation began to improve since the mid 2007 and finally the U.S. was able to declare the official end of the Iraq War in December 2011, which had defined the last ten years since 9/11. This strategic outcome was the result of a military innovation which involved conceptual sophistication and institutional expansion of the doctrine of counterinsurgency and stability oper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validity of internal or external military innovation theories with the case of the doctrinal innovation during the Iraq War.

The result of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external model for military innovation, rather than internal model, can better explain the process of military innovation in counterinsurgency occurred during the Iraq War. It shows that the military innovation during the Iraq was made possible because outside civilian leaders drove doctrinal overhaul by supporting the so-called mavericks that had innovation ideas and insights on counterinsurgency.

The suggestions this study makes are three-fold. First,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a military innovation requires an accumulation of academic and military knowledge on potential areas of innovation. Second, The Iraq case indicates that military innovations could be realized by adequate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The civilian leadership needs to adjust with flexibility the scope and depth of intervention to military affairs so that the military functions effectively. Thi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could be many institutional hurdles to an effective response of the South Korea military when it comes to the instability in North Korea. It also necessitates continuous searches for policy options to facilitate doctrinal and behavioral changes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to deal with possible political instability and turmoil in North Korea.



Key Words : Iraq War, Military Innovation, Counterinsurgency, Stability Operations,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Case Study, Process Tracing, Within-case analysis

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정훈교육교재』 연구편찬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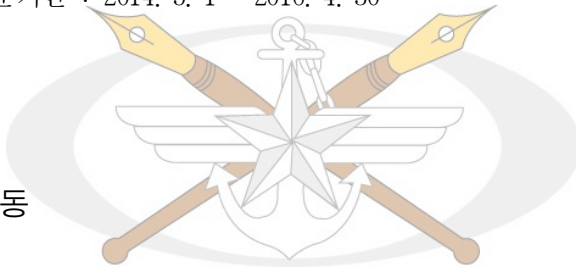
- 일시 : 2014. 3. 26(수) 10:00~13:30
- 장소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전쟁기념관 453호실)
- 인원 : 25명(군사사부 연구원, 감수위원, 국방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 토의주제 : 정훈교육교재 장절 편성 내용 토의

○ 전적지 답사

- 일자 : 2014. 3. 27(목) 10:00~17:00
- 장소 : 성남 남한산성
- 탐방코스 : 남한산성역사관 - 현절사 - 별봉 - 망월사 - 지수당 -
남문 - 남장대터 - 동문 - 지수당 - 개원사

○ 2014년 자문위원 위촉행사

- 일시 : 2014. 5. 13(화) 10:00~11:30
- 장소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전쟁기념관 453호실)
- 자문위원 : 8명(김용달 국민대 교수, 이근욱 서강대 교수,
이수훈 경남대 교수,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용욱 서울대 교수, 한명기 명지대 교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홍성표 아주대 교수)
- 자문기간 : 2014. 5. 1~ 2016. 4. 30



2. 인사이동

○ 연구소 직원 신규 임용

- 연구관리담당관 권태형 : 기획운영실(2014. 4. 1)

자료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군사제도·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82(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한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E-mail로 전송하여야 함.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MS워드 사용 가능
(군사지 편집위원회 E-mail : imhc2@mnd.go.kr)

나. 전송시 인적사항, 연락처, 논문 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10단어(국문·영문) 등이 명기된 '투고신청서'와 '저작물이용허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영문초록은 250~300단어 내외로 작성.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원고료, 심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14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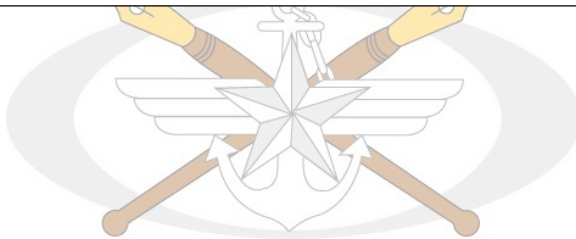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한환구)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
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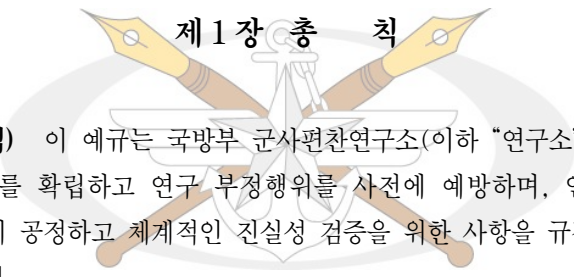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

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5 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6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중수(군산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김태국(연변대학교)
남정옥(군사편찬연구소)	박영준(국방대학교)
서상문(군사편찬연구소)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오영섭(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명환(前공군사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재범(경기대학교)	진석용(대전대학교)

📖 편집간사

한환구(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4/6(第91號)

2014년 6월 10일 印刷

2014년 6월 16일 發行

發行處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發行人 李 陽 九

印刷處  14068490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